본 간행물은 지식경제부가 후원합니다

ISSN 1738-8198

계간 지역경제
Regional Economic Trends

2011. 12
제7권 제4호(통권 제26호)

• 주요 이슈
지방재정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지역경제분석
지역발전거점으로서의 혁신도시의 발전방향

• 지역경제동향
2011년 3/4분기 중 지역경제동향
서울·인천·경기·강원·대전·충북·충남·광주·전남·전북·부산·울산·대구·경북·경남·제주

• 지역혁신동향
경남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 추진 성과

• 지역경제통계
주요 동향지표

KIET 산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계간

지역경제

Regional Economic Trends

2011. 12
제7권 제4호(통권 제26호)

KIET 산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계간 # 지역경제

Regional Economic Trends

차 례

주요 이슈

· 지방재정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완규 …… 6

지역경제분석

· 지역발전거점으로서의 혁신도시의 발전방향 | 송우경 …… 24

지역경제동향

· 2011년 3/4분기 중 지역경제동향 | 박형진 ……38

· 서울지역 경제동향 ……45

· 인천지역 경제동향 ……51

· 경기지역 경제동향 ……59

· 강원지역 경제동향 ……67

· 대전지역 경제동향 ……75

· 충북지역 경제동향 ……85

· 충남지역 경제동향 ……99

2011. 12 / 제7권 제4호(통권 제26호)

· 광주·전남지역 경제동향 …… 109
· 전북지역 경제동향 …… 119
· 부산지역 경제동향 …… 128
· 울산지역 경제동향 …… 138
· 대구·경북지역 경제동향 …… 146
· 경남지역 경제동향 …… 155
· 제주지역 경제동향 …… 165

지역혁신동향

· 경남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 추진 성과 | 이정환 …… 174

지역경제통계

· 주요 동향지표 …… 190

주요 이슈

· 지방재정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 완 규

지방재정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 완 규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Ⅰ. 서론

지방자치가 원활히 시행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다양한 기능이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 굳이 비유하자면 재정은 인체에서의 혈관 및 그 내부를 흐르는 혈액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사람도 혈관이 튼튼하고 혈액에 불순물이 없이 깨끗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듯이 지방재정 운영도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해야 성공적인 지방자치가 달성될 수 있다.

세계적인 분권화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의 행정 및 재정 분권화가 활발히 추진되어 왔다. 분권화가 모든 면에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점에서 관련 분야 학자들도 대부분 인식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정분권화는 여러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지만 재정규모면에서는 국가의 전체 재원 중에서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정부의 몫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밖에 없고 원론적으로 보면 1원의 한계생산성이 큰 부문으로 재원을 더 배분하여 궁극적으로 양 부문의 1원의 한계생산성이 동일하게 될 때까지 배분을 조정하게 되면 국가 재원 지출에 따른 총생산이 극대화된다고 할 수 있다.[1] 재정분권화에 따라 이전에 비해 더 많은 재원이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것이 이론적으로 합리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지방정부에서 지출되는 1원의 한계생산성이 중앙정부가 지출하는 1원의 한계생산성보다 높아야만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인식할 때 재정분권화 추진과 관련하여 총생산을 극대화하지는 못하더라도 차선의 방안은 지방정부지출의 한계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이는 지방정부지출의 효율성 증대로 달성될 수 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예산이 국민소득이나 국민총생산을 형성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투입된다는 가정을 전제할 때의 논리이다.

지방재정관리제도는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편의상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전관리제도와 예산집행 및 결산과 관련된 사후관리제도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에 속하는 것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주민참여예산제도, 재정투·융자심사제도,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도 등이 있고, 후자의 경우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지방교부세 감액제도, 지방재정공시제도,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등을 들 수 있다.[2)]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지방재정관리제도의 법적 근거 및 개요가 설명되고, 3절에서는 각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제시되며, 4절에서는 결론이 도출된다.

Ⅱ. 지방재정관리제도의 법적 근거와 개요

〈표 1〉에는 우리나라의 지방재정관리제도가 정리되어 있다. 각 제도들의 법적 근거 및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계획

〈표 1〉 우리나라의 지방재정관리제도

	지방재정관리제도		주요 내용
주민	주민참여예산(사전), 재정공시(사후)		주민통제 및 재정정보 공개
지방 및 중앙	사전적 관리 (지방: 자율적)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중앙정부 승인+지방의회 의결
		중기지방재정계획	집행부 수립(지방의회 보고)
		투·융자심사	일정규모 이상
	사후적 관리 (중앙: 감독)	지방재정분석·진단	재정운영 상황 분석 및 재정안정성이 낮은 단체 대상 재정진단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응
		지방교부세 감액제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한 제재

자료 : 이상용(2010)을 기초로 재작성

2) 지방재정관리제도를 정의하는 범위에 따라 이에 속하는 개별 제도들이 달라질 수 있다. 본고에서는 상대적으로 광의의 정의, 즉 주민,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가 관리 주체가 되는 제도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종합적인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에 대한 전망,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 등이다.

2.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제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근거하는데,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사는 자치단체별 자체심사와 시·도 또는 중앙정부의 의뢰심사로 분류된다. 전자의 경우 시·군·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신규사업 및 전액 시·군·자치구비로 추진하는 사업 중 20억원 이상 사업과 시·군·자치구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이 해당되며,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신규사업 및 전액 시·도비로 추진하는 사업 중 40억원 이상 사업과 시·도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이 해당된다. 후자의 경우 시·도심사는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시·군·자치구 신규사업 및 2개 이상 시·군·자치구와 관련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 그리고 시·군·자치구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으로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시·군·자치구의 본청 및 의회청사 신축사업이 해당된다. 중앙심사는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신규사업 및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행사성사업,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을 외국에 투자하는 모든 사업, 2개 이상의 시·도와 관련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으로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시·도의 본청 및 의회청사 신축사업 등이 해당된다.

3. 지방채 발행 총액승인제도

지방채 발행 총액승인제도는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

〈표 2〉 자치단체 유형구분 기준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유형구분 기 준	채무상환비 비율	7% 이하	7% 초과 ~12% 이하	12% 초과 ~17% 이하	17% 초과
	예산대비 채무비율	15% 이하	15% 초과 ~25% 이하	25% 초과 ~40% 이하	40% 초과

자료 : 행정안전부, 「2012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2011

를 발행할 수 있는데,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3]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채무상환비비율과 예산대비채무비율을 기준으로 자치단체의 채무상황을 판단하는데, 자치단체의 유형 구분 기준은 〈표 2〉와 같다.

총액한도는 위의 유형구분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차등 부여되는데, 총액한도액은 전년 대비 증가율 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한도액 비율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4.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은 통합재정, 채무비율, 지방세징수현황, 공기업부채 현황 등 자치단체 재정상황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을 통해 신속히 재정위기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채무관리(예산대비 채무비율, 채무상환비비율), 세입관리(지방세징수액 현황), 자금관리(금고잔액현황), 공기업(공

〈표 3〉 유형별 한도액 비율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한도액 (일반재원[1] 대비)	시·도	8% 이하	6% 이하	4% 이하	0
	시·군·구	5% 이하	4% 이하	3% 이하	0

자료 : 행정안전부, 「2012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2011
주 : 1) 일반재원 :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교부금

3)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대상에는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중 채무자의 파산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보증채무부담행위 책임액이 포함된다. 다만,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지방채무는 제외된다.

기업 부채비율, 개별공기업 부채비율) 등 5개 관점, 7개 지표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서 재정여건을 분석하여 자치단체별 정상, 주의, 심각 등 위험등급을 부여하고 심각단체(위기단체)를 지정하여 지방채 발행 제한,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 등 재정건전화 조치를 취하며, 해당 자치단체로 하여금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토록 한다. 계획 수립 및 이행 부진 시에는 법령위반 정도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액,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공모사업 등에 대해 관계기관 장에게 불이익을 부여하도록 요청한다. 악화된 지표의 개선 등 목표가 달성되는 경우 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 후 재정위기단체 지정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재정법 제65조의 2에는 재정위기단체의 지정기준이 규정되어 있는데, ①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② 지방채 발행액과 보증채무 부담 행위액 중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및 채무 부담 행위액의 총합계액이 해당 연도 최종예산의 40%를 초과하는 경우, ③ 해당 연도 기준으로 과거 4년과 미래 4년간 순지방비 채무 상환액의 평균이 같은 기간 일반재원 평균 수입액의 17%를 초과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미래 4년간의 일반재원 수입액은 직전 연도의 일반재원 규모에 과거 4년간의 일반재원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④ 분기별 지방세 누적 징수액이 음의 값인 경우, ⑤ 해당 연도 분기별 금고의 총 잔액이 최근 3년 해당 분기별 평균 금고 총 잔액의 10% 미만인 경우, ⑥ 지방공사의 부채가 순자산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5.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의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제57조, 동법 시행령 제6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고서 내용을 분석하여야 하고,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건전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으며,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결과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재정분석·진단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분석 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와 권고 및 지도사항의 이행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단체는 ① 세입예산 중 채무비율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거나 채무 잔액이 과다한 경우, ② 결산상 세입실적이 예산액보다 현저히 감소하였거나 다음 연도 수입을 앞당겨 충당·사용한 경우, ③ 인건비 등 경상비 성격의 예산비율이 높아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④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분석결과 재정의 건전성·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져 재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직개편, 채무상환, 세입의 증대 및 신규 사업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6.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3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하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① 주요 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② 주요 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③ 사업공모, ④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전통적으로 행정부가 독점해 왔던 예산편성의 기능과 권한을 주민과 더불어 나누는 새로운 협력적 예산운영시스템이다. 즉, 지방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에 이해관계자들이 논의하고 대화함으로써 조세부담에 대한 합의와 지역의 사업우선순위에 대한 결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도출하는 데 그 핵심이 있다.[4)]

7. 지방교부세감액제도

지방교부세감액제도의 내용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다음 각 호에 따라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금액의 범위가 정해진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않고 지방채 발행 등의 사업예산을 편성한 경우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않고 지방채 발행 등을 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②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4) 임성일(2011) p.10 참조.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않고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한 경우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않고 지출한 금액 이내, ③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예산을 편성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④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의 감사결과 등에 의해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또는 징수하지 못한 수입액 이내이다.

8. 지방재정공시제도

지방재정공시제도는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68조, 69조, 70조, 7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공시는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된다. 전자의 범위는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로서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채권관리 현황, 기금운용 현황,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통합재정정보 등이 포함되고, 재정운영에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된다. 후자의 경우는 당해 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것으로서 전년도 업무계획에 의거,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주민 관심도 제고, 공시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전체 주민에게 수혜가 있는 사업, 타 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고유사업으로 공시파급효과가 큰 사업 등이다.

Ⅲ. 지방재정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전 절에서 모두 여덟 가지의 지방재정관리제도가 제시되었으나 본 절에서는 이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제도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적으로 여타 재정관리제도와 연계가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 구속력이 약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사전에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응모하며, 이후 보조금사업으로 결정된 후에 투자심사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 즉, 현행 제도상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은 예산을 반영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국고보조사업에 신청한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고 나면 형식적으로 심사를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또한 해당 투자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현행 평가항목에 들어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투·융자심사과정을 통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심사 없이 시행한 사례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아 실효성이 거의 없다.

둘째, 심사과정 및 결과가 자의적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심사조서상 심사항목은 ① 국가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② 중장기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③ 소요자금 및 원리금 상환능력(국비 지원 가능성, 지방비 확보 가능성, 지방채의 적정성), ④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⑤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필요성 및 시급성, 파급효과), ⑥ 주민숙원·수혜도 및 사업요구도, ⑦ 사업규모, 사업비의 적정성, ⑧ 사업추진 준비상황(법적 절차이행사항 등), ⑨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⑩ 기타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⑪ 종합의견(적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일부 항목의 경우 B/C비율이나 IRR 등과 같이 수치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정성적 평가로 구성되어 있고, 최종 판정 역시 이러한 정성적 평가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주관적 가치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셋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투·융자심사 의뢰 전에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통상 해당 지역과 직·간접적으로 연고가 있는 기관 또는 업체가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다 보니 용역을 발주한 자치단체에 긍정적 조사 결과를 내놓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5] 결국 공정하고, 객관적인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행되어서는 안 될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어 막대한 혈세 낭비에 이르게 된다.

넷째,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을 개선할 여지가 존재한다. 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는 제한되어 있는 데[6] 반해 심사대상 분야는 실로 다양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 확보가 쉽지 않고, 이에 따라 심사의 전문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시·도 및 일반시의 경우 위원 중 공무원은 1/3까지, 군·자치구의 경우 공무원은 1/2까지 차지하고 있어, 이들이 심사에 적극 나설 경우 결국 사업에 대해 우호적인 최종 판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

5) 일례로 용인 경전철은 계획단계에서 타당성 조사 결과 하루 14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개통을 앞두고 새로 조사해 보니 겨우 3만명에 머물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6)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가능성을 실제 통계를 가지고 확인해 보기로 한다.

〈표 4〉에서는 2009년 기준 전국의 투·융자 심사 결과를 광역시·도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총 4,997건(금액기준 530,202억원)이었는데, 이 중 3,088건(61.8%)이 적정, 조건부 추진 1,723건(34.5%), 재검토 170건(3.4 %), 부적정 16건(0.3%)이었다. 이 표에 의하면 적정 및 조건부 추진 합계의 비중 전국 평균은 96.3%로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서울(87.4%)과 울산(89.2%) 등 두 곳만 90% 미만의 비율을 유지하고 나머지 지역들은 모두 90%를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광주(100%), 경북(98.9%), 경남(98.3%), 대구(98.0%)의 적정 또는 조건부 추진 판정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7]

〈표 5〉는 〈표 4〉를 심사기관별로 재정리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적정판정은 건수기준으로 중앙의뢰심사 33.6%, 시·도 자체 37.5%, 시·도 의뢰 33.6%, 시·군·구 자체 73.6%로 나타났다. 이는 자체심사의 적정판정비율이 의뢰심사에 비해 높지만, 그 정도는 시·군·구 자체심사가 훨씬 심하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한편 시·군·구 자체심사의 적정판정비율이 건수기준으로 73.6%임에 반해 시·도 자체심사의 적정판정비율은 37.5%로 전자가 후자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높았다. 따라서 2009년 심사결과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일수록 그리고 자체심사일수록 적정판정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제시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타 재정관리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우선 투·융자심사시 해당 사업을 포함한 자세한 지방채무 상황을 제시하여 판단에 참고하도록 한다. 즉, 지방채의 절대적 규모나 상대적 비중이 동종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은 의뢰심사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정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인 데도 불구하고 심사 없이 시행한 사례에 대해서는 기존 교부세감액제도를 통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정도의 감액 조치를 하는 등 그 제재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심사결과 조건부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시행한 경우에도 역시 패널티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투·융자심사항목 및 심사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심사항목은 주관적 또는 정성적인 판단을 요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항목은 정량평가로 전환하고, 정성적 평가항목의 경우도 이를 점수화하

7) 최근의 자료(조선일보, 2011. 11. 16)에 의하면 서울시의 경우 2010년 168건의 사업 심사에서 128건(76.2%)이, 2011년 185건에 대해 147건(80.3%)이 '적정' 또는 '조건부 추진' 판정을 받았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된 전체 353건(총사업비 15조 2,775억원)에 대한 심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사업은 9건(2.5%, 7,040억원)이었다.

〈표 4〉 광역시·도별 투·융자심사 결과(2009년도)

단위 : 건, 억원, %

	계		적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서울	445	222,856	202	22,405	187	97,693	47	101,583	9	1,175
	100%	100%	45.4%	10.1%	42.0%	43.8%	10.6%	45.6%	2.0%	0.5%
부산	173	10,106	87	2,695	79	7,053	7	358	0	0
	100%	100%	50.3%	26.7%	45.7%	69.8%	4.0%	3.5%	0.0%	0.0%
인천	224	24,623	105	7,456	109	15,334	10	1,833	0	0
	100%	100%	46.9%	30.3%	48.7%	62.3%	4.5%	7.4%	0.0%	0.0%
광주	19	1,510	7	301	12	1,209	0	0	0	0
	100%	100%	36.8%	19.9%	63.2%	80.1%	0.0%	0.0%	0.0%	0.0%
울산	129	10,053	82	4,339	33	3,420	13	2,199	1	95
	100%	100%	63.6%	43.2%	25.6%	34.0%	10.1%	21.9%	0.8%	0.9%
대전	84	6,369	68	4,970	14	1,271	2	128	0	0
	100%	100%	81.0%	78.0%	16.7%	20.0%	2.4%	2.0%	0.0%	0.0%
대구	151	9,794	85	3,824	63	5,790	3	180	0	0
	100%	100%	56.3%	39.0%	41.7%	59.1%	2.0%	1.8%	0.0%	0.0%
경기	831	68,860	518	34,892	293	30,198	20	3,770	0	0
	100%	100%	62.3%	50.7%	35.3%	43.9%	2.4%	5.5%	0.0%	0.0%
강원	365	24,492	162	8,666	190	14,539	11	1,248	2	39
	100%	100%	44.4%	35.4%	52.1%	59.4%	3.0%	5.1%	0.5%	0.2%
충북	283	14,762	155	6,309	121	8,134	5	281	2	37
	100%	100%	54.8%	42.7%	42.8%	55.1%	1.8%	1.9%	0.7%	0.3%
충남	246	18,062	199	12,738	40	4,793	7	531	0	0
	100%	100%	80.9%	70.5%	16.3%	26.5%	2.8%	2.9%	0.0%	0.0%
전북	406	22,689	348	18,085	47	3,975	10	615	1	14
	100%	100%	85.7%	79.7%	11.6%	17.5%	2.5%	2.7%	0.2%	0.1%
전남	522	31,956	386	19,297	117	10,916	18	1,730	1	13
	100%	100%	73.9%	60.4%	22.4%	34.2%	3.4%	5.4%	0.2%	0.0%
경북	394	24,920	230	12,849	160	11,787	4	284	0	0
	100%	100%	58.4%	51.6%	40.6%	47.3%	1.0%	1.1%	0.0%	0.0%
경남	666	35,532	399	17,734	256	16,493	11	1,305	0	0
	100%	100%	59.9%	49.9%	38.4%	46.4%	1.7%	3.7%	0.0%	0.0%
제주	59	3,617	55	3,454	2	93	2	70	0	0
	100%	100%	93.2%	95.5%	3.4%	2.6%	3.4%	1.9%	0.0%	0.0%
합계	4,997	530,202	3,088	180,014	1,723	232,699	170	116,115	16	1,373
	100%	100%	61.8%	34.0%	34.5%	43.9%	3.45	21.9%	0.3%	0.3%

자료 : 행정안전부 내부자료(2010)

〈표 5〉 심사기관별 투·융자 심사 결과

단위 : 건, 억원, %

	계		적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중앙 의뢰	265	307,764	89	79,721	136	186,483	39	40,922	1	638
비율	100%	100%	33.6%	25.9%	51.3%	60.6%	14.7%	13.3%	0.4%	0.2%
시·도 자체	533	254,105	200	37,282	283	113,702	48	102,347	2	774
비율	100%	100%	37.5%	14.7%	53.1%	44.7%	9.0%	40.3%	0.4%	0.3%
시·도 의뢰	993	127,282	334	39,339	594	79,241	64	8,437	1	266
비율	100%	100%	33.6%	30.9%	59.8%	62.3%	6.4%	6.6%	0.1%	0.2%
시군구 자체	3,471	148,814	2,554	103,394	846	39,756	58	5,331	13	333
비율	100%	100%	73.6%	69.5%	24.4%	26.7%	1.7%	3.6%	0.4%	0.2%
계	4,997	530,202	3,088	180,014	1,723	232,699	170	116,115	16	1,373
비율	100%	100%	61.8%	34.0%	34.5%	43.9%	3.4%	21.9%	0.3%	0.3%

자료 : 행정안전부 내부자료(2010)

는 것으로 변경하여 종합점수로써 최종 판정을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심사항목별로 세분화된 정량적 체크리스트를 만들 필요가 있다.

셋째, 공정하고 객관적인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사기관을 임의로 선정하여 용역의 형태로 수행하는 방식은 최대한 지양하고, 정부는 타당성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등록하게 하고 자격유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조사기관으로 지정하면 이 가운데 자치단체가 선정하여 타당성조사를 수행토록 하며, 만일 타당성조사 결과와 실제 사업 수행 결과가 일정 부분 이상 괴리가 존재할 때에는[8] 차후 타당성조사를 제한하든지 심지어 조사자격을 박탈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객관적이고 엄밀한 조사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

넷째,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관련전문가를 초빙하여 운영하고, 투자분야별 재무분석가, 기술심사자, 통계분석자 등을 포함시켜 심사의 전문성과 질을 제고해야 한다.[9] 만일 인원수의 제약으로 인해 다양한 전문가의 영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투자심사위원회 산하에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두어 여기서 심사위원들에게 전문적

8) 예를 들어 실제보다 10% 이상 수요를 과다 예측하는 경우나 비용을 10% 이상 과소 계상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9) 이효(1996) 참조.

자문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투·융자심사업무를 민영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투·융자심사의 객관성과 심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보유한 민간조직에 투·융자심사를 의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특정분야 또는 특정 심사단계를 선별하여 민간에게 맡기는 방안이다.

2.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이 제도의 경우 2011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아직 자치단체 위험등급 심의 및 재정위기단체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도 운영상 구체적 문제점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므로 제도의 발전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와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이 제도는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과거 1년간의 재정상황을 분석하여 발표하고, 그 가운데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하는 것이 핵심인데,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도 비슷한 과정으로 운영되어 현재로서는 분명한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는 가급적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면서,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현재와 미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수의 변수들을 선정하여 이상 징후 유무를 빠른 시일 내에 포착하여 조치하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둘째, 위험등급 심의에 따라 주의 또는 심각단체로 지정된 자치단체들의 경우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 신규 투·융자사업 제한, 지방채 발행 제한 등 각종 의무

〈표 6〉 프랑스 공공회계국의 재정상황 분석지표

	정 의	위험한도
자주재원충당률	(경상비용+부채상환)/경상수입	연속 2년 이상
경상비용경직도	(인건비+부채상환)/경상수입	~2,000명 미만: 0.37 ~5,000명 미만: 1.8 ~5,000명 이상: 1.6
재정잠재력	지방세수입/코뮌 평균수입	회계연도 중 1 이하
부채수준	부채잔고/경상수입	~2,000명 미만: 0.37 ~5,000명 미만: 1.8 ~5,000명 이상: 1.6

자료 : 서정섭(2010)에서 재인용

사항만 존재하고, 재정건전화계획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한 재정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다. 세입 측면에서의 세수 확충노력과 세출 측면에서의 지출 효율화 등 자구노력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 존재할 때 자치단체는 현재의 재정위기로부터 조기에 탈출하고자 하는 유인이 커지는 것이다.[10]

셋째, 현재 모니터링지표는 5개 관점, 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급 자치단체와의 비교 지표나 인구 등에 따른 기준의 차별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별·광역시와 도의 기능이 다르고, 시와 군, 자치구의 기능과 환경이 다른 것을 감안하여 기준의 차등화가 더 합리적일 수 있다. 참고로 프랑스의 재정상황 분석지표가 〈표 6〉에 정리되어 있다.

3.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이 제도는 1998년부터 운영되었으며 2005년도에 전면적인 구조 개편을 거친 후 매년 분석지표 및 분석방법을 수정·보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첫째, 10년이 넘는 제도 운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타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치단체의 인식이 미약하고 결과에 대한 수용도도 낮아 이 제도를 통해 자치단체들이 스스로 지방재정운용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 또한 그다지 강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둘째, 분석결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임의적 성격이라 그 규모도 미미하면서 계속 줄어드는 등 불규칙하여 인센티브로서의 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다.[11]

셋째, 재정운영이 부진한 단체에 대한 제재조치가 재정진단을 실시하여 재정건전화계획을 권고하는 수준으로 그 이행 여부에 대한 조치가 미약하다.

이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보완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외부 여건이나 내재적인 한계로 인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개선이 안 되는 지표들과 노력 여하에 따라 개선될 수 있는 지표를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에 노력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적 추세를 반영한 미래지향적 지표를 개발하여 자치단체들이 이 지표를 통해 심각성을 인식하여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 제도, 법규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재정분석 결과 우수단체에

10) 조기현(2010)은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채무상환 용도에 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11) 예를 들어 2000년에 특별교부세 22억원, 2001년 10억원, 2002년 5억원, 2003년과 2004년에 0원 등 연도별로 불규칙하고 규모도 미미하였다. 최근의 상황도 대동소이하다.

대한 인센티브 재원은 특별교부세 재해대책수요 재원 중 잉여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데, 각주 11에 나와 있듯이 연도별로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적은 액수가 배분되어 인센티브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재해대책수요의 1~2%로 법정화하면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2011년도의 특별교부세 규모는 1조 740억원이고, 재해대책수요는 특별교부세의 50%이므로 재해대책수요의 1%를 인센티브 재원으로 하는 경우 약 54억원, 2%로 하는 경우에는 108억원이 확보된다.

셋째, 재정진단 결과 건전성·효율성이 떨어지는 자치단체에 대해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강제규정이 아니다. 또한 설령 건전화계획 수립 후 이행을 부실하게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해당 자치단체에 대해 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공개 및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동시에 자구노력을 열심히 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및 제도적 규제를 완화하여 하루속히 나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4. 주민참여예산제도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본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① 주민 대표성과 주민의 의견 및 수요 대표성 확보 가능성, ② 주민 의견의 합리성, ③ 주민의 의사결정 영향력의 책임성 담보 등이다. 만일 이러한 전제조건들이 제대로 충족되지 못한다면 이 제도는 도입 취지와 목표를 실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도의 실시에 따른 사회적 혜택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크게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전국의 거의 모든 자치단체들에서 주민의 참여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원인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식 부족 내지 소극적 접근, 주민의견의 수렴·반영절차의 정교성 미흡, 주민의식 및 주민의 참여유인 부족, 주민·시민단체의 전문성 결여 등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12] 주민참여예산의 기본주체이자 핵심이 되는 주민의 참여와 관심이 저조하다면 자칫 소수의 특정 이익집단에 휘둘릴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국내외 모범사례나 이 제도의 개선점에 대해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를 통해 예산낭비를 예방하며, 효율적 운영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주민

12) 임성일(2011) 참조.

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이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주민들의 건전한 의견을 수렴하며, 행·재정 및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Ⅳ. 결론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주민참여예산제도, 재정투·융자심사제도,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등 사전관리제도와,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지방교부세감액제도, 지방재정공시제도,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등 사후관리제도가 존재하고 있으나, 용인 경전철, 태백 오투리조트, 월미은하레일 등 부실사업들이 그칠 줄 모르고 발생하여 왔다는 사실은 이들 제도들이 그 기능이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 재정관리제도의 법적 근거 및 개요를 설명하고, 이 가운데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4개 제도에 대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용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은 특정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과연 그 사업이 주민들을 더 행복하고 편리하게 하는지, 그로 인해 주민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지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쓸 수 있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 재원이 모두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직시한다면 사적인 이해관계 등 사심이 개입된 사업은 차마 시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본고에서 다룬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용도는 자연히 없어지게 되고, 자율에 의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기존의 재정관리제도는 제 기능을 좀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보완되어야 한다. KIET

참 고 문 헌

- 김종순(2002),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개혁성과와 발전방향”, 「지방재정」, 제6호(통권 119호).
- 서정섭(2010),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의 현황과 한계”, 「지방재정과 지방세」, 제10호(통권 34호).
- 이삼주(2010), “지방재정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 「지방재정과 지방세」, 제8호(통권 32호).
- 이상용(2010),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방안”, 「지방재정과 지방세」, 제12호(통권 36호).
- 이효(1996),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제도의 강화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임성일(201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와 성공적 실시방안”, 「지방재정과 지방세」, 제8호(통권 44호).
- 조기현(2010),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채무 관리제도의 발전방안”, 「지방재정과 지방세」. 제6호(통권 30호).
- 행정안전부(2011), 「2012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지역경제 분석

· 지역발전거점으로서의 혁신도시의 발전방향 | 송 우 경

지역발전거점으로서의 혁신도시의 발전방향

송 우 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Ⅰ. 혁신도시와 관련한 여건 변화

□ 지역발전정책의 기조 변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계획을 시작한 참여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격차 심화, 요소투입형 발전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 시·군·구를 공간단위로 하는 다극 분산형 발전전략, 혁신주도형 발전전략, 자립형 지방화 전략을 추진하였다.[1] 그러나 이러한 균형발전정책이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판단하에 이명박정부는 광역화, 특성화, 상생발전, 분권화를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전략으로 제시하고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은 광역경제권 정책으로 기존 16개 시·도를 5+2 광역경제권으로 개편하여 지역간 연계·협력과 광역권별 비교우위를 살린 차별화된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2] 참여정부에서는 시·도를 공간단위로 혁신도시의 입지를 결정하였지만 현 정부에서는 광역경제권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이제는 혁신도시를 광역경제권이란 보다 큰 틀 속에서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지역산업정책의 변화

참여정부 시기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의 입지선정 과정에서 중요하

〈그림 1〉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행정구역 단위 투자	⇨	광역화(규모의 경제)
모방적·획일적 개발		특성화(선택과 집중)
중앙정부 주도		분권화(지자체 중심)
지역간 소모적 대립·갈등		상생발전(연계·협의)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를 보면,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이전대상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2) 5+2 광역경제권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대경권(대구, 경북),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의 5개 광역경제권과 인구 200만명 이하인 강원권, 제주권의 2개 특별광역경제권으로 구성된다.

게 고려된 요소는 시·도 전략산업과의 연관성이었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시·도 전략산업(2004년 선정)과의 긴밀한 연계를 토대로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혁신도시의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산업정책에 변화가 있었는데, 기존 시·도 전략산업과 함께 광역경제권 단위에서 선도산업 1단계 육성사업이 2009년부터 3년간 추진되었다. 2012년 상반기에

〈표 1〉 지역별 지역산업의 변화

권역	시도 전략산업 (2004.8 선정, 2012년 상반기 종료)		광역권 1단계 선도산업 (2009.2 선정, 2012년 상반기 종료)	광역권 2단계 선도산업 (2012.1 선정)
충청권	대전	정보통신, 바이오 첨단부품/소재, 메카트로닉스	· 의약바이오 · New IT	· 의약바이오 · 차세대에너지 · New IT · 융합기계부품
	충남	전자정보기기, 자동차부품 첨단문화, 농/축산바이오		
	충북	바이오, 반도체 이동통신, 차세대전자		
호남권	광주	광산업, 정보가전 자동차부품, 디자인문화	· 신재생에너지 · 친환경부품소재	· 신재생에너지 · 라이프케어 · 광융복합 · 친환경 수송기계
	전남	생물, 신소재/조선 물류, 문화관광		
	전북	자동차기계, 생물 대체에너지, 문화관광		
대경권	대구	메카트로닉스, 전자정보기기 섬유, 생물	· IT융복합 · 그린에너지	· 그린에너지 · IT융복합 · 스마트기기 부품 · 첨단융합소재
	경북	전자정보기기, 신소재부품 생물한방, 문화관광		
동남권	부산	항만물류, 기계부품 관광컨벤션, 영상IT	· 수송기계 · 융합부품소재	· 에너지플랜트 · 그린화학소재 · 수송기계 · 조선해양
	울산	자동차, 조선해양 정밀화학, 환경		
	경남	지식기반기계, 로봇 지능형홈, 바이오		
강원권	강원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방재, 관광문화	· 의료융합 · 의료관광	· 기능성 신소재 · 바이오메디칼 · 헬스케어
제주권	제주	관광, 건강뷰티생물 친환경농업, 디지털콘텐츠	· 물산업 · 관광레저	· 풍력서비스 · 차세대식품융합 · MICE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1단계 육성사업과 시·도 전략산업 육성사업이 모두 종료됨에 따라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큰 틀이 새롭게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시·도 전략산업, 시·군의 특화산업 3층 구조가 광역경제권 2단계 선도산업과 시·도의 (가칭)신지역특화산업 2층 구조로 개편될 예정이다. 이러한 지역산업정책의 변화는 혁신도시의 핵심인 산학연 클러스터의 구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지역산업정책의 변화와 연계한 혁신도시의 발전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 이전기관 통폐합 및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완료

현 정부는 2008년 3차에 걸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지방으로 이전 예정이었던 159개 공공기관을 통폐합하여 147개로 조정하였다. 2007년 12월 1차로 28개 공공기관에 대해 지방이전계획을 승인한 이후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2011년 말 113개 이전기관에 대한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완료하였다. 전국 10곳의 혁신도시에서는 부지조성과 도로·상수도 등 기반시설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2012년부터 선도 이전기관의 청사 준공 및 기관이전 준비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다.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하드웨어적 공사가 마무리되고 이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작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산업을 중심으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등 소프트웨어적 사업을 검토·기획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계획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이전과 연계하여 산학연 기반조성단계(2007~2012)와 본격적인 산학연 구축단계(2013~2017)로 구분하고 있다.[3] 따라서 앞으로는 혁신도시의 건설과 관련된 하드웨어적 사업을 착실히 진행하면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등 혁신여건 조성을 위한 소프트웨어사업을 기획·추진해야 할 것이다.

□ 녹색기술과 KTX 교통망 확충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기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이전청사와 혁신도시를 저탄소 녹색건물과 녹색도시로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참여정부의 혁신도시 건설계획에는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저밀도 전원도시의 요소가 포함되는 정도였으나, 현 정부 들어서서 녹색성장 패러다임이 확산되면서 관련 지자체들이 혁신도시를 신재생에너지 기반 저탄소 녹색도시로 구현하려는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혁신도시의 발전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고려할 여건변화로 KTX 고속철도망의 확충을 들 수 있다. KTX 고속철도망의 확충으로 전국 10개의 혁신도시 중 음성·진천, 서귀포를 제외한 8개 혁신도시는 인근에

3) 건설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 2007

KTX 역사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혁신도시는 인적·물적·정보교류 등 발전거점으로서 중심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혁신도시의 발전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녹색성장 패러다임, KTX 교통망의 확충 등과 같은 새로운 여건변화도 적극적으로 검토·활용할 필요가 있다.

Ⅱ.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추진현황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계획은 참여정부에서 이명박정부로 정권의 변화, 공기업선진화 등 여러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승인, 혁신도시 토지보상 및 부지조성 등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의 건설계획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방안' 발표(2003년 11월, 참여정부 제30회 국정과제회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을 통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법적 근거 마련(2004년 4월), 정부와 시·도 간 기본협약 체결(2005년 5월)과 노정 기본협약 체결(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및 발표(2005년 6월)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4] 2011년 12월 말 기준으로 지방(세종시, 혁신도시, 개별입지)으로 이전하는 159개(공기업선진화 방안으로 통폐합 후 147개) 기관 모두에 대해 이전승인이 완료되었고, 청사를 신축해야 할 120개 이전기관 중 한국도로공사 등 102개 기관이 부지매입을 완료한 상태이다.

혁신도시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11월 말 기준으로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부지조성 공정률은 78.1%(이전기관 부지 95.5%) 수준으로 2012년에는 부지조성 공사가 마무리될 계획이다. 정부는 10개의 혁신도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총 7,501억원을 연차별로 투입하여 진입도로(혁신도시별 1개소)와 상수도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전기관의 종전 부동산 117개 부지 중 31개가 매각되었고 청사를 신축해야하는 120개 이전기관 중 63개 기관이 청사 착공에 들어갔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한편에서는 혁신도시가 지역의 발전거점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되어 왔다.[5]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서 혁신도시

4)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정과제 회의자료, 2008

5) 전국 10곳에 건설되는 혁신도시는 입지조건에 따라 광역시에 소재 또는 연접하고 있는 부산, 대구, 울산, 광주·나주와 중소도시에 소재 또는 연접하고 있는 전주·완주, 진주, 원주, 김천, 음성·진천, 서귀포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들 혁신도시는 대부분 고속도로, 국도, 철도, 항공 등 입지여건이 양호하고, 혁신도시들이 입지하는 자치단체들의 경우 국내 다른 자치단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

〈표 2〉 혁신도시별 이전공공기관 현황

지역	위치	이전 인원	기관수	이전기관	부지 조성(%)
부산	영도구 해운대구 남 구	2,909	12	국립해양조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 한국남부발전(주), 청소년상담원, 한국해양연구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99.4 (100)
대구	동 구	3,544	11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앙신체검사소, 한국감정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신용보증기금,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장학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73.9 (94.4)
광주 전남	나주시	6,643	15	한국전력공사, 한전KPS(주), 한국전파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전KDN(주), 전파연구소, 한국전력거래소, 농업연수원,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90.0 (95.3)
울산	중 구	2,970	9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동서발전(주), 노동부종합상담센터,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국립방재연구소,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84.4
강원	원주시	4,475	12	한국광물자원공사, 광해관리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한국관광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석탄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적십자사, 도로교통공단	65.5
충북	진천군 음성군	2,909	1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술표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과학기술기획평가원, 법무연수원, 중앙공무원교육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	55.1
전북	전주시 완주군	4,693	12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대한지적공사,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지방행정연수원, 국민연금공단	70.0
경북	김천시	5,061	12	한국도로공사, 기상통신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국립종자원, 조달청 품질관리단, 우정사업조달사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전력기술	91.7
경남	진주시	3,567	11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세라믹기술원, 주택관리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앙관세분석소,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저작권위원회	84.0
제주	서귀포	764	8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국세청 기술연구소, 국세공무원교육원, 국립기상연구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88.3

는 다극분산형 국토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공간정책의 일환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기업도시와 패키지 정책으로 단계별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되었다. 반면, 이

전 잠재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혁신도시가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근 지역과 다양한 연계협력을 통해 발전 잠재력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지역학회, 광역경제권 발전거점 조성과 혁신도시 연계방안, 2010

〈표 3〉 혁신도시 추진 현황

	발전비전	규 모			진행률(%)		
		면적 (만㎡)	인구 (천명)	사업비 (억원)	부지공사 (이전부지)	보상	분양
부산	21세기 동북아시대 해양수도	93.6	7	4,194	99.4 (100)	94.2	83.3
대구	Brain City(지식창조)	421.6	23	15,016	73.9 (94.4)	99.3	38.0
광주 전남	Agro-Energypia	732.7	50	14,175	90.0 (95.3)	99.7	58.3
울산	경관중심 에너지 폴리스	298.4	21	10,555	84.4 (96.1)	96.7	51.1
강원	Vitamin City	361.2	31	8,910	65.5 (89.6)	99.0	53.2
충북	교육 · 문화 이노벨리	692.5	42	9,969	55.1 (95.5)	99.5	38.1
전북	Agricon City	990.9	30	15,229	70.0 (97.4)	98.4	91.0
경북	경북 Inno-Valley	381.5	26	8,676	91.7 (95.4)	94.1	58.8
경남	경남 Inno-River City	407.8	38	10,577	84.0 (95.6)	99.4	50.9
제주	국제교류 · 연수 폴리스	115.1	5	2,939	88.3 (95.8)	99.9	44.0
계		4,499.3	273	100,340	78.1 (95.5)	98.6	61.6

명박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서는 혁신도시를 5+2 광역경제권의 구도 속에서 지역의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6] 이를 구체화할 실천적 전략과 계획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의 건설과정에서 저조한 인구유입, 높은 조성원가로 인한 기업유치의 제약, 인근 도시와의 연계발전 방안 미흡, 관련 주체 간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7] 혁신도시별로 2020년 목표인구를 2만~5만(가족동반이주를 전제)으로 설

6) 지역발전위원회, 제1차 지역발전정책 보고대회, 2008
7)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 혁신도시 추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9

〈표 4〉 혁신도시 입지 자치단체(시군) 잠재력 분석

혁신도시	인구	인적자본	산업 · 고용	기반시설	재정
경남 진주시	39	17	51	38	55
경북 김천시	76	53	73	65	97
전남 나주시	100	108	86	102	96
전북 전주시	18	10	38	19	44
충북 음성군	73	91	33	83	59
충북 진천군	64	76	13	72	36
제주 서귀포시	69	34	19	35	1

자료 : 한국지역학회, 광역경제권 발전거점 조성과 혁신도시 연계방안, 2010, p.29
주 : 155개 기초자치단체 중 순위

정하고 있지만 단신 이주의사가 절반 정도로 목표인구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혁신도시는 공원녹지율, 도로율 등이 높아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입지환경은 양호하지만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높아 기업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이는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혁신도시와 인근 지역·거점 간에 기능 분담 및 연계발전, 기존 도심의 공동화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의 건설·운영은 20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전기관, 사업시행자 등 관련주체 간에 역할과 책임 등이 단계별로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이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Ⅲ. 지역발전거점으로서의 혁신도시 육성 방향

전술한 최근의 여건변화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혁신도시가 광역경제권의 발전거점으로 활성화되기 위한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 로드맵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법법 제2조를 보면, 혁신도시는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 교육, 문화 등의 정주환경을 갖춘 미래형 도시로 정의하고 있어 혁신여

〈표 5〉 혁신도시의 성공에 필요한 요건

산학연관의 긴밀한 연계	33%	지역전략산업의 성장 · 발전 · 유지	25%
초·중·고 우수한 교육환경	13%	쾌적한 주거환경	13%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유치	4%	주변도시와의 첨단통신 인프라	4%
도시서비스 기능 확충	4%	관련 지자체의 협조	4%

자료 : 한국토지공사, 혁신도시 성공전략을 위한 전문가 조사결과, 2007

건과 정주환경의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혁신도시의 성공요건에 대한 전문가 조사결과를 보면, 전문가들은 산학연관의 긴밀한 연계, 지역산업의 성장·발전·유지를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혁신도시가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학연 클러스터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혁신환경의 조성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혁신도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일관성 있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여건 변화(광역경제권 도입,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이전기관의 변경, 지역산업의 변화 등)를 반영한 혁신도시 클러스터 중장기 로드맵의 수립이 필요하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30년을 목표로 혁신도시별 발전비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별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단계(2007~2012)에는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유치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유치활동 전개 등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의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2단계(2013~2017)에는 이전공공기관 및 유치대상인 기업, 대학과 지역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가동하고, 3단계(2018~2030)에서는 산학연 클러스터의 활성화를 통해 혁신의 성과를 창출하고 광역적으로 확산하는 데 초점을 두도록 한다.[8)]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기에 구축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각종 시책들과 혁신도시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산학연 클러스터의 구축과정에서 상호신뢰와 협력의 경험축적이 필요하므로 지식경제부, 교육과학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부처에서 추진하는 클러스터사업의 테스트 베드로 혁신도시를 우선 활용하는 방안이다. 특히, 2012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광역경제권 2단계 선도산업 지원사업, 시도의 (가칭)신지역특화산업, 산학

8)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농업진흥청은 농생명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기반조성단계(~2012, 품목별·지역별 클러스터), 발전단계(2013~2020, 상품화 및 전국적 클러스터), 완성단계(2021~2030, 해외수출 및 동북아 대표 클러스터)로 전략적 추진을 제시하고 있다.

협력선도대학(LINC사업, 50개 대학) 등과 연계하여 혁신도시별로 1~2개 광역적 클러스터 시범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면 클러스터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광역적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 발전거점 역량 강화

혁신도시의 자족성 확보와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광역경제권의 발전거점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근의 지역, 거점들과 기능특화를 전제로 다양한 연계·협력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된다.

혁신도시의 입지특성을 토대로 기존도시(대도시, 중소도시, 도심)뿐만 아니라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등과 연계협력을 토대로 광역권 내 발전거점으로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부산, 대구, 울산 혁신도시(대도시 입지형)는 자생적 발전역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도심재생(부산: 구도심 재생, 울산: 구도심 재생,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기존 개발계획과 혁신도시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자립적 발전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김천, 전주·완주, 원주, 진주, 서귀포 등 중소도시 입지형 혁신도시는 인근 도시와 기능특화 및 연계협력(김천: 구미산단과 연계, 전주·완주: 익산·군산·새만금과 연계, 원주: 기업도시와 연계, 진주: 사천항공산업단지와 연계, 서귀포: 관광·휴양단지와 연계)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면 부족한 발전역량의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중소도시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의 발전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한 대표적 해외 사례로 네덜란드의 란스타드 지역을 들 수 있는데, 이 지역은 암스테르담(금융기능), 로테르담(항만기능), 헤이그(국제정치기능), 유트레히트(R&D기능) 4개 도시가 기능특화와 연계를 통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광역경제권 내에서 혁신도시와 인근 지역, 거점들 간의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과 기초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광역권 연계협력사업의 대상에 R&D 사업 외에 혁신도시와 다른 지역, 거점들을 연계하는 사업을 포함시킨다면 해당 지역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기초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의 경우에도 중소도시 입지형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인근 시군과의 기능분담 및 연계협력의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하여 추진한다면 혁신도시의 발전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이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광역적 관점에서 혁신도시와 인근 발전거점과의 연계협력 사업을 반영한 광역경제권발전계획(2009~2013)의 수정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녹색기술, KTX망을 활용한 혁신도시의 발전잠재력 확충

최근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적극 반영하여 혁신도시를 저탄소 녹색도시의 모델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한 친환경건축 등 탄소·에너지 저감형 압축도시는 공공부문의 에너지 사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경남 진주혁신도시는 기존의 발전비전인 Inno-River City(기업지원 거점도시, 녹색친수도시)에 저탄소 녹색도시의 특성을 강조한 '신재생에너지 기반 그린 스마트시티'를 발표한 바(2011. 12. 16) 있는데, 기존 혁신도시의 개발계획틀을 유지하면서 에너지 자족형 도시, 에너지절전 스마트그리드 구축, 안전과 건강이 보장된 첨단도시(U-city), Eco 산업클러스터 조성전략을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저탄소 녹색도시로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전기관 및 종자사의 의견수렴, 신재생에너지 기반 관련 기술의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녹색성장의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KTX 교통망과 KTX 역세권을 잘 활용한다면 혁신도시의 중심성과 발전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 9월 KTX 고속철도망 추진전략을 통해 2020년까지 고속철도망을 전국적으로 확충하여 전국을 90분대 생활권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장기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전국 10곳에 건설되는 혁신도시 중 음성·진천과 서귀포를 제외한 8개 혁신도시는 KTX 노선과 연계되어 있어 교통망의 결절(node)로서 주요한 기능을 발휘할 것이다. 특히, 김천, 진주, 전주, 원주, 나주(광주) 등 지역중소도시의 혁신도시는 KTX 역세권 개발 및 KTX 역사를 중심으로 지역 내 대중교통환승체계를 구축한다면 광역경제권 내에서 발전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4. 혁신도시 건설·운영의 총괄적 추진체계 정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2012년부터 혁신도시의 건설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이전기관 종사자의 정주여건 조성, 종전 부동산의 활용,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기업·대학·연구소 유치 등 정주여건과 혁신환경을 조성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과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혁신도시를 건설·운영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 사업시행자 등 관련 주체들의 역할과 책임을 토대로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별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는 최근의 변화된 관련부처의 정부정책과 혁신도시의 연계성을 높이고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인센티브 등)에 초점을 둔다.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 및 지역소재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의 협력을 토대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및 인근 도시와의 광역적 연계협력을 위한 전략과 사업발굴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 건설의 객체가 아닌 주체라는 인식 속에 이전기관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새로운 기관발전의 도약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특히,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운영을 광역경제권 단위에서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학연 클러스터 로드맵을 수립하고 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관리하는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시·도 단위로 구성된 혁신도시관리위원회[9]를 중심으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10](사무국), 광역권 선도산업지원단, 광역권 인재양성센터(산학협력선도대학으로 변경) 등과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위원 구성에 이들 기관의 소속인사를 참여시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Ⅳ. 맺음말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계획이 이명박정부 후반기에 접어들어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이 완료되고 혁신도시의 부지조성공사와 함께 이전기관의 청사착공이 시작됨에 따라 혁신도시 건설이 본격화,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서 수립한 혁신도시 건설계획은 그동안 여건변화(광역경제권 도입, 녹색성장 패러다임, 지역산업정책변화, 이전공공기관의 통·폐합 등)를 반영하여 수정·보완되어야 당초 목표한 지역발전의 성장거점, 혁신거점으로 그 역할을 다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전술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계획을 둘러싼 환경변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의 추진현황과 제약요인, 그리고 혁신도시가 광역경제권 내에서 발전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발전방향을 살펴보았다. 혁신도시가 광역경제권이라는 새로운 틀 속에서 발전거점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 또는 거점들과의 연계협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광역적 연계협력이 활성화된다면 혁

9) 혁신도시관리위원회는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에 설치하는 기구로서 혁신도시의 기능 전문화·특성화, 산학연관 협동계획, 혁신도시 내 기업·대학·연구소 유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10)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광역경제권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7개 광역권별로 설치하는데, 광역권 발전계획, 광역권 내 시·도 간 협력사업의 발굴 및 재원분담, 광역권 사업의 관리·평가 등을 수행한다(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

신도시의 기본적 요건인 혁신환경 조성 및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이 기존 시·도의 공간단위에서보다도 훨씬 용이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등 하드웨어적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제는 혁신도시의 핵심적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권 내 연계협력 등 소프트웨어적 사업에 대한 전략과 실천계획들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KIET

참 고 문 헌

- 건설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2007.
- 경상남도·경남테크노파크, 신재생에너지기반 그린 스마트시티 조성(심포지엄 자료집), 2011.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정과제 회의자료, 2008.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정책 주요 일지, 2008.
- 국토연구원,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방향 심포지엄, 2006.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혁신도시 추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순회토론회), 지역발전위원회, 2009.
- 산업연구원,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역별 산업발전비전, 2005.
- 산업연구원,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혁신클러스터 구축과 전북발전 방안, 전라북도, 2008.
-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국정보고 자료집, 2010.
- 지역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법령집, 2009.
- 지역발전위원회, 지역과 발전(계간지), 가을호(Vol 5), 2011.
- 한국지역학회, 광역경제권의 발전거점 조성과 혁신도시 연계방안, 지역발전위원회, 2010.
- 이노시티(innocity) 홈페이지 : http://innocity.mltm.go.kr

지역경제동향

· 2011년 3/4분기 중 지역경제동향 | 박 형 진
· 서울지역 경제동향
· 인천지역 경제동향
· 경기지역 경제동향
· 강원지역 경제동향
· 대전지역 경제동향
· 충북지역 경제동향
· 충남지역 경제동향
· 광주·전남지역 경제동향
· 전북지역 경제동향
· 부산지역 경제동향
· 울산지역 경제동향
· 대구·경북지역 경제동향
· 경남지역 경제동향
· 제주지역 경제동향

2011년 3/4분기 중 지역경제동향

박 형 진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Ⅰ. 개관

전국 경제는 2011년 1/4분기에 4.2%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4분기에 이어 3/4분기에도 3.4%의 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민간소비 증가세는 대체로 유지되었다. 투자는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건설투자는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수출은 미국 및 EU 등 대선진국 수출 중심으로 증가세가 완만하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고용은 증가세를 유지하여 실업률의 하락세를 유지하였다. 소비자물가는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전반적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둔화되고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향후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도 고조되는 국면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2011년 3/4분기의 전국 산업생산지수(2005=100)는 146.1로 2/4분기의 151.2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임으로써 그동안 증가 일변도의 추세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년동기 대비 수출증가율도 21.7%로서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였으나 2010년 이후에 보여 왔던 20%대 후반에서 30%대의 높은 증가율에 비하면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고용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3/4분기의 실업률이 3.1%까지 낮아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물가는 상승세가 계속 높아져 최근 가장 큰 관심과 주목을 받아 왔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대응이 집중되는 계기가 되었다. 소비자물가지수를 예로 들면 과거 오랜 동안 2%대 초반에 머물러 있었으나 2010년부터 상승세를 보여 3%대의 상승률을 보였고 2011년에 들어와서는 4%대의 상승률을 계속 유지해 왔다. 2011년 3/4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4.8%의 상승률을 기록하여 이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었고 대책 마련 노력이 강화되었다.

지역별 동향을 보면 수출 증가율이 높은 지역에서 산업생산 등의 경제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수출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울산 및 강원 지역 등에서 산업생산지수 증가율도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산업생산은 울산, 경기 및 강원에서 높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서울, 경북 및 경남은 감소세를 보였다. 수출은 울산, 강원 및 전남에서 높

은 증가세를 기록한 반면, 제주, 경기 및 충남에서 감소세 또는 낮은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소비는 충남, 인천 및 전북 등에서 높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전남 및 강원에서 감소세 또는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Ⅱ. 경제부문별 동향

1. 산업생산

2011년 3/4분기의 전국 산업생산지수는 146.1로서 2/4분기의 151.2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5.1%를 기록하였다. 증가율 추세를 보면 2010년 1/4분기에 25.8%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임으로써 산업생산 증가가 둔화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2011년 3/4분기 산업생산 활동을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울산, 경기 및 강원이 각각 13.4%, 9.5% 및 6.6%로서 산업생산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진 반면, 서울, 경남 및 경북이 각각 -9.6%, -4.6% 및 -3.6%로서 산업생산이 전년 동기보다 위축되었음을 나타냈다.

2. 소비

2009년 말부터 상승국면을 보여 온 전국의 소비는 2010년 4/4분기에 정점에 도달한 이후 2011년에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를 보면 2010년 4/4분기에 129.5를 기록한 이후 점진적 감소세를 보여 2011년 3/4분기에는 123.5를 기록하였다.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도 2011년 3/4분기에 3.9%로서

〈표 1〉 지역별 산업생산지수

2005=100 기준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9	118.9	93.2	115.6	100.7	95.1	118	101.1	109.3	127.4	108.4	135.4	182.4	111.2	115.1	108	121.5	127.2
2010	138.7	96.6	125.3	122.8	110.4	146.9	117.6	116.2	158.7	118.5	154.7	220.7	134.1	120.1	111.7	143.4	118.9
2010 Ⅰ	129.3	95.9	117.3	115.6	101.5	118.5	107.9	108.1	144.7	103.0	138.9	206.0	121.9	114.8	114.1	127.3	127.4
Ⅱ	140.8	95.1	128.5	124.4	114.9	147.7	116.8	119.5	162.1	128.2	160.0	218.0	135.3	121.0	111.9	147.0	107.3
Ⅲ	139.5	92.0	123.4	117.1	106.7	149.4	117.9	113.6	162.9	116.0	158.3	224.1	135.1	121.6	107.9	145.9	100.6
Ⅳ	145.2	103.2	132.0	134.0	118.4	171.8	127.6	123.6	165.0	126.9	161.7	234.6	144.2	123.0	112.9	153.4	140.1
2011 Ⅰ	143.6	95.4	133.5	130.2	116.3	162.2	120.8	112.9	170.7	111.4	149.1	222.9	140.4	122.6	106.6	140.3	120.2
Ⅱ	151.2	84.7	129.6	130.0	123.5	165.5	116.6	126.2	178.7	129.6	169.9	242.9	141.2	123.8	111.2	153.9	111.5
Ⅲ	146.1	85.2	133.1	119.4	111.6	154.0	117.1	121.5	181.6	125.1	157.1	234.6	137.6	124.6	104.1	134.6	107.5

자료 : 통계청, 「광공업 동태조사」

〈표 2〉 지역별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 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9	0.1	1.0	4.8	-2.2	-2.8	2.3	-4.9	-2.4	-0.2	-3.3	-1.8	3.6	0.6	-2.0	-5.9	1.7	0.0
2010	6.5	6.9	11.3	5.1	5.1	5.8	9.6	5.2	5.2	17.5	11.0	4.6	3.7	2.2	4.3	4.1	2.3
2010 Ⅰ	6.9	5.7	14.7	7.1	5.4	8.0	7.9	4.3	6.6	18.9	14.1	7.9	4.9	5.2	3.2	2.5	4.8
Ⅱ	6.3	7.2	11.1	7.8	6.1	5.7	9.5	4.4	4.4	16.4	11.0	2.9	2.9	-0.4	3.9	4.3	-0.4
Ⅲ	7.7	6.7	13.3	6.3	6.7	7.7	11.4	8.2	5.8	22.3	16.2	5.8	8.4	6.2	9.9	7.9	5.2
Ⅳ	5.1	7.9	6.9	-0.1	2.4	2.1	9.4	4.0	4.3	12.7	3.3	2.4	-1.2	-2.2	0.5	2.1	-0.5
2011 Ⅰ	6.8	7.5	6.0	5.8	5.4	3.6	7.5	7.0	7.0	5.5	2.5	24.8	0.4	-1.1	3.5	7.3	4.8
Ⅱ	7.0	6.0	6.3	5.7	9.0	3.0	7.7	6.5	8.3	5.5	5.1	31.9	7.8	-0.8	3.3	4.7	11.6
Ⅲ	3.9	2.3	1.8	14.9	5.6	2.6	4.7	2.5	3.3	0.1	2.6	25.8	5.6	-2.3	0.9	3.9	4.0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 동태조사」

2009년 4/4분기 이후 유지해 온 6~7%의 증가율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지역별 비교를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충남이 25.8%로서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고 대구, 인천 및 전북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을 보였다. 반면에 그 외 대부분의 지역은 전국 평균을 하회하였다. 이 중에서 특히 전남은 -2.3%로서 감소를 보였다.

3. 건설

2011년 3/4분기의 전국 건축착공면적은

〈표 3〉 지역별 건축착공면적 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9	-5.2	-41.8	68.1	-17.6	-26.9	12.6	-19.2	-32.7	6.4	-0.1	6.4	0.0	14.3	18.0	-9.7	-21.7	49.3
2010	15.8	62.5	-20.7	3.1	39.7	-8.3	-0.6	52.3	-7.2	19.3	28.1	19.7	23.6	28.5	45.6	29.1	22.3
2010 Ⅰ	44.0	265.8	-68.2	-2.1	125.2	-36.1	1.8	233.5	54.3	10.4	18.7	52.8	46.9	44.7	63.7	52.9	-32.5
Ⅱ	46.1	78.0	47.0	40.7	64.3	18.0	-24.7	66.1	52.7	53.9	48.7	45.3	15.3	33.8	44.9	48.3	45.7
Ⅲ	4.5	8.4	-15.0	-30.6	11.9	-38.6	36.4	23.5	-38.4	-27.5	-9.3	-12.6	-25.6	-8.6	0.4	-20.0	56.1
Ⅳ	-12.8	10.7	-0.3	-2.7	-3.4	31.1	-15.7	-19.0	-54.0	34.7	29.3	-8.5	51.2	21.8	56.6	25.8	23.7
2011 Ⅰ	5.3	-6.4	133.0	34.9	-32.9	-0.6	32.8	-13.6	8.1	16.8	-10.4	-8.3	0.7	27.3	-5.1	11.5	11.2
Ⅱ	12.3	6.6	128.6	108.1	10.6	51.4	82.7	53.1	-19.9	9.6	25.7	9.4	46.9	7.8	-7.1	38.1	22.7
Ⅲ	17.4	-18.9	0.2	42.9	-38.9	253.8	78.9	33.0	5.1	5.7	1.7	26.0	3.5	27.5	22.2	102.9	40.0

자료 : 건설교통부, 「건축착공통계」

2,264만㎡로서 2/4 분기에 못 미치는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17.4%를 기록함으로써 2011년의 1/4분기와 2/4분기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2011년 3/4분기의 지역별 건설경기를 비교해 보면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광주, 경남 및 대전이 각각 253.8%, 102.9% 및 78.9%의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대전, 제주 및 대구 등도 4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에 인천 및 서울은 각각 -38.9% 및 -18.9%의 증가율을 보여 동 지역들의 건축착공면적이 크게 감소하였음을 나타냈다.

4. 고용

정치경제적으로 최대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전국의 고용은 2011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호전되었음을 나타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여온 실업률은 2011년 3/4분기에 3.1%까지 낮아져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를 받기 직전이었던 2008년 3/4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보이기에 이르렀다.

2011년 3/4분기의 실업률을 지역별로 보면 4대 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특징을 보였다. 인천, 서울, 대구 및 부산이 각각 4.5%, 4.3%, 3.3% 및 3.1%를 기록하여 전국 평균 이상을 보인 반면 여타 지역은 모두 전국 평균을 하회하였다. 특히 강원, 제주 및 전북은 2%를 하회하였다.

지역별 실업률은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그 외의 지역에서 낮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서울과 광역시를 제

〈표 4〉 지역별 실업률

단위 :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9	3.6	4.5	4.3	4.3	4.6	3.8	3.6	4.2	3.9	2	2.1	3	1.9	1.6	2.7	3	1.6
2010	3.7	4.7	3.6	4	5.1	3.5	3.6	3.6	4	2.6	2.2	2.9	2.2	2.1	2.8	2.8	1.8
2010 Ⅰ	4.7	5.7	4.3	5.2	6.1	4.2	4.6	4.4	5.2	4.2	3	3.7	2.8	2.6	3.9	3.3	2.4
Ⅱ	3.5	4.5	3.3	3.6	4.4	3.9	3.5	3.7	3.9	1.8	1.7	2.4	1.9	1.7	2.5	2.6	2.0
Ⅲ	3.5	4.4	3.4	3.7	4.6	3.3	3.3	3.3	3.9	2.0	1.9	2.8	2.0	2.1	2.4	2.9	1.6
Ⅳ	3.3	4.3	3.3	3.7	5.1	2.6	3.1	3.1	3.2	2.3	2.1	2.6	2.1	1.9	2.5	2.3	1.5
2011 Ⅰ	4.2	5.2	4.2	4.7	5.9	3.9	4.7	3.8	4.2	3.6	2.7	3.0	3.3	2.7	3.9	2.7	2.1
Ⅱ	3.4	4.7	3.6	3.8	4.7	3.6	3.2	3.4	3.5	1.9	2.2	1.9	2.1	1.5	2.6	2.1	1.8
Ⅲ	3.1	4.3	3.3	3.4	4.5	2.6	3.0	2.1	3.1	1.7	2.5	2.2	1.9	2.0	2.0	2.1	1.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5〉 지역별 수출액 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9	-13.9	-0.7	-26.1	-14.2	-25.1	-5.6	-4.6	-22.8	-5.0	-21.3	-12.3	-8.2	-11.8	-19.8	-19.1	-4.0	4.9
2010	28.3	37.1	30.3	33.4	36.8	30.4	24.4	17.4	47.8	34.8	27.8	37.1	74.1	30.6	16.7	6.9	12.1
2009 Ⅲ	-17.6	7.8	-30.9	-13.1	-29.5	-0.2	3.3	-33.2	8.0	-27.9	-15.8	-11.4	-4.2	-29.8	-23.7	-19.7	27.9
Ⅳ	11.7	33.5	-16.4	9.3	-3.1	32.6	19.5	1.8	47.4	-9.0	15.5	36.4	39.1	14.5	-2.1	-12.7	2.8
2010 Ⅰ	36.0	44.6	9.3	34.7	31.4	47.5	42.4	26.3	92.2	26.6	42.4	61.1	112.7	48.6	12.4	-7.6	21.9
Ⅱ	33.1	63.4	54.3	41.7	44.5	28.3	31.8	9.4	79.0	40.6	12.0	45.2	111.0	39.8	10.5	3.4	12.3
Ⅲ	22.7	26.1	27.4	28.1	32.8	26.2	15.9	15.6	27.9	25.8	25.7	32.5	51.4	25.4	13.1	9.9	13.8
Ⅳ	23.8	23.8	36.1	30.6	38.4	25.8	15.6	19.9	21.3	43.8	36.5	20.7	49.3	14.9	30.0	21.4	5.2
2011 Ⅰ	29.4	23.8	35.1	27.7	31.8	38.9	25.6	34.3	10.6	43.6	41.4	18.0	36.8	43.9	23.7	58.2	-4.2
Ⅱ	18.6	19.8	11.1	22.6	33.8	16.7	13.2	55.7	1.8	31.0	28.8	10.0	19.2	37.0	21.9	-8.6	27.3
Ⅲ	21.7	31.8	24.1	25.5	31.0	19.3	15.9	50.9	1.4	44.0	9.4	5.6	27.0	35.4	21.7	16.2	-5.6

자료 : 한국무역협회

외한 전 지역의 실업률이 전국 평균을 하회하고 있는 점은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다만 광역시 중 광주의 실업률은 2.6%를 기록하여 그동안과 마찬가지로 전국 평균을 하회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5. 수출입

2011년 3/4분기 중 전국의 수출은 1,416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수입은 1,350억 달러를 기록하여 무역흑자가 66억 달러에 달했다. 전년동기 대비 수출 증가율은 21.7%로서 2010년 1/4분기 이후에 나타난 20%대 후반에서 30%대의 높은 신장세에는 못 미치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수입증가율은 그동안과 마찬가지로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추세를 유지하였다. 다만 최근에는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수입의 증가폭이 커지면서 무역흑자폭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 특징이다.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2011년 3/4분기의 지역별 수출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울산이 50.9%로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전남, 서울 및 인천이 각각 35.4%, 31.8% 및 31.0%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에 제주, 경기, 충남 및 충북이 각각 -5.6%, 1.4%, 5.6% 및 9.4%로서 10% 이하의 증가율 또는 감소세를 보였다.

6. 금융

2011년 3/4분기의 전국 어음부도율은 0.11%로서 2010년 3/4분기의 0.17% 이후 나타난 하락 추세를 유지하였다. 전년동기 대비 증가폭을 기준으로 지역별 비교를 해

〈표 6〉 지역별 어음부도율

단위 :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9	0.14	0.10	0.50	0.44	0.36	0.81	0.24	0.39	0.90	0.17	0.45	0.32	0.46	0.24	0.43	0.65	0.34
2010	0.15	0.12	0.81	0.35	0.36	0.56	0.20	0.13	0.26	1.85	0.43	0.17	0.49	0.14	0.47	0.36	0.28
2010 Ⅰ	0.14	0.12	0.37	0.22	0.78	0.34	0.23	0.21	0.31	0.11	0.39	0.16	0.66	0.17	0.45	0.49	0.26
Ⅱ	0.16	0.14	0.60	0.39	0.20	1.18	0.15	0.08	0.32	0.13	0.63	0.18	0.52	0.12	0.47	0.29	0.25
Ⅲ	0.17	0.16	0.30	0.36	0.28	0.29	0.08	0.25	0.24	3.94	0.26	0.20	0.39	0.12	0.76	0.21	0.27
Ⅳ	0.15	0.13	0.26	0.34	0.26	0.25	0.11	0.05	0.19	6.31	0.30	0.13	0.42	0.10	0.73	0.29	0.26
2011 Ⅰ	0.12	0.10	0.68	0.38	0.31	0.24	0.12	0.02	0.20	2.65	0.43	0.13	0.31	0.09	0.20	0.39	0.34
Ⅱ	0.11	0.07	1.70	0.41	0.28	0.42	0.30	0.02	0.20	2.65	0.43	0.14	0.32	0.13	0.21	0.44	0.32
Ⅲ	0.11	0.07	1.67	0.43	0.30	0.48	0.33	0.06	0.19	0.25	0.58	0.18	0.34	0.13	0.21	0.50	0.27

자료 : 한국은행(부도금액 기준, 전자결제 조정전)

보면 다음과 같다. 어음부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부산으로서 1.37%포인트 증가하였다. 그 다음으로 충북 및 경남으로서 각각 0.33%포인트 및 0.29%포인트 증가하였다. 반면에 어음부도율이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강원으로서 3.69%포인트 감소하였다. 그 다음으로 경북, 울산 등이 소폭의 감소를 보였다.

2011년 3/4분기 전국 예금은행의 예금은 전년동기 대비 3.3%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표 7〉 지역별 예금은행 예금 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9	11.3	15.6	10.9	6.1	7.9	11.0	7.9	5.1	10.5	-1.0	1.0	1.8	2.9	2.6	-0.6	1.4	-0.1
2010	16.3	20.2	16.2	14.3	7.6	10.7	15.5	12.3	11.9	9.2	11.3	13.1	13.2	4.0	10.6	8.2	13.4
2009 Ⅲ	13.8	17.0	18.4	13.3	10.5	17.6	15.7	6.7	14.0	-1.3	1.5	3.6	4.0	2.6	3.9	5.8	-0.7
Ⅳ	11.3	15.6	10.9	6.1	7.9	11.0	7.9	5.1	10.5	-1.0	1.0	1.8	2.9	2.6	-0.6	1.4	-0.2
2010 Ⅰ	15.3	21.4	9.2	7.7	11.7	10.3	11.0	6.1	10.4	8.4	5.8	3.7	9.0	8.2	5.3	4.1	8.0
Ⅱ	16.0	21.6	7.6	7.7	10.9	10.1	12.4	5.8	11.2	10.9	8.9	8.6	12.8	15.6	7.8	5.2	14.1
Ⅲ	15.3	21.0	9.6	8.4	7.7	10.6	11.4	8.0	11.6	8.0	6.3	6.9	11.1	4.4	5.9	2.8	15.0
Ⅳ	14.2	17.6	12.7	11.5	8.0	7.2	17.5	5.9	11.0	10.2	9.0	10.4	13.4	4.3	9.1	4.9	13.3
2011 Ⅰ	9.5	10.4	12.7	10.8	5.2	6.7	9.3	7.9	10.0	4.3	5.7	9.3	6.0	3.1	4.6	4.4	6.7
Ⅱ	6.5	7.3	9.9	7.9	3.4	6.1	2.7	7.5	7.1	1.7	3.9	5.6	1.5	-1.5	2.7	3.2	4.1
Ⅲ	3.3	3.9	4.2	4.7	1.0	3.3	0.6	6.0	2.5	0.1	3.1	4.6	0.7	0.9	1.5	3.4	0.8

자료 : 한국은행

〈표 8〉 지역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단위 :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9	2.8	2.9	3.0	2.4	2.7	2.5	2.3	2.2	2.9	1.9	2.4	2.7	2.9	2.8	2.4	3.0	1.8
2010	2.9	2.8	3.1	2.8	3.2	2.9	3.1	3.2	2.8	3.0	3.0	3.0	3.3	3.3	3.2	3.4	3.4
2009 Ⅲ	2.0	2.5	2.3	1.3	1.8	1.8	1.4	1.4	2.2	0.9	1.5	2.0	2.1	1.9	1.2	2.0	0.7
Ⅳ	2.4	2.4	2.6	2.3	2.5	2.4	2.1	1.9	2.5	1.7	2.3	2.5	3.0	2.8	2.2	2.9	1.9
2010 Ⅰ	2.7	2.5	2.8	2.5	2.8	2.7	2.7	2.5	2.7	2.7	2.8	2.9	3.2	3.1	3.0	3.1	3.1
Ⅱ	2.6	2.5	2.7	2.3	2.7	2.5	2.7	2.8	2.5	2.6	2.6	2.7	2.9	2.8	2.7	2.9	3.0
Ⅲ	2.9	2.8	2.9	2.8	3.2	2.9	3.1	3.2	2.9	3.0	2.7	2.9	3.1	3.3	3.1	3.4	3.2
Ⅳ	3.6	3.4	3.8	3.5	3.9	3.5	3.9	4.1	3.3	3.8	3.7	3.7	3.9	4.1	3.8	4.0	4.3
2011 Ⅰ	4.5	4.0	5.0	4.6	4.3	4.4	5.1	5.0	4.3	4.6	4.7	4.5	5.0	4.9	4.9	4.8	4.7
Ⅱ	4.2	3.8	4.9	4.6	3.8	4.2	4.9	4.6	4.1	4.5	4.1	4.1	4.2	4.7	4.7	4.4	4.3
Ⅲ	4.8	4.4	5.4	5.3	4.3	4.7	5.5	5.1	4.8	4.9	4.7	4.7	5.0	5.0	5.2	4.9	4.3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이는 2010년 2/4분기의 16.0% 이후에 나타난 증가율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예금증가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는 세계경기의 둔화 및 국내 저성장에 따른 소득증가 둔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기준으로 2011년 3/4분기 중 예금을 지역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울산이 6.0%로서 가장 높은 신장세를 기록했고 대구, 충남 및 부산이 각각 4.7%, 4.6% 및 4.2%로서 그 다음을 기록했다. 반면에 저조한 지역은 강원, 전북 및 제주로서 이 지역들의 예금증가율은 각각 0.1%, 0.7% 및 0.8%를 기록하였다.

7. 소비자물가

2011년에 국민경제적으로 주목을 가장 많이 받았고 그만큼 정부 정책의 역점이 크게 두어졌던 경제변수 중의 하나는 물가이다. 2011년 3/4분기 중 전국 소비자물가지수(2005=100 기준)는 122.2를 기록하였다. 전년동기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과거 오랜 동안의 2%대에서 벗어나 최근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 왔다. 2010년에는 3%대를 기록하였고 2011년에 들어와서는 4%대를 기록하였다. 특히 2011년 3/4분기에는 4.8%를 기록하여 근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기까지 하였다.

전년동기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지역별 비교를 해 보면 소수의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국 평균을 상회하거나 전국 평균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함으로써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물가상승 압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제주, 인천 및 서울이 각각 4.3%, 4.3% 및 4.4%를 기록하여 전국 평균을 약간 하회하였으나 그 외의 지역이 모두 4.7% 이상의 상승률을 보인 점이 이를 반증한다.

서울지역 경제동향

• 산업생산 : 3분기째 하락 • 소비 : 증가세 • 건설투자 : 4분기째 하락
• 고용 : 청년실업률 포함 안정세 • 물가 : 지속적 상승세

Ⅰ. 개관

서울의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소비자동향조사(CSI)를 위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생활형편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2011년 3/4분기 서울지역의 생활형편 CSI는 85로 2011년 2/4분기와 비교해 2포인트 하락세를 보여 생활형편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6개월 동안의 생활형편 전망 CSI도 91로 소폭 하락세를 보이며 3분기째 100 이하를 나타내며 소비자들이 향후 생활형편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3/4분기와 비교한 현재생활형편 CSI와 생활형편전망 CSI 역시 각각 8포인트, 1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 위기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던 생활형편전망 추이가 7분기째 연속 하락세를

〈표 1〉 서울지역 현재생활형편 및 생활형편전망 CSI 추이

	2008	2009				2010				2011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현재생활형편 CSI	71	74	85	95	97	93	94	93	93	87	87	85
생활형편전망 CSI	76	82	99	109	109	105	106	102	102	94	94	91

자료 : 한국은행

〈표 2〉 서울지역 가계수입전망 및 소비지출전망 CSI 추이

	2008	2009				2010				2011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가계수입전망 CSI	85	83	95	101	103	102	103	101	102	101	96	96
소비지출전망 CSI	92	91	104	108	110	110	110	110	111	111	107	108

자료 : 한국은행

〈표 3〉 서울지역 현재경기판단 및 향후경기전망 CSI 추이

	2008	2009				2010				2011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현재경기판단 CSI	28	36	82	109	113	103	102	102	95	79	74	69
향후경기전망 CSI	60	66	107	121	122	116	112	110	107	89	85	81

자료 : 한국은행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가계수입전망 및 소비지출전망의 경우, 2011년 3/4분기 서울지역의 향후 6개월 동안 가계수입전망 CSI는 96인 보합세를 나타냈다. 또한 향후 6개월 동안의 소비지출전망 CSI는 108로 1포인트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기준치 100을 상회하고 있어 소비지출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분기인 2010년 3/4분기와 비교한 가계수입전망지출 CSI는 5포인트 하락하였으며 소비지출전망 CSI는 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가계수입은 동년에 비해 축소될 것이나 소비지출면에서는 소폭 축소 될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현재 및 향후 경기전망의 경우 2011년 3/4분기 서울지역의 현재경기판단 CSI는 2011년 2/4분기보다 5포인트 하락한 69로 3분기째 평균 74를 기록하며 악화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6개월 동안의 경기전망 CSI도 2011년 2/4분기보다 4포인트 하락한 81로 조사되어 향후 경기전망도 다소 부정적일 것이라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 3/4분기 현재경기판단지수 CSI와 향후경기전망 CSI가 전년동분기 대비 33포인트, 29포인트로 감소폭이 지난 분기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현재 경기보다 향후 경기가 악화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Ⅱ. 부문별 경제동향

1. 산업활동

2011년 3/4분기 중 서울지역 산업생산지수(원지수)는 9.9% 감소로 전분기 대비 3분기째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문별로는 중공업이 29.5%, 경공업이 0.8%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공업이 서울지역의 산업생산 감소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 3/4분기에 비해 10.9%포인트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전국의 산업생산(5.1%)에 비해 서울의 산업생산은 15포인트 차로 마이너스 성장세를 나타내며 성장탄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2. 소비 및 투자

1) 소비

2011년 3/4분기 서울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백화점 판매액, 대형마트 판매액 포함)은 5조 2,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0% 증가하였다. 이 중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동기 대비 8.0% 증가한 2조 8,000억원, 대형마트 판매액은 5.6% 증가한 2조 1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10 3/4분기 대비 백화점 판매액은 1.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형마트의 경우 전분기 대비 3.8%포인트 증가하여 전반적인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건설투자

2011년 3/4분기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2조 726억원으로 20.8% 감소하였으며, 2010년 3/4분기 대비로는 45.4%포인트 감소로 4분기째 건설투자가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2011년 3/4분기 건설수주액은 1조 9,259억원이었으며,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전국의 14.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표 4〉 서울지역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08	2009				2010				2011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전 국	-11.7	-15.9	-5.8	4.9	17.5	26.6	19.3	11.2	12	10.9	7.4	5.1
서 울	-14.1	-23.2	-9.7	-11.8	-1.8	7.7	7.2	1.0	5.3	-0.9	-11.7	-9.9
중공업	-28.2	-43.2	-6.6	-19.1	-5.8	10.6	-8.3	-0.7	2.8	-1.0	-22.2	-29.5
경공업	-4.6	-10.3	-11.5	-7.9	0.4	6.4	16.7	1.8	6.3	-0.7	-6.6	-0.8

자료 :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표 5〉 서울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 추이

단위 : 십억원, %

		2008	2009				2010				2011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국	13,068	12,957	12,824	12,865	14,348	14,096	13,909	14,326	15,716	15,810	15,477	15,598
	서울	4,496	4,345	4,327	4,266	4,890	4,632	4,709	4,676	5,451	5,209	5,175	5,002
	전년동기비	(1.5)	(7.0)	(6.3)	(8.5)	(8.8)	(6.6)	(8.8)	(9.6)	(11.5)	(12.5)	(9.9)	(7.0)
백화점 판매액	전국	5,598	5,187	5,253	4,903	6,439	5,771	5,875	5,399	7,270	6,623	6,621	5,957
	서울	2,689	2,495	2,492	2,364	3.025	2,699	2,780	2,595	3,433	3,094	3.129	2,803
	전년동기비	(-0.5)	(9.4)	(7.3)	(12.3)	(12.5)	(8.2)	(11.6)	(9.8)	(13.5)	(14.6)	(12.6)	(8.0)
대형마트 (할인점) 판매액	전국	7,470	7,770	7,571	7,962	7,908	8,325	8,034	8,927	8,446	9,187	8,855	9,641
	서울	1,806	1,849	1,835	1,901	1,864	1,932	1,928	2,081	2,017	2,114	2,045	2,198
	전년동기비	(4.6)	(3.9)	(4.9)	(4.0)	(3.2)	(4.5)	(5.1)	(9.4)	(8.2)	(9.4)	(6.1)	(5.6)

자료 :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주 : 1) 대형소매점은 매장면적 3,000㎡의 대형소매점(백화점, 대형할인점, 대형전문점, 기타 대규모점)으로 규정

2)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할인점이 대형마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3) 판매액은 경상가격임

〈표 6〉 서울지역 건설수주

단위 : 십억원, %

	2008	2009				2010				2011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전국수주액	38,336	18,400	27,105	19,808	43,776	18,110	25,295	19,095	26,175	15,796	24,473	19,259
서울수주액	7,694	3,449	3,945	2,635	8,953	3,344	4,199	4,943	5,023	2,229	4,932	2,726
전년동기비	22.0	-18.5	-30.6	-26	-10.6	-3.0	2.0	24.5	-7.8	-33.3	-5.1	-20.8
구성비	20.1	18.7	14.6	13.3	20.5	18.5	16.6	25.9	19.2	14.1	20.2	14.2

자료 : 경인지방통계청, 「서울시 산업활동동향」

주 : 서울시내 건설발주는 전국 건설수주 조사 결과를 공사 지역별로 구분하여 집계한 것임.

타났다.

3. 고용 및 물가

1) 고용

2011년 3/4분기 경제활동참가율이 평균 62%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실업률 및 청년 실업률이 다소 줄고 있는 현상을 보여 고용의 다양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분별로 서울의 3/4분기 경제활동참가율은 62.6%로 전분기 대비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자 수는 503만 3,000명

〈표 7〉 서울지역 고용 현황

단위 : 천 명, %, %포인트

	2008	2009				2010				2011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경제활동참가율	61.3	60.7	61.3	60.6	60.8	61.0	62.1	62.0	62.0	62.0	63.1	62.6
	(-2.5)	(-2.3)	(-1.9)	(-2.6)	(-0.8)	(0.5)	(1.3)	(2.3)	(2.0)	(1.6)	(1.6)	(1.0)
취업자 수	4,886	4,800	4,859	4,818	4,865	4,811	4,969	4,978	4,984	4,947	5,064	5,033
	(-1.4)	(-2.1)	(-2.0)	(-2.5)	(-0.4)	(0.2)	(2.3)	(3.3)	(2.4)	(2.8)	(1.9)	(1.1)
실업률	3.8	4.7	4.8	4.5	4.1	5.7	4.5	4.4	4.3	5.2	4.7	4.3
	(-5.0)	(9.3)	(26.3)	(18.4)	(7.9)	(21.3)	(-6.3)	(-2.2)	(4.9)	(-8.8)	(4.4)	(-2.3)
청년실업률	7.0	8.9	7.8	8.4	7.8	10.0	8.1	7.7	8.0	9.3	9.1	7.3
	(-14.6)	(6.0)	(0.0)	(12.0)	(11.4)	(12.4)	(3.8)	(-8.3)	(2.6)	(-7.0)	(12.3)	(-5.2)

자료 :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주 : ( ) 안은 전년동기(월)비(차)

〈그림 1〉 서울지역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으로 전년동기 대비 1.1% 증가하였다. 또한 2011년 3/4분기 실업률은 4.3%로 전분기 대비 감소세를 나타냈다. 또한 2011년 2/4분기 청년실업률의 경우 9.1%로 전분기 대비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실업률 또한 7.3%로 전년동분기 대비 -5.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취업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취업 통계의 경우 다른 통계들에 비해 산업 및 경제 현황이 천천히 반영되는 특징이 있어 꾸준한 관찰이 필요하다.

〈표 8〉 서울지역 소비자물가지수 및 생활물가지수

지수 : 2005=100, %

	2008	2009				2010				2011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소비자물가지수	95.5	96.4	97.2	97.7	97.9	99.0	99.6	100.4	101.0	102.6	103.4	104.5
전년동기(월)비	(4.2)	(3.9)	(3.1)	(2.5)	(2.4)	(2.7)	(2.5)	(2.8)	(3.2)	(3.6)	(3.8)	(4.1)
생활물가지수	95.2	95.9	97.1	97.6	97.6	99.1	99.7	100.4	100.9	103.1	103.5	104.5
전년동기(월)비	(3.5)	(3.1)	(2.4)	(1.8)	(2.5)	(3.4)	(2.7)	(2.9)	(3.4)	(4.0)	(3.8)	(4.1)

자료 : 통계청

〈그림 2〉 서울지역 소비자물가지수 및 생활물가지수 추이

2) 물가

2011년 3/4분기 서울지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4.5로 전년동기 대비 4.1%를 기록하였으며 생활물가지수는 104.5로 전년동기 대비 4.1%로 나타나 2009년 1/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석 등의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 물가 상승폭이 다른 분기에 비해 커진 것으로 판단되어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및 공공요금 인상시기 조정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박 희 석 · 한 진 아
팀장 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경제분석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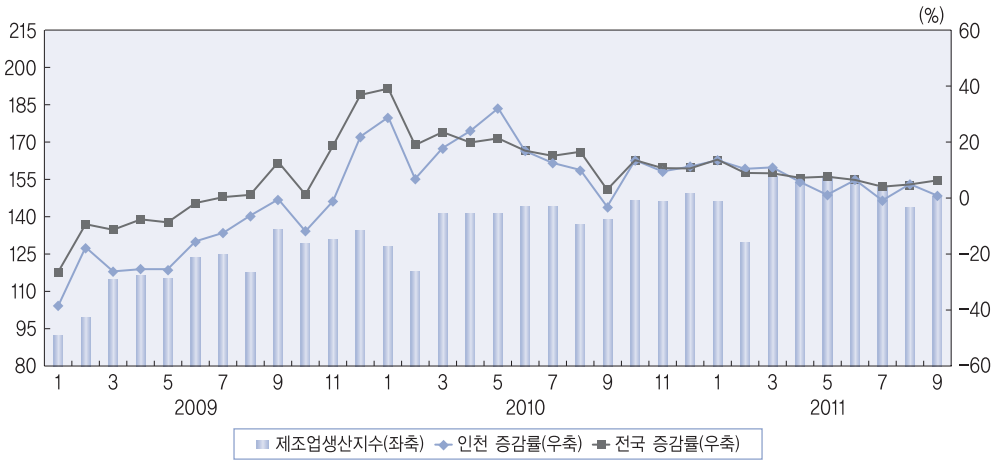
인천지역 경제동향

• 산업생산 : 감소세 지속 • 소비 : 개선세 지속 • 건설 : 부진 • 대외거래 : 수출 호조 지속 • 고용 : 부진 • 물가 및 부동산가격 : 물가 오름세 확대, 주택매매가격하락세 지속 • 금융 : 수신, 여신 증가세 둔화, 기업자금사정 다소 개선

Ⅰ. 개관

3분기 인천지역 경제는 2분기부터 주춤했던 제조업 생산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수출 증가세도 다소 주춤하고 있어 전년도에 비해 경기침체 회복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 제조업 생산지수는전분기부터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업종과 전기장비업종은 전년동기 대비 지속적인

〈그림 1〉 인천지역 제조업 생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기타 기계 및 장비업종은 전분기에 이어 감소하고 있다. 소비는 대형소매점 판매를 중심으로 전분기에 비해 판매가 다소 확대되면서 개선세가 지속되었다. 건설활동은 전분기 대비 착공면적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업종을 중심으로 전분기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상승세는 다소 둔화되었다. 고용사정은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호전되어 실업률이 다소 개선되었다.

소비자물가는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전반적으로 확대되었다. 부동산가격은 매매가격은 하락세가 지속, 확대된 반면 전세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부문은 수신 및 여신은 전분기에 이어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었다. 기업 자금사정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Ⅱ. 부문별 동향

1. 산업생산

3분기 인천지역 제조업 생산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2.2% 상승하였으나,전분기부터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업종과 전기장비업종은 전년동기 대비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기타 기계 및 장비업종은 감소세가 다소 완화는 되었으나 전분기에 이어 감소하고 있다. 한편,

〈표 1〉 인천지역 제조업 생산지수 동향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09		2010				2011			
	3/4	4/4	1/4	2/4	3/4	4/4	1/4	2/4	3/4	9월
인천지역	-6.0	2.3	18.2	24.7	6.7	12.4	12.5	5.6	2.2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41.0	11.7	-6.2	14.9	-11.3	11.4	14.9	4.0	6.7	1.7
전기장비	7.9	8.5	-8.6	-0.5	-1.3	14.0	8.1	14.6	12.5	16.6
기타 기계 및 장비	13.4	15.6	-5.8	25.9	-14.0	4.9	3.0	-4.3	-3.1	-1.9
1차금속	0.7	-0.6	-2.4	10.0	-10.7	7.3	4.6	-0.7	1.7	3.4
전국	4.9	17.5	26.6	19.3	11.2	12.0	10.7	7.3	5.1	14.7
	〈6.7〉	〈2.1〉	〈4.8〉	〈4.5〉	〈1.1〉	〈-0.6〉	〈6.1〉	〈0.1〉	〈-0.4〉	〈11.4〉

자료 : 통계청(시도/산업별 광공업생산지수)

주 : 원지수 기준, 전년동기 대비 〈 〉 안은 전기 대비(계절조정)

〈표 2〉 인천지역 대형소매점 판매 동향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09		2010				2011			
	3/4	4/4	1/4	2/4	3/4	4/4	1/4	2/4	3/4	9월
대형소매점	121.6	136.6	119.0	130.3	134.8	145.2	147.8	148.4	149.4	157.6
백화점	99.3	135.2	133.4	118.2	93.4	135.4	118.9	130.0	110.2	124.8
전국	110.4	123.2	119.9	117.2	118.9	129.5	127.9	125.5	124.7	132.1

자료 : 통계청

주 : 1) 대형소매점 판매 불변지수 기준(2005=100)

1차금속업종의 생산지수는 전분기 감소세에서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2. 소비

소비는 대형소매점 판매를 중심으로 전분기에 비해 판매가 다소 확대되면서 개선세가 지속되었다. 다만, 백화점 판매액은 전분기 대비 19.8포인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건설

3분기 건설활동은 전분기 대비 건축허가면적 상승세가 주춤하였고 착공면적도 큰 폭으로 감소하여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4. 대외거래

수출은 전분기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의 수출

〈표 3〉 인천지역 건설투자 동향

단위 : 전년동기(월) 대비, %

		2009		2010				2011			
		3/4	4/4	1/4	2/4	3/4	4/4	1/4	2/4	3/4	9월
인천 광역시	건축착공면적	-23.4	87.7	125.2	64.3	30.2	-3.4	-32.9	10.6	-38.9	15.0
	건축허가면적	21.9	49.8	-29.8	20.6	6.6	77.4	6.9	109.6	36.8	13.9
	미분양주택[1]	67.2	159.8	60.5	76.5	143.2	18.4	29.0	5.6	-5.6	1.7

자료 : 온나라부동산정보포털(국토해양부), 한국은행 인천본부

주 : 1) 기말기준(호), 임대용 제외(1,000m^2 기준)

〈표 4〉 인천지역 수출 동향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09		2010				2011			
	3/4	4/4	1/4	2/4	3/4	4/4	1/4	2/4	3/4	9월
인천지역	-18.4	-30.1	-33.7	-29.5	-3.1	31.4	31.9	20.7	31.3	43.5
자동차	-56.3	-49.1	28.5	122.1	39.2	4.9	-1.4	21.1	19.0	53.1
자동차부품	-46.3	-36.2	69.7	79.1	50.9	20.8	18.8	27.8	9.5	10.9
건설광산기계	-44.8	-35.6	41.0	128.2	97.3	67.1	47.4	8.1	2.0	14.2
반도체	39.9	40.6	43.6	-34.8	-13.2	28.7	5.3	51.4	76.5	62.5
전국	-9.9	-35.0	-21.1	-17.6	11.7	36.0	29.7	19.6	21.4	18.1

자료 : 한국무역협회, 인천상공회의소
주 : ( ) 안은 금액, 억 달러, MTI 3단위 기준

이 전분기에 이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건설광산기계업종도 상승세를 유지하였고, 다만 상승세는 다소 둔화되었다.

5. 고용

3분기 고용률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실업률은 0.2포인트 개선되었

〈표 5〉 인천지역 고용 관련 지표 동향

단위 : 천명, %

		2009		2010				2011			
		3/4	4/4	1/4	2/4	3/4	4/4	1/4	2/4	3/4	9월
인천지역[1]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감	4.2	2.5	3.2	1.9	1.2	2.1	-33.3	4.1	-1.7	-3
	- 제조업	-1.3	0.6	-3.5	-1.3	2.6	3.2	1.6	4.0	0.7	-11
	- 건설업	-1.9	5.7	0.0	5.4	-3.4	-2.7	-13.5	-9.4	-4.3	-2
	- 도소매·음식숙박업	2.0	-1.7	-0.7	4.1	-0.2	-0.2	2.3	2.8	26.7	27
	고용률	59.6	59.9	57.8	60	60	59.6	58.0	60.9	60.8	60.3
	실업률	4.4	4.5	6.1	4.4	4.6	5.1	5.9	4.7	4.5	4.2
전국	고용률	59.1	58.7	57	59.6	59.3	58.9	57.4	59.9	59.5	59.1
	실업률	3.6	3.3	4.7	3.5	3.5	3.3	4.2	3.4	3.1	3.0

자료 : 통계청
주 : 1) 전년동기 대비

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 음식숙박업은 전년동기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제조업도 소폭 상승하였다. 다만, 비농림어업, 건설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 물가 및 부동산가격

인천지역의 소비자물가는 오름세가 전반적으로 확대되었다.

부문별로 보면 농축산물의 상승세가 크게 확대되었고, 공업제품, 서비스부문 등도 오름세가 지속되었으나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가격은 매매가격은 하락세가 지속, 확대된 반면, 전세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표 6〉 인천지역 소비자물가 동향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09		2010				2011			
	3/4	4/4	1/4	2/4	3/4	4/4	1/4	2/4	3/4	9월
인천지역	1.8	2.5	2.8	2.7	3.2	3.9	4.3	3.8	4.3	3.5
- 농축수산물	3.4	3.6	2.8	8.2	12.4	19.7	13.8	6.6	10.7	12.6
- 공업제품	0.5	2.8	3.6	2.1	2.6	2.9	5.1	6.1	2.8	7.9
- 서비스	2.4	2.2	2.4	3.1	2.0	2.1	2.3	2.0	0.9	1.8
전국	1.9	2.4	2.6	2.5	2.8	3.5	4.5	4.2	4.8	4.3

자료 : 통계청, 경인지방 통계청

〈표 7〉 인천지역 부동산가격 동향

단위 : 전분기(월) 대비, %

		2009		2010				2011			
		3/4	4/4	1/4	2/4	3/4	4/4	1/4	2/4	3/4	9월
인천지역	주택매매가격	0.3	0.9	0.1	-0.4	-0.9	-0.4	0.0	-0.1	-0.6	-0.3
	주택전세가격	0.9	1.8	0.7	1.3	1.3	1.9	1.3	1.5	0.5	0.6
	토지가격	1.2	0.5	-0.4	-0.6	-1.2	-1.2	7.3	0.1	-0.2	-0.1
전국	주택매매가격	1.2	1.1	0.1	-0.3	-1.2	-0.4	1.7	2.4	1.5	0.5
	주택전세가격	2.0	2.8	1.0	1.5	0.8	2.4	3.4	3.7	2.7	1.4
	토지가격	1.5	0.1	-0.3	-0.6	-1.2	-3.2	1.6	0.0	0.0	0.0

자료 : 국민은행, LH공사, 국토해양부

7. 금융

1) 여·수신 : 수신 및 여신 증가세 둔화

3분기 금융기관 수신은 전분기 대비 약 1,317억원이 증가되어 전분기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증가세는 지속되었다. 예금은행 수신은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비은행기관의 수신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도 전분기 대비 증가액이 약 1조 7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증가폭은 축소되었으나 증가세는 유지하였다.

〈표 8〉 인천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단위 : 기간 중 증감액, 억원

	2009		2010				2011			
	3/4	4/4	1/4	2/4	3/4	4/4	1/4	2/4	3/4	9월
총수신	11,687	-1,563	11,342	13,396	-7,205	-841	9,410	3,287	1,317	4,115
예금은행[1]	13,167	-2,824	6,443	7,342	-4,673	-2,341	11,731	4,564	-3,128	600
비은행기관[2]	-1,480	1,261	4,899	6,054	-2,532	1,500	-2,321	-1,277	4,445	3,515
총여신	16,654	10,295	8,025	11,753	9,942	14,547	18,465	21,246	10,778	2,009
예금은행[1]	11,125	4,809	6,009	12,271	8,021	10,865	17,004	17,834	7,938	1,510
비은행기관[2]	5,529	5,486	2,016	-518	1,921	3,682	1,461	3,412	2,840	499

자료 : 한국은행 인천본부
주 : 1) 시장성수신(CD, RP, 매출어음) 포함
2) 자산운용사의 수익증권 포함

〈표 9〉 인천지역 기업자금사정 동향

단위 : %, 개

	2009		2010				2011			
	3/4	4/4	1/4	2/4	3/4	4/4	1/4	2/4	3/4	9월
어음부도율[1]	0.18	0.16	0.78	0.2	0.28	0.26	0.17	0.2	0.11	0.08
부도업체 수(인천 전체)	16	14	14	14	16	19	11	8	9	1
(인천 제조업)	7	7	5	2	5	5	7	2	5	0
(전국 제조업)	131	124	40	118	128	145	113	118	90	27
제조업 자금사정BSI[2]	93	95	80	75	76	87	88	92	100	-

자료 : 한국은행 인천본부, 인천상공회의소
주 : 1) 부도금액/교환금액, 전자결제분 제외
2) 분기 평균 기준

2) 어음부도율 및 기업자금사정 : 다소 개선

기업자금사정은 어음부도율이 전분기 대비 다소 감소하였고, 제조업 자금사정BSI도 전분기 대비 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Ⅲ. 주요 이슈별 동향

1. IHP 도시첨단산단 지정·시티타워 건설 가시화

인천하이테크파크(Incheon Hi-Tech Park-HP)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시티타워 건립을 위한 복합시설용지를 확보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건들이 지식경제부에서 연 '제4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결정으로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공장 총량제 적용이 배제되어 앵커기능을 할 수 있는 외국기업 및 국내 대기업 유치가 가능해진 것은 물론 청라지구의 랜드마크가 될 450m 높이의 시티타워 건설도 2015년 인천 아시안게임 전 개장 목표로 가시화될 전망이다. 청라지구 남쪽의 총 면적 113만 2,000㎡에 달하는 IHP는 산업(제조업), 연구개발(R&D), 첨단산업집적센터·장기임대산업단지용지(113만 2,000㎡)에 4,900억원을 들여 2014년까지 자동차, (신)소재, IT, 로봇관련 R&D 및 제조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업이다. 연내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기업 유치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토지보상협의를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기반시설공사에 착수, 기업 유치를 본격화한다는 것이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의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선 시티타워가 들어설 부지인 총면적 3만 3,000㎡ 자연녹지의 일반상업용지 변경도 결정되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은 시티타워 건립을 오는 2014년 준공·개장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2. 전국 경제자유구역 중 '인천 1위'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 평가에서 1위에 올랐다. 평가 첫해인 지난해 꼴찌에서 1년 만에 최고로 비상하였다. 지식경제부에서 열린 경제 자유구역위원회 회의 결과 인천경제청이 전국 6개 경제청에 대한 추진 실적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5억 1,000만 달러를 기록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성과, 투자 유치 촉진과 입주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시행한 제도 개선 노력, 정책조정 현안회의신설 등 조직·사업혁신 노력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부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국고 차등 지원, 우수직원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향후 지구지정해제 등 구조조정의 근거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3. 독일의 세계적 기업, 송도 투자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 지식정보산업단지(4공구)에 태양광발전용 인버터제조 및 연구개발(R&D)센터가 들어선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카코뉴에너지㈜와의 투자계약(토지공급) 체결 소식을 전하고, 독일 카코사로부터의 유로 600만 달러를 포함하여 총 186억 원을 투자해 4공구 9,498.9㎡ 부지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첨단그린 제조 및 R&D센터를 오는 8월 착공해 내년 5월 준공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코뉴에너지는 태양광발전용 인버터제조·R&D분야에서 세계 선두를 다투는 기업이며 생산품의 90% 이상을 유럽 등 선진국에 역수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의 그린에너지단지 구축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투자는 카코로선 독일본사를 제외하고 전 세계에 거느린 10개 지사를 통틀어 제조 및 R&D센터가 한데 입지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강 승 우
(송도테크노파크 산업정책실장)

경기지역 경제동향

• 산업생산 : 다시 증가 • 소비 : 증가세 둔화 • 건설 : 회복 기미 • 수출 : 증가세 정체 • 고용 : 개선 추세 지속 • 물가 및 부동산가격 : 물가 다시 상승, 주택전세가 상승세 지속 • 금융 : 수신 둔화에도 여신은 확대

Ⅰ.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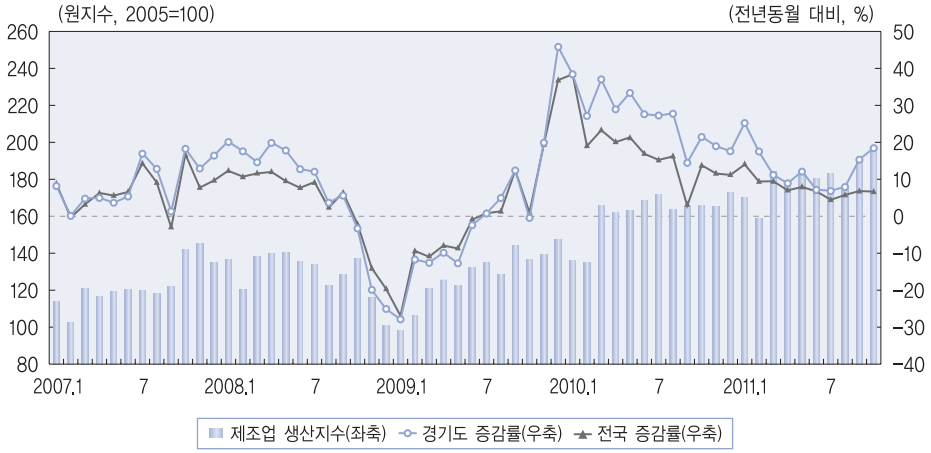
3분기 중 경기도 지역 경제는 산업생산은 증가세를 회복하였으나 수출은 증가세가 정체되었으며 건설투자가 회복 기미를 보여주었으나 소비는 둔화되었다.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기에 비해 전국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전기 대비로도 다시 높은 증가세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소비는 백화점 매출과 대형마트 모두 소폭 증가에 그쳐 전국적인 내수 부진상과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건설활동은 건설발주액, 건축허가면적과 건축착공면적이 모두 증가세를 보여 건설투자 회복 기대감을 높였다. 수출은 거의 제자리 걸음을 유지하였다. 경기도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의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였고, 자동차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무선통신기기는 소폭 증가에 그쳤다. 고용사정은 제조업의 일자리가 소폭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고 건설업 일자리도 소폭 늘어나면서 개선 추세가 지속되었다. 소비자물가는 분기 중 농축수산물 가격이 일기 불순으로 다시 상승하고 전세가 상승세도 지속됨으로써 물가 불안감이 재연되었다. 금융기관 수신은 CD 등 시장성 수신의 감소로 줄었으나, 여신은 기업 대출과 상호금융 등의 대출이 늘어 확대되었다. 기업자금사정은 어음부도율이 전분기 중 상승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제조업 자금사정BSI도 기준치 아래에서 하락하여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Ⅱ. 부문별 동향

1. 산업생산

2011년 3/4분기 중 경기도 광공업 생산

〈그림 1〉 경기지역 제조업 생산



은 전년 하반기 이래의 증가세 둔화 기조에서 벗어나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모습은 경기도 산업 중 비중이 큰 제조업 생산에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즉 3/4분기 중 경기도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9.5%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계절조정 후 전기 대비로는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ICT제품, 자동차 등 경기도의 주력 산업의 생산이 다시 호조를 회복한 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ICT제조업은 그동안 폭발적인 국내외 수요 증가로 우리나라가 국제금융위기로부터 조기에 벗어나는 데 크게 기여한 부문이었으나, 전년 하반기부터 국내외 경제가 경기 회복 초기의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킨 뒤 안정 궤도에 진입하면서 생산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2/4분기의 증가율은 전분기의 증가율을 크게 하회하였지만 3/4분기에는 증가세가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자동차도 수출 호조로 생산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 3/4분기 중 생산은 전년보다 감소하였고 금속가공제품의 생산도 소폭 둔화되었다.

3/4분기 제조업생산의 계절조정 전기대비 증가율은 6.7%로 나타나 2분기의 감소에서 반전되었다.

3/4분기 중 제조업업황BSI는 크게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수준이 기준치인 100에 크게 미달하여 3/4분기 중의 제조업 생산 증가가 기조적인 상승세가 아닌 일시적인 상승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을 주었다.

2. 소비

대형소매점 판매액으로 본 소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판매가 소폭 증가에 그친

〈표 1〉 경기지역 제조업 생산 동향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09					2010					2011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1/4	2/4	3/4	9월	10월
경기도제조업	-0.9	-17.7	-8.5	5.9	19.3	25.9	34.1	29.8	22.8	19.2	17.5	9.1	9.5	14.9	18.1
	-	〈-2.2〉	〈12.3〉	〈10.0〉	〈0.0〉	-	〈9.2〉	〈7.9〉	〈5.8〉	〈-6.0〉	〈10.3〉	〈-1.1〉	〈6.7〉	〈4.7〉	〈-1.7〉
ICT	4.7	-21.2	-7.0	13.9	42.9	38.0	51.8	41.5	36.3	26.6	27.2	15.1	16.3	24.0	35.2
자동차	-8.5	-36.0	-15.3	9.9	11.0	30.4	64.5	35.5	19.8	15.3	22.3	15.6	19.8	21.3	18.3
기계장비	-8.7	-10.8	-16.8	-9.5	2.1	50.5	52.9	70.0	50.9	32.4	4.3	0.5	-6.1	-1.9	-9.0
서울제조업	-11.9	-23.3	-9.7	-11.8	-1.8	5.2	7.7	7.2	1.0	5.2	-0.8	-11.7	-10.0	-6.8	-5.8
	-	〈-6.9〉	〈5.7〉	〈1.2〉	〈-0.4〉	-	〈1.1〉	〈5.5〉	〈-3.7〉	〈1.1〉	〈-3.1〉	〈-6.8〉	〈-1.6〉	〈-2.0〉	〈2.9〉
인천제조업	-13.1	-26.2	-20.6	-5.9	2.3	15.1	18.2	24.6	6.7	12.5	12.5	5.1	2.2	1.3	-6.2
	-	〈-12.3〉	〈3.6〉	〈13.2〉	〈1.4〉	-	〈0.1〉	〈8.6〉	〈-0.6〉	〈1.7〉	〈3.3〉	〈-0.1〉	〈-2.6〉	〈-5.6〉	〈-2.9〉
전국제조업	-0.2	-15.9	-5.8	5.0	17.5	16.7	26.5	19.3	11.1	12.0	10.9	7.4	5.2	7.1	6.3
	-	〈-1.5〉	〈11.4〉	〈6.7〉	〈2.2〉	-	〈4.9〉	〈4.5〉	〈1.1〉	〈-0.5〉	〈6.2〉	〈0.2〉	〈-0.3〉	〈1.1〉	〈-0.7〉
제조업업황 BSI(경기도)	72.1	45.3	70.7	81.7	90.7	95.3	93.0	100.7	96.3	91.3	88.3	91.7	85.0	83	82
제조업업황 BSI(전국)	74.5	49.0	73.3	85.7	90.0	97.3	95.3	103.7	97.7	92.7	90.3	94.3	84.0	81	82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 〈 〉 안은 전기 대비(계절조정)

〈표 2〉 경기지역 대형소매점 판매 및 CSI 동향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09					2010					2011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1/4	2/4	3/4	9월	10월
대형소매점[1]	-0.4	-4.6	-2.3	-1.1	6.5	5.4	6.6	4.6	6.0	4.4	7.0	8.3	3.3	-0.1	43
백화점	2.6	-5.6	-1.5	3.8	13.7	9.9	9.1	7.6	7.3	14.5	14.5	11.0	1.6	-5.6	-5.2
서울	1.9	0.2	-0.4	3.2	4.4	6.0	3.9	6.6	6.0	7.4	7.6	6.0	2.3	1.0	3.2
인천	-3.1	-7.2	-6.9	-3.0	5.0	5.4	5.6	6.5	7.0	2.7	5.4	9.1	5.6	3.9	5.4
전국	0.3	-2.4	-1.5	-0.5	5.6	6.2	6.2	6.3	7.5	5.1	6.8	7.0	3.9	2.2	5.7
CSI(경기도)[2]	109	87	110	119	120	116	118	115	116	114	108	106	104	103	108
CSI(전국)[2]	104	84	103	112	114	110	111	111	110	109	104	102	100	100	103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 1) 대형소매점 판매액 불변지수 기준(2005=100)

2) 분기 수치는 월별지수의 평균치임

것으로 보아 3/4분기 중 둔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상회함으로써 소비자의 체감경기는 양호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건설

1/4분기 중 일시 회복 기미를 보였다가 2/4분기 중 다시 침체상을 보인 건설활동은 3/4분기 중 다시 회복 기미를 보였다. 2/4분기 중 19.9% 감소하였던 건축착공면적이 5.1%의 증가로 반전한 데다가 상반기 중 감소하였던 건축허가면적도 주거용 및 상업용이 증가로 돌아서고 공업용 허가면적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4. 수출

경기지역의 수출은 전분기의 1.8%에 이어 금분기 중에도 1.1%의 낮은 증가에 머물러 전국의 21.4% 증가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품목별로는 전년 하반기 이래 감소하여 온 무선통신기기의 수출이 2/4분기 중 소폭 증가로 바뀐 후 다시 1.7% 증가하고 자동차와 영상기기의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반도체와 평판디스플레이의 감소폭은 확대되었다.

5. 고용

고용사정은 경기도의 비중이 높은 제조

〈표 3〉 경기지역 건설투자 동향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09					2010					2011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1/4	2/4	3/4	9월	10월
경기도	건축착공면적	6.4	-34.8	-23.3	6.5	76.9	-7.2	54.3	52.7	-14.1	-54.0	8.1	-19.9	5.1	-20.8	38.4
	건축허가면적	4.4	-28.4	-42.5	17.5	70.0	3.5	48.6	35.6	-49.6	9.5	-8.7	-8.1	44.3	19.5	52.7
	미분양아파트[1]	19,325	24,040	21,699	17,534	19,325	22,418	21,408	21,969	23,185	22,418	21,162	21,579	21,724	21,724	21,556
수도권	건축착공면적	-10.8	-43.6	-30.1	-2.4	26.4	9.7	99.6	58.4	-0.1	-41.5	-1.3	-11.9	-8.1	-9.9	637
	건축허가면적	-8.6	-34.9	-48.6	1.9	46.2	20.5	58.4	74.3	-28.3	15.4	21.4	-5.7	39.0	24.2	33.1
	미분양아파트[1]	25,667	28,600	25,624	20,962	25,667	29,412	26,099	28,268	29,201	29,412	27,089	27,225	27,283	27,283	27,101
전국	건축착공면적	-5.2	-23.1	-22.8	4.5	21.3	15.8	44.0	46.1	4.5	-12.8	5.3	12.3	17.4	32.2	65.8
	건축허가면적	-12.9	-31.6	-32.7	-4.6	13.1	19.3	36.5	47.4	-14.3	18.1	21.5	3.8	58.7	59.2	53.4
	미분양아파트[1]	123,297	165,641	145,585	126,424	123,297	88,706	112,910	110,020	100,325	88,706	77,572	72,667	68,039	68,039	66,462

자료 : 국토해양부

주 : 1) 기말기준(호)

〈표 4〉 경기지역 수출 동향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09					2010					2011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1/4	2/4	3/4	9월	10월
경기도	-5.0	-38.6	-24.7	8.0	47.4	47.8	92.2	78.8	27.9	21.3	10.6	1.8	1.1	5.7	-3.7
	(580)	(99)	(126)	(170)	(186)	(857)	(190)	(225)	(217)	(225)	(210)	(229)	(220)	(74)	(72)
반도체	27.0	-23.6	-6.0	21.7	151.8	87.5	176.5	145.4	86.4	20.3	-1.9	-21.7	-32.4	-32.5	-29.3
무선통신기기	35.7	-82.2	-48.3	310.0	312.4	46.9	465.4	391.2	-24.2	-10.9	-23.1	0.5	1.7	19.2	0.8
자동차	-23.6	-44.6	-34.4	-0.2	-11.3	38.4	65.1	59.2	16.7	26.4	36.0	29.3	44.6	32.0	18.8
평판디스플레이	7.6	-26.2	-16.0	13.2	177.5	15.3	50.4	-3.7	29.5	-1.0	-20.3	-18.6	-25.6	-15.2	-1.8
수도권	-7.4	-32.2	-24.3	0.9	34.1	42.9	65.8	68.3	28.0	24.3	17.4	11.8	14.0	19.7	5.9
	(1,064)	(200)	(235)	(300)	(329)	(1,521)	(332)	(396)	(383)	(409)	(389)	(443)	(437)	(149)	(143)
전국	-13.9	-25.2	-21.1	-17.6	11.7	28.3	35.8	33.1	22.7	23.8	29.6	18.7	21.4	18.1	7.8
	(3,635)	(744)	(904)	(948)	(1,040)	(4,664)	(1,011)	(1,202)	(1,163)	(1,287)	(1,310)	(1,427)	(1,412)	(465)	(467)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 ) 안은 금액, 억 달러

업의 취업자가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의 취업자가 계속 늘어 비농림어업 취업자가 전년 3/4분기에 비해 17만 4,000명이 늘었으며 이는 전국의 증가인원 42만 1,000명의 41.4%를 점하였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의 취업자가 크게 늘었는데, 이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부문과 전기·운수·통신·금융 등의 고용이 호조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건설업 취업자는 소폭 늘어 건설 경기 회복 기미를 반영하였다.

3/4분기 중 경기도 실업률은 전년에 비해 0.8%포인트 하락한 3.1%로 나타났으며, 계절변동조정 실업률도 분기 중 3.1%로 하락하여 고용 사정이 호전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6. 물가 및 부동산가격

1/4분기 중 크게 상승하였던 소비자물가가 2/4분기 중에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4, 5월 중 출하 호조로 하락하고 공산품 및 서비스 가격도 안정세를 보인 데 힘입어 0.5% 상승에 그쳤으나, 3/4분기 중에는 다시 일기 불순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7.4%나 올라 물가 불안감이 확산되었다. 금년 들어 상승세로 반전된 주택매매가격은 3/4분기 중 안정되었으나 전세가격은 오름세가 지속되었다.

7. 금융

3/4분기 경기지역 금융기관 수신은 전

〈표 5〉 경기지역 고용 관련 지표 동향

단위 : 천명, %

		2009					2010					2011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1/4	2/4	3/4	9월	10월
경기도	취업자 수 증감	0	-16	-40	11	46	150	108	174	161	157	191	164	174	149	175
	(비농림어업)[1]	(-)	(10.0)	(37.0)	(46.9)	(41.8)	(36.9)	(36.7)	(33.6)	(38.5)	(39.7)	(42.5)	(40.6)	(41.4)	(45.0)	(32.6)
	제조업	-21	-43	-21	-6	-13	72	23	62	92	113	99	35	-33	-56	-81
	건설업	-16	14	-35	-9	-36	3	-28	4	24	14	4	-4	5	11	26
	서비스업	37	13	15	26	94	74	114	109	45	30	89	132	203	194	230
	고용률	58.9	58.0	59.3	59.4	59.0	59.0	57.6	59.7	59.5	59.1	58.2	59.7	59.3	58.9	59.4
	실업률	3.9	3.8	4.1	4.0	3.5	4.0	5.2	3.9	3.9	3.2	4.2	3.5	3.1	3.1	3.1
		-	〈3.5〉	〈3.9〉	〈4.1〉	〈3.9〉	-	〈4.9〉	〈3.7〉	〈4.0〉	〈3.5〉	〈4.0〉	〈3.4〉	〈3.1〉	〈3.3〉	〈3.6〉
수도권	취업자 수 증감	-57	-122	-106	-61	60	274	157	308	335	298	354	297	272	213	288
	(비농림어업)[1]															
	고용률	58.6	57.8	59.0	58.8	58.8	59.0	57.6	59.6	59.5	59.3	58.4	60.0	59.7	59.3	59.9
	실업률	4.2	4.2	4.5	4.3	3.8	4.4	5.5	4.2	4.2	3.9	4.8	4.1	3.8	3.8	3.6
전국	취업자 수 증감	-34	-159	-110	24	110	407	295	519	418	395	450	403	420	330	537
	(비농림어업)[1]															
	고용률	58.6	57.4	59.3	59.1	58.7	58.7	57.0	59.6	59.3	58.9	57.4	59.9	59.5	59.1	59.9
	실업률	3.6	3.8	3.8	3.6	3.3	3.7	4.7	3.5	3.5	3.3	4.2	3.4	3.1	3.0	2.9
		-	〈3.5〉	〈3.9〉	〈3.7〉	〈3.5〉	-	〈4.3〉	〈3.5〉	〈3.5〉	〈3.4〉	〈3.9〉	〈3.4〉	〈3.2〉	〈3.2〉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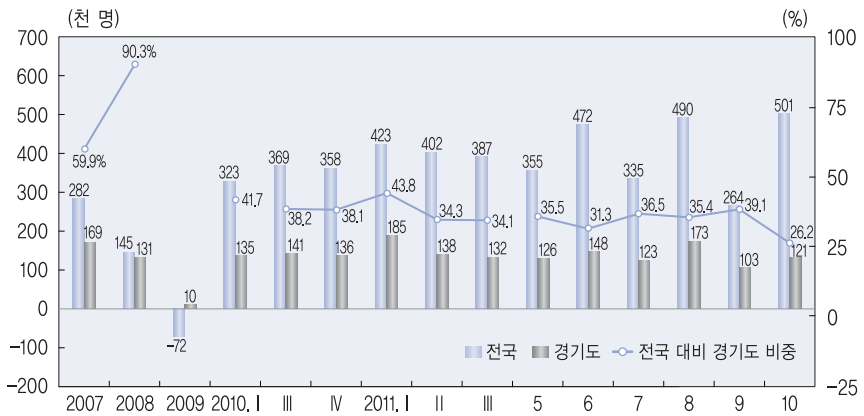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주 : 1)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의 전년동기 대비

2) ( ) 안은 경기도 비농림어업취업자 증가인원의 전국 대비 비중(%)

3) 〈 〉 안은 경기도 및 전국의 계절변동 조정 실업률

〈그림 2〉 전국 및 경기도 일자리 창출 수



〈표 6〉 경기지역 소비자물가 동향

단위 : 전기말 대비, %

	2009					2010					2011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1/4	2/4	3/4	9월	10월	11월
경기도	2.9	1.6	0.2	0.8	0.3	2.9	1.1	0.4	1.4	-0.1	2.2	0.5	1.1	0.0	-0.1	0.1
	-	(4.0)	(2.1)	(2.3)	(2.9)	-	(2.4)	(2.6)	(3.2)	(2.9)	(3.9)	(4.0)	(3.7)	(3.7)	(3.6)	(4.2)
상품	4.4	2.8	0.2	1.1	0.3	5.0	2.3	0.4	2.8	-0.6	3.4	0.1	2.0	-0.1	-0.5	0.2
농축수산물	2.4	5.7	-3.6	2.0	-1.5	16.2	7.6	-0.3	16.4	-6.8	7.2	-4.2	7.4	-1.0	-5.1	-1.2
공업제품	4.8	2.1	1.2	0.8	0.7	2.6	0.7	0.7	-0.1	1.2	2.7	0.9	0.9	0.1	0.3	0.6
서비스	1.9	0.8	0.2	.6	0.3	1.4	0.4	0.3	0.5	0.2	1.4	0.7	0.4	0.0	0.1	0.1
서울	2.6	1.4	0.3	0.7	0.3	2.9	1.2	0.2	1.7	-0.2	2.1	0.5	1.1	-0.1	-0.1	0.0
	-	(3.9)	(2.6)	(2.4)	(2.6)	-	(2.5)	(2.4)	(3.4)	(2.9)	(3.8)	(4.1)	(3.5)	(3.5)	(3.4)	(3.9)
인천	3.0	1.8	0.1	0.7	0.4	3.3	1.3	0.5	1.6	-0.2	1.8	0.4	0.9	-0.3	-0.2	0.2
	-	(3.8)	(1.8)	(1.9)	(3.0)	-	(2.5)	(2.9)	(3.8)	(3.3)	(3.7)	(3.6)	(2.9)	(2.9)	(2.6)	(3.4)
전국	3.0	1.5	0.2	0.8	0.3	2.8	1.2	0.4	1.5	-0.1	2.3	0.5	1.1	-0.1	-0.2	0.1
	-	(3.9)	(2.0)	(2.2)	(2.8)	-	(2.5)	(2.7)	(3.4)	(3.0)	(4.1)	(4.2)	(3.8)	(3.8)	(3.6)	(4.2)

자료 : 통계청

주 : 1) ( ) 안은 기말월의 전년동기 대비(%)

〈표 7〉 경기지역 부동산가격 동향

단위 : 전기말월비, %

		2009					2010					2011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1/4	2/4	3/4	9월	10월	11월
경기도	주택매매가격	-1.5	-2.4	-0.1	1.1	0.8	-0.1	-0.1	-0.5	-1.5	-0.4	0.6	0.6	0.1	0.1	0.1	0.0
	주택전세가격	-1.3	-3.5	0.5	2.0	2.7	6.1	0.7	1.6	0.7	2.7	3.9	4.3	3.0	1.8	1.1	0.0
	토지가격	1.217	-1.617	0.370	1.129	1.358	1.485	0.962	0.530	-0.084	0.071	0.262	0.380	0.428	0.130	0.130	-
수도권	주택매매가격	0.1	-2.0	0.0	1.3	1.1	0.6	0.2	-0.3	-1.2	-0.4	0.4	0.4	-0.1	0.0	0.0	-0.1
	주택전세가격	-0.2	-2.9	0.6	2.0	2.8	6.6	1.0	1.6	0.7	2.4	3.3	3.2	2.5	1.6	1.0	0.1
	토지가격	1.362	-1.485	0.531	1.214	1.119	1.016	0.852	0.277	-0.167	0.052	0.322	0.316	0.281	0.085	0.082	-
전국	주택매매가격	0.2	-1.4	0.0	0.9	1.2	2.4	0.6	0.5	-0.1	0.6	1.8	2.4	1.5	0.6	0.4	0.4
	주택전세가격	0.2	-1.9	0.4	1.4	2.3	6.4	1.3	1.7	1.2	2.3	3.4	3.7	2.8	1.4	0.9	0.6
	토지가격	0.955	-1.198	0.347	0.876	0.940	1.046	0.697	0.288	-0.051	0.110	0.288	0.295	0.289	0.094	0.095	-

자료 : 국민은행, 국토해양부

분기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이는 예금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 및 가계대출 규제로 그 재원인 CD 등 시장성 수신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여신은 증가세가 소폭 확대되었는데, 이는 예금은행 대출이 가계자금 대출 둔화로 감소하였으나, 비은행기관의 대출이 상호저축은행의 여신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호금융과 새마

〈표 8〉 경기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단위 : 증감액, 십억원

	2009					2010					2011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1/4	2/4	3/4	9월	10월
총수신	18,899	8,359	4,467	3,493	2,580	15,936	4,212	6,621	3,600	1,504	3,820	3,961	3,093	2,604	208
예금은행[1]	10,057	1,975	2,224	4,038	1,821	12,628	2,078	5,596	4,069	885	3,747	3,242	1,767	1,754	917
비은행기관[2]	8,842	6,385	2,244	-546	759	3,308	2,134	1,025	-469	619	73	719	1,326	850	-709
총여신	22,808	4,628	6,526	6,921	4,731	14,230	3,485	4,063	2,810	3,871	3,614	4,320	4,565	1,257	2,119
예금은행[1]	17,874	4,890	5,362	5,255	2,366	10,568	2,803	3,656	1,468	2,640	3,939	4,197	3,680	1,037	1,584
비은행기관[2]	4,934	-262	1,164	1,666	2,365	3,662	682	407	1,342	1,231	-325	123	885	220	535

주 : 1) 시장성수신(CD, RP, 매출어음) 포함
2) 자산운용사의 수익증권 포함

〈표 9〉 경기지역 기업자금사정 동향

단위 : %, 개

	2009					2010					2011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1/4	2/4	3/4	8월	9월	10월
어음부도율[1]	0.88	0.88	0.76	0.96	0.93	0.27	0.31	0.32	0.24	0.20	0.13	0.19	0.19	0.27	0.13	0.23
부도업체 수(개수)	231	78	53	52	48	170	54	42	34	40	36	31	28	11	9	17
(법인)	155	56	37	35	27	128	41	33	27	27	24	23	23	8	8	15
(개인)	76	22	16	17	21	42	13	9	9	13	12	8	5	3	1	2
제조업 자금사정BSI[2]	93	81	92	98	101	99	100	100	98	98	90	94	91	91	93	93

주 : 1) 부도금액/교환금액, 전자결제분 제외
2) 분기 평균 기준

을금고 등의 대출 호조로 소폭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기업자금사정은 지역내 부도업체 수가 개인 부문에서 소폭 감소하였으나 금액기준 어음부도율은 전분기 상승한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그러나 제조업의 자금사정BSI는 기준치 이하에서 소폭 하락하여 기업의 체감경기는 더 나빠진 것으로 판단된다. KIET

조 성 종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원지역 경제동향

• 산업생산 : 증가폭 확대 • 소비 : 증가세 지속 • 건설 : 감소세 • 대외거래 : 수출 호조, 수입 증가 • 고용 : 취업자 수 감소, 실업률 하락 • 물가 및 부동산가격 : 물가 상승, 주택가격 상승폭 축소 • 금융 : 금융기관 수신 감소 여신 증가, 자금사정 악화

Ⅰ.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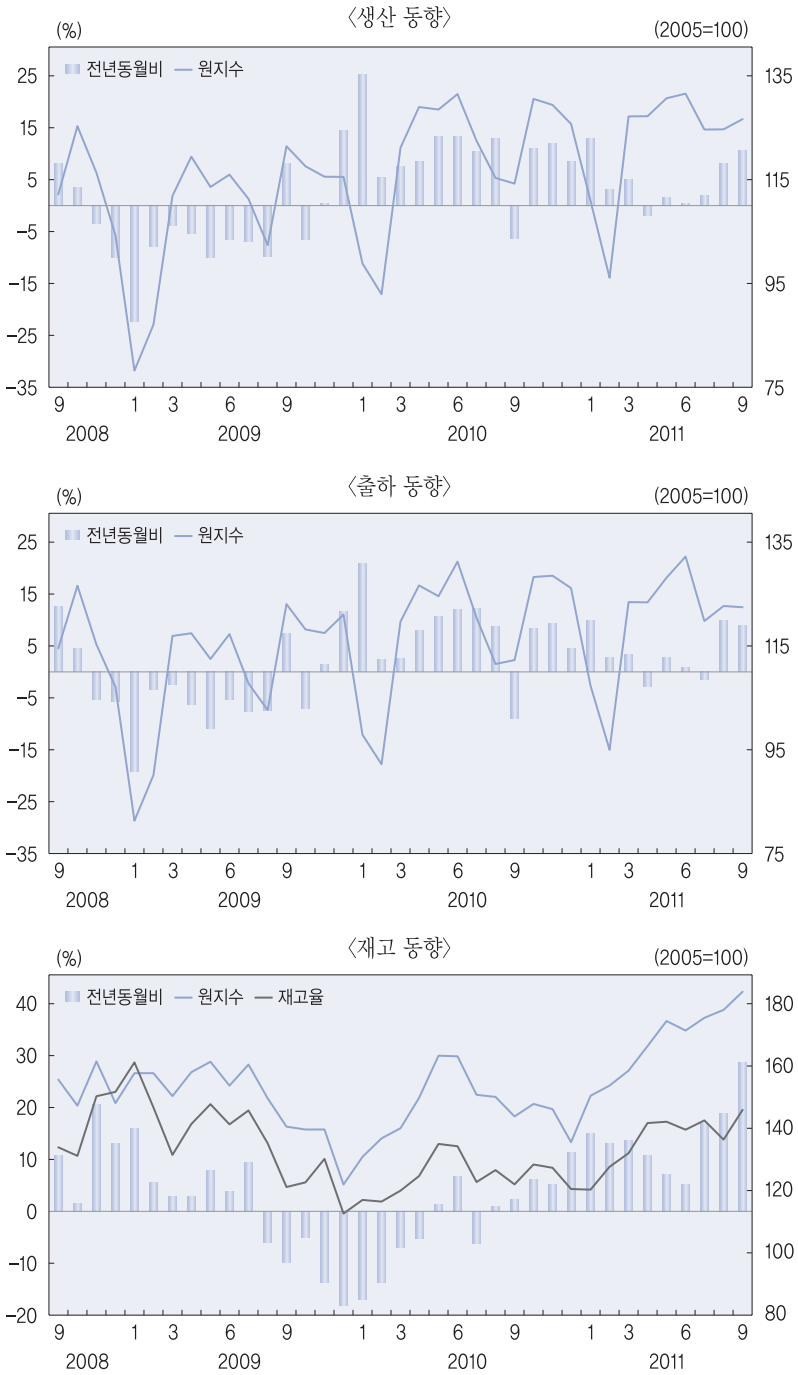
2011년 3/4분기 강원도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로 비교적 큰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소비 등 내수 역시 증가세를 지속하였고 건설 활동은 감소세를 보였다. 수출은 전분기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전반적인 수입가격 하락, 금속광물, 의료용 전자기기 등 강원도 주요 수출상품의 수출 증가세 둔화 등으로 전국 수출증가율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고용사정은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실업률 하락의 기조는 유지되었다. 소비자물가는 6월 이후 오름세가 지속되다 9월 들어 하락세로 반전되었으나, 분기 대비로는 상승폭이 확대되었는데,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서비스 등 전 분야에 걸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 등 부동산가격은 전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상승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금융기관 수신은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여신은 증가하였다. 기업자금사정은 8월 들어 다소 안정화되는 듯하였으나 9월부터 어음부도율이 다시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

Ⅱ. 부문별 경제동향

1. 산업생산

강원도의 2011년 3/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식료품, 의료정밀광학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비금속광물제품, 자동차, 1차 금속, 담배 등에서 증가하였다. 전월비로는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강원도 광공업 산업 생산·출하·재고 동향



〈표 1〉 강원지역 제조업 생산지수 동향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10		2011			
	3/4	4/4	1/4	2/4	3/4	9월
제조업	-5.2	10.9	7.1	1.6	6.5	10.3
중공업	-3.5	13.2	10.7	0.5	7.5	13.6
경공업	-9.0	5.3	-1.1	4.6	4.3	2.9
전국	11.2	11.9	10.5	7.3	5.1	6.8

자료 : 통계청

2. 소비

소비는 대형소매점 판매를 중심으로 증가세는 지속되었으나, 전분기 대비로 판매액 지수와 판매액 증가폭은 다소 감소하였다. 승용차 신규등록대수(전년동기 대비)는 증가폭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전분기의 증가세를 지속하였다(2010년 3/4분기 7.7% → 2011년 3/4분기 3.0%).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분기보다 소폭 하락하였으나, 기준치(100)보다는 높게 나타났다(2010년 3/4분기 116 → 2011년 3/4분기 105).

3. 건설

2011년 3/4분기 들어 강원지역의 건설공사 수주액은 감소세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발주액은 9월 들어 감소로 전환되고 레미콘 출하량의 증가폭 역시 축소되었다. 반면, 건축허가면적은 9월 들어 큰 폭의 증가세에 힘입어 증가세로 반전되었다.

4. 대외거래

2011년 3/4분기 중 강원지역 수출은 전년동기비 44.4% 증가한 5억 2,100만 달

〈표 2〉 강원지역 대형소매점 판매 동향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10		2011			
	3/4	4/4	1/4	2/4	3/4	9월
대형소매점	26.1	19.2	5.3	11.1	3.8	3.6
대형마트	28.1	21.0	13.8	11.6	11.2	2.3
전국	7.5	5.1	6.7	7.1	4.0	2.2

자료 : 통계청
주 : 대형소매점 판매 불변지수 기준(2005=100)

〈표 3〉 강원지역 건설투자 동향

단위 : 전년동기, %

	2010		2011			
	3/4	4/4	1/4	2/4	3/4	9월
건축착공면적	-10.3	34.5	-19	9.4	-12.2	20.7
건축허가면적	-1.1	38.4	-0.9	-60.9	45.7	91.6
미분양아파트[1]	4,413	3,320	2,147	3,214	2,690	-192

자료 : 강원도, 통계청
주 : 1) 기말기준(호), 임대용 제외

〈표 4〉 강원지역 수출 동향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10		2011			
	3/4	4/4	1/4	2/4	3/4	9월
강원도	25.8	43.8	44.0	31.6	44.4	39.7
수출액(천 달러)	361,241	473,356	436,073	489,771	520,243	180,459
전국	22.7	23.8	29.9	19.5	21.8	18.8

자료 : 한국무역통계(www.kita.net)

러로 동 기간 중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수출 호조세를 지속 중이다. 품목별로는 합금철(85.5%), 시멘트(42.0%), 기계류(267.7%) 등의 계속된 수출 급등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할 것이다. 한편, 9월 중 수출은 전년 동월비 39.7% 증가한 1억 8,000만 달러로 2010년 12월의 1억 8,100만 달러에 이어 월별 사상 두 번째, 금년 들어서는 가장 높은 수출액을 기록하였으며, 2011년 3월 이후 7개월 연속 1억 6,000만 달러대의 수출액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3/4분기 중 수입액은 3억 5,800만 달러로 전년동기비 14.3% 증가하였다. 9월 중 수입액도 전년 동월비 7.6% 증가한 1억 1,1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수출 및 수입 증가율이 동반 증가하고 있으나, 수출규모가 수입규모를 지속적으로 상회함에 따라 무역수지는 동 분기 중 1억 6,3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5. 고용

고용사정은 도소매·음식숙박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등에서는 증가하였으나, 농림어업, 전기·운수·창고·금융업,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면서 3/4분기 들어 1,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4분기 강원도 실업률은 1.8%로 전년 동분기에 비해 0.2%포인트 하락하는 등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며, 전국 평균(3.0%)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6. 물가 및 부동산가격

소비자물가는 7월과 8월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다 9월 들어 하락 추세로 반전되었으나 분기 대비로는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농축수산물과 공업제품, 서비스부문의 집세 등에서는 소비자물가가 올랐으나 개인서비스, 공공서비스에서는 하락하였다.

주택매매가격 등 부동산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며, 9월 들어 상승폭이 크게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표 5〉 강원지역 고용 관련 지표 동향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10		2011			
		3/4	4/4	1/4	2/4	3/4	9월
강원도	취업자 수 증감	-0.2	0.0	-2.3	2.5	-0.3	-0.9
	고용률	59.2	56.5	51.0	59.2	58.7	57.4
	실업률	2.0	2.3	3.6	1.7	1.8	1.5
전국	취업자 수 증감	1.6	1.5	1.8	1.7	1.5	1.1
	고용률	59.3	58.9	0.4	59.9	59.6	59.1
	실업률	3.5	3.3	4.2	3.4	3.1	3.0

자료 : 통계청
주 : ( ) 안은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감임.

〈표 6〉 강원지역 소비자물가 동향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10		2011			
	3/4	4/4	1/4	2/4	3/4	9월
강원도	2.8	3.0	4.4	4.5	4.7	4.4
상품	4.2	4.7	4.0	7.0	7.1	7.0
- 농축수산물	6.1	9.3	2.0	11.0	10.4	4.1
- 공업제품	3.7	3.6	4.6	5.9	6.4	7.7
서비스	1.7	1.8	1.7	2.8	2.8	2.6
전국	2.9	3.6	4.5	4.2	4.8	4.3

자료 : 통계청

〈표 7〉 강원지역 부동산 가격 동향

단위 : 전기말월비, %

		2010		2011			
		3/4	4/4	1/4	2/4	3/4	9월
강원도	주택매매가격	0.6	0.3	0.9	3.8	1.1	1.6
	주택전세가격	0.9	1.0	4.3	3.6	1.9	1.7
	토지가격	0.1	0.1	0.2	0.2	0.2	0.2
전국	주택매매가격	0.0	0.9	2.3	2.0	4.4	0.6
	주택전세가격	3.3	0.6	3.3	2.6	2.5	1.4
	토지가격	-0.05	0.1	0.3	0.3	0.1	0.1

자료 : 국민은행, LH공사

7. 금융

1) 여·수신 : 수신 및 여신 증가

금융기관 수신은 감소세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예금은행 요구불예금 감소와 저축성 예금 증가폭 축소, 추석자금수요 등에 따른 기업자유예금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 여신은 기업대출 확대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9월 들어 은행의 가계대출 억제 노력에 따른 감소 전환 등으로 증가폭은 다소 축소되었다.

2) 어음부도율 및 기업자금사정 : 자금사정 악화

기업자금사정은 8월 들어 어음교환액이 증가하고 부도금액이 감소하는 등 안정화

〈표 8〉 강원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단위 : 억원, %

	2010		2011			
	3/4	4/4	1/4	2/4	3/4	9월
총수신	2,918	1,929	9,708	4,165	4,054	-996
예금은행[1]	221	-2,981	10,336	2,696	1,712	-698
비은행기관[2]	2,697	4,911	-628	1,469	2,342	-298
총여신	1,576	4,526	916	1,632	2,768	279
예금은행[1]	820	1,640	1,594	626	1,664	350
비은행기관[2]	757	2,887	-678	1,006	1,103	-71

자료 : 한국은행 강원지역본부
주 : 1) 시장성수신(CD, RP, 금융채, 표지어음 포함)
2) 자산운용사 수익증권 포함

〈표 9〉 강원지역 기업자금사정 동향

단위 : %

	2010		2011			
	3/4	4/4	1/4	2/4	3/4	9월
어음부도율[1]	3.94	6.31	2.65	2.65	0.49	0.17
부도업체 수(법인)	6	9	8	7	6	3
(법인)	1	8	3	5	1	1
(개인)	5	1	5	2	5	2
제조업 자금사정BSI[2]	74	68	72	77	72	68

자료 : 한국은행 강원지역본부
주 : 1) 부도금액/교환금액, 전자결제분 제외
2) 분기 평균 기준

로 전환되었다가 9월에 어음부도율 상승으로 전환되었다. 제조업 자금사정BSI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Ⅲ. 주요 이슈별 동향

1. 평창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

강원도 평창이 7월 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 1차 투표에서 총 95표 중 63표를 얻음으로써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되었다.

정부는 인천공항~평창 간 KTX, 원주~강릉 복선전철, 제2영동고속도로 등의 교통망 확충과 경기장 신설 및 보완, 호텔과 선수촌 및 미디어촌의 건설과 각종 주변 도로정비 공사 등에 약 18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 춘천시에 레고랜드 테마파크 유치

강원도는 9월 1일 영국의 멀린 엔터테인먼드사 등과 「춘천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합의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중도유원지 일대 부지(약 132만㎡)에 테마파크, 테마거리 등 상업시설을 2015년까지 완공하고 아울렛, 호텔, 워터파크 등 관광 부대시설은 국내외 전문업체를 유치할 예정이다. 멀린사와 국내 컨소시엄사가 자본금 1,500억원을 출자하고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1,800억원을 차입하는 등 총 5,86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각종 인프라 및 인허가 지원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수질보전 및 환경보호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레고랜드 테마파크 건설에 따른 가족 단위 관광객 증가, 지역상권 활성화 및 애니메이션, 영상산업 등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 등 다수의 파급효

과도 기대된다.

3. 고성군, 국회의정연구원 유치 확정

박희태 국회의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황종국 고성군수 등은 9월 20일 국회의정연수원 고성군 유치를 공식 확정하고 예산 확보 등 건립 계획을 논의하였다. 총 건립비는 약 500억원으로 국회는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설계비 8억~10억원을 반영할 예정이며, 고성군은 토지 용도 전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 치 호
(강원TP 정책기획단 책임연구원)

대전지역 경제동향

• 산업생산 : 전분기에 이어 부진세 지속 • 소비 : 전분기에 이어 호조세 지속 • 건설 : 부진한 모습 지속 • 대외거래 : 수출 호조세 지속, 수입 증가세 지속 • 고용 : 취업자 증가, 실업률 하락으로 개선세 지속 • 물가 및 부동산가격 : 물가 오름세 확대, 주택가격 상승세 지속 • 금융 : 수신 소폭 감소, 여신 소폭 증가, 기업자금사정 개선

Ⅰ. 개관

최근 대전지역경제는 소비활동이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과 수입 등 대외거래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취업자가 증가하고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경기 개선 요인도 엿보이지만, 산업생산과 건설활동이 부진한 가운데, 물가상승률 상승폭도 확대되어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전지역 경기국면을 나타내는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2011년 들어 1월부터 3월까지 경기회복국면을 지속하였으나,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째 경기가 침체되는 모습을 보였고, 7월 잠시 반등하기도 하였으나 8월 이후부터 다시 침체국면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생산은 최근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요인이 지역에도 영향을 미쳐 전년동분기 대비 생산과 출하가 감소한 반면, 재고는 소폭 증가하여 생산활동은 지난 분기에 이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비는 대형소매점 판매액이 전년동분기 대비 상승폭은 둔화되었지만,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둔화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상승세가 둔화되었지만, 대형소매점 판매, 전력 소비, 농산물 거래가 늘어나면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건설활동은 지난 분기에 이어 건축착공면적이 소폭 증가하였지만, 건축허가면적이 대폭 증가하면서 전년동분기 대비 부진을 지속하고 있다. 향후 건설투자는 주택

시장 부진, 건설기업 심리 위축 등을 감안할 때, 여전히 어려움이 예상되나 부진세는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수출은 전분기에 이어 증가세를 지속한 가운데 증가율이 확대되었으며, 수입은 고유가, 내수회복 등으로 원자재와 소비재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전년동분기 대비 증가하였다. 무역수지는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흑자 폭도 전분기보다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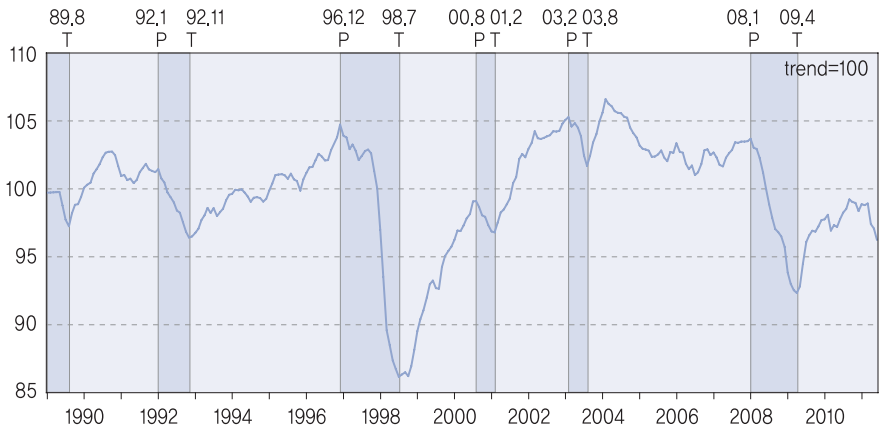
고용사정은 추석연휴 등 일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면서 건설업부문의 취업자 수가 지난 분기에 이어 감소하였으나, 소비 및 수출호조 등의 요인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에서 소폭 증가하고 있고, 실업률도 2%대로 하락하는 등 주로 민간부문 중심으로 고용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

소비자물가 오름세는 전분기 소폭 둔화되기도 하였으나 3/4분기 들어 다시 확대되었다. 그러나 분기 말 9월의 물가 상승폭은 다시 낮아졌다. 분기 전체로 기상 악화에 따른 채소류의 가격 상승, 국제 금값 상승에 따른 내구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물가상승을 견인하였다.

금융기관 수신은 8월 금리 인하 등에 따른 정기예금 증가폭 축소, 법인세 납부 등에 따른 수시입출식예금이 감소하면서 소폭 감소하였다. 여신은 전분기에 이어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 모두 소폭 증가하였다.

대전지역의 어음부도율은 전분기 7.16%에서 3/4분기 들어 0.27%로 대폭 하락하여 기업의 자금사정은 매우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1〉 대전경기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주 : P는 정점(Peak), T는 저점(Trough)의 기준순환일을 나타냄.

Ⅱ. 부문별 동향

1. 산업생산

최근 대전의 제조업 생산지수는 의복 및 모피, 섬유제품, 화학제품 등의 감소로 하락세를 보였고, 출하지수도 의복 및 모피, 영상·음향 및 통신, 식료품, 화학제품 중심으로 감소하여 소폭 하락세를 보인 반면, 재고지수는 1차 금속, 식료품, 담배 등의 업종에서 크게 증가하여 상승세를 보였다. 결국 최근 전년동분기 대비 생산과 출하가 감소한 반면, 재고는 소폭 증가하여 생산활동은 지난 분기에 이어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부진은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등에 따른 불안요인이 대전경제에도 영향을 미친 때문으로 판단된다. 제조업 업황 BSI는 3/4분기 들어 제조업은 전분기에 비해 하락세를 보였고, 비제조업도 전분기보다 하락하였다. 2011년 10월 업황전망BSI는 제조업은 전월보다 2포인트 상승하였고, 비제조업은 전월과 동일하였다. 제조업 업황은 최근 부진하였으나 이후부터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2. 소비

소비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분

〈표 1〉 대전지역 제조업 생산지수 동향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09	2010				2011				
	4/4	1/4	2/4	3/4	4/4	1/4	2/4	3/4	8월	9월
제조업	6.0	25.1	19.4	8.5	18.7	11.5	-1.5	-1.7	1.1	-1.7
	〈8.1〉	〈25.9〉	〈19.4〉	〈11.5〉	〈15.5〉	〈12.2〉	〈-2.0〉	〈-1.6〉	〈1.2〉	〈-3.6〉
담배 제조업	16.3	14.7	20.8	16.1	27.7	1.6	-16.7	1.6	27.6	-8.8
펄프, 종이제품	9.9	18.4	8.0	-3.8	2.8	1.7	-3.8	6.2	9.2	11.7
화학물질, 화학제품	5.7	30.5	17.6	11.4	25.8	29.6	6.4	-0.7	-0.8	-13.3
고무, 플라스틱 제품	8.0	26.6	8.3	-0.7	5.4	1.2	1.1	-3.6	1.1	1.3
전자부품, 통신장비	-24.2	33.5	35.7	-2.5	27.3	8.0	-8.1	-15.2	-8.3	-9.4
기타 기계, 장비	-13.4	21.7	35.0	18.6	42.2	35.5	2.0	-1.0	-9.8	14.0
충청권	32.7	40.1	20.9	10.3	13.5	8.1	9.4	2.6	-2.2	4.8
	〈35.0〉	〈40.9〉	〈20.9〉	〈12.5〉	〈11.4〉	〈8.7〉	〈9.0〉	〈2.6〉	〈1.1〉	〈-1.8〉
전국	17.5	26.6	19.3	11.2	12.0	10.9	7.4	5.1	4.7	7.1
	〈19.6〉	〈27.2〉	〈19.5〉	〈13.1〉	〈10.1〉	〈11.5〉	〈6.9〉	〈5.4〉	〈5.1〉	〈5.7〉

자료 : 통계청

주 : 1) 부가가치 기준 대전 주력산업임.

2) 〈 〉 안은 계절조정 기준임.

〈표 2〉 대전지역 대형소매점 판매 동향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09	2010				2011				
	4/4	1/4	2/4	3/4	4/4	1/4	2/4	3/4	8월	9월
대형소매점	1.8	6.5	6.7	9.9	8.1	7.5	7.7	4.8	5.2	3.1
백화점	6.0	11.3	12.7	10.3	14.4	11.7	9.3	6.0	5.9	5.1
대형마트	-1.5	3.3	2.1	9.5	2.7	4.2	6.5	4.0	4.6	1.7
충청권	2.8	8.1	6.2	10.5	6.2	11.1	13.8	10.1	9.9	8.2
전국	5.6	6.2	6.3	7.5	5.1	6.8	7.0	3.9	4.8	2.2

자료 : 통계청

주 : 대형소매점 판매 불변지수 기준(2005=100)

대비 상승폭은 둔화되었지만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둔화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상승세가 둔화되었지만 대형소매점 판매, 에너지부문의 전력 소비, 농산물 거래가 늘어나면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품목의 소비는 전년동분기 대비 백화점 판매액과 대형마트 판매액이 증가하였고, 농수산물 판매량, 자동차 등록대수 등이 증가하였다. 국제유가의 상승에 의한 유류소비량은 감소하였다. 향후 소매판매는 고용 개선 지속, 물가상승세 둔화 등으로 소비여건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글로벌 경기둔화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속보지표 등을 감안할 때, 소매판매를 제약할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3. 건설

건설활동은 지난 분기에 이어 건축착공면적은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건축허가면적이 대폭 감소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부진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건축부문의 건축허가면적이 대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미분양 아파트는 최근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건설활동 부진은 건설수주 부진, SOC 예산 축소, 건설기업 심리위축 등의 요인 때문으로 분석된다. 향후,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부진, 건설기업 심리위축 지속 등을 감안할 때, 여전히 어려움이 예상되나 부진세는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주택 인허가 증가와 건축착공면적의 대폭 증가, 미분양 아파트 감소 등 주택시장 회복조짐이 확대되고, 건설투자 선행지표도 양호한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4. 대외거래

수출은 2011년 3/4분기 들어 전분기에 이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증

〈표 3〉 대전지역 건설투자 동향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09	2010				2011				
		4/4	1/4	2/4	3/4	4/4	1/4	2/4	3/4	8월	9월
대전 광역시	건축착공면적	-52.6	-1.7	107.3	43.4	-8.7	23.3	7.64	7.64	14.08	234.33
	건축허가면적	-83.6	97.6	86.3	-10.7	21.5	80.4	-41.46	-41.46	1063.25	923.57
	미분양아파트	-18.4	-17.6	-19.2	-20.0	-28.9	-40.4	-45.46	-45.46	-63.63	-65.40
전국	건축착공면적	16.2	24.6	27.6	-10.7	197.0	27.2	24.75	4.37	-0.28	41.73
	건축허가면적	42.7	37.8	14.0	-33.0	-72.7	5.2	20.95	7.79	42.47	91.95
	미분양아파트	-25.5	-31.8	-24.4	-20.6	-28.1	-31.3	-35.14	-33.95	-32.60	-31.63

자료 : 국토해양부

주 : 기말기준(호), 임대용 제외

가 폭은 확대되었다. 수입은 고유가, 내수 회복 등으로 원자재·소비재 수입이 증가하면서 전년동분기 대비 증가하였다. 수출은 품목별로는 기계류, 화학공업제품, 광산물,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잡제품 등이 전년동기 대비 전분기에 이어 증가하였지만, 섬유류, 전자·전기제품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철강금속제품, 생활용품, 광산물, 화학공업제품, 전기전자제품 등에서 증가한 반면, 농림수산물, 잡제품, 기계류, 섬유류 등에서 감소하였다. 대륙별로는 수출은 대양주와

〈표 4〉 대전지역 수출 동향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09	2010				2011				
	4/4	1/4	2/4	3/4	4/4	1/4	2/4	3/4	8월	9월
대전광역시	19.5	42.4	30.3	15.9	15.6	25.6	14.5	16.1	24.3	10.1
농림수산물	9.9	22.4	3.8	11.0	22.6	19.0	19.8	1.4	-13.7	-1.4
화학공업제품	15.0	35.4	19.6	10.0	34.6	28.3	29.7	36.4	89.6	-4.1
기계류	67.6	43.4	49.2	34.3	12.2	86.9	61.3	68.3	75.4	78.5
전자전기제품	1.7	55.5	45.8	23.8	14.2	5.0	-19.8	-16.6	-12.9	-13.6
충청권	31.8	56.9	37.8	30.6	22.7	21.9	13.4	6.6	2.0	13.5
전국	11.7	35.8	33.1	22.7	23.8	29.6	18.7	21.4	25.4	18.1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수출액 기준 대전 주력산업임.

유럽, 중남미 등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수출은 감소하였다. 수입은 유럽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대양주 지역에서 증가한 반면,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에서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무역수지는 2010년 내내, 2011년 들어 3/4분기까지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흑자수지 폭도 지난 분기보다 확대되었다.

5. 고용

고용사정은 추석연휴 등 일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면서 건설업부문의 취업자 수가 지난 분기에 이어 감소하였으나,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의 취업자 수가 소폭 증가하는 등 주로 민간부문 중심으로 고용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 고용률 또한 전분기보다 감소하였다. 실업률은 전분기에는 2/4분기 3.2%에서 3/4분기 3.0%로 하락하였고, 특히 9월에는 실업률이 2%대로 낮아졌다. 3/4분기 고용상황은 전분기 대비 소비 및 수출 호조 등의 요인으로 민간부문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고, 실업자는 최근 감소함과 동시에 실업률도 하락하여 고용사정은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

6. 물가 및 부동산가격

물가 오름세는 2/4분기 소폭 둔화되기

〈표 5〉 대전지역 고용 관련 지표 동향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09	2010				2011				
		4/4	1/4	2/4	3/4	4/4	1/4	2/4	3/4	8월	9월
대전 광역시	취업자 수 증감	-1.4	-0.6	0.0	0.6	2.2	2.1	2.8	1.4	1.0	0.6
	- 제조업	-0.5	-1.3	-7.2	-3.0	4.0	2.7	5.2	1.2	-0.7	-0.7
	- 건설업	6.6	7.5	4.8	1.1	2.1	-7.2	-11.7	-13.1	-12.2	-10.8
	- 서비스업	-2.5	-1.5	0.7	1.5	2.1	3.0	3.8	2.2	1.8	1.7
	고용률	56.7	55.6	57.4	57.5	57.4	56.2	58.4	57.7	57.5	57.1
	실업률	3.1	4.6	3.5	3.3	3.1	4.7	3.2	3.0	3.2	2.6
충청권	고용률	58.8	56.1	60.5	60.4	59.0	56.7	61.4	60.2	60.2	59.7
	실업률	2.6	3.8	2.5	2.7	2.6	3.5	2.4	2.6	2.6	2.4
전국	고용률	58.7	57.0	59.6	59.3	58.9	57.4	59.9	59.5	59.6	59.1
	실업률	3.3	4.7	3.5	3.5	3.3	4.2	3.4	3.1	3.0	3.0

자료 : 통계청

주 : 취업자 증감은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

도 하였으나 3/4분기 들어 다시 확대되었다. 그러나 최근 9월의 물가 상승폭은 다시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3/4분기 전체로는 기상악화에 다른 채소류의 가격 상승, 국제 금값 상승에 따른 내구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물가상승을 견인하였다. 상품 부문에서 채소류 중심의 농산물 부문과 석유류 등 공업제품 등에서 상승하였고, 서비스 부문에서는 집세와 공공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상승하여, 전반적으로는 전분기보다 상승하였다. 물가상승률은 전분기 잠시 주춤하기도 하였으나 3/4분기 들어 다시 상승률이 확대되면서 지역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9월 들어 오름세가 대폭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전국의 물가수준과 비교하면, 대전의

〈표 6〉 대전지역 소비자물가 동향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09	2010				2011				
	4/4	1/4	2/4	3/4	4/4	1/4	2/4	3/4	8월	9월
대전광역시	2.1	2.9	2.7	3.0	3.5	4.5	4.4	4.8	5.1	4.3
상품	2.4	4.5	4.1	4.5	5.5	2.5	5.4	6.4	7.1	5.4
- 농축수산물	2.0	3.8	5.0	12.9	19.0	2.1	8.7	10.5	14.3	3.9
- 공업제품	2.6	4.4	3.8	2.4	2.3	2.6	4.9	5.7	5.6	6.0
서비스	1.9	1.9	1.8	1.9	2.1	1.5	3.3	3.3	3.4	3.2
전국	2.4	3.0	2.6	2.9	3.2	1.8	4.0	4.3	4.7	3.8

자료 : 통계청

〈표 7〉 대전지역 부동산가격 동향

단위 : 전기말월 대비, %

		2009	2010				2011				
		4/4	1/4	2/4	3/4	4/4	1/4	2/4	3/4	8월	9월
대전 광역시	주택매매가격	4.7	7.2	8.1	7.4	8.0	10.8	13.5	17.2	16.2	17.2
	주택전세가격	8.3	14.3	17.1	15.6	15.0	14.2	13.8	14.9	14.5	14.9
	지가변동률	-132.5	-159.2	-710.6	51.4	-12.7	8.5	58.2	-0.1	-0.18	-0.32
전국	주택매매가격	1.5	3.2	3.0	1.7	1.9	3.5	5.3	6.9	6.4	6.9
	주택전세가격	3.4	6.2	7.0	6.0	7.1	9.9	11.3	13.5	12.7	13.5
	지가변동률	-122.7	-158.0	-17.0	-105.8	-88.3	-58.6	2.4	-6.7	-14.43	-3.24

자료 : 국민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 기말기준, 지가변동률은 누계치임.

물가상승률은 오름세가 확대되고 있고, 전국에 비해 여전히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는 전년동분기 및 전년동월 대비 아파트와 연립주택 주도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단독주택도 소폭 상승하였다. 분기 전체로도 전국보다도 높은 수준의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주택전세가격 종합지수도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중심으로 전년동분기 및 전년동월 대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과 비교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토지가격상승률은 지난 분기 대비 대폭 낮아져 오히려 소폭 하락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 들어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신규분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7. 금융

1) 여·수신 : 수신 소폭 감소, 여신 소폭 증가

은행수신은 8월 금리 인하 등에 따른 정기예금 증가폭 축소, 법인세 납부 등에 따른 수시입출식예금이 감소하면서 소폭 감소하였다. 여신은 전분기에 이어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 모두 소폭 증가하였다.

최근 금융시장은 유럽 재정위기 확산 우려, 글로벌 경기 재침체 등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로 주식시장과 외환시장 모두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주식시장은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채권시장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에도 불구하고 환율 급등 등 외환시장의 불안에 따른 외국인

〈표 8〉 대전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단위 : 십억원, %

	2009	2010				2011				
	4/4	1/4	2/4	3/4	4/4	1/4	2/4	3/4	8월	9월
총수신	39,944	41,446	43,222	42,678	41,918	43,840	44,992	44,938	45,199	44,938
예금은행[1]	20,766	21,917	23,068	22,549	21,690	23,417	24,240	24,575	24,278	24,575
비은행기관[2]	19,177	19,529	20,154	20,129	20,228	20,423	20,752	20,363	20,921	20,363
총여신	24,743	25,526	25,476	25,867	26,393	27,017	27,631	27,849	28,312	27,849
예금은행[1]	17,885	18,431	18,321	18,453	18,593	19,135	19,448	19,917	19,883	19,917
비은행기관[2]	6,858	7,096	7,154	7,414	7,800	7,882	8,183	7,932	8,429	7,932

자료 :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주 : 1) 시장성수신(CD, RP, 매출어음) 포함

2) 자산운용사의 수익증권 포함

※ 자료는 분기 말(분기별 각각 3월, 6월, 9월, 12월) 잔액임.

〈표 9〉 대전지역 기업자금사정 동향

단위 : 개, %

	2009	2010				2011				
	4/4	1/4	2/4	3/4	4/4	1/4	2/4	3/4	8월	9월
어음부도율[1]	0.08	0.23	0.15	0.09	0.30	0.33	7.16	0.27	0.22	0.28
부도업체 수	12	11	9	6	8	5	9	12	3	4
법인	6	11	5	4	5	2	5	6	2	1
개인	6	0	4	2	3	3	4	6	1	3
제조업 자금사정BSI[2]	96	96	98	94	99	93	94	96	96	95

자료 :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주 : 1) 부도금액/교환금액, 전자결제분 제외
2) 분기 평균 기준

투자자금의 유출 우려 확산, 외국인 국채 선물 순매도 등의 영향으로 금리가 상승하였다.

2) 어음부도율 및 기업자금사정 : 개선

어음부도율은 전분기 7.16%에서 3/4분기 0.27%로 대폭 하락하여 자금사정은 매우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부도업체 수는 전분기 9개에서, 개인 부도업체가 많아지면서 12개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어음부도율이 전분기보다 대폭 하락하여 기업의 자금사정은 전분기에 비해 매우 좋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제조업 분야의 자금사정 실사지수는 지난 분기보다 소폭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으로 기업의 자금사정은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Ⅲ. 주요 이슈별 동향

1. 하반기 대전형 사회적 기업 17개 선정

대전광역시는 지난 7월 26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 17개를 선정하여, 시설비융자 2억원, 사업개발비 3천만원, 인건비 등을 지원하였다.

2.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1천억원 지원

대전광역시는 지난 7월 29일, 대전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업체당 2억~5억원(융자기간 : 최대 2년)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3. 추석 물가안정대책 수립 및 추석 재정자금 720억원 조기 집행

대전광역시는 지난 8월 14일,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각 시·구청에 설치하고, 총 23종(농축산물 18종, 개인서비스요금 5종)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선정하여 9.1~11일 중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을 관리하였으며, 이와 함께 지난 8월 26일,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보조비 등 취약계층 지원 자금(180억원), 각종 건설사업비(220억원) 등에 추석 재정자금을 지원하였다.

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발전협의회 출범

대전광역시는 지난 8월 24일, 대학, 연구기관, 시민단체로 구성된 과학벨트 거점지구 발전협의회를 출범시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지역산업계와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연계방안 등에 대한 논의와 의견을 개진하였다.

5. 고졸자 취업지원대책 발표

대전광역시는 지난 8월 24일, 고졸취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역량 지원사업, 고졸채용 기업 사후관리 등 3개 분야에 걸쳐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고졸자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6. 2012년도 정부예산안에 1조 3,704억원 반영

대전광역시는 지난 9월 28일, 2012년도 정부예산안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2,100억원, 세계조리사대회 개최 20억원, HD드라마타운 조성 29억원, 대전~오송 간 교통시설 건설 709억원 등 총 1조 3,704억원을 반영하였다고 발표하였다.

7. 2020 주택종합계획(안) 확정

대전광역시는 지난 8월 29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실현할 주택정책의 목표 및 중장기 세부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할 계획(안)을 확정하였다.

· 2020년 목표 : 주택보급률 108%, 천인당 주택 수 420호, 주거당 주거면적 35㎡,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2%, 주택 수 12만 5천호 확충(53만 6천호 → 66만 1천호),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감축(5만 가구 → 3만 가구), 2018년까지 1만 1천호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보 등

김 기 희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충북지역 경제동향

• 산업생산 : 소폭 감소 전환 • 소비 : 증가세 지속 • 건설 : 공공부문 부진, 민간부문 개선 • 대외거래 : 수출, 수입 증가폭 축소 • 고용 : 다소 확대 • 물가 및 부동산가격 : 물가는 증가세 지속, 주택가격은 상승세 축소 • 금융 : 수신 증가세 축소, 여신 증가세 확대, 기업자금사정 어려움

Ⅰ. 개관

최근 충북지역 경제는 제조업 생산과 수출의 증가세가 위축된 반면, 소비 증가세가 지속되어, 경기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충북 제조업은 식료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업종에서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주력 제조업 생산 업종 중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품에서 부진하여 제조업 생산지수가 감소로 전환하였다.

건설활동은 공공부문에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수요가 이전되면서 기존 미분양아파트가 감소하고 있으나 공급 측면에서 여전히 신규 투자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대외거래에 있어 수출은 전분기보다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그러나 충북의 주력업종인 플라스틱, 건전지 및 축전지 등이 꾸준한 증가를 보여 2011년 3/4분기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며 29.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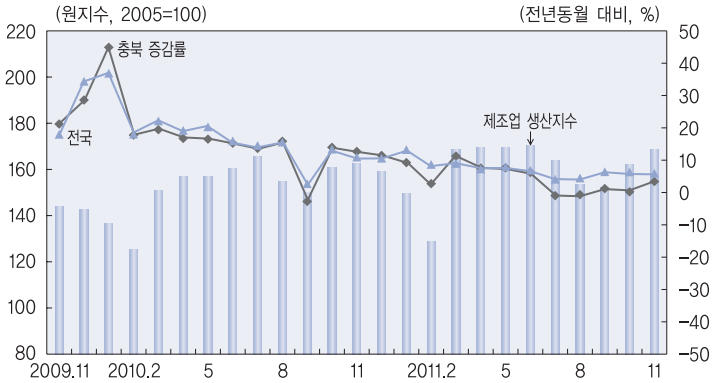
고용사정도 서비스업 부문의 취업자 수 증가세가 전분기에 이어 지속하였으며, 제조업부문은 소폭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와 대비할 때 큰 폭의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문별로 공업제품의 물가 상승압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어 물가불안이 확대되고 있고, 농축수산물가격 증가세도 상승폭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은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공공기관(6대 국책기관)의 이전 및 충주기업도시 공장건설로 인한 수요증가로 인하여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기관 수신은 증가세가 축소되는 경

〈그림 1〉 충북지역 제조업 생산



향을 보인 가운데, 여신은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업자금사정은 지역내 부도업체 수와 어음부도율이 감소하였으며, 제조업 자금사정BSI는 전분기에 비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Ⅱ. 부문별 동향

1. 산업생산

2011년 3/4분기 충북 제조업생산지수는 157.3(NSA,2005=100)으로 전년동기 대비 0.1% 하락하였고 전분기(+7.2%) 증가세에서 감소로 전환하였다.

충북의 제조업생산은 비금속광물제품은 감소하였으나, 식료품, 화학제품, 전자부품이 증가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며,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충북 제조업의 생산지수는 2011년 2/4분기 증가율보다는 낮으나 현재 전년동기 대비 대부분의 업종에서 전체적으로 증가세가 지속하면서(8.2% → 7.2%) 여전히 증가세를 보였다.

주요 업종별로는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의 경우는 전분기 8.7% 증가에서 14.0% 감소로 전환된 반면, 비금속광물제품은 전기(-6.7%)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었다. 식료품은 2.0% 증가에서 7.2% 증가, 화합물 및 화학제품은 7.2% 증가에서 4.8% 증가로 각각 증가세를 이어갔다.

충북의 3/4분기 중 제조업 업황BSI는 소폭 하락하였다(2010년 4/4분기 91 → 2011년 1/4분기 86 → 2/4분기 85 → 3/4분기 84).

2. 소비

2011년 3/4분기 충북의 소비는 대형소

〈표 1〉 충북지역 제조업 생산지수 동향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09	2010				2011			
	4/4	1/4	2/4	3/4	4/4	1/4	2/4	3/4	11월
제조업	19.2	26.6	16.6	9	12.8	8.2	7.2	-0.1	3.7
식료품	5	13.5	3.6	5.2	8.7	-1.6	2.0	7.2	6.7
화합물 및 화학제품	48.3	35.2	8.4	-0.4	4.8	-3.2	7.2	4.8	6.1
비금속광물제품	-5.8	2.9	4.1	-10.9	1.8	-1	-6.7	2.7	0.6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34.7	41.9	20.6	21	23.3	13.4	8.7	-14.0	-3.8
전국	17.5	26.6	19.3	11.2	12	10.9	7.4	5.1	5.9

자료 : 통계청

매점과 대형마트 판매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줄었으나, 소비 증가세는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소매점과 대형마트 3/4분기 증가율은 각각 7.9%, 8.2% 증가하였으며, 최근 2011년 11월은 각각 7.1%, 8.8% 증가하며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동차 신규등록대수의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은 7월 4.5%, 8월 4.3%, 9월 4.2%로 4%대의 증가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제유가상승 등으로 국내 석유가격 상승압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증가세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심리는 대체적으로 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물가 및 금리 수준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3/4분기 소비자심리지수는 긍정적 인식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1년 7월 105 → 8월 102 → 9월 103).

〈표 2〉 충북지역 대형소매점 판매 동향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09	2010				2011			
	4/4	1/4	2/4	3/4	4/4	1/4	2/4	3/4	11월
대형소매점	8.5	14.0	11.7	19.3	7.8	8.5	9.5	7.9	7.1
대형마트	7.2	13.8	10.6	20.3	6.9	7.8	9.7	8.2	8.8
전국	9.8	8.8	8.5	11.4	9.5	12.1	11.3	8.9	4.1

자료 : 통계청

3. 건설

주거용·공업용 건축착공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고, 3/4분기 아파트 분양시장은 청주권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 감소세가 지속되고, 매매·전세가격의 강세와 할인분양 등 업계의 자구노력과 세종시 건설 호재로 인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건설활동은 공공부문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간부문의 주택시장 개선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전국 주택 거래시장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당분간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파트 신규분양 예정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청사신축 수요 및 세종시 인접효과 등은 다소나마 호재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4. 대외거래

충북의 3/4분기 수출액은 29억 5,000만 달러를 수출하여 전년동기 대비 9.4%가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23억 1,000만 달러로 50.3% 증가하며, 수출입 모두 증가세를 이어가며 활발한 대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무역수지 측면에서 6억 5,000만 달러의 흑자를 실현하였다. 수출은 2010년 3/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폭이 축소되고 있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국제경제경기의 위축 우려가 증가하는 경향과 지난해 큰 폭의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충북의 수출 증가세는 전국 평균 증가세(3/4분기 21.4%)와 비교해 볼 때 낮은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타나났다.

품목별로는 충북 수출의 주력상품인 플라스틱제품, 건전지 및 축전지 등이 꾸준한 증가세를 시현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세계경제위기와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라 반도체 수출은 3/4분기 감소로 전환하였다.

수입은 수출확대에 따라 수출상품 제조에 필요한 자본재 수입의 증가로 수입도

〈표 3〉 충북지역 건설투자 동향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09	2010				2011			
		4/4	1/4	2/4	3/4	4/4	1/4	2/4	3/4	10월
충청북도	건축착공면적	13.9	-6.1	45.9	-30.6	-9.0	13.1	4.1	29.5	18.1
	건축허가면적	32.4	18.7	48.9	42.5	29.2	-10.4	27.2	-13.7	9.4
	미분양아파트[1]	5,128	4,581	5,039	3,793	3,428	3,016	1,835	1,350	1,195

자료 : 국토해양부

주 : 1) 기말기준(호), 임대용 제외

〈표 4〉 충북지역 수출 동향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09	2010				2011			
	4/4	1/4	2/4	3/4	4/4	1/4	2/4	3/4	11월
충청북도	15.5	42.2	11.9	25.6	36.5	41.6	28.9	9.4	1.8
반도체	118.5	117.1	53.5	61.6	32.9	59.8	30.5	-7.9	9.3
플라스틱제품	19.8	31.3	13.0	20.0	29.3	47.2	50.1	32.3	27.1
건전지 및 축전지	-4.1	57.2	23.2	2.3	31.7	61.9	82.5	96.1	55.6
광학기기	50.2	81.8	31.2	-2.2	14.5	-11.1	-8.2	-7.8	10.1
전국	11.7	35.8	33.1	22.7	23.8	29.6	18.7	21.4	12.7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품목별 분류는 MTI 3단위 기준임.

대폭적인 증가세를 시현하였다.

2011년 3/4분기 수입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50.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수출과 동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충북지역 제조업의 경기개선과 함께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수입품목은 동제품, 무선통신기기, 식물성물질, 플라스틱제품, 합성수지, 반도체제조용장비, 전선과 같은 품목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로 충북의 주요 수출품목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중간재 부품과 자본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5. 고용

고용사정은 전년동분기 대비 제조업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종에서 증가하여 3/4분기 충북 취업자 수는 2.1% 증가하여 전분기(+2.0%) 증가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3/4분기 고용률은 전국 평균(59.5%)보다 높은 61.0%로 나타났으며, 실업률의 경우도 전국 평균 실업률(3.1%)에 비해 낮은 2.5%를 기록하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의 취업자 수가 전년동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의 경우는 증가세를 이어가며 충북 고용증가세에 기여하였다.

6. 물가 및 부동산가격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 대비 큰 폭의 오름세가 지속되었다. 부문별로 공업제품의 물가 상승압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었고, 농축수산물가격 증가세도 상승폭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3/4분기 서비스 물가는 2011년 2/4분기 대비(2.8%)보다 다소 높은 수준

〈표 5〉 충북지역 고용 관련 지표 동향

단위 : %

		2009	2010				2011			
		4/4	1/4	2/4	3/4	4/4	1/4	2/4	3/4	11월
충청북도	취업자 수 증감률	1.4	2.5	2.3	1.6	1.1	1.9	2.0	2.1	1.3
	- 제조업	8.4	7.9	4.2	3.0	1.7	2.8	2.6	-1.1	-3.8
	- 건설업	-2.9	-6.1	2.1	9.8	15.5	8.8	-2.9	-4.1	-1.7
	- 서비스업	0.2	3.7	5.0	3.9	2.0	1.8	1.8	0.8	3.1
	고용률	59.4	56.2	61.7	61.4	59.3	56.6	62.2	61.0	60.0
	실업률	1.8	3.0	1.7	1.9	2.1	2.7	2.2	2.5	2.1
전국	고용률	58.7	57.0	59.6	59.3	58.9	57.4	59.9	59.5	59.7
	실업률	3.3	4.7	3.5	3.5	3.3	4.2	3.4	3.1	2.9

자료 : 통계청

주 : 1) 전년동기 대비

인 2.9% 정도의 증가세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공업제품의 경우 2011년 3/4분기 현재 5.7%의 오름세를 보여 전기(4.9%)와 대비해 볼 때 증가세가 확대되어 물가 불안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에 농축수산물의 경우는 본격 출하로 인해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높은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전국과 비교하면 전국 평균(4.3%) 수준보다 높은 수준인 4.7%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주택가격 등 부동산가격은 상승세가 확

〈표 6〉 충북지역 소비자물가 동향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09	2010				2011			
	4/4	1/4	2/4	3/4	4/4	1/4	2/4	3/4	11월
충청북도	2.3	2.9	2.7	2.7	3.4	4.6	4.3	4.7	4.3
상품	3.0	4.5	4.2	4.5	5.4	6.4	5.8	6.5	6.3
- 농축수산물	2.9	2.0	4.6	12.7	18.8	19.6	11.3	11.8	5.3
- 공업제품	3.1	4.8	4.0	2.4	2.4	4.2	4.9	5.7	6.8
서비스	1.9	1.7	1.6	1.6	1.8	2.6	2.8	2.9	2.4
전국	2.4	3.0	2.6	2.9	3.2	3.8	4.0	4.3	4.2

자료 : 통계청

〈표 7〉 충북지역 부동산가격 동향

단위 : 전기말월비, %

		2009	2010				2011			
		4/4	1/4	2/4	3/4	4/4	1/4	2/4	3/4	10월
충청북도	주택매매가격	0.8	2.1	3.6	4.5	5.4	7.9	10.9	3.2	16.1
	주택전세가격	2.7	4.2	5.7	6.3	7.0	9.4	12.8	3.2	18.1

자료 : 국민은행

대되었다. 주택가격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입주 공공기관(식품의약품안전청 등 6개 국책기관)의 이전과 충주기업도시로의 공장이전에 따른 주택 수요증가로 상승세를 보였다.

주택매매가격 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가운데 신규 아파트 공급은 제한적인 반면, 주택 수요가 지속적이어서 주택(아파트)매매가격의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7. 금융

1) 여·수신 : 수신 증가세 축소, 여신 증가세 확대

금융기관 2011년 3/4분기 수신은 전분기(702억원) 증가보다 증가폭이 축소되고 있으나, 여신폭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은 예금은행 전년동분기에 비해 증

〈표 8〉 충북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단위 : 억원

	2009	2010				2011			
	4/4	1/4	2/4	3/4	4/4	1/4	2/4	3/4	10월
총수신[3]	228	685	762	231	618	618	702	388	625
예금은행[1]	-150	403	355	148	244	636	493	-30	1,594
비은행기관[2]	378	282	407	83	374	-18	209	418	-968
총여신	374	40	50	112	453	311	375	613	2,704
예금은행[1]	174	-24	-36	-37	118	279	222	103	1,764
비은행기관[2]	200	64	85	148	336	31	153	510	939

주 : 1) 시장성 수신(CD, RP, 매출어음) 포함
2) 자산운용사의 수익증권 포함
3) 전분기 대비 증감액

〈표 9〉 충북지역 기업자금사정 동향

	2009	2010				2011			
	4/4	1/4	2/4	3/4	4/4	1/4	2/4	3/4	11월
어음부도율(%)[1]	0.36	0.39	0.63	0.26	0.43	0.66	0.23	0.17	0.16
부도업체 수(개수)	8	6	15	14	7	3	9	5	4
(법인)	5	15	10	4	10	3	8	1	4
(개인)	1	0	4	3	4	0	1	4	0
제조업 자금사정BSI[2]	91	89	94	91	89	80	82	84	82

주 : 1) 부도금액/교환금액, 전자결제분 제외
2) 분기 평균 기준

가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영향으로 가계대출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2) 어음부도율 및 기업자금사정 어려움

2011년 3/4분기 기업자금사정은 지역내 부도업체 수가 2010년 3/4분기(14개)보다 적은 수준인 5개로 줄어들었으며, 어음부도율은 0.17%로 2010년 3/4분기보다 0.09%포인트 감소하였다.

제조업 자금사정BSI는 3/4분기 평균 84로 체감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1년 2/4분기보다는 자금사정 BSI가 증가하였다.

Ⅲ. 이슈별 동향

1. 2015년 세계유기농엑스포 유치

충북도 내 18명의 도내 유기농산업 관련 기관·단체 인사로 구성된 ISOFAR 2015년 세계유기농엑스포(World Oranic Expo, WOE) 유치단(단장 박경국 행정부지사)은 그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입국했다. 지난 2012년 12월 21일 오전(독일 현지 시각)에 충북도의 프리젠테이션(ppt)이 끝난 이후, ISOFAR측은 자체 협의를 거치고 이어서 ISOFAR측과 충북도 WOE 유치단 간의 MOU 작성을 위한 마지막 협상을 시작했다. 충북 WOE 유치단은 이를 예상하고 사전에 준비한 협상안을 가지고 철저한 준비를 하여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어 냈다.

첫째, ISOFAR측에서 예산 규모를 "최소 300억원 이상(minimum 300 billion KRW)"으로 제안하였을 때, "300억원 정도(about 300 billion KRW)"로 협상하여 예산 확보의 탄력성을 기했다.

둘째, ISOFAR측에서 타이틀을 "ISOFAR World Organic Expo"로 제안하고, 어차피 기간과 장소는 따로 표기되기 때문에 2015 및 충북(괴산)을 타이틀에서 빼는 것으로

MOU 초안을 작성했다. 박경국 WOE 유치단장은 기간과 장소는 WOE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2015년과 충북 및 괴산이 타이틀에 삽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것이 반영되어, 최종 "ISOFAR World Organic Expo 2015, Goesan Chungbuk, ROK"로 합의하게 되었다.

셋째, 충북도는 ISOFAR가 제공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기농산업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받기로 합의하고, ISOFAR가 당초 제안한 10개 주제관에 전시하기로 하였다.

넷째, 2012년 3월 19일 이후 ISOFAR 로고 사용에 대한 전권을 충북이 가지기로 합의했다(단,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박경국 WOE 유치단장은 "이번 MOU(양해각서)는 큰 틀에서의 ISOFAR측과 충북도가 체결한 것이고, 오는 2012년 3월 19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사전 조율 과정을 거쳐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청북도는 한·EU FTA가 발효되고, 한·미 FTA가 타결되어 2012년부터 발효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또한 향후 FTA를 통한 경제 영토 확장이라는 국가적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단순히 FTA로 인한 피해 보전을 해 주는 차원이 아닌 경쟁력 있는 충북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리 실정에 맞는 농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신행정수도권 및 전국 어디에서나 접근성이 용이한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충주댐과 대청댐이 있어 12개 시군 중 7개 시군 22개 읍면동이 댐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충북은 국내외적으로 유기농식품 시장의 급성장에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FTA를 난공불락의 유기농산업으로 방어하자며, 생산부터 인증, 가공, 유통 및 체험 등의 일련의 유기농산업의 전후방 산업이 체계적으로 시스템화될 수 있도록 육성해 간다면 충분히 FTA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방어에만 그치지 말고 일본과 중국 등으로의 수출도 가능하도록 작지만 강한 공격력을 갖춘, 즉 고부가가치 유기농산업을 육성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세계유기농엑스포, 유기농푸드밸리 조성 및 유기농특구 조성 프로젝트는 일련의 연장선에서 계획되어 추진될 것이며, 서로간 상승작용을 통해 그 파급력을 12개 시군 전역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유기농산업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향후 ISOFAR측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어 모든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계획임을 밝히면서, 이번 2015 세계유기농엑스포 유치는 160만 도민의 단결된 힘의 결과이며, 충북도가 지향하는 생명과 태양

의 땅 충북 실현의 하나의 큰 디딤돌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2. 생명농업의 중심 충북 건설을 위한 「생명농업 육성발전 10대 전략」 추진

충청북도는 민선 5기 도민과 함께하는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에 제2의 농업혁명을 꿈꾸는 생명농업의 중심 충북 건설을 위한 「생명농업 육성발전 10대 전략」을 수립하고 2014년까지 총사업비 3조 6,165억원을 투자하여 40개 핵심사업 및 266개의 세부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강한 농업, 활기찬 농촌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 수요증가에 부응하는 지속가능한 생명 중심 친환경 농업·농촌을 구현하고,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는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도농이 함께하는 활력 있는 녹색농촌 창출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① 전국 제1의 유기농특화도 조성사업에 3,958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최초의 유기농 특구 및 유기농푸드밸리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기반으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7개소와 유기농업단지 30개소, 유기농생태마을 6개소를 조성하며, 오송 바이오밸리와 제천 한방 바이오밸리 및 뷰티산업과 융복합으로 연계하는 醫美(의농·미농) 있는 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14년 오송바이오엑스포와 연계하여 2015년 세계유기농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급속도로 성장하는 유기농 식품시장을 선점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 공급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친환경 유기농업을 확대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② 지속가능한 생명농업 기반구축을 위해 9,323억원을 투자하여 Bio-Solar 산업을 접목한 미래 첨단농업 테크노파크를 조성하고, 고품질의 기능성 신품종 등 우량 토종종자산업 육성, 중소농의 안정영농을 위한 농필품 지원 및 농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③ 전국 최고의 명품 농산물을 육성하기 위해서 3,524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생산 1위인 인삼 등 충북의 대표 5대 작목과 11개 브랜드 쌀 및 지역별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고, 과실 전문생산단지를 15개 지구로 확대하여 조성한다. ④ 고부가가치 글로벌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1,016억원을 투자하여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8개소 및 선진 외식산업과 농어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외식지구 육성, 김치·장류 등 우수한 전통식품을 산업화하고 농공상 융합기업을 발굴·육성한다. ⑤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하는 유통체계를 현대화하고 다양화하기 위해 292억원을 투자하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확대 설치 및 원예·특용작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소규모 유통시설을 확충하고, 우수 농산물 도지사 품질 인증제 및 대도시 직거래와 전자상거래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⑥ 구제역 등 질병이 없는 친환경 청정 축수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3,621억원을 투자하여 태양광 축사시설 30개소 설치 및 축사시설을 현대화하고 구제역·AI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남부권에 염소, 사슴, 양 등 청정가축 번식기반 구축, 중부권에 오리산업 클러스터 조성, 북부권에 친환경 무항생제를 사용하는 유기축산 확대 등 권역별 축산발전대책을 추진하며, 바다가 없는 유일한 내륙 충북에 해양수산문화체험관 건립, 미래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인 청정 꿀벌 및 곤충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⑦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색산림생태·휴양자원 육성사업에 4,351억원을 투자하여 치유와 휴양을 겸한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조성, 오송 바이오밸리에 바이오숲 조성, 청정 BIO에너지 확충, 탄소흡수원 조림 및 녹색숲 가꾸기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⑧ 도농이 함께하는 쾌적하고 활력 있는 녹색농촌을 만들기 위해 6,974억원을 투자하여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과 전통 문화유산을 접목한 친환경 로하스 관광레저단지와 녹색농촌체험마을, 전원마을과 전통테마마을을 확대 조성하고, 지역 고유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향토산업을 육성한다. ⑨ 농업이 전문화·규모화됨에 따라 우수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 및 후계농업경영인을 양성하고, 고령·여성농업인의 경영안정지원, 여성농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차세대 농업인을 위한 귀농·귀촌 정착지원,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지원 및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확대 등 농업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2,608억원을 투자한다. ⑩ 기후변화로 인한 온난화, 가뭄, 집중호우 및 신종 병해충 발생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498억원을 투자하여 재해 방제 및 병충해 발생 예방경보체제를 강화하고, 재해대비 배수개선과 수리시설 및 농업용수시설을 확충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도 40품목까지 확대 추진한다.

충청북도는 생명농업 육성발전 10대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생산자의 소득,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 미래 후손을 위한 환경보전 등 모두가 함께하는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차 산업인 생산의 한계를 벗어나 가공식품과 유통의 연계강화를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함과 아울러 농촌을 체험·학습·교류의 신공간으로 활력화하는 6차 산업의 복합농촌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에 건강하고 활기찬 생명농업의 허브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3. 옥천을 의료기기의 중심으로 육성

충청북도는 옥천군과 함께 지난 달 옥천 의료기기밸리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완

성했다. 본 계획의 추진 배경을 보면, 지리적으로 오송생명과학단지 및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가깝고, 인근 대전의 대덕테크노밸리의 인프라 연계 활용이 용이하며, 옥천군의 강한 육성의지 및 기 조성된(144,845㎡) 의료단지 내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충북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4대 전략 12개 이행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위해 의료기기단지 조성, 의료기기산업 고도화, 의료기기 R&BD 지원, 헬스케어 관광산업 육성 등의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제2의료기기단지 조성, 전문의료기기 기업 유치, 의료기기 전문 물류시설 구축, 의료기기 연구지원센터 구축, 의료기기 산·학 협력체계 구축, 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융·복합 의료기술개발 지원, 의료기기 금형제작 지원, 의료기기 기술사업화 지원, 의료기기 임상시험 활용 지원, 남부 3군 연계 헬스케어 관광산업 육성, 헬스케어 관광종합지원센터 구축 등의 12개 세부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총 사업비 1,045억원이 투입되어 2012년 상반기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2012년 하반기 예산을 확보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조성될 예정이다. 우선 2012년부터 기계산업, IT산업 및 의료기기 산업과의 융복합 기술개발을 위한 "융복합 뉴-헬스기기산업 육성"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며, 공모를 통해 5개 과제에 대하여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도비 80%, 민간 20% 비율로 6억 2,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4. 2013 오송 화장품·뷰티 박람회 국제행사 승인

충청북도는 2013 오송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가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됨에 따라 11월 중 조직위원회 사무국을 구성하는 등 행사준비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충청북도는 화장품·뷰티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글로벌 시장에 걸맞은 세계규모의 국제박람회 개최가 필요한 시점임을 인식, 타 지자체에 앞서 박람회를 선점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마침내 국제행사 개최 승인을 받기에 이르렀다.

국제행사로 승인됨에 따라 박람회 총 사업비 200억원 가운데 70억원의 국비 확보가 가능해졌다. 충청북도에서는 본격적인 행사 준비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국을 설치할 계획이며, 내년 초부터 행사주관 대행사 공모 선정,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 콘텐츠 개발, 국내외 홍보 등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나서게 된다. 또한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아시안 화장품포럼, ISO/TC217(국제표준화기구 화장품 분야 전문위원회) 세계총회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박람회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화장품과 뷰티산업을 주제로 2013년 5월 3일부터 5월 26일까지 24일간 청원군 강외면 오송역 일원에서 개최되며, 1,421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생산유발 973억원, 부가가치유발 448억원)와 1,420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예상 관람객은 외국인 7만여명을 포함해 89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기존에 개최되고 있는 소규모 화장품·뷰티 박람회와는 크게 차별화시켜 개최할 계획으로, 기업전시와 함께 세계 각국의 美의 문화, 화장(化粧)의 역사, 화장품 제조 및 소재의 변천사, 다양한 美 체험, 한류이벤트, 학술회의, 경연대회 등 기업과 일반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종합박람회로 구성된다.

충청북도는 「2013 오송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를 글로벌 시장에 걸맞은 세계규모의 화장품·뷰티 국제박람회로 육성하고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 대표 국제박람회로 자리 잡도록 할 계획으로, 박람회가 우리나라 화장품·뷰티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견인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추진

2005년 이후 2배 이상 급속도로 성장한 태양광산업이 최근 들어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도내 기업들도 조업중단에까지 이르는 등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아시아 솔라밸리 충북 조성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는 충청북도는 솔라밸리 정책방향은 그대로 유지하고 태양광 기업의 안정적 위기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충청북도는 지난 2분기부터 도내 기업이 매출실적과 생산가동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자, 도내 태양광기업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해 태양광 전문가들과 함께 태양광발전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태양광기업의 건의사항과 간담회 시 도출된 위기극복 방안을 토대로 한 태양광산업 위기극복 종합대책은 세 가지 기본방향을 갖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차원의 위기극복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 촉구이다. 2012년 태양광 의무할당량(RPS)을 200MW에서 500MW로 확대하고, 전기요금의 일부(4.5%)를 태양광산업 육성재원으로 활용하는 Surcharge제 도입, 현재 태양광기업 융자지원액을 1,118억원에서 더 확대, 중국산 덤핑방지를 위한 수입제품 국제인증기준 강화 등을 내용으로 중앙부처와 국회 방문은 물론 계기가 있을 때마다 건의할 계획이다.

둘째, 태양광기업의 안정적 위기극복을 위한 행정지원 대책이다. 개별기업에 대한 진단 소통을 통해 적기 행·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월 1회 태양광기업에 대한 실태진

단을 실시하고, 도·시군, 중기센터, 충북신보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태양광기업 긴급지원 TF팀을 가동할 계획에 있으며, 박막형 태양전지 보급사업 등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2012년 사업을 조기집행하고, 태양광기업 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3개 사업에 3억 1,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셋째, 미래 대도약을 위한 성장기반의 착실한 구축이다. 태양광 이외에 태양열 활용, 보전 등 에너지를 다양화하고,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의 조기 건립 추진은 물론 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센터 유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태양광학과 신설과 태양광 마이스터고 지정 육성을 통한 태양광 인력양성 체제를 구축하여 위기극복과 더불어 미래성장도약을 위한 기반을 착실하게 다져 나갈 계획이다.

충청북도는 태양광산업이 현재는 공급과잉과 유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일시적 불황을 겪고 있으나 2~3년 후에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하면 태양광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으므로 충북의 아시아 솔라밸리 정책 방향과 추진은 변함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KIET

정 삼 철
(충북발전연구원 산업경제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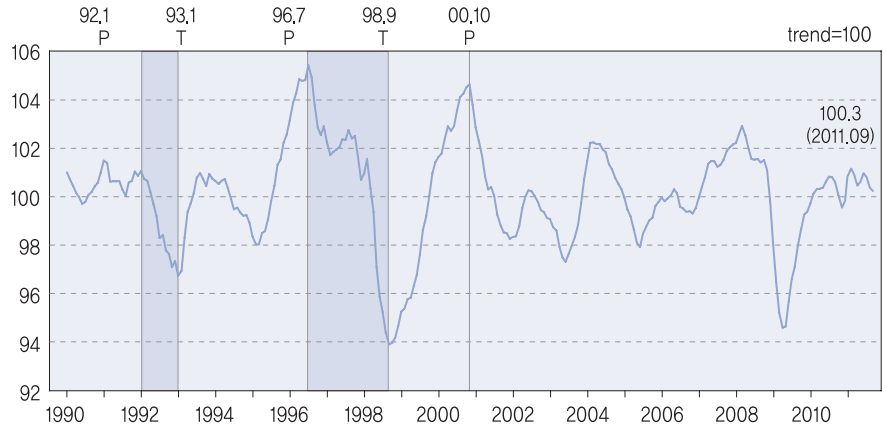
충남지역 경제동향

• 산업생산 : 증가폭 축소 • 소비 : 증가폭 확대 • 건설 : 회복세 • 대외거래 : 수출·수입 증가세 지속 • 고용 : 제조업 및 건설업 고용 증가, 서비스업 감소세 지속 • 물가 및 부동산가격 : 물가는 증가세 지속, 매매·전세가격 상승세 지속 • 금융 : 수신·여신 증가폭 확대, 기업경기 둔화

Ⅰ. 개관

2011년 3/4분기 충남 경제는 농축수산물 가격과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됨으로써 물가상승이 이어졌으며, 부동산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지역소비자들의 체감경기 악화가 지속되었다. 또한 제조업생산 및 수출의 증가가 계속되었으나 그 증가폭이 축소되었고, 고용사정 개선 추세가 둔화되어 전분기에 비해 충남지역의 경기

〈그림 1〉 충남지역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자료 : 충청남도

〈표 1〉 충남지역 동행종합지수 추이

(2005=100)

	2011.2월	3월	4월	5월	6월	7월p	8월p	9월p
동행종합지수	135.8	136.1	136.1	136.9	138.0	138.4	138.4	138.8
전월비(%)	0.8	0.2	0.0	0.6	0.8	0.3	0.0	0.3
순환 변동치	101.5	101.1	100.5	100.7	101.1	100.8	100.4	100.3
전월비(%포인트)	0.1	-0.4	-0.5	0.2	0.4	-0.2	-0.4	-0.1

주 : p는 잠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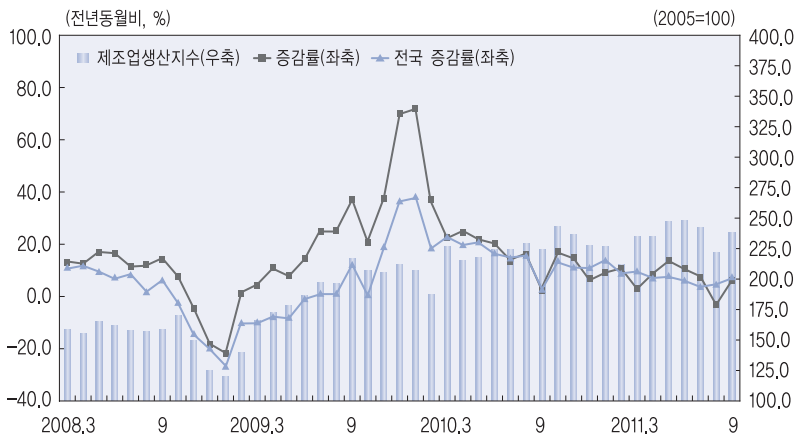
가 침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경기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1년 7월부터 9월까지 하락세를 나타내어 3/4분기 동안 지역경기 성장세가 다소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4분기 제조업은 전년동기 대비 3.8%의 산업생산 증가를 보였지만, 전기에 비해 증가율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재고지수의 증가도 크게 나타나 당분간 경제상황이 호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출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소폭 증가에 그쳐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충남 수출의 60%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로 세계 소비자들의 소비 감소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내 기업들의 부도율과 부도업체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제조업 자금사정 BSI가 98로 기준치 이하에 머물고 있어 기업경기 악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은 3/4분기에 있어 취업자의 증가폭

〈그림 2〉 충남지역 제조업생산



확대, 실업률의 소폭 하락 등으로 고용사정이 다소 개선되었지만, 전분기에 비해 그 개선폭이 축소되었다. 이와 함께 청년실업자 수의 지속적 증가와 금융위기 여파가 장기화될 우려와 함께 지역내 산업생산과 수출 등 지표들의 증가세 둔화는 향후 고용시장 상황을 매우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과 석유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주택매매·전세가격도 전기에 비해 상승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다. 다만 건설에 있어서 착공면적과 허가면적이 전분기 대비 각각 26.0%, 101.8% 증가하는 등 지역개발호재의 영향으로 건설경기 회복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Ⅱ. 부문별 동향

1. 산업생산

2011년 3/4분기 충남의 제조업 생산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3.8% 증가한 234.2(2005=100)로 다소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전국 평균을 웃돌던 충남지역의 제조업 생산지수가 3/4분기 들어 전국보다 낮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생산과 함께 제품 출하에 있어 전년동기 대비 3.9% 증가하여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재고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64.3% 증가한 256.3으

〈표 2〉 충남지역 제조업 생산지수 동향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09	2010				2011			
	4/4	1/4	2/4	3/4	4/4	1/4	2/4	3/4	9월
제조업	40.5	46.1	22.5	10.9	13.3	7.8	11.1	3.8	6.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17.5	9.7	3.7	4.2	7.2	2.3	-3.7	4.4	3.4
비금속 광물제품	42.3	34.7	16.0	5.2	-8.3	-2.8	-3.1	-19.0	-13.7
전자부품, 컴퓨터 및 통신장비	85.2	71.8	24.6	8.5	13.6	2.3	14.5	3.6	8.1
자동차 및 트레일러	21.1	69.1	32.2	1.8	-1.1	16.7	11.3	17.9	24.5
충청권[1]	32.7	40.1	20.9	10.3	13.5	8.1	9.4	2.6	3.4
	〈1.1〉	〈4.9〉	〈1.5〉	〈4.4〉	〈0.2〉	〈2.3〉	〈1.8〉	〈-1.7〉	〈5.0〉
전국	17.5	26.6	19.3	11.2	12.0	10.9	7.4	5.1	7.1
	〈2.1〉	〈4.8〉	〈4.5〉	〈1.1〉	〈-0.6〉	〈6.2〉	〈0.2〉	〈-0.3〉	〈1.1〉

자료 : 통계청, 시도/산업별 광공업생산지수, 광역경제권/산업별지수.

주 : 1) 광역권은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으로 가중평균

2) 〈 〉 안은 전기 대비(계절조정)

로 큰 폭의 상승을 하여 기업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생산과 출하에 있어 자동차 및 트레일러 부문이 2/4분기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이 전분기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반전하였다. 비금속 광물제품은 2010년 4/4분기부터 꾸준한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3/4분기에는 그 폭이 증가하여 비금속 광물제품의 생산이 주춤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생산과 출하의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재고의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글로벌 TV 수요 부진으로 인해 전자·영상·통신장비 부문의 재고 증가폭이 증가하여 아직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감소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소비

2011년 3/4분기 충남의 대형소매점과 대형마트 판매액 모두 전년동기 대비 증가하였다. 충남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지수는 173.7을 나타내며 총판매액은 3,665억 4,0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5.8% 증가하였고, 대형마트 판매지수는 174.6, 판매액은 2,468억 7,8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9% 증가하였다. 충남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의 지속적인 증가는 비내구재의 지속적 증가, 특히 비내구재의 의약품, 화장품, 서적·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3. 건설

충남의 건축허가면적은 주거용을 비롯해 공업용, 상업용, 농수산용 등의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101.8% 증가한 292만㎡를 나타냈다. 건축착공면적 역시 3/4분기 동안 주거용을 비롯해 거의 모든 부문의 건축허가면적이 증가하여 전년동분기 대비

〈표 3〉 충남지역 대형소매점 판매 동향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09	2010				2011			
		4/4	1/4	2/4	3/4	4/4	1/4	2/4	3/4	9월
충청남도	대형소매점	3.1	7.9	3.7	8.1	5.3	24.8	31.9	25.8	25.2
	대형마트	2.2	8.4	7.2	13.6	1.9	8.0	12.6	6.9	4.4
충청권[1]		2.8	8.1	6.2	10.5	6.2	11.1	13.8	10.1	8.2
전국		5.6	6.2	6.3	7.5	5.1	6.8	7.0	3.9	2.2

자료 : 통계청, 시도별 대형소매점 판매액

주 : 1) 대형소매점 판매 불변지수 기준(2005=100)

〈표 4〉 충남지역 건설투자 동향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09	2010				2011			
		4/4	1/4	2/4	3/4	4/4	1/4	2/4	3/4	9월
충청남도	건축착공면적	69.4	52.9	45.3	9.9	-8.5	-8.3	9.3	26.0	87.6
	건축허가면적	-42.2	-14.0	18.0	-17.2	8.0	2.0	-5.2	101.8	135.0
	미분양아파트[1]	-10.2	-22.3	-25.6	-23.2	-30.8	-36.8	-41.5	-42.8	-41.2
충청권	건축착공면적	27.7	30.4	29.6	19.4	2.2	-2.2	25.5	26.0	87.6
	건축허가면적	-32.2	9.4	-22.2	17.2	22.9	12.2	3.9	162.9	203.2
	미분양아파트[1]	42.7	-18.9	-8.4	4.0	13.5	-35.8	-43.3	-49.6	-50.0

자료 : 국토해양부, 월별 건축허가 현황, 월별 착공면적 현황, 미분양주택 현황
주 : 1) 기말기준(호), 임대용 제외

26.0% 증가한 162만 2,000㎡를 나타내어 전분기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충남지역의 용도별 건축허가면적은 3/4분기 동안 주거용이 다른 부문에 비하여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세종시 및 내포신도시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 예정 등의 영향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건축착공면적이 큰 폭 증가한 것 역시 지역내 부동산 호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분양아파트는 전년동기 대비 42.8% 감소하여 지속적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그 감소폭이 증가하고 있다. 미분양아파트가 감소를 지속하는 주요 원인으로 아파트 전셋값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아파트 매입과 분양가 인하 등 업체의 자구노력, 그리고 세종시 청약 열풍 및 내포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 수요증가, 천안, 아산, 당진 등 충남 서북부지역의 지속적 인구증가로 인한 자연감소 등으로 분석된다.

4. 대외거래

충남지역의 3/4분기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9% 증가한 150억 6,0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별로는 반도체가 16.6%, 석유제품이 202.4% 큰 폭 증가한 반면,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27.5%), 자동차(-40.7%)는 전분기 및 전년동기 대비 감소하였다. 특히 평판디스플레이는 세계경제의 소비침체로 인한 글로벌 TV수요 부진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에 있어서는 3/4분기 87억 4,0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7.4%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 이어

〈표 5〉 충남지역 수출 동향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09	2010				2011			
	4/4	1/4	2/4	3/4	4/4	1/4	2/4	3/4	9월
충청남도	36.4 (118.2)	61.1 (117.1)	44.6 (134.3)	32.5 (146.3)	20.7 (142.7)	18.0 (138.2)	10.5 (148.4)	2.9 (150.6)	13.2 (55.4)
반도체	71.6	90.6	67.9	57.2	25.7	28.1	9.9	16.6	10.1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39.4	46.0	25.8	10.7	-2.1	-7.6	-22.7	-27.5	-16.0
석유제품	-16.5	17.6	0.4	15.9	62.5	60.6	160.7	202.4	113.4
자동차	-34.3	161.0	515.6	238.1	117.9	105.5	-6.8	-40.7	-31.5
충청권	31.8	56.9	37.8	30.6	22.7	21.9	13.5	4.5	13.5
전국	11.7	35.8	33.1	22.7	23.8	29.6	18.7	23.0	18.1

자료 : 한국무역협회, 지역의 품목별 수출입
주 : ( ) 안은 금액, 억 달러

수입 역시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5. 고용

3/4분기 충남지역 고용사정은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 중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2/4분기 충남지역의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 중 서비스업이 56만 9,000명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수가 20만 3,000명을 나타냈다. 충남의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2010년 1/4분기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실업률은 2.2%로 전년동기 대비 0.6%포인트 감소하였지만, 고용률은 전년동기 대비 0.3%포인트, 전분기 대비 1.5%포인트 감소하여 지역의 고용사정 개선 추세가 다소 둔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6. 물가 및 부동산가격

3/4분기 충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4.9(2010=100)로 전분기 대비 1.2%, 전년동기 대비 4.5% 상승해 지역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농축수산물(+11.5%)과 공업제품(+5.9%)이 증가하면서 상품물가지수가 전년동기 대비 6.6% 증가하였으며, 올 들어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내었다.

서비스 품목의 물가지수도 전년동기 대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소비자의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도 105.4로 전분기 대비 1.2%, 전년동기 대비

〈표 6〉 충남지역 고용 동향

단위 : %, 전년동기 대비

		2009	2010				2011			
		4/4	1/4	2/4	3/4	4/4	1/4	2/4	3/4	9월
충청남도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감	0.4	4.5	4.9	3.2	3.2	3.3	2.7	3.2	3.1
	- 제조업	4.1	10.7	15.9	13.5	9.1	10.2	9.3	9.7	14.4
	- 건설업	1.8	14.0	-1.8	-15.3	-1.8	-1.8	14.3	32.0	34.0
	- 서비스업	-0.7	1.6	2.1	2.1	1.6	1.4	-0.3	-1.6	-2.9
	고용률	60.4	56.5	62.3	62.3	60.4	57.4	63.5	62.0	61.6
	실업률	2.8	3.7	2.4	2.8	2.6	3.0	1.9	2.2	2.2
충청권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감	0.2	2.7	3.2	2.6	2.5	2.5	2.4	1.5	1.3
	고용률	59.0	56.1	60.5	60.4	59.0	56.7	61.4	60.2	59.7
	실업률	2.6	3.8	2.5	2.7	2.6	3.5	2.4	2.6	2.4
전국	고용률	58.7	57.0	59.6	59.3	58.9	57.4	59.9	59.5	59.1
	실업률	3.3	4.7	3.5	3.5	3.3	4.2	3.4	3.1	3.0

자료 : 통계청(행정구역별 고용)

5.0% 증가하여 상승폭이 커지고 있어, 지역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경기의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4분기 충남지역 부동산시장은 2010년 3/4분기의 보합세에 이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전기

〈표 7〉 충남지역 소비자물가 동향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09	2010				2011			
	4/4	1/4	2/4	3/4	4/4	1/4	2/4	3/4	9월
충청남도	2.6	3.2	2.8	2.8	3.3	4.0	4.0	4.5	4.1
상품	3.4	5.0	4.5	4.6	5.4	6.1	5.8	6.6	5.8
- 농축수산물	3.4	4.2	7.0	13.6	18.8	16.5	9.6	11.5	6.7
- 공업제품	3.4	4.9	3.8	2.4	2.5	4.3	5.2	5.9	6.1
서비스	2.0	2.0	1.5	1.6	1.7	2.0	2.3	2.2	2.1
충청권	2.4	3.0	2.7	2.9	3.4	4.3	4.2	4.6	4.2
전국	2.4	3.0	2.6	2.9	3.2	3.8	4.0	4.3	3.8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표 8〉 충남지역 부동산가격 상승률

단위 : 전기말월비, %

		2009	2010				2011			
		4/4	1/4	2/4	3/4	4/4	1/4	2/4	3/4	9월
충청남도	주택매매가격	0.8	0.2	0.0	-0.1	0.2	0.7	2.3	2.2	0.9
	주택전세가격	0.9	0.6	1.5	0.8	1.9	1.7	3.2	2.9	1.2
충청권	주택매매가격	1.4	1.0	1.0	0.7	1.4	2.6	3.5	3.7	1.3
	주택전세가격	2.3	2.3	2.4	1.4	2.4	3.3	4.0	3.4	1.2

자료 : 국민은행, LH공사

말월 대비 2.9%, 2.2% 각각 상승하였다. 가을 이사철의 영향 및 지역개발 호재,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매매전환수요가 증가하면서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매매가격 상승이 지속되었다.

또한, 전세가격 역시 전세 선호 수요의 증가 및 가을 이사수요 등의 계절적인 요인으로 예년 대비 높은 상승폭을 나타내었다. 9월 현재 전월 대비 0.9% 상승하였고, 주요 상승지역은 아산, 천안 지역이며 아파트,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였다.

7. 금융

1) 여·수신

충남지역의 3/4분기 금융기관 수신과

〈표 9〉 충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단위 : 억 원

	2009	2010				2011			
	4/4	1/4	2/4	3/4	4/4	1/4	2/4	3/4	9월 말 잔액
총수신	5,052	5,173	9,712	4,214	9,859	9,485	4,421	5,490	451,942
예금은행[1]	-3,052	1,362	4,219	2,864	1,673	5,231	3,028	4,786	161,652
비은행기관[2]	8,104	3,811	5,493	1,350	8,186	4,254	1,393	3,541	290,290
총여신	7,790	2,792	2,423	5,226	5,506	-523	6,231	7,046	395,746
예금은행[1]	3,124	3,082	199	2,450	2,640	137	3,562	3,541	235,985
비은행기관[2]	4,666	-290	2,224	2,776	2,866	-660	2,669	3,505	159,761

자료 :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금융기관 여·수신 증감액)
주 : 1) 시장성수신(CD, RP, 매출어음) 포함
2) 자산운용사의 수익증권 포함

여신은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예금은행 수신은 거치·적립식예금의 증가 및 시장성 수신의 CD(양도성예금증서) 및 RP(환매조건부채권) 발행, 정기예금 증가세 지속으로 2/4분기에 이어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또한 비은행기관의 경우 7월, 8월의 주식시장 침체로 인한 자산 운용사의 주식형 펀드 및 MMF 환매로 감소로 전환, 9월 들어 농산물 출하대금 유입 등의 계절적 요인과 안전성선호자금의 유입 등으로 수신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여신은 예금은행의 경우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증가하였으나, 특히 기업대출이 꾸준히 증가하여 여신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저축은행의 대출 감소가 지속되었으나, 8월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의 가계대출 증가로 비은행기관 여신 증가폭이 확대되어 전분기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 어음부도율 및 기업자금사정

기업자금사정은 3/4분기 동안 지역내 기업의 부도금액 증가가 지속되었으며, 어음부도율 역시 부도금액 증가와 함께 전분기에 비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제조업자금사정BSI는 98로 1/4분기부터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9월 현재 100을 나타내어 기업경기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Ⅲ. 주요 이슈별 동향

1. 서산시·충남도·포스코P&S 투자유치 협약 체결

서산시는 충청남도와 ㈜포스코P&S 간 서산지역 신규투자를 위한 투자협약(MOU)

〈표 10〉 충남지역 기업자금사정 동향

단위 : %, 개

	2009	2010				2011			
	4/4	1/4	2/4	3/4	4/4	1/4	2/4	3/4	9월
어음부도율[1]	0.35	0.16	0.18	0.20	0.14	0.41	0.11	0.22	0.28
부도업체 수(개수)	13	3	6	7	5	3	1	7	2
(법인)	7	0	2	3	4	1	1	3	1
(개인)	6	3	4	4	1	2	0	4	1
제조업 자금사정BSI[2] (대전충남)	98	96	98	94	96	98	98	98	100

자료 :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주 : 1) 부도금액/교환금액, 전자결제분 제외

2) 분기 평균 기준

을 체결하였다(2011.7.13).

㈜포스코P&S는 알루미늄 등 비철 소재 분야에서 탁월한 포스코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계열사로 서산일반산업단지에 35만 9,000㎡(약 11만평)를 매입, 2013년까지 5,000억원을 투자, 알루미늄 압연 공장을 설립한다. 비철 소재 가공은 ㈜포스코P&S의 신성장동력사업이며, 향후 기업의 핵심 사업으로서, 연간 15만톤 규모의 알루미늄 압연 공장 신설과 더불어 생산 제품 후처리 및 비철 소재 가공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투자 협약 체결로 인한 경제효과는 충남도에 향후 3년간 5,000억원(전국 1조 2,79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2,943억원(전국 5,0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6,100여명(전국 9,400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충남발전연구원이 분석하였다(자료 : 충청남도).

2. 논산2일반산업단지 준공

논산시는 2011년 7월 11일 논산2일반산업단지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논산2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은 계룡건설산업㈜과 개발 협약을 맺고 성동면 원남, 원북, 정지리 일원에 지난 2009년 8월 착공했다. 이후 1년여 만인 2010년 9월 11개 업체를 유치하였으며, 전국에서 보기 드문 사례로 100% 분양을 완료하고 2년이라는 최단 기간에 508,810.4㎡(15만 3,000평)의 단지 조성을 완료하였다.

이에 국내 최대의 유리 밀폐용기 「글라스락」을 생산하는 삼광유리공업㈜을 비롯한 한전원자력원료㈜ 등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연간 4,500억원 이상, 2020년까지는 4조원 이상의 매출 효과 및 연간 200억원의 지방세수 증대로 논산시 재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논산2일반산업단지의 준공과 굴지 대기업들의 논산지역 이전은 3대 현안사업인 육군훈련소 면회제 부활, 논산-청주공항 광역철도망 확정, 탑정호 수변개발사업 선정 등 호재와 맞물려 지역발전의 청신호가 되고 있다.

입주 기업의 생산라인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향후 3,000여명의 고용 창출과 3,000여명의 인구 유입 효과로 지역경제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백운성 · 김윤아
책임연구원 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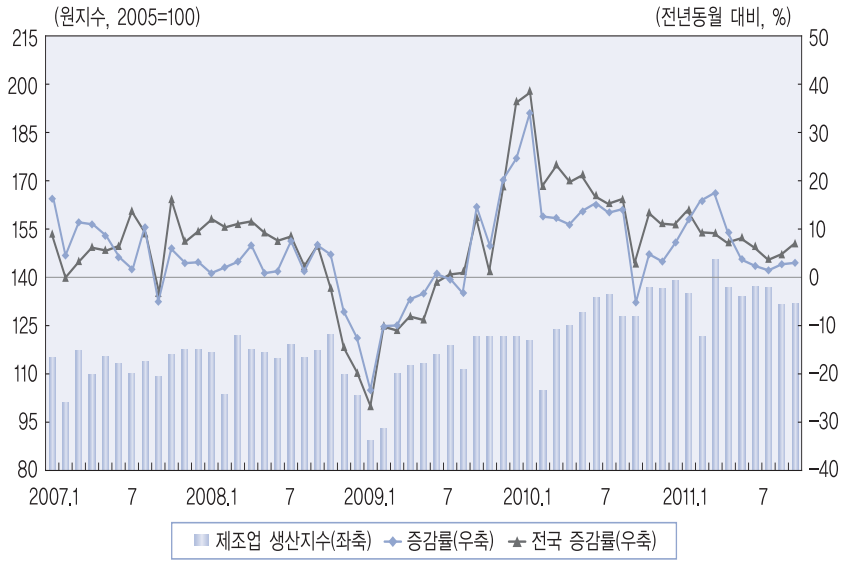
광주·전남지역 경제동향

• 산업생산 : 증가세 둔화 • 소비 : 증가세 다소 둔화 • 건설 :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호조 • 대외거래 : 호조 지속 • 고용 : 개선 • 물가 및 부동산 가격 : 물가 오름세 지속, 주택매매가격 상승폭 다소 둔화 • 금융 : 수신, 여신 모두 감소로 전환, 기업자금사정은 대체로 원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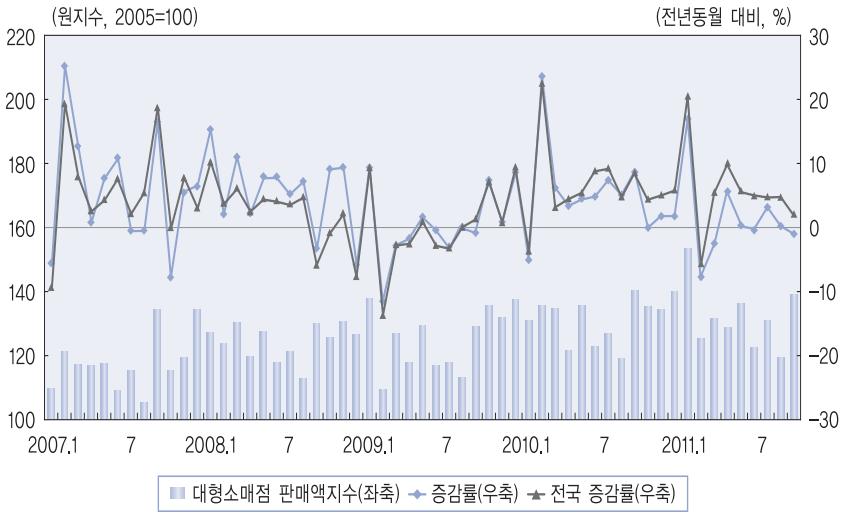
Ⅰ. 개관

최근 광주·전남 경기는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였으나 제조업 생산 및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상승세가 주춤하였다.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의 증가폭 축소, 전기

〈그림 1〉 광주·전남지역 제조업 생산



〈그림 2〉 광주·전남지역 대형소매점 판매



장비 및 전자부품의 부진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소비는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백화점 매출의 감소 전환 등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건설활동은 주거용 건축허가 및 착공면적이 크게 증가하는 등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호조를 나타내었다. 설비투자는 세계경기 회복 둔화 우려에 따른 일부 업체의 투자 지연 등으로 증가세가 주춤하였다. 수출은 석유제품, 자동차, 철강 등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호조를 지속하였다. 고용사정은 취업자 수의 증가폭이 확대되고 실업률도 하락하는 등 개선세를 보였다. 소비자물가는 증가세를 지속한 반면 주택가격은 이사수요 감소 등으로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었다. 금융기관 여·수신은 감소로 전환하였고 기업자금사정은 대체로 원활한 모습을 보였다.

Ⅱ. 부문별 동향

1. 산업생산

2011년 3/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의 증가폭 축소, 전기장비 및 전자부품의 부진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자동차는 2/4분기 27.2%에서 3/4분기 8.3%로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이는 지역 자동차업체의 수출은 대미 수출을 중심으로 호조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내수판매가 다소 둔화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전기장비는 일부 저가 생활가전의 생산이 해외로 이전함에 따라 전분기 -9.9%에 이어 -16.3%로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전자부품은 LED TV, PC 등 전방산업의 수요부진 등으로 감소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광주·전남지역 제조업 생산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10			2011				
	2/4	3/4	4/4	1/4	2/4	3/4	8월	9월
광주	22.5	24.1	22.0	36.5	11.4	2.5	5.3	1.0
자동차	21.3	34.5	28.1	73.7	27.2	8.3	13.2	4.2
전기장비	33.6	4.0	0.2	-4.2	-9.9	-16.3	-18.4	-10.2
고무플라스틱	23.9	27.9	21.2	25.7	15.6	7.6	6.2	12.0
전자부품	18.3	-5.7	2.1	7.7	-27.7	-3.1	9.4	6.9
전남	9.5	-0.1	-2.5	6.2	2.0	2.6	2.0	4.2
화학제품	3.5	2.3	2.3	7.6	3.8	5.5	5.5	3.8
1차 금속	32.9	7.9	2.8	4.7	-0.3	2.1	-1.2	5.3
석유정제	12.4	7.0	5.4	6.7	8.0	0.2	-3.1	-4.8
기타 운송장비	0.2	-1.8	-2.9	12.7	23.6	45.7	71.5	64.8
광주·전남[1]	13.5	7.0	5.3	15.2	5.1	2.6	3.0	3.1
	〈7.2〉	〈0.3〉	〈1.7〉	〈6.3〉	〈-3.5〉	〈-1.7〉	〈-3.2〉	〈-0.6〉
전국	19.3	11.2	12.0	10.9	7.4	5.1	4.7	7.1
	〈4.5〉	〈1.1〉	〈-0.6〉	〈6.2〉	〈0.2〉	〈-0.3〉	〈-2.0〉	〈1.1〉

자료 : 통계청

주 : 1) 광주·전남은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으로 가중평균

2) 〈 〉 안은 전기 대비(계절조정)

한편, 제조업 업황BSI는 2/4분기 93에서 3/4분기 81로 12포인트가 하락하여 제조업 생산의 체감 경기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2. 소 비

2011년 3/4분기 중 소비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대형소매점 판매는 대형마트 매출이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소비심리 위축으로 백화점 매출이 감소로 전환됨에 따라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어 2/4분기 1.9%에서 3/4분기 1.0%로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승용차 신규등록대수는 증가폭이 크게 감소하였다. 1/4분기 25.6% 증가하였으나 이후 2/4분기 11.6%, 3/4분기 0.1%로 증가율이 감소세를 보였다. 소비자심리지수는

〈표 2〉 광주·전남지역 대형소매점 판매[1)]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10			2011				
	2/4	3/4	4/4	1/4	2/4	3/4	8월	9월
광주	6.3	7.8	2.5	3.6	3.0	2.6	1.7	0.8
백화점	6.1	7.4	7.9	9.1	3.9	-0.3	-0.1	-1.7
전남	0.2	6.1	-2.0	-1.1	-0.8	-2.3	-2.4	-3.6
광주·전남	4.4	7.2	1.2	2.2	1.9	1.0	0.4	-0.6
전국	6.3	7.5	5.1	6.8	7.0	3.9	4.8	2.2

자료 : 통계청

주 : 1) 대형소매점 판매 불변지수 기준(2005=100)

2/4분기 103에서 3/4분기 102로 소폭의 하락세를 나타내었다.

3. 건설활동

2011년 3/4분기 중 건설활동은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호조를 보였다. 건축허가면적은 2/4분기 -7.6%에서 3/4분기 55.2% 증가로 전환하였으며 건축착공면적은 18.4%에서 79.6%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주택부문의 건축허가면적(60.2% → 158.8%) 및 착공면적(94.5% →

〈표 3〉 광주·전남지역 건설투자 관련지표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10			2011				
		2/4	3/4	4/4	1/4	2/4	3/4	8월	9월
광주	건축착공면적	17.9	-25.9	30.8	-0.5	51.2	253.5	468.3	110.8
	건축허가면적	338.0	-23.6	29.4	7.7	-20.6	102.0	6.0	53.9
	미분양아파트[1)]	2,822	2,150	1,809	805	655	619	458	619
전남	건축착공면적	33.7	17.5	21.8	27.2	7.9	27.4	70.9	17.2
	건축허가면적	55.7	-6.6	62.7	7.7	3.3	34.1	103.4	40.9
	미분양아파트[1)]	3,397	2,988	2,504	2,040	1,655	2,191	1,728	2,191
광주·전남	건축착공면적	29.5	3.5	24.0	20.4	18.4	79.6	187.5	34.7
	건축허가면적	120.7	-12.6	50.2	7.7	-7.6	55.2	66.1	44.6
	미분양아파트[1)]	6,219	5,138	4,313	2,845	2,310	2,810	2,186	2,810

자료 : 국토해양부

주 : 1) 기말기준(호), 임대용 제외

262.8%)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지역 건설업체들의 체감경기는 공공부문의 상반기 조기 발주로 인한 하반기 물량감소, 지자체의 관급공사 발주 부진 등으로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4. 수 출

2011년 3/4분기 중 수출은 석유제품, 자동차, 철강 등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호조세를 지속하여 2011년 1/4분기 42.7%, 2/4분기 30.6%, 3/4분기 29.4%로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3/4분기 광주는 14.4%, 전남은 35.2%로 두 지역 모두 전분기에 이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제품(2011년 2/4분기 84.1% → 3/4분기 71.6%)은 대중국 수출, 자동차(50.6% → 17.9%)는 대미 수출을 중심으로 각각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5. 고용사정

2011년 3/4분기 중 고용사정은 취업자 수 증가폭이 확대되고 실업률도 하락하는 등 개선세를 보였다. 전년동기 대비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광주 4.4천명, 전남 15.1천명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실업률도 광주, 전남 각각 2.6%, 2.0%로 낮

〈표 4〉 광주·전남지역 수출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10			2011				
	2/4	3/4	4/4	1/4	2/4	3/4	8월	9월
광주	28.2	26.0	25.8	39.0	16.8	14.4	19.2	22.5
자동차	20.5	54.8	29.1	103.9	50.7	17.9	25.5	14.6
가정용 전자제품	39.8	7.6	29.7	13.7	-1.3	-0.7	-2.0	18.0
타이어	51.0	90.9	43.4	22.1	25.0	16.7	31.0	6.9
반도체	11.2	-3.6	17.0	18.6	-8.3	22.7	34.8	39.6
전남	41.3	25.4	14.9	43.9	35.8	35.2	66.9	16.0
석유화학제품	34.8	17.0	22.6	30.5	18.2	25.7	27.5	19.3
철강제품	53.4	68.1	33.1	38.0	26.8	27.5	25.3	27.3
석유제품	79.7	26.3	16.3	61.2	84.0	71.3	93.9	37.3
광주·전남	37.5 (105.5)	25.6 (106.3)	18.0 (115.3)	42.7 (132.6)	30.6 (137.7)	29.4 (137.6)	53.9	17.8
전국	33.1	22.7	23.8	29.6	18.7	23.1	25.5	18.8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 ) 안은 금액, 억 달러

〈표 5〉 광주·전남지역 고용 관련 지표

단위 : 천명, %

		2010			2011				
		2/4	3/4	4/4	1/4	2/4	3/4	8월	9월
광주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감[1)]	20.7	10.7	0.1	-7.9	-0.7	4.4	14.2	15.6
	- 제조업	16.9	13.8	5.3	8.5	-1.8	-0.4	8.2	7.9
	- 건설업	11.2	8.0	4.5	-0.7	-5.0	-4.8	6.0	7.7
	- 서비스업	-7.4	-11.5	-9.7	-15.3	6.0	10.3	-2.1	3.8
	고용률	58.0	57.2	56.2	54.9	57.3	57.3	57.1	57.6
	실업률	3.9	3.3	2.6	3.9	3.6	2.6	2.6	2.0
전남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감[1)]	-20.6	-33.6	-12.6	-4.0	8.9	15.1	25.2	-3.4
	- 제조업	3.5	3.8	3.5	3.3	-3.7	-2.4	-2.1	-5.7
	- 건설업	-12.0	-8.0	-6.3	-15.3	-4.3	4.2	8.0	0.1
	- 서비스업	-11.7	-28.9	-8.8	9.9	18.3	15.1	20.9	3.7
	고용률	63.4	61.4	61.9	59.2	63.4	63.2	63.3	62.7
	실업률	1.7	2.1	1.9	2.7	1.5	2.0	2.3	1.9
광주·전남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감[1)]	0.1	-22.9	-12.5	-11.9	8.2	19.5	31.2	4.3
	고용률	61.0	59.5	59.3	57.2	60.7	60.6	60.5	60.4
	실업률	2.7	2.6	2.2	3.2	2.4	2.3	2.4	1.9
전국	고용률	59.6	59.3	58.9	57.4	59.9	59.5	59.6	59.1
	실업률	3.5	3.5	3.3	4.2	3.4	3.1	3.0	3.0

자료 : 통계청

주 : 1) 전년동기 대비

은 수준을 유지하여 광주·전남 실업률은 전분기 대비 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에 힘입어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3/4분기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광주, 전남이 각각 10.3천명, 15.1천명 증가하였다.

6. 물가 및 부동산가격

2011년 3/4분기 중 소비자물가는 대부분의 품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여 2/4분기 4.5%, 3/4분기 4.9%로 증가율이 높아졌다. 다만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으로 9월 오름세는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2011년 8월 5.4% → 9월 4.4%). 2011년 3/4분기 중 주택가격은 이사수요 감소 등으로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었다. 주택매매가격(전기말월 대비)은 2/4분기 4.8%에서 3/4분기 2.7%, 주택전세가격은 5.2%에서 2.7%로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주택매매가격은 광주, 전남이

〈표 6〉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10			2011				
	2/4	3/4	4/4	1/4	2/4	3/4	8월	9월
광주	2.5	2.9	3.5	4.4	4.2	4.7	5.2	4.3
상품	3.8	4.7	6.8	8.0	6.6	7.3	8.3	6.9
- 농축수산물	4.9	12.8	21.5	17.5	8.5	8.1	11.6	4.4
- 공업제품	3.6	2.6	2.8	5.3	5.9	7.0	7.2	7.7
서비스	1.7	1.7	1.3	1.8	2.4	2.9	3.0	2.5
전남	2.8	3.3	4.1	4.9	4.7	5.0	5.6	4.5
상품	4.4	4.8	6.4	7.2	6.0	7.4	8.5	6.4
- 농축수산물	8.2	13.3	18.8	13.6	5.2	7.2	11.6	2.0
- 공업제품	3.3	2.4	2.8	5.2	6.2	7.4	7.4	8.0
서비스	1.7	1.9	2.4	3.1	3.5	3.3	3.3	3.0
광주·전남	2.7	3.1	3.9	4.6	4.5	4.9	5.4	4.4
전국	2.6	2.9	3.6	4.5	4.2	4.8	5.3	4.3

자료 : 통계청

〈표 7〉 광주·전남지역 부동산가격 등락률

단위 : 전기말월 대비, %

		2010			2011				
		2/4	3/4	4/4	1/4	2/4	3/4	8월	9월
광주	주택매매가격	0.3	0.2	1.4	4.1	6.9	4.4	1.5	1.4
	주택전세가격	0.1	0.3	1.0	4.2	7.0	4.1	1.4	1.4
	토지가격	0.1	0.2	0.2	0.2	0.2	0.2	0.0	0.1
전남	주택매매가격	1.0	0.8	1.2	1.5	3.6	1.8	0.7	0.8
	주택전세가격	1.5	1.7	1.5	2.1	4.2	2.0	0.5	1.2
	토지가격	0.3	-1.2	0.3	0.2	0.2	0.2	0.1	0.1
광주·전남	주택매매가격	0.8	0.6	1.3	2.4	4.8	2.7	1.0	1.1
	주택전세가격	1.0	1.2	1.3	2.9	5.2	2.7	0.8	1.3
	토지가격	0.2	-0.6	0.2	0.2	0.2	0.2	0.1	0.1

자료 : 국민은행, LH공사

각각 4.4%, 1.8%, 주택전세가격은 각각 4.1%, 2.0%로 두 지역 모두 가격의 상승폭은 전분기에 비해 다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7. 여·수신

2011년 3/4분기 중 금융기관 수신은 전분기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하였다. 예금은행의 요구불예금 감소 전환, 비은행금융기관의 펀드 환매 및 상호저축은행 수신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은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감소로 전환되었다.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한 보수적 대출관리 등으로 비은행금융기관 여신이 큰 폭 감소로 전환한 데 주로

〈표 8〉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증가 추이

단위 : 억원

	2010			2011					
	2/4	3/4	4/4	1/4	2/4	3/4	8월	9월	9월 말 잔액
총수신	16,657	3,592	7,205	15,800	13,974	-1,662	-1,942	-895	780,086
예금은행[1]	8,929	1,528	-4,416	10,710	9,988	-415	-1,189	-83	315,967
비은행기관[2]	7,728	2,066	11,620	5,090	3,987	-1,246	-726	-838	464,120
총여신	469	6,582	10,328	5,447	10,329	-1,005	3,827	-8,286	529,175
예금은행[1]	-2,906	-266	2,358	4,244	4,836	4,694	2,013	399	318,607
비은행기관[2]	3,375	6,848	7,972	1,203	5,494	-5,700	1,814	-8,686	210,568

주 : 1) 시장성수신(CD, RP, 매출어음) 포함
2) 자산운용사의 수익증권 포함

〈표 9〉 광주·전남지역의 자금사정 추이

단위 : %, 개

	2010			2011				
	2/4	3/4	4/4	1/4	2/4	3/4	8월	9월
어음부도율[1]	0.70	0.21	0.29	0.22	1.44	0.41	0.59	0.39
부도업체 수	30	15	24	15	34	21	6	6
법인	24	13	20	9	27	16	6	4
개인	4	2	4	6	7	5	0	2
제조업 자금사정 BSI[2]	91	90	94	92	95	91	90	93

주 : 1) 부도금액/교환금액, 전자결제분 제외
2) 분기 평균 기준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8. 어음부도율 및 기업자금사정 등

2011년 3/4분기 중 기업자금사정은 어음부도율이 하락(2011년 2/4분기 1.44% → 3/4분기 0.41%)하고 부도업체 수도 크게 감소(34개 → 21개)하는 등 대체로 원활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제조업 자금사정BSI는 91로 전분기 대비 4포인트 하락하였다.

Ⅲ. 주요 이슈별 동향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란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자원의 상호교류 및 연구·창조·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즉, ① 아시아문화흐름을 중개(Hub)하는 '아시아문화교류도시', ② 아시아문화자원을 경제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미래형문화경제도시', ③ 세계문화예술을 선도하는 '아시아평화예술도시'의 세 가지 개념을 골자로 한다.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총 5조 2,912억원(국비 2조 7,679억원, 지방비 7,896억원, 민자 1조 7,337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는 2002년 12월 노무현 대통령후보의 '광주문화수도 육성' 선거공약 발표로 시작되었다. 이후 2004년 3월 대통령 직속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05년 12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착공행사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었다. 2006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안 시안이 마련되었고 2007년 10월 종합계획(대통령 승인)이 확정되었다. 2008년 9월 이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연차별 계획이 매년 수립 중이다. 2010년 12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 '도청별관 부분보존 방식 최종안'이 확정 발표되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우선 단기적으로 5대 콘텐츠 산업 육성(음악, 공예·디자인, 게임, 첨단영상, 에듀테인먼트), 아시아문화예술 교류, 도심경제활성화, 우수한 인적자본 지역 집중 등이며, 중기적으로는 콘텐츠 활성화를 통한 아시아문화산업 투자유치, 아시아문화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새로운 문화경제모델 제시가 가능해질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미래형 도시발전 모델 창출, 문화도시 플랜트 수출과 문화의 생활화를 통한 삶의 질 제고가 기대된다.

한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몇 가지 쟁점이 있다.

첫째로 아시아문화전당 완공 지연 문제이다. 아시아문화전당은 당초 2010년 5월 완공될 계획이었으나 착공 초기의 지하건

설 반대, 2008년 6월 이후의 옛 도청별관 보존 요구 등으로 2014년으로 완공이 연기되었다.

둘째로 연차별 실행사업에 대한 투자 부진 문제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총 투자계획(2004~2023년)은 5조 2,912억원으로 이 중 2011년까지의 투자계획은 1조 5,812억원이었으나 실제 책정된 예산은 8,431억원 수준이다. 이는 총 투자계획 대비 15.9%, 2011년까지의 투자계획 대비로는 53.3% 수준에 불과하며 상당 부분이 문화전당 건립에 집중배정(국비 6,113억원, 73%)되어 있다. 예산의 조기 집행을 통한 집중적인 도시 문화환경 조성과 문화·관광산업 육성으로 우수 인재를 불러 모으고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문화산업이 팽창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절실하나, 2015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 등으로 향후 관련 예산 배정이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은 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운영, ②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③ 기초예술 진흥 및 문화·관광 산업 육성, ④ 문화교류도시로서의 역량 및 위상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상존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조성사업을 마무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천 지 연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조사역)

전북지역 경제동향

• 산업생산 : 업종별 생산실적 혼조세 • 소비 : 개선세 지속 • 건설 : 부진 • 대외거래 : 수출 호조 지속, 수입 강보합세 유지 • 고용 : 호조세 • 물가 및 부동산가격 : 물가는 오름세 확대, 주택가격은 상승세 지속 • 금융 : 수신·여신 증가세 둔화, 기업자금사정 다소 개선

Ⅰ. 개관

최근 전북지역 경제는 제조업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소비 등 내수도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전라북도 제조업 생산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의 부진, 고무 플라스틱의 큰 폭 감소가 있었으나 자동차 및 트레일러와 전기장비의 수출이 증가하는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소비는 대형소매점 판매를 중심으로 전기 및 전년동기비 큰 폭으로 증가되면서 개선세가 지속되었다.

건설활동은 전북내 공공공사 발주액이 여전히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건축착공이 소폭 증가하고 건축허가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건축경기의 개선 여지가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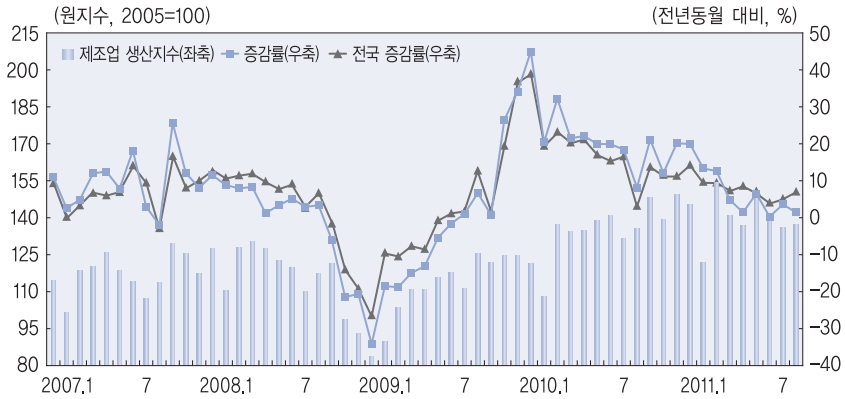
수출은 전분기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여 전년동기비 27% 상승하였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과 같이 자동차 관련 산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정밀화학원료에서도 큰폭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수입 또한 지속적 증가세를 보였다.

고용사정은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오름세가 확대되어 전년동기비 4.8% 증가하였다. 부문별로 공업제품가격 오름세가 둔화된 반면, 농축수산물 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주택가격 등 부동산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전북지역 금융기관 수신과 여신은 모두 증가폭이 둔화되었다.

〈그림 1〉 전북지역 제조업 생산



기업자금사정은 지역 내 부도업체 수가 줄어들고 부도금액이 감소함에 따라 어음부도율이 하락하였으며, 제조업 자금사정 BSI는 전분기에 비해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Ⅱ. 부문별 동향

1. 산업생산

최근 전라북도 제조업 생산은 글로벌 금

〈표 1〉 전북지역 제조업 생산지수 동향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09	2010				2011			
	4/4	1/4	2/4	3/4	4/4	1/4	2/4	3/4	9월
제조업	18.6	32.1	21.0	15.2	17.7	15.2	4.3	1.7	1.3
자동차 및 트레일러	32.1	62.7	25.0	1.8	9.2	14.2	13.6	14.4	13.7
전기장비	42.7	21.6	3.2	0.4	-21.5	9.1	18.2	5.6	8.1
고무 플라스틱	47.0	46.9	60.1	96.2	63.3	42.5	-21.1	-27.4	-36.8
전자부품·통신장비	37.5	77.6	32.1	10.0	20.8	-5.3	-13.1	-9.5	-14.2
호남광역권[1]	18.3	25.9	17.8	13.0	12.8	19.4	6.2	2.3	2.0
	〈20.3〉	〈26.7〉	〈17.6〉	〈15.8〉	〈10.4〉	〈20.6〉	〈5.6〉	〈2.3〉	〈0.6〉
전국	17.5	26.6	19.3	11.2	12.0	10.9	7.4	5.1	7.1
	〈19.6〉	〈27.2〉	〈19.5〉	〈13.1〉	〈10.1〉	〈11.5〉	〈6.9〉	5.4	〈5.7〉

자료 : 통계청

주 : 1) 호남광역권은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으로 가중평균

2) 〈 〉 안은 전기 대비(계절조정)

융위기로 인한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의 부진, 고무 플라스틱의 큰 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와 전기장비의 수출증가에 따라 대부분의 업종에서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는 전반적인 글로벌 수요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호조를 유지하면서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전자부품과 통신장비는 글로벌 수요의 감소에 따라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전년동기비 9.5% 감소하였고 이러한 추세가 3분기째 지속되고 있다.

3/4분기 중 제조업 업황BSI는 전년동기비 큰 폭(7포인트) 하락했으며 업황 개선 여부가 불투명하다(2009년 4/4분기 92 → 2010년 1/4분기 85 → 2/4분기 82 → 3/4분기 84).

2. 소비

소비는 대형소매점 판매를 중심으로 전기 및 전년동기비 큰 폭으로 증가되면서 개선세가 지속되었다.

승용차 등록대수는 신차 출시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 증가세를 보여 전년동기비 5.7% 증가하였다(2011년 3/4분기 523,466대).

소비자심리지수는 최근 소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상회하였다(2010년 1/4분기 108 → 2/4분기 107 → 3/4분기 106).

3. 건설

건설활동은 전북내 공공공사 발주액이 여전히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건축착공이 소폭 증가하고 건축허가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건축경기의 개선 여지가 보이고 있다.

특히, 미분양주택이 큰 폭으로 해소되어 건설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초기 단계이다.

〈표 2〉 전북지역 대형소매점 판매 동향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09	2010				2011			
	4/4	1/4	2/4	3/4	4/4	1/4	2/4	3/4	9월
대형소매점	5.8	5.0	3.6	8.6	-0.7	0.3	7.8	5.7	4.0
대형마트	7.3	8.9	6.0	10.5	-0.1	0.8	9.1	7.1	5.8
호남광역권[1]	5.0	6.0	3.1	7.4	-0.1	0.8	3.2	1.6	-0.2
전국	5.6	6.2	6.3	7.5	5.1	6.8	7.0	3.9	2.2

자료 : 통계청

주 : 1) 대형소매점 판매 불변지수 기준(2005=100)

〈표 3〉 전북지역 건설투자 동향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09	2010				2011			
		4/4	1/4	2/4	3/4	4/4	1/4	2/4	3/4	9월
전라북도	건축허가면적	43.3	62.5	15.4	-5.6	51.3	-9.0	46.9	3.6	-0.2
	건축착공면적	27.4	59.4	4.7	-7.6	62.1	-2.6	11.4	11.5	74.8
	미분양주택[1]	-0.8	-29.3	-43.5	-45.5	-59.6	-67.0	-71.0	-75.3	-74.7
호남광역권	건축허가면적	38.4	27.9	23.4	-0.7	35.0	7.9	29.9	46.7	19.6
	건축착공면적	19.5	40.0	65.2	-10.6	54.8	3.6	-1.8	36.5	57.1
	미분양주택[1]	-35.7	-46.7	-51.7	-51.5	-57.2	-65.8	-66.4	-61.3	-53.2

자료 : 국토해양부

주 : 1) 기말기준(호), 임대용 제외

4. 대외거래

수출은 전분기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여 전년동기비 27% 상승하였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과 같이 자동차 관련 산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정밀화학원료에서도 큰 폭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수입 또한 지속적 증가세를 보였다.

〈표 4〉 전북지역 수출 동향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09	2010				2011			
	4/4	1/4	2/4	3/4	4/4	1/4	2/4	3/4	9월
전라북도	39.0	112.5	110.8	51.4	49.3	36.9	19.3	27.0	26.0
승용차	83.3	116.3	88.5	20.8	32.5	44.2	14.9	1.7	-6.4
기타 정밀화학원료	410.4	273.1	112.1	7.6	47.3	93.6	75.3	68.4	56.6
자동차부품	94.7	210.5	125.4	67.5	25.5	25.8	20.5	22.9	43.5
화물자동차	-38.7	51.6	54.0	9.6	56.1	-6.5	19.0	31.3	75.9
호남광역권	21.9	57.3	48.1	30.1	23.2	41.6	28.3	28.9	19.3
	(39.1)	(38.3)	(44.4)	(44.2)	(48.1)	(54.2)	(57.0)	(57.0)	(53.0)
전국	11.7	35.8	33.1	22.7	23.8	29.6	18.7	21.4	18.1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 ) 안은 금액, 억 달러

5. 고용

고용사정은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사업·개인·공공·기타 부문 등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건설업 분야에서 최근 들어 처음으로 전년동기비 증가(1.8%)하였다.

6. 물가 및 부동산가격

소비자물가는 오름세가 확대되어 전년동기비 4.8% 증가하였다. 부문별로 공업제품가격 오름세가 둔화된 반면 농축수산물 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반면, 공공서비스는 강보합세를 유지하였다.

주택가격 등 부동산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주택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시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와 전월세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도시지역은 지난 수년간 경기불황으로 인해 주택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으로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표 5〉 전북지역 고용 관련 지표 동향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09	2010				2011			
		4/4	1/4	2/4	3/4	4/4	1/4	2/4	3/4	9월
전라북도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감[1]	2.2	0.8	1.3	-2.7	-0.9	-0.9	0.4	4.4	5.1
	- 제조업	6.6	6.7	4.1	7.1	4.1	6.3	-2.0	0.0	0.0
	- 건설업	-7.1	-13.9	0.0	-14.9	-6.2	-11.3	-14.9	1.8	-1.7
	- 서비스업	2.7	2.0	1.2	-2.8	-1.0	-1.2	3.0	5.5	6.8
	고용률	-1.4	-3.0	-0.2	-2.0	-1.6	-1.1	0.2	1.7	2.4
	실업률	-34.8	33.3	0.0	0.0	40.0	17.9	10.5	-5.0	-14.3
호남광역권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감[1]	1.3	1.4	0.5	-2.0	-0.9	-0.9	0.6	2.4	1.9
	고용률	-0.2	0.0	-0.4	-2.4	-2.1	-2.7	-0.3	1.6	1.6
	실업률	-21.1	11.6	-1.3	7.2	10.0	3.1	-4.0	-12.2	-14.9
전국	고용률	-1.2	-0.7	0.5	0.3	0.3	0.7	0.5	0.3	0.0
	실업률	6.5	23.7	-7.9	-2.8	0.0	-10.6	-2.9	-11.4	-11.8

자료 : 통계청

주 : 1) 전년동기 대비

〈표 6〉 전북지역 소비자물가 동향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09	2010				2011			
	4/4	1/4	2/4	3/4	4/4	1/4	2/4	3/4	9월
전라북도	3.0	3.5	2.9	3.0	3.7	4.6	4.1	4.8	4.3
농축수산물	4.4	5.1	6.5	12.2	19.2	19.4	10.4	11.4	6.1
공업제품	3.5	5.1	4.1	2.3	2.3	3.9	4.8	5.9	6.2
전기·수도·가스	-	-	-	-	-	3.0	4.2	5.0	4.1
집세	0.2	0.0	0.3	0.8	0.8	1.7	2.8	3.2	3.6
공공서비스	2.1	1.9	1.0	0.6	0.6	0.0	-0.4	0.2	-0.3
개인서비스	3.0	2.7	2.2	2.6	2.5	3.5	3.7	3.8	4.0
호남광역권	2.7	3.3	2.9	3.0	3.6	4.3	4.2	4.6	4.2
전국	2.4	3.0	2.6	2.9	3.2	3.8	4.0	4.3	3.8

자료 : 통계청

〈표 7〉 전북지역 부동산가격 동향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09	2010				2011			
		4/4	1/4	2/4	3/4	4/4	1/4	2/4	3/4	9월
전라북도	주택매매가격	2.6	4.8	6.1	7.7	7.4	8.6	10.3	11.5	12.6
	주택전세가격	3.4	5.8	6.3	7.4	7.0	8.6	10.2	10.5	11.1
	토지가격	0.389	0.069	0.048	0.035	0.202	0.051	0.048	0.044	0.047
호남광역권	주택매매가	0.9	2.5	3.5	4.3	4.5	5.8	9.1	11.7	12.8
	주택전세가격	1.3	2.9	3.4	4.5	4.7	6.2	10.1	11.9	12.8
	토지가격	0.496	0.092	0.065	0.044	0.214	0.068	0.063	0.058	0.057

자료 : 국민은행, LH공사

7. 금융

1) 여·수신 : 수신 증가세 둔화, 여신 증가세 둔화

금융기관 수신은 전분기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이는 예금은행의 대학등록금 인출에 따른 요구불예금의 감소, 비은행금융기관의 일부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자금유출의 확대에 기인하였다.

금융기관 여신은 증가세가 축소되었다. 이는 예금은행의 경우 마이너스 통장상환에 따른 가계대출 감소세 반전, 비은행금융기관의 일부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취소

〈표 8〉 전북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단위 : 억원

	2009	2010				2011			
	4/4	1/4	2/4	3/4	4/4	1/4	2/4	3/4	9월
총수신	355	4,153	1,158	581	500	3,051	2,366	766	795
예금은행[1]	-1,800	2,422	2,026	596	-687	2,292	2,067	137	347
비은행기관[2]	2,156	1,731	-868	-15	1,188	759	298	629	448
총여신	1,567	858	-2,008	824	3,267	731	3,057	1,685	-380
예금은행[1]	1,254	127	221	310	1,815	551	1,560	1,612	1,384
비은행기관[2]	313	731	-2,229	514	1,452	180	1,497	73	-1,764

자료 : 한국은행

주 : 1) 시장성수신(CD, RP, 매출어음) 포함

2) 자산운용사의 수익증권 포함

〈표 9〉 전북지역 기업자금사정 동향

단위 : %, 개

	2009	2010				2011			
	4/4	1/4	2/4	3/4	4/4	1/4	2/4	3/4	9월
어음부도율[1]	0.28	0.66	0.52	0.39	0.32	0.36	0.23	0.19	0.10
부도업체 수	8	14	13	14	12	26	15	4	1
법인	4	12	8	11	9	15	10	3	1
개인	4	2	5	3	3	11	5	1	0
제조업 자금사정BSI[2]	92	82	90	91	92	85	82	84	80

자료 : 한국은행

주 : 1) 부도금액/교환금액, 전자결제분 제외

2) 분기 평균 기준

에 따른 부실채권 정리에 기인하였다.

2) 어음부도율 및 기업자금사정 : 다소 개선

기업자금사정은 지역 내 부도업체 수가 줄어들고 부도금액이 감소함에 따라 어음부도율이 하락하였으며, 제조업 자금사정 BSI는 전분기에 비해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기업자금사정은 좋지 않다.

Ⅲ. 주요 이슈별 동향

1. 전북연고 신생프로야구단 유치 선언

7월 7일 전라북도는 전북연고 프로야구

단 유치를 위한 공동합의서를 채택하고 유치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전라북도와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은 신설프로야구단 유치에 합의하고 제10구단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공동합의서에는 4개 시군을 공동연고지로 하는 '프로야구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야구전용구장 건립과 기존 구장 개보수 등 신설구단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지역연고 프로야구단의 지원계획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북은 전통적으로 군산상고와 전주고등 야구의 명문고교를 중심으로 야구 열기가 높았으나, 2000년 지역 연고팀인 쌍방울 레이더스의 해체 이후 지역의 야구관람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KBO는 2014년까지 제9, 10구단을 1부 리그에 합류시킬 계획이며 제10구단을 유치하기 위하여 수원이 3월 유치신청을 한 상태이다. 전북도는 지역연고 프로야구구단 유치로 463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29억원의 부가가치효과, 그리고 1,000여명의 취업유발 효과 등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하였다.

2. 전북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창립

(주)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는 전라북도, 전북TP와 5개 대학(전북대, 군산대, 전주대, 우석대, 원광대) 등 7개 기관이 손잡고 기술과 자금을 출자해 설립, 기술기반형 전문기업을 창업하고 육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다.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대학의 R&D성과물(지적재산권)을 바탕으로 기술혁신형 벤처기업을 창업하고, 경영지원, 마케팅 지원 및 국내외 기술금융, 투자펀드와 연계해 추가 자금지원 등을 수행함으로써 자회사를 육성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주된 업무영역으로 하고 있다.

초대 대표(김영호)는 "향후 5년간 총 110억원을 투자해 각 대학에서 기술현물을 출자하는 형식으로 경영해, 2020년까지 기술혁신형 기업 50개사, 자회사 총매출액 2,000억원의 매출 및 500여명의 신규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 밝혔다.

3. 제 13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개최

제13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가 8월 29일에서 9월2일까지 부안 대명리조트에서 한중일 지방정부 관계자 532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전라북도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최한 본 회의는 3개국이 공감할 수 있는 서예 퍼포먼스로 문을 연 개회식에서 전주비빔밥을 소재로 한 비빔밥 비비기 퍼포먼스, 우석대 시범단의 태권도댄스와 국악 공연 등이 선보여 한국과 전라북도의 멋을 한껏 뽐냈다.

8월 30일에는 '지역특색을 살린 동북아 지방정부 교류 활성화'를 주제로 김완주

전라북도지사, 장쑤성 외사판공실 부주임(황시챵), 가고시마현 지사(이토 유이치로)가 주제발표를 하였다. 또한 교류회의에서 처음으로 특별토론회가 마련되어 '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에 대해 3국의 지방정부관리들이 참석하여 한중일 3국의 시책을 공유하였다.

이 강 진
(전북발전연구원)

부산지역 경제동향

• 산업생산 : 증가세 다소 둔화 • 소비 : 증가세 둔화 • 건설 : 지속 증가 • 대외거래 : 수출 증가세 지속 • 고용 : 호전 • 물가 및 부동산가격 : 물가는 오름세 지속, 주택가격은 상승세 지속 • 금융 : 은행의 수신/여신 증가세 확대, 비은행기관 위축, 부도율 하락, 기업자금사정 보합세

Ⅰ.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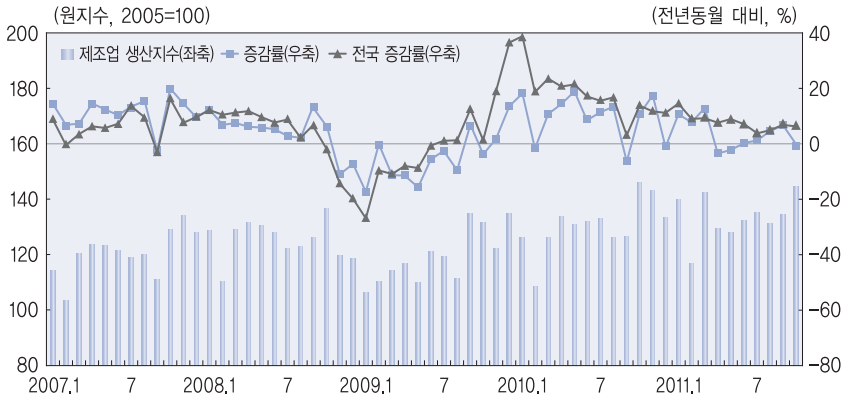
최근 부산지역 경제는 제조업 생산, 수출, 소비(내수)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전분기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제조업 생산은 경공업 업종의 생산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중공업 제품의 생산은 다소 위축되고 있다. 하지만 부산의 주력 업종인 자동차의 생산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조선업도 감소세가 완화되면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다. 소비는 그동안 지역 소비를 떠받치고 있던 백화점의 실적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체 대형소매점 판매 증가세는 소폭에 그치고 있다.

건설활동은 그동안 부산지역의 주택부문의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미분양 주택이 크게 줄어들어 9월 말 현재 2,842호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건설활동의 선행지표인 건축허가면적도 전년동기 대비 35%가량 증가하였다. 수출은 2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2.1% 감소하였던 부산의 주요 업종인, 기계부문의 수출이 거의 30% 가까운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부산의 주력 업종들의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고용사정은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호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감소한 반면 제조업의 취업자수는 1만 3,000명이나 크게 증가하였다.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의 물가상승 압력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예금은행의 여·수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비은행기관의 여·수신은 저

〈그림 1〉 부산지역 제조업 생산



축은행 사태로 인하여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업자금사정은 지역내 부도업체수 및 어음부도율이 소폭 하락하였으며, 제조업 자금사정BSI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II. 부문별 동향

1. 산업생산

최근 부산지역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기

〈표 1〉 부산지역 제조업 생산지수 동향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09	2010				2011			
	4/4	1/4	2/4	3/4	4/4	1/4	2/4	3/4	9월
제조업	3.6	9.1	14.0	5.6	8.6	10.5	-1.7	3.9	6.2
1차 금속	2.2	4.8	2.3	-4.4	6.8	4.2	4.0	7.4	9.1
기타 기계장비	-11.2	5.9	1.8	7.6	7.8	7.7	-2.6	2.6	0.8
자동차 및 트레일러	45.9	71.1	48.0	12.4	11.2	-3.2	-7.9	9.4	2.9
기타 운송장비	-37.9	-30.9	-4.9	16.0	2.8	-12.7	-9.4	-3.3	-5.7
동남광역권[1]	6.4	10.8	10.0	6.4	11.3	9.0	6.3	2.5	1.0
	〈0.9〉	〈-0.7〉	〈5.2〉	〈3.4〉	〈0.9〉	〈0.0〉	〈1.3〉	〈0.4〉	〈0.5〉
전국	17.5	26.6	19.3	11.2	12.0	10.9	7.4	5.1	7.1
	〈2.1〉	〈4.8〉	〈4.5〉	〈1.1〉	〈-0.6〉	〈6.2〉	〈0.1〉	〈-0.3〉	〈1.1〉

자료 : 통계청

주 : 1) 동남광역권은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으로 가중평균

2) 〈 〉 안은 전기 대비(계절조정)

대비 3.9% 증가하였다. 이는 지난해 2분기에 지수가 크게 증가(14% 증가)하면서 나타난 기저효과로 판단된다. 경공업의 경우 음료제조업이 26.6%가 감소하여 3분기 연속 20% 이상 감소하여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목재 및 나무제품(-12.3%), 가죽·가방·신발(-2%)은 생산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섬유제품(5%), 식료품(4.5%)은 증가하였다. 한편 중공업의 경우 자동차의 경우 9.4%로 증가세로 돌아섰고, 조선업은 1분기 -12.7%, 2분기 -9.4%, 3분기 -3.3%로 서서히 감소세가 완화되고 있다. 2011년 3/4분기 중 제조업 업황(실적) BSI는 전분기에 비해 3포인트 소폭 감소하였다(2010. 4/4분기 94 → 2011. 1/4분기 93 → 2/4분기 95 → 3/4분기 92).

2. 소비

소비는 대형소매점 판매는 전년동기에 비해 1.9% 증가하고 있지만 전분기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백화점의 경우도 전년동기 대비 2.7% 증가에 그쳐 다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승용차 신규등록대수는 2011년 3/4분기에 20,808대로 전년동기 대비 6.9% 감소하였다(2010. 4/4분기 △10.7% → 2011. 1/4분기 8.7% → 2/4분기 △4.7% → 3/4분기 △6.9%). 소비자심리지수(현재 생활형편)는 전년동기 대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2010. 4/4분기 △1.1% → 2011. 1/4분기 △7.1% → 2/4분기 △9.4% → 3/4분기 △9.5%).

3. 건설

건설활동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건축허가면적은 전년동기에 비해 34.9% 증가하였다. 특히 1~9월까지 상업용은 동기대비 65% 증가하였으며 주거용과 공업용은 각각 15.7%, 16.6% 증가하였다. 9월 말

〈표 2〉 부산지역 대형소매점 판매 동향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09	2010				2011			
	4/4	1/4	2/4	3/4	4/4	1/4	2/4	3/4	9월
대형소매점	14.7	14.8	11.3	13.4	7.1	6.0	6.3	1.9	1.4
백화점	33.2	29.6	18.8	25.5	17.4	12.5	7.7	2.7	0.6
동남광역권	9.5	9.1	8.1	10.8	5.1	6.5	5.9	2.5	2.3
전국	5.6	6.2	6.3	7.5	5.1	6.8	7.0	3.9	2.2

자료 : 통계청

주 : 대형소매점 판매 불변지수 기준(2005=100)

〈표 3〉 부산지역 건설투자 동향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호

		2009	2010				2011			
		4/4	1/4	2/4	3/4	4/4	1/4	2/4	3/4	9월
부산 광역시	건축허가면적	1.5	47.7	180.7	30.6	-10.6	99.7	-17.6	34.9	4.8
	건축착공면적	46.7	-68.2	47.0	-0.6	-0.4	132.8	128.5	0.3	82.8
	미분양주택[1]	28,378	23,531	21,996	18,101	13,645	8,622	7,658	9,046	2,842

자료 : 국토해양부

주 : 1) 기말기준(호), 임대용 제외

현재 미분양주택은 전월에 비해 204호가 감소한 2,842호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4. 대외거래

수출은 전년동기에 비해 약 24% 증가하였다. 품목별로는 지난 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던 기계류 수출도 29.4% 증가하는 등 산업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월~9월까지 경공업제품은 전년동기 대비 18.6%, 중화학제품은 23.9%, 1차 산품은 3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부산지역 수출 동향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09	2010				2011			
	4/4	1/4	2/4	3/4	4/4	1/4	2/4	3/4	9월
부산광역시	-16.4	4.5	54.2	27.3	36.0	41.2	11.1	23.9	30.5
농림수산물	4.0	5.2	12.9	25.4	17.1	15.8	37.0	24.8	13.6
화학제품	12.3	33.0	48.2	26.3	34.4	32.6	17.2	24.8	30.0
섬유류	-0.7	15.9	29.4	22.0	21.0	22.1	16.9	12.7	29.8
철강금속	-30.0	9.3	43.2	30.1	50.9	34.2	28.5	16.9	24.2
기계류	-16.6	-4.9	80.0	25.5	37.4	64.3	-2.1	29.4	36.2
동남광역권[1]	-6.3	9.1	9.6	14.1	21.8	44.0	23.6	34.5	16.9
	(329)	(303)	(381)	(336)	(401)	(437)	(472)	(452)	(141)
전국	11.7	35.8	33.1	22.7	23.8	29.6	18.7	21.4	18.1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1) MTI 1단위. ( ) 안은 금액, 억 달러

5. 고용

고용사정은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만 3천명 증가하였고, 제조업이 1만 8천명 증가하여 취업자 수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건설업이나 서비스업의 경우 2분기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 고용률의 경우 2011년 1분기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업률도 고용률과 마찬가지로 1분기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6. 물가 및 부동산가격

소비자물가는 2009년 3분기 이후 계속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1년 3분기에는 4.8%로 거의 5%대에 육박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서비스부문보다는 상품부문의 물가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농축산물 물가가 크게 올랐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집세와 개인서비스가 5% 이상 올랐다.

주택매매가격과 주택전세가격은 지난해 말부터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2009년 2분기 이후 계속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주택매매가격지수는 3분기 18.5%, 전세가격지수는 17.9% 증가하였고, 토지가격의 상승률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표 5〉 부산지역 고용 관련 지표 동향

단위 : 천명, %

		2009	2010				2011			
		4/4	1/4	2/4	3/4	4/4	1/4	2/4	3/4	9월
부산 광역시	취업자 수 증감[1]	-18	-1	17	6	-7	-28	-21	13	4
	- 제조업	-14	-24	-12	7	14	24	17	18	16
	- 건설업	-8	3	26	19	13	3	-16	-8	-11
	- 서비스업	-4	24	29	0	-21	-51	-36	-6	-12
	고용률	54.1	54.0	55.0	54.2	53.8	53.0	54.3	54.7	53.9
	실업률	4.4	4.3	3.3	3.4	3.3	4.2	3.6	3.3	3.0
동남 광역권	취업자 수 증감[1]	-4	20	47	46	43	49	54	50	53
	고용률	57.0	56.0	57.9	57.5	57.4	56.6	58.4	57.9	57.5
	실업률	3.7	4.0	3.2	3.2	2.9	3.6	3.0	2.5	2.3
전국	고용률	58.7	57	59.6	59.3	58.9	57.4	59.9	59.5	59.1
	실업률	3.3	4.7	3.5	3.5	3.3	4.2	3.4	3.1	3.0

자료 : 통계청

주 : 1) 전년동기 대비 증감

〈표 6〉 부산지역 소비자물가 동향(2010=100)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09	2010				2011			
	4/4	1/4	2/4	3/4	4/4	1/4	2/4	3/4	9월
부산광역시	2.6	3.1	2.8	3.0	3.5	4.2	4.5	4.8	4.3
상품	3.8	4.9	4.3	4.5	5.6	5.8	5.2	5.9	4.9
- 농축수산물	7.4	6.5	6.4	11.8	17.7	14.9	9.2	9.6	4.9
- 공업제품	2.8	4.4	3.6	2.4	2.2	3.3	4.2	5.0	5.3
- 전기수도가스	-	-	-	-	-	3.9	4.3	4.3	2.8
서비스	1.7	1.8	1.7	1.7	1.9	3.1	3.8	3.9	3.7
- 집세	1.6	1.6	1.9	2.6	3.3	4.3	5.2	5.5	5.6
- 공공서비스	1.1	1.2	0.7	0.4	1.0	1.7	1.2	1.0	0.5
- 개인서비스	1.9	2.0	1.9	2.0	2.0	3.6	5.0	5.1	5.1
동남광역권	2.4	3.2	2.9	3.1	3.5	4.0	4.2	4.4	4.0
전국	2.4	3.0	2.6	2.9	3.2	3.8	4.0	4.3	3.8

자료 : 통계청

〈표 7〉 부산지역 부동산가격 동향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09	2010				2011			
		4/4	1/4	2/4	3/4	4/4	1/4	2/4	3/4	9월
부산 광역시	주택매매가격[1]	3.4	5.5	8.2	9.4	10.7	13.6	17.0	18.5	18.8
	주택전세가격[1]	4.6	6.6	9.4	11.2	12.8	15.7	17.5	17.9	18.1
	토지가격[2]	0.211	0.131	0.122	0.066	0.083	0.100	0.126	0.126	0.142
동남 광역권	주택매매가격[1]	1.8	3.7	5.7	6.8	8.1	10.9	14.8	16.4	16.9
	주택전세가격[1]	2.4	4.5	7.0	8.2	9.5	12.2	14.9	15.8	16.4
	토지가격[2]	0.190	0.124	0.103	0.050	0.080	0.087	0.109	0.134	0.152

자료 : 국민은행, LH공사

주 : 1) 2011. 6=100.0

2) 지가변동률[={(당해월 지가지수/전월 지가지수) - 1}×100], 분기는 전분기, 월은 전월 대비 수치임.

7. 금융

1) 여·수신

금융기관 수신에서 2011년 3분기 예금은행의 수신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12.2% 증가하였으나, 비은행기관는 3.5%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융기관 여신은 예금은행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10.6% 크게 증가하였지만, 비은행예금기관의 여신은 1.7% 감소하여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8〉 부산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단위 : 십억원, 말잔

	2009	2010				2011			
	4/4	1/4	2/4	3/4	4/4	1/4	2/4	3/4	9월
총수신[1]	91,207	92,459	95,105	97,155	97,773	100,032	101,397	101,188	101,188
예금은행	41,827	42,197	44,444	47,500	48,584	50,745	52,077	53,280	53,280
비은행기관[2]	49,380	50,262	50,661	49,655	49,190	49,287	49,319	47,909	47,909
총여신[1]	75,568	76,600	77,844	79,336	80,218	82,679	84,797	85,282	85,282
예금은행	56,981	57,721	58,583	59,285	59,709	61,652	63,907	65,576	65,576
비은행기관[2]	18,587	18,880	19,261	20,051	20,509	21,027	20,890	19,705	19,705

자료 : 한국은행(ECOS)

주 : 1) 총여·수신(말잔)=예금은행 여·수신+비은행예금 취급기관 여·수신

2) 생명보험회사의 여·수신은 제외

〈표 9〉 부산지역 기업자금사정 동향

단위 : %, 개

	2009	2010				2011			
	4/4	1/4	2/4	3/4	4/4	1/4	2/4	3/4	9월
어음부도율[1]	0.41	0.37	0.60	0.30	1.70	0.26	0.27	0.16	0.15
부도업체 수	27	42	38	31	46	31	26	17	6
법인	18	29	25	21	38	22	16	7	2
개인	9	13	13	10	8	9	10	10	4
자금사정BSI[2]	91	92	95	96	96	94	93	93	93
제조업(실적)	95	91	96	93	95	92	91	91	90
비제조업(실적)	90	92	94	97	96	95	94	94	94

자료 : 한국은행 부산본부

주 : 1) 부도금액/총어음교환액(전자결제액 조정 전 기준)

2) 자금사정 전체(실적)

2) 어음부도율 및 기업자금사정

3분기 지역내 부도업체 수는 전분기에 비해 9개사 감소하였으며, 어음부도율은 전분기에 비해 0.11포인트 감소하였다. 제조업 자금사정BSI는 전분기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제조업이 제조업보다 자금사정이 약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Ⅲ. 주요 이슈별 동향

(이슈 1) 부산시 신규 선도기업 96개사 최종 확정[1)]

○ 부산시는 부산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선도기업 지원 정책'과 관련, 신규 선도기업 96개사를 최종 확정하여 기존 405개사와 신규 96개사를 합해 501개사가 됨.

○ 시는 지난해 도입된 선도기업 인증기한제(3년)에 따라 인증기한이 만료된 2008년 선도기업과 신규기업 등을 대상으로 선도기업을 선정함

○ 이번에 선도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린 96개 기업은 다음과 같음

- (해양산업 부문) 은산해운항공㈜(대표 양재생), 아쿠아셀㈜(대표 김경희) 등 21개사
- (기계부품산업 부문) ㈜동양메탈(대표 하수진), ㈜테크노라이즈(대표 이종열), ㈜건양아이티티(대표 김택현), ㈜엑소(대표 문형세), 에스피하이테크㈜(대표 박지원) 등 41개사
- (영상산업 부문) ㈜비엠씨이노텍(대표 곽승호) 등 2개사
- (IT산업 부문) 앤시정보기술㈜(대표 김태연) 등 9개사
- (고령친화산업 부문) ㈜엠에스헬스케어(대표 박은서) 등 6개사
- (의료산업 부문) 경은산업㈜(대표 최경환) 등 3개사
- (디자인산업 부문) 트리샤(대표 홍성복) 등 3개사
- (그린에너지산업 부문) 에너지나투라㈜(대표 김대오)

○ 부산시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협약금융기관 우대금리 적용 △중소기업 육성·운전자금 우대 지원 △기술개발사업 지원 및 가산점 부여 △기타 부산시 기업지원 제도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짐.

○ 협약금융기관 우대금리는 부산은행, 농협,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의를 통해 보증요율 우대 등을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총액한도

1) 부산일보(2011. 12. 13)

대출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선도기업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는 △기계부품소재산업분야 현장애로기술 해소 및 전문기술자문을 위해 과제당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하는 '기계부품소재산업 선도기술 종합기술지원사업' △부산 IT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망 신기술과제 개발 지원을 위해 총 과제 수행비의 60% 이내로 최대 1억원을 지원할 수 있는 '선도기업 IT/SW기술 상용화 지원사업' △10대 전략산업 대상으로 기술, 경영, 수출 관련 등 포괄적인 기업애로 사항 멘토 지원을 위해 '선도기업 문제해결 멘토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음.

○ 이 밖에 부산시는 중소기업지원시책 중 선도기업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차별화된 선도기업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선도기업 마케팅지원 강화를 위해 선도기업 홈페이지를 제작, 운영하여 대내외로 선도기업 정책 및 기업, 제품 홍보에 주력하고 있음.

○ 산업별 선도기업 교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기업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 외에 선도기업에게 다양한 홍보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원정책을 확대·강화하고 있음.

(이슈 2) 부산지역 주택가격 상승의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2)]

1. 부산지역 주택가격 추이 및 상승 배경

○ 부산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은 2000년 이후 전국 평균을 계속 하회하여 왔으나, 2009년 들어서면서 수도권 및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

- 서부산권(사상구, 북구, 사하구), 중소형아파트가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

○ 주택가격 상승 배경

- (수요 측면) ① 교통인프라 확충 및 주거여건 개선 등으로 주택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 확산, ② 1~2인 가구 및 노령인구 증가로 중소형 아파트 수요 확대, ③ 저가메리트 부각, ④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전세수요의 매입수요 전환, ⑤ 서울 및 수도권보다 완화된 주택담보대출규제 적용
- (공급 측면) ① 지역경기 위축,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등으로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건설업체들의 신규공급 축소, ② 주택재개발 사업에 따른

2) 이영수(2011. 12), "부산지역 주택가격 상승의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은행 부산본부

멸실주택 발생과 재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신규주택공급 물량 축소

2. 주택가격 상승의 영향

○ 물결효과(어느 한 지역의 주택가격 변동이 다른 지역의 주택가격에 파급되는 효과)
- (상관계수 분석) 부산과 경남의 상관계수는 기간1(2003.7월~2008.12월)에서 0.37이었으나 기간2(2009.1월~2011.7월)에서는 0.92로 크게 상승
- (그랜저 인과검정) 부산의 주택가격은 경남의 주택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남.
- (VAR 분석) 충격반응함수 분석결과 1%의 부산의 주택가격 상승은 당기에 경남의 주택가격을 0.64% 상승시키는 효과가 발생하며 충격 2개월 후 0.92%로 가장 높아짐.

○ 주택가격 상승과 전세가격
- (상관계수 분석) 부산의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간 상관계수는 기간1(0.936, 2003.7월~2011.7월)보다 기간2(0.960)에서 증가
- (그랜저 인과검정) 부산 주택가격 상승은 전세가격 상승으로 연계되었을 것으로 판단
- (VAR 분석) 충격반응함수 분석결과 부산의 주택가격 1% 상승은 당기에 전세가격을 0.81%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주택가격 상승과 물가
- (상관계수 분석) 서울 및 6대 광역시의 패널자료를 이용한 소비자물가와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과의 상관계수는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으나 장기적으로는 증가
- (그랜저 인과검정) 최근 부산의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 상승은 물가상승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 (VAR 분석) 충격반응함수 분석결과에서는 부산 주택가격 상승이 물가에 일정한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그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자산효과
- 부산 주택가격 상승이 자산효과를 통해 소비에 미친 영향은 장단기 모두 양의 효과

3. 시사점

- 실증분석 결과 최근 부산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은 물가상승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으며 경남지역 등 인근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부산지역 주택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 KIET

김 종 욱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울산지역 경제동향

• 산업생산 : 활황세 • 고용 : 실업률과 취업자 수 하락 • 물가 : 상승세 지속 • 대외거래 : 수출입 증가세 • 소비 : 증가세 • 투자 및 건설 : 설비투자는 감소한 반면 건축착공면적 증가 • 금융 : 수신은 감소로, 여신은 증가로 전환

Ⅰ. 개관

울산의 3/4분기 실물경제는 건설투자가 부진하였으나, 제조업 생산과 민간소비는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고용은 취업자 수는 감소하였지만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고용시장의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 대비 5.0% 상승하여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대외거래는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금융기관 총수신은 예금은행이 7월과 9월 소폭 증가로 부진하였으나 8월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비은행금융기관은 예금은행과 반대의 추세를 나타냈으나 전체적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총여신은 예금은행이 8월에 크게 감소하였고 비은행금융기관이 9월에 크게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7월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1〉 울산지역 제조업 동향 BSI 추이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업황	96	101	108	94	90	99	98	99	103	93	87	98
생산	104	107	106	112	106	109	104	107	110	105	99	108
매출	104	114	120	110	106	112	117	113	113	108	97	106

자료 : 한국은행 울산본부

주 : '호조' 응답업체 구성비(%) - '부진' 응답업체 구성비(%)+100으로 계산한 것임.

울산의 기업경기조사 결과 제조업 업황은 8월에 하락하였으나 9월에는 전월에 비해 상승하였다. 3/4분기 BSI는 98로 2/4분기에 비해 하락하였다. 규모별로 8월 대기업의 감소폭이 12포인트로 중소기업 2포인트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판매처별로도 수출기업의 경기변화 폭이 컸으며, 내수기업은 안정세를 보이다가 9월에 6포인트 상승하였다. 9월 생산BSI는 108포인트로 전월 대비 9포인트 상승하였다. 가동률BSI는 6포인트, 신규수주BSI는 8포인트, 매출BSI는 9포인트 상승하였다. 한편, 비제조업의 경우 업황BSI는 9월에 88, 매출은 96을 나타내고 있어 전월에 비해 각각 7포인트, 1포인트 하락하였다.

Ⅱ. 부문별 경제동향

1. 산업활동 동향

3/4분기 울산의 산업활동은 생산과 출하는 각각 전년동기 대비 13.4%, 20.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기에 비해 활황을 보이고 있으나, 재고는 전년동기 대비 0.1% 증가하여 2/4분기에 비해 재고량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9월 중 산업생산지수가 전년동월 대비 11.4% 증가하였으며, 생산자제품 출하지수는 19.2% 증가하였다. 한편 재고지수는 0.1% 증가하였다.

조선 및 기타 운송장비업 47.5% 증가, 자동차산업 12% 증가로 2/4분기에 이어 활황세를 유지하고 있다. 기계장비산업은 7월, 8월 각각 31.3%, 35.7%로 상승세가 유지되었으나, 9월 -2.6%를 기록하였다. 국가산업단지의 동향을 살펴보면,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의 생산액은 11.7조 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16.7% 증가하였으며 수출액은 56.9억 달러로 32.7% 증가하였다. 온산산업단지의 생산액은 4.4조 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36.8% 증가하였으며, 수출액은 22.3억 달러로 58.6% 증가하였다.

〈표 2〉 울산지역 산업활동 동향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추이

단위 : %

	2010	2011				
	4/4	1/4	2/4	7월	8월	9월
생산지수	4.2	8.7	10.5	17.2	11.3	11.4
출하지수	6.6	17.4	15.4	20.7	20.6	19.2
재고지수	22.1	5	19.2	25.4	13.6	0.1

자료 : 통계청, KOSIS

2. 고용 동향

2011년 9월 중 울산지역 고용은 전체 취업자 수가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 3/4분기 취업자 수는 54만 6,000명으로 2011년 2/4분기보다 1,000명 감소하였다.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0.9%포인트, 0.1%포인트 감소하였다. 실업자는 전기에 비해 7,000명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2.1%로 전기(3.4%)에 비해 하락하였다. 하반기 채용시기가 있으나, 산업부문의 경기가 다소 주춤한 추세여서 향후 고용상황도 불투명한 전망이다.

3. 물가 동향

3/4분기 울산 소비자물가지수는 2/4분기에 비해 1.6%포인트 상승하여 전년동기 대비 5.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5.4% 상승하여 전월(6.5%)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다. 전

〈표 3〉 울산지역 고용 동향

단위 : 천명, %

	2010				2011				
	1/4	2/4	3/4	4/4	1/4	2/4	7월	8월	9월
경제활동인구	542	555	557	560	557	566	564	556	555
경제활동참가율	59.5	60.8	60.8	61	60.5	61.4	61.2	60.2	60.1
취업자	518	535	539	542	535	547	553	543	543
고용률	56.9	58.6	58.8	59.1	58.2	59.3	60.0	58.8	58.8
실업자	24	20	18	17	21	19	11	13	12
실업률	4.4	3.7	3.3	3.1	3.8	3.4	2.0	2.3	2.1

자료 : 통계청, KOSIS

〈표 4〉 울산지역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단위 : 2005=100, %

	2010			2011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지수	119.3	118.5	119.2	120.5	121.3	122.1	122	122.2	122.3	123.3	124.2	124.5
전월비	0.2	-0.7	0.6	1.1	0.7	0.7	-0.1	0.2	0.1	0	0.9	0.3
전년동월비	4.6	3.6	4.1	4.8	5.1	5.1	4.5	4.5	4.8	6.1	6.5	5.4

자료 : 통계청, KOSIS

월 대비로는 0.3% 상승하였으며 부문별로는 공업제품이 0.5% 상승하여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4. 수출입 동향

2011년 3/4분기 수출은 256.5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50.9% 증가하였다. 울산지역 9월 중 수출은 80.6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42.3% 증가하였고, 8월 80.3억 달러, 7월 95.6억 달러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 선박은 전년동기 대비 36.2% 감소하였고, 유류는 전년동기 대비 55.1% 증가한 것으로 나오나 감소세가 유지하고 있다.

수출의 증가와 함께 수입 역시 증가하였다. 2011년 3/4분기 울산지역 총 수입액은 218.3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2.2% 증가하였으며, 9월 중 수입은 73.8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42.7% 증가하였다. 원유와 정광이 각각 55.5%, 42.3%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시설기계류 수입은 7월과 8월에 감소하였으나 9월에 전년동월 대비 7.2% 증가하였다. 비철금속은 8월에는 전년동월 대비 증가하였지만,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다.

〈표 5〉 울산지역 수출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2010	2011				
	연간	1/4	2/4	7월	8월	9월
합계	71,384 (17.4)	21,802 (34.3)	28,326 (55.5)	9,563 (54.2)	80,330 (56.3)	8,063 (42.3)
자동차	14,799 (30.7)	3,827 (16.3)	5,022 (26.9)	1,776 (32.0)	1,371 (28.3)	1,616 (48.9)
선박	9,998 (-16.3)	2,891 (1.6)	5,936 (152.5)	907 (-25.0)	655 (72.4)	505 (-36.2)
유류	19,477 (32.7)	6,521 (76.2)	8,232 (61.8)	2,941 (97.1)	2,924 (79.2)	2,749 (55.1)
화학제품	12,622 (21.4)	4,137 (33.9)	4,446 (39.8)	1,398 (39.6)	1,444 (43.3)	1,466 (49.8)
전자제품	2,239 (19.2)	497 (5.6)	589 (5.3)	193 (11.4)	147 (3.7)	164 (-7.8)
기계제품	3,595 (15.9)	1,237 (67.2)	1,280 (32.6)	453 (49.8)	386 (66.0)	468 (93.6)
기타	8,653 (15.5)	2,692 (28.6)	2,822 (33.9)	1,896 (179.9)	1,104 (63.5)	1,096 (77.0)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 )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임.

〈표 6〉 울산지역 수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2010	2011				
	연간	1/4	2/4	7월	8월	9월
합계	62,995 (33.0)	19,962 (34.3)	22,283 (43.0)	7,342 (45.5)	7,100 (30.9)	7,387 (42.7)
원유	39,169 (33.0)	13,223 (43.3)	14,901 (50.4)	5,073 (81.0)	4,585 (36.9)	5,045 (55.5)
화공품	4,962 (30.2)	1,539 (24.6)	1,622 (36.5)	423 (5.8)	453 (24.5)	463 (28.9)
정광	6,021 (36.5)	1,668 (2.9)	2,161 (61.2)	718 (71.5)	906 (70.7)	760 (42.3)
시설기계류	2,895 (25.6)	661 (12.5)	708 (3.2)	235 (-5.4)	240 (-25.9)	233 (7.2)
철강	3,579 (25.4)	857 (16.1)	1,035 (14.5)	313 (-8.5)	312 (-7.4)	294 (4.1)
비철금속	2,577 (66.0)	951 (83.4)	834 (40.7)	243 (-3.5)	279 (39.3)	247 (-1.8)
기타	3,793 (26.9)	1,063 (13.9)	1,022 (5.5)	337 (16.3)	326 (1.6)	345 (20.5)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 )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임.

5. 소비 동향

3/4분기 대형소매점 판매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2.5% 증가하였고, 9월 중 대형소매점 판매는 전년동월 대비 4.2% 증가를 보이고 있다.

경상금액 기준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동월 대비 16.6% 증가하였고, 대형마트 판매액도 0.7% 증가하였다.

9월 중 신규 승용차등록대수는 2,985대로 전년동월 대비 3.6% 감소하였고, 9월 말 현재 울산지역 승용차등록대수는 36.8만대이다.

6. 설비 및 건설투자 동향

2011년 3/4분기 시설기계류 수입은 7억 900만 달러로 2011년 2/4분기에 비해 증가폭은 감소하였지만, 그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다. 내수용 자본재 수입은 8억 8,200만 달러로 2/4분기에 비해 감소하였고,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도 9.3% 감소하였다. 9월 중 설비투자는 시설기계류 수입과 내수용 자본재 수입 모두 전월 대비 다소 회복하였다. 시설기계류 수입은 2.3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7.2% 증가하였고, 내수용 자본재 수입은 3억 1,000만 달러로 전

〈표 7〉 울산지역 소비 동향

단위 : 억원, 대

	2010	2011				
	연간	1/4	2/4	7월	8월	9월
대형소매점 판매지수	114.1 (5.3)	121.5 (7.0)	116.2 (6.5)	115.5 (1.9)	105.4 (1.2)	124.3 (4.2)
백화점 판매액	8,202 (8.0)	2,310 (15.0)	2,242 (14.3)	664 (14.3)	583 (9.7)	799 (16.6)
대형마트 판매액	9,296 (8.4)	2,474 (8.3)	2,340 (6.6)	874 (2.3)	845 (5.5)	893 (0.7)
신규 승용차등록대수	33,721 (-2.8)	10,820 (16.3)	9,427 (22.5)	3,180 (8.9)	2,318 (-9.5)	2,985 (-3.6)

자료 : 통계청, 국토해양부
주 : 1) ( )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임.
2) 대형소매점 판매지수는 불변지수(2005=100)임.
3) 판매액은 경상금액 기준임.
4) 기간 중 등록대수임.

〈표 8〉 울산지역 설비투자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2010	2011				
	연간	1/4	2/4	7월	8월	9월
시설기계류 수입액	2,895 (25.6)	661 (12.5)	708 (3.2)	235 (-5.4)	240 (-25.9)	233 (7.2)
내수용 자본재 수입액	3,801 (34.3)	954 (28.9)	919 (3.7)	277 (-9.6)	292 (-24.7)	313 (12.4)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은행 울산본부
주 : ( )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임.

년동월 대비 12.4% 감소하였다. 3/4분기 건설투자는 건설발주액이 6,92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68.6% 크게 증가하였고, 건축착공면적 및 건축허가면적은 각각 32.8%, 20.9% 증가하였다. 9월 중 건설발주액은 3,09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215.3% 증가하였고, 건축착공면적은 14.8만㎡로 전년동월 대비 7.3% 증가, 건축허가면적은 17.9만㎡로 전년동월 대비 31.4% 감소하였다.

〈표 9〉 울산지역 건설투자 동향

단위 : 십억원, 천㎡, %

	2010	2011				
	연간	1/4	2/4	7월	8월	9월
건설발주액	1,737 (-22.1)	513 (112.2)	347 (-58.7)	67 (-44.5)	315 (723.3)	309 (215.3)
건축착공면적	2,023 (52.4)	542 (-13.5)	773 (53.1)	239 (113.2)	210 (5.2)	148 (7.3)
건축허가면적	2,399 (3.1)	803 (73.4)	890 (78.7)	337 (28.4)	419 (67.6)	179 (-31.4)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누리
주 : ( )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임.

7. 금융 동향

2011년 9월 중 총수신은 저축성 예금과 요구불 예금이 모두 부진하여 전월의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하였다. 예금은행 수신은 저축성 예금은 533억원 감소, 요구불 예금은 124억원 증가하였다. 단기 시장성 수신은 31억원 증가하여 전월의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하였다. 비은행금융기관 수신은 자산운용회사가 증가로 전환되고 새마을금고 및 상호금융의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전월의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었다.

2011년 9월 중 총여신은 2,269억원 증가하여, 9월 말 잔액은 24조 4,331억원이다. 예금은행 여신은 기업대출은 중소기업 대출이 추석 자금수요 증가 등으로 늘어나면서 전월의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하였으며, 대기업대출은 전월 수준의 증가세가 이

〈표 10〉 울산지역 금융기관 총 여·수신 증감액

단위 : 억원

	2010			2011			
	9월	1~9월	연중	7월	8월	9월	9월 말 잔액
총수신	2,644	7,929	14,763	1,863	3,265	651	284,764
예금은행	2,139	2,734	6,522	505	3574	-379	125,601
비은행금융기관	505	5,195	8,241	1358	-309	1030	159,163
총여신	1,951	10,806	13,262	3,292	2,403	2,269	244,331
예금은행	1,363	4,630	3,328	1,676	480	1,538	162,717
비은행금융기관	588	6,176	9,934	1,616	1,923	731	81,614

자료 : 한국은행 울산본부
주 : 말잔기준 증감액임.

〈표 11〉 울산지역 자금사정 동향

단위 : %, 억원

	2010	2011			
	연중	7월	8월(A)	9월(B)	증감(B-A)
어음부도율	0.13	0.08	0.25	0.08	-0.17
부도액	262.6	10	44.7	14.5	-30.2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1.6	0.7	0.9	0.8	
가계대출 연체율	1.1	0.7	0.5	0.5	
예대율	124.9	129.8	126.4	128.2	

자료 : 한국은행 울산본부

주 : 주체별 연체율 통계는 2008년 12월부터 편제됨.

어졌다. 가계대출은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 대출취급 억제 노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비은행금융기관 여신은 신탁회사가 감소로 전환되고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의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자금사정을 살펴보면 2011년 9월 중 울산지역 어음부도율은 0.08%로 전월에 비해 0.17%포인트 하락하였다. 부도액은 14.5억원으로 전월 대비 약 30.2억원 감소하였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 대비 하락하였고, 예금은행 예대율은 128.2%로 전월 말에 비해 증가하였다.

Ⅲ. 경기 전망

울산의 4/4분기 경기는 전망을 예측하기가 힘들다. 3/4분기 실물경제는 설비투자가 회복세로 전환한 가운데 제조업 생산 및 민간소비는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제조업 생산은 조선, 자동차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추세가 유지될지 전망은 불투명하다. 소비는 감소 추세가 9월에 회복세로 전환되어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은 취업자 수는 감소하였으나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유럽재정위기 여파가 지속되면서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을 비롯해 울산지역 제조업 체감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자동차는 계절적 요인 등 전통적인 비수기인 데다 소비심리 악화로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조선은 유럽재정위기에 따른 선박금융 침체에다 신규발주가 드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수요위축, 환율불안 등의 기업 경영 애로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주 병

(울산발전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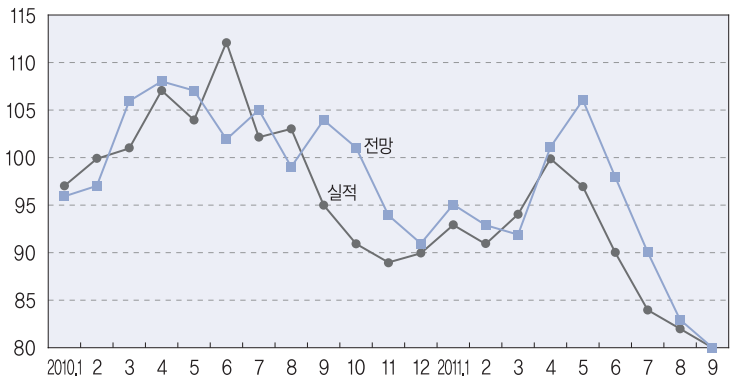
대구·경북지역 경제동향

• 산업생산 : 감소세로 반전 • 소비 : 호조세 지속 • 건설 : 부진세 완화 지속 • 대외거래 : 수출입 호조 지속 • 고용 : 실질적인 개선 지연 • 물가 및 부동산가격 : 상승세 지속 • 금융 : 수신 증가세 둔화 속 여신 증가세 유지, 기업자금사정 악화

Ⅰ. 개관

2011년 3/4분기 대구·경북의 지역경제는 소비와 수출입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산업생산이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고용 부문에서의 실질적인 개선이 지연되고 기업자금사정이 악화되는 등 경기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물가와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기업자금사정이 악화되는 등 체감경기도 악화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의 제조업 업황 BSI가 4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지난

〈그림 1〉 대구·경북지역 제조업 업황 BSI 추이



자료 : 한국은행

9월에는 실적과 전망 모두 80을 기록, 경기 하방압력이 강해지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의 제조업 업황 BSI 실적치를 살펴보면, 지난 2010년 11월 최저치에서 2011년 4월에는 기준점인 100까지 상승하였지만, 이후 5개월 연속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전망 BSI도 6월에는 98을 기록, 기준점 아래로 하락하여, 9월에는 실적치와 동일한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Ⅱ. 부문별 동향

1. 산업생산

2011년 3/4분기 대구·경북지역의 산업생산은 경북의 주력산업인 전자영상음향통신 부문의 생산 감소세가 3분기 연속되고, 1차 금속 부문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대구지역의 주력산업 가운데 하나인 기계장비 생산이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감소세로 반전되었다.

대구·경북지역 전체를 보면 제조업 생산은 지난 2010년 3/4분기~2011년 1/4분기까지 3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다 2011년 1/4분기에는 증가세(0.1%)로 전환되었지만, 1분기 만인 3/4분기에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이는 경북지역의 주력산업인 전자영상음향통신 부문의 LCD 생산 부진세가 지속되고,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한편, 대구는 생산 증가세가 지속되고는

〈표 1〉 대구·경북지역 제조업 생산지수 동향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10				2011		
	1/4	2/4	3/4	4/4	1/4	2/4	3/4
대구·경북	26.0	4.3	-1.4	-0.3	-3.8	0.1	-2.7
경북	25.4	0.3	-4.6	-3.4	-7.0	-1.1	-3.7
전자영상음향통신(44.5)	22.2	-12.0	-13.0	-14.1	-16.7	-9.2	-12.6
1차 금속(22.8)	33.4	15.9	1.1	5.4	1.9	1.8	-0.7
자동차부품(3.8)	56.6	24.8	17.7	18.5	16.0	18.9	16.3
대구	28.2	28.4	16.9	16.8	14.4	5.5	2.8
자동차부품(17.1)	50.7	28.5	10.6	16.1	10.3	89.5	11.9
기계장비(12.9)	26.5	55.7	45.6	21.7	19.3	2.4	-9.0
섬유(12.6)	20.5	8.8	6.8	15.3	6.3	5.5	2.7
전국	26.6	19.3	11.2	12.0	10.9	7.4	5.1

자료 : 통계청

주 : ( ) 안은 해당 지역별 제조업 내 생산액 비중(2009년 광업·제조업통계조사 기준)

있지만, 대폭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력산업 가운데 하나인 기계장비 부문 생산지수 증가율이 2011년 3/4분기에 9% 감소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섬유부문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이로 인해 대구 전체 산업생산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지난 2011년 1/4분기 14.4%에서 2/4분기에는 5.5%, 3/4분기에는 2.8%로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2. 소비

소비부문은 백화점 매출이 3/4분기 들어 전년동기 대비 28.8%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대형소매점 매출도 2/4분기 5%에서 3/4분기에는 10.3%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형마트의 매출 증가율은 2/4분기 5.2%에서 3/4분기에는 2.3%로 축소되었으며, 자동차판매도 같은 기간 각각 2.8%, 1.8%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한편, 대구·경북의 백화점 매출 증가는 이시아폴리스 내 롯데몰 영업 본격화, 현대백화점 신규 입주 등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건설

건설부문은 건축허가면적, 착공면적 모두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레미콘 출하량도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부진세 완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나,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미분양물건이 누적되어 있고 계절적 비수기로 접어드는 등 불안 요인이 상존해 있는 상황이다.

대구·경북지역 건축 허가면적 증가율은 2011년 2/4분기 전년동기 대비 52%에 비해 3/4분기에는 17.9%에 불과하나,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착공면적의 경우는 같은 기간 16.9%에서 26.9%로 전분기에 비해 증가세가 가속된 것으로 나타나 현 부동산 경기는 물론 향후 전망도 전년동기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표 2〉 대구·경북지역 대형소매점 판매 동향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10				2011		
	1/4	2/4	3/4	4/4	1/4	2/4	3/4
대형소매점 매출	5.8	6.6	7.5	0.1	5.1	5.0	10.3
백화점	5.5	9.4	-0.6	0.5	5.7	4.5	28.8
대형마트	6.1	5.1	11.6	-0.1	4.6	5.2	2.3
자동차판매	42.0	-5.0	1.9	-10.0	0.6	2.8	1.8

자료 : 통계청

주 : 불변가격지수 기준(2005=100)

〈표 3〉 대구·경북지역 건설투자 동향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10				2011		
	1/4	2/4	3/4	4/4	1/4	2/4	3/4
레미콘 출하량	-23.2	3.2	-19.3	4.0	4.4	-6.9	24.4
허가면적	32.5	-5.0	28.3	34.3	41.8	52.0	17.9
주거용	48.5	-35.5	15.6	40.6	98.4	101.4	28.7
상업용	9.7	-22.2	81.1	15.8	22.8	83.2	7.4
공업용	117.6	74.5	26.6	1.4	56.3	15.2	61.2
착공면적	44.2	44.0	11.7	43.6	2.9	16.9	26.9
주거용	163.1	24.9	-2.1	24.2	-13.3	88.5	43.2
상업용	-3.4	20.2	-15.5	89.9	26.3	18.4	68.2
공업용	169.0	80.5	31.6	51.0	8.9	13.4	80.4

자료 :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통계청, 국토해양부

더욱이 최근 전국의 21.4%에 이르는 미분양아파트가 중소형을 중심으로 해소되면서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는 등 부동산 시장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지역 건설사의 판촉, 할인 판매 등에도 불구하고 중대형 아파트 시장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전세가격이 불안정한 등 부동산 시장이 완연히 회복되기에는 여전히 불안요인들이 잠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4. 대외거래

대구·경북지역은 수출입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우선 수출을 보면 전기전자와 섬유를 제외한 전 부문에서 20% 이상의 높은 수출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난 2011년 2/4분기에 이어 3/4분기에도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4분기에 두 자릿수의 감소세를 보였던 수송장비가 두 자릿수의 증가세로 반전된 것이 주력산업 부문에서의 증가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출 증가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수입은 광산물(전년동기 대비 68.2% 증), 화공품(동 35.3% 증)과 같은 원자재 수입(동 25.4% 증) 증가세가 유지된 한편, 자본재와 소비재 수입이 각각 16.2%, 31.6%로 크게 증가하면서 총 2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대구·경북지역 수출 동향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10				2011		
	1/4	2/4	3/4	4/4	1/4	2/4	3/4
대구·경북	14.3	13.2	14.5	30.0	24.1	22.1	22.1
전기전자	0.5	-2.1	8.8	28.0	20.1	26.0	14.9
철강금속	23.2	24.3	23.9	43.9	37.5	25.1	39.1
섬유	30.1	25.7	14.5	19.4	22.7	14.2	14.6
기계·수송장비 제외	14.0	41.1	36.8	39.6	37.9	23.3	20.1
화학공업제품	65.6	33.1	13.8	14.6	31.0	30.8	30.2
수송장비	161.8	131.7	18.9	14.6	-13.8	-20.9	24.7
전국	35.8	33.1	22.7	23.8	29.6	18.7	21.7

자료 : 한국무역협회

〈표 5〉 대구·경북지역 수입 동향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10				2011		
	1/4	2/4	3/4	4/4	1/4	2/4	3/4
대구·경북	35.9	51.9	26.3	25.5	28.7	30.8	25.4
원자재	26.6	59.1	40.0	49.7	42.4	40.9	27.7
자본재	76.4	39.6	-0.2	-22.2	-5.0	3.5	16.2
소비재	6.9	24.8	7.2	15.2	15.3	17.7	31.6
철강금속	62.3	108.8	50.0	38.3	33.0	27.8	1.4
광산물	-9.4	34.5	40.9	99.3	77.2	68.3	68.2
화공품	36.6	33.4	24.4	17.6	18.1	32.9	20.3
기계	67.9	55.9	8.1	-26.5	11.5	13.9	35.3
전기전자	83.6	24.0	-8.2	-16.5	-21.7	-10.4	-4.0

자료 : 한국무역협회

5. 고용

대구·경북지역 고용사정은 실업률이 하락하면서 다소 개선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대구지역의 경우 실업률은 2011년 1/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4.7%에서 2/4분기 동 3.8%, 3/4분기 동 3.4%로 2분기 연속 감소하였다. 경북도 같은 기간 3.9%에서 2.6%, 2.0%로 크게 개선되었다. 이로 인해 지역 전체 실업률도 동 4.3%에서 3.1%,

〈표 6〉 대구·경북지역 고용 관련 지표 동향

단위 : 천명, %, %포인트

	2010				2011		
	1/4	2/4	3/4	4/4	1/4	2/4	3/4
실업률	4.5	3.0	3.0	3.0	4.3	3.1	2.6
대구	5.2	3.6	3.7	3.7	4.7	3.8	3.4
경북	3.9	2.5	2.4	2.5	3.9	2.6	2.0
취업자 수(월평균)	2,425	2,590	2,565	2,541	2,428	2,558	2,564
대구	1,146	1,187	1,172	1,171	1,145	1,170	1,166
경북	1,279	1,403	1,393	1,370	1,280	1,388	1,397
경제활동참가율	60.2	63.2	62.5	61.8	59.8	62.1	61.9
대구	59.1	60.1	59.3	59.2	58.5	59.0	58.6
경북	61.2	66.1	65.4	64.3	60.9	65.1	65.0

자료 : 통계청

2.6%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업자 수는 대구·경북 전체로 볼 때 2011년 2/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3만 2,000명 감소한 것에 이어 3/4분기에도 1,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구·경북지역의 고용사정이 실질적인 개선을 보이지 않는 것은 도소매, 음식, 숙박과 같은 서비스업에서의 고용 악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6. 물가 및 부동산가격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물가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다.

대구지역 소비자물가는 지난 2011년 1/4분기 전년동기 대비 4.6% 상승한 데 이어 2/4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4.6%, 3/4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5.3%로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대구지역의 소비자물가가 급상승하고 있는 원인은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뿐 아니라 석유류 제품 물가가 올 들어 3분기 연속 두 자릿수의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경북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물가가 각각 8.9%, 15.2% 상승하면서 전체 물가를 5.2%나 상승시켰다.

한편, 지역 경제의 경우 경기하방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신규 일자리 창출력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반면, 물가 급등세가 이어져 지역민들의 체감경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전국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다소 약화되고 있는 반면 지역 부동산가격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대구지역의 경우, 대구 외곽지역의 중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수성구 등 학군수요가 몰려 있는 지역의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부동산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

대구지역의 부동산가격은 2011년 들어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3/4분기에는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가 전기말월 대비 3.8% 상승하였으며, 동 전세 가격지수도 4% 상승

〈표 7〉 대구·경북지역 소비자물가 동향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10				2011		
	1/4	2/4	3/4	4/4	1/4	2/4	3/4
대구	2.5	2.3	2.8	3.5	4.6	4.6	5.3
상품	3.8	4.0	4.7	6.6	8.0	6.5	7.7
농축수산물	2.6	5.8	13.4	21.9	18.3	8.1	9.2
공업제품	4.0	3.6	2.3	2.6	5.2	6.0	7.2
석유류	13.3	11.8	4.3	5.5	13.0	12.7	15.1
서비스	1.7	1.2	1.4	1.4	2.2	3.2	3.5
경북	3.0	2.7	3.1	3.8	4.9	4.7	5.2
상품	4.5	4.6	5.3	6.7	8.2	6.8	7.7
농축수산물	5.6	7.1	15.4	21.8	18.7	8.9	8.8
공업제품	4.0	4.0	2.8	2.9	5.4	6.2	7.4
석유류	12.6	12.3	6.3	6.9	13.1	13.6	15.2
서비스	1.9	1.3	1.3	1.4	2.2	2.9	3.1

자료 : 통계청

〈표 8〉 대구·경북지역 부동산가격 동향

단위 : 전기말월 대비, %

		2010				2011		
		1/4	2/4	3/4	4/4	1/4	2/4	3/4
매매가격	대구	0.4	0.3	0.2	1.1	3.2	3.9	3.8
	경북	0.1	-0.4	-0.2	1.2	2.0	2.2	2.5
	전국	0.8	2.2	0.0	1.4	3.1	2.9	2.0
전세가격	대구	1.6	1.0	1.1	2.5	4.4	4.5	4.0
	경북	0.9	0.0	0.0	1.4	2.8	2.8	2.4
	전국	2.1	1.6	1.5	3.4	5.5	3.6	4.3

자료 : 국민은행

하였다.

경북지역 또한 부동산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구미를 포함하여 산업 활동이 활기를 띠고 있는 지역은 물론 주변 지역에까지 부동산가격 오름세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2011년 3/4분기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는 전기말월 대비 2.5% 상승하였으며, 전세 가격지수도 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7. 금융

1) 여·수신 : 수신 증가세 둔화 속 여신 증가세 유지

2011년 3/4분기 대구·경북지역의 금융기관 수신 증가 규모는 1조 2,692억 원으로 2010년 2/4분기에 비해 약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의 가장 큰 원인은 예금은행 수신 규모가 지난 2/4분기 약 2.4조 원에서 3,836억 원으로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인데, 이는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개인들의 펀드환매로 인한 펀드수탁고 하락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한편,비은행기관의 수신 규모는 농산물 출하대금 유입 등이 큰 영향을 미치면서 2/4분기 1,639억 원 감소에서 3/4분기에는 8,856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기간 금융기관 여신은 2010년 2/4분기와 유사한 규모인 1억 9,334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금은행이 가계대출을 억제하여 여신 증가 규모를 축소시킨 반면, 비은행기관은 소액 신용대출 규모를 증가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비은행기관 여신 증가 규모는 지난 2/4분기 4,985억 원에서 3/4분기에는 8,146억 원으로 급증하였다.

2) 어음부도율 및 기업자금사정 :악화

2011년 3/4분기 대구·경북지역 어음부도율은 0.32%로 전분기 대비 0.01%포인

〈표 9〉 대구·경북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단위 : 말잔기준 증감액, 억원

	2010				2011		
	1/4	2/4	3/4	4/4	1/4	2/4	3/4
총수신	18,903	25,074	10,491	11,665	23,763	22,550	12,692
예금은행	5,323	12,572	7,517	-435	12,234	24,188	3,836
비은행기관	13,580	11,503	3,974	12,100	10,134	-1,639	8,856
총여신	11,393	8,562	6,173	10,414	17,987	19,091	19,334
예금은행	10,903	3,637	1,310	604	14,097	14,106	11,188
비은행기관	490	4,924	4,862	9,810	3,890	4,985	8,146

자료 : 한국은행

〈표 10〉 대구·경북지역 기업자금사정 동향

단위 : %, 개

		2010				2011		
		1/4	2/4	3/4	4/4	1/4	2/4	3/4
어음부도율	대구	0.22	0.39	0.36	0.41	0.38	0.41	0.43
	경북	0.45	0.47	0.76	0.21	0.20	0.21	0.21
	계	0.30	0.41	0.49	0.35	0.29	0.31	0.32
부도업체 수	대구	26	17	20	32	26	30	16
	경북	10	10	4	14	7	6	9
	계	36	27	24	46	33	36	25
제조업 자금사정BSI(실적)		92	94	90	94	96	92	89

자료 : 한국은행

주 : 1) 어음부도율은 분기 평균, 부도업체 수는 분기 합계

2) 제조업 자금사정BSI는 분기말 기준

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도업체 수는 36개에서 25개로 감소하였다. 제조업자금사정 실적 BSI는 동 기간 89를 기록하여 전분기 대비 3포인트 하락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기업이 체감하는 경영환경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부 형

(대구경북연구원 동향분석실장)

경남지역 경제동향

• 산업생산 : 감소 • 소비 : 증가세 다소 둔화 • 건설 : 증가폭 크게 확대 • 대외거래 : 수출 증가 전환, 수입 증가폭 축소 • 고용 : 취업자 수 증가폭 다소 축소 • 물가 및 부동산가격 : 물가 오름폭 확대, 주택가격 상승폭 크게 축소 • 금융 : 수신 증가폭 크게 감소, 여신 증가폭 유지, 기업자금사정 개선세

Ⅰ. 개관

최근 경남의 제조업 생산은 전분기 증가세 둔화에 이어서 감소세로 돌아섰다. 예년에 비하여 여름휴가 평균기간이 늘어났으며,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에 따른 일기불순으로 옥외작업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유럽지역의 재정위기 우려가 고조되면서 국내외 수요가 크게 위축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업종에서 부진하여 제조업 생산 감소폭이 점차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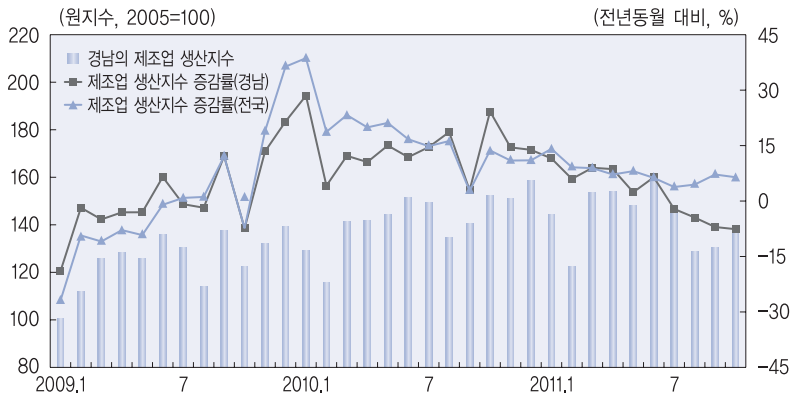
소비는 7월 중 대형마트와 백화점 모두 판매가 증가하였다. 8월에 들어서면서 대형마트의 매출이 저조하게 나타났으나 백화점의 경우에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해외 금융시장 불안 등의 여파로 9월에 들어서면서 증가추세가 주춤하였다.

건설투자는 건축 허가면적 및 착공면적이 전분기부터 이어진 증가세를 바탕으로 견조한 회복세를 시현하였으며, 특히 주택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주거용 건축 허가면적과 착공면적이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미분양아파트는 7월에서 8월 사이에 양산, 진주 지역의 물량이 소진되면서 감소세를 보였으나, 9월에 양산지역의 아파트 공급물량 확대로 인하여 전월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수출은 7월과 8월 중 선박 인도가 크게 늘어났으며, 주력품목 대부분이 호조를 보이며 전분기 대비·전년동기 대비 증가로 전환되었다. 수입은 원자재와 소비재를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자본재는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고용사정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증가 추세를 이어갔으며,

〈그림 1〉 경남지역 제조업 생산



실업률은 전국 평균 3.1%를 하회하는 2.1%를 나타냈다.

소비자물가는 오름폭이 확대되었다.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세가 두드려졌으며,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공업제품도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주택가격 등 부동산가격은 상승폭이 크게 축소되어 진정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기관 수신은 증가폭이 크게 감소되었으나 여신은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증가폭을 유지하였다. 기업자금사정은 지역내 부도업체 수가 늘어났으나 부도금액이 다소 감소함에 따라 어음부도율도 하락하였다.

Ⅱ. 부문별 동향

1. 산업생산

최근 경남의 제조업 생산은 전분기 증가세 둔화에 이어서 감소세로 돌아섰다. 예년에 비하여 여름휴가 평균기간이 늘어났으며,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에 따른 일기불순으로 옥외작업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유럽지역의 재정위기 우려가 고조되면서 국내외 수요가 크게 위축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업종에서 부진하여 제조업 생산 감소폭이 점차 확대되었다. 도내 산업 비중이 높은 선박 등 기타 운송장비의 생산이 크게 감소했으며, 견실한 증가세를 보였던 기계장비 및 금속가공제품 등도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면서 반도체 및 부품 위주로 생산이 증가세를 보였던 전국 상황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나타냈다.

2011년 3/4분기 제조업 생산지수는 도내 산업 비중이 높은 기타 운송장비의 감소폭이 확대되고, 전기장비, 금속가공제품 등의 생산이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도내 주력 업종인 기계장비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전분기에 비해 12.5%, 전년동기에

〈표 1〉 경남지역 제조업 생산지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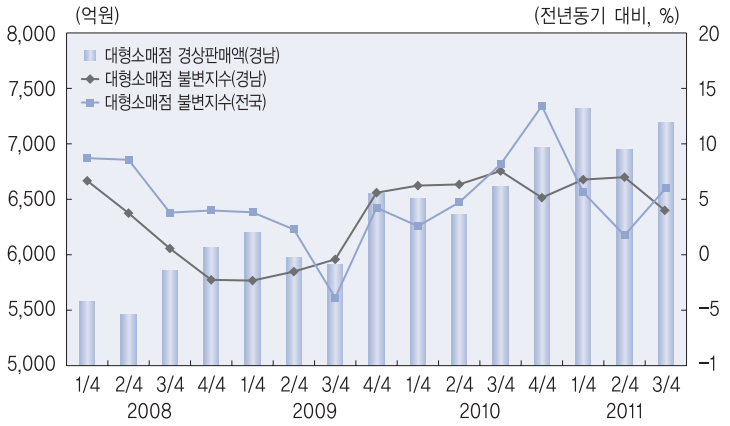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09		2010				2011			
	3/4	4/4	1/4	2/4	3/4	4/4	1/4	2/4	3/4	10월
경남	3.1	8.3	14.2	12.3	11.2	17.0	8.9	5.6	-4.7	-7.9
	〈3.1〉	〈1.3〉	〈1.3〉	〈6.1〉	〈4.9〉	〈1.3〉	〈-2.9〉	〈1.8〉	〈-4.9〉	〈1.0〉
자동차 및 트레일러	-5.6	11.3	39.5	39.0	33.0	28.7	21.7	14.8	16.3	10.0
전기장비	8.5	28.1	22.4	20.9	18.8	15.2	5.5	3.7	-2.3	-3.6
기타 기계 및 장비	-10.4	-3.0	24.5	16.3	24.3	30.4	18.5	13.6	5.9	-5.1
기타 운송장비	31.9	7.1	-1.5	-1.5	-3.2	8.5	3.6	-0.2	-17.7	-19.3
전국	4.9	17.5	26.6	19.3	11.2	12.0	10.9	7.4	5.1	6.3
	〈6.7〉	〈2.1〉	〈4.8〉	〈4.5〉	〈1.1〉	〈-0.6〉	〈6.2〉	〈0.2〉	〈-0.3〉	〈-0.7〉

자료 : 통계청

주 : 〈 〉 안은 전기 대비(계절조정)

〈그림 2〉 경남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



비해 4.7% 감소하였다.

2011년 10월 기준 업종별 생산지수를 보면 나무제품(16.5%), 자동차(10.0%), 금속가공(0.3%)이 각각 전년동월 대비 증가하였으나, 기타 운송장비(-19.3%), 영상음향통신(-38.2%), 기계장비(-5.1%) 등이 전년동월 대비 감소하였다.

한편, 제조업 출하는 전년동기 대비 6.8% 감소하였으나, 재고는 전년동기 대비 17.1% 증가하였다.

3/4분기 중 제조업 업황BSI는 91로 전분기에 비해 6포인트 하락하였다(4/4분기 94 → 2011년 1/4분기 99 → 2/4분기 97 → 3/4분기 91).

2. 소비

소비는 7월 중 대형마트와 백화점 모두 판매가 증가하였다. 8월에 들어서면서 대형마트의 매출이 저조하게 나타났으나 백화점의 경우에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해외 금융시장 불안 등의 여파로 9월에 들어서면서 증가추세가 주춤하였으며, 대형마트 매출이 1% 내외로 크게 하락하였다. 10월에는 전월 대비로는 감소하였으나, 전년동월 대비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모두 증가하였다. 백화점은 의복 등 준내구재, 대형마트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늘어났다.

전반적으로 전분기 7.2% 감소를 보였던 대형마트가 전분기 대비 12.2% 증가하면서 대형소매점 판매는 전분기 5.0% 감소에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전분기 대비 3.5% 증가하였다. 그러나 백화점 판매는 전분기 0.7% 감소에 이어 전분기 대비 12.0%가 감소하면서 감소폭이 커졌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전분기보다 2포인트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상회하였다(2010년 4/4분기 118 → 2011년 1/4분기 111 → 2/4분기 111 → 2/4분기 109).

3. 건설

건설투자는 건축 허가 및 착공 면적이 전분기부터 이어진 증가세를 바탕으로 견조한 회복세를 시현하였으며, 특히 주택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주거용 건축 허가면적과 착공면적이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였다. 9월 중에는 창원 북면지구를 중심으로 신규분양이 호조를 보였으며, 2012년부터 시행예정인 정부의 단독주택건설 규제 회피용 건축허가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미분양아파트는 7월에서 8월 사이에 양산, 진주 지역의 물량이 소진되면서 감소세를 보였으나, 9월에 양산지역의 아파트 공급물량 확대로 인하여 전월에 비하여 증

〈표 2〉 경남지역 대형소매점 판매 동향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09		2010				2011			
		3/4	4/4	1/4	2/4	3/4	4/4	1/4	2/4	3/4	10월
경남	대형소매점	-4.0	4.1	2.5	4.7	8.1	2.3	7.3	4.7	3.6	8.6
	백화점	-4.2	3.2	5.3	10.1	7.3	9.1	10.8	5.6	5.8	3.4
전국		-0.5	5.6	6.2	6.3	7.5	5.1	6.8	7.0	3.9	5.7

자료 : 통계청

주 : 대형소매점 판매 불변지수 기준(2005=100)

〈표 3〉 경남지역 건설투자 동향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09		2010				2011			
		3/4	4/4	1/4	2/4	3/4	4/4	1/4	2/4	3/4	10월
경남	건축착공면적	-1.9	-0.9	52.9	48.3	-20.0	25.8	11.5	38.2	102.9	72.7
	건축허가면적	-11.0	-30.6	20.3	20.9	-19.0	32.5	16.3	62.6	128.5	29.5
	미분양아파트[1]	14,972	14,881	13,981	15,018	13,793	12,092	10,122	7,695	5,695	1,654
전국	건축착공면적	4.5	21.3	44.0	46.1	4.5	-12.8	5.3	12.4	17.4	65.8
	건축허가면적	-4.6	13.1	36.6	39.6	-14.3	18.1	21.5	3.8	58.7	53.4
	미분양아파트[1]	147,782	147,681	149,297	150,066	150,142	136,807	127,971	118,727	108,938	32,963

자료 : 국토해양부

주 : 1) 기말기준(호), 임대용 제외

가하였다.

4. 대외거래

수출은 7월과 8월 중 선박 인도가 크게 늘어났으며, 기계류·정밀기기, 철강·금속, 자동차, 플라스틱·고무·가죽 등 주력 품목 대부분이 호조를 보이면서, 전분기 대비 4.7% 증가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16.5% 증가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9월 중 유럽지역 은행의 선박금융 위축에 따른 선박 인도 지연 등으로 9월 수출의 전년동월비가 12.6% 감소하여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9월 중 수출의 전년동월비는 선박을 제외하면 18.8% 증가를 나타냈다.

한편, 수입은 원자재와 소비재를 중심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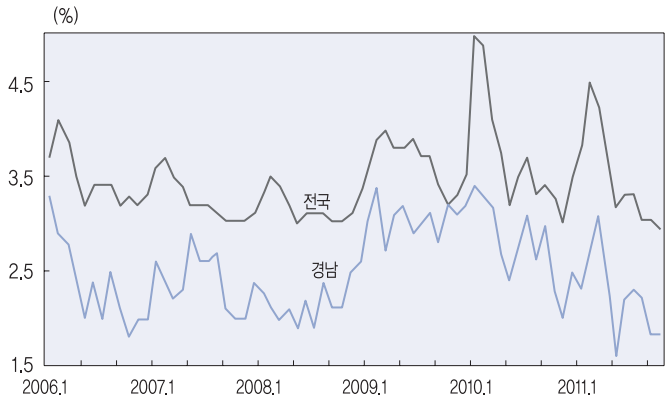
〈표 4〉 경남지역 수출 동향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09		2010				2011			
	3/4	4/4	1/4	2/4	3/4	4/4	1/4	2/4	3/4	10월
경남	-19.7	-12.7	-7.6	3.7	9.9	21.4	58.2	-8.9	16.5	-2.6
선박	8.1	-10.5	-5.4	25.8	27.4	35.2	109.9	-22.6	18.2	-11.0
건설중장비	-56.2	0.8	154.6	120.1	101.0	119.2	103.9	52.0	56.8	49.6
자동차 부품	5.8	34.9	104.8	59.2	41.3	30.1	20.0	3.5	15.7	-4.3
무선전화기	-65.9	-59.9	-60.9	-82.3	-61.5	-39.8	-36.0	-7.1	-5.8	-32.3
전국	-17.6	11.7	35.8	33.1	22.7	23.8	29.6	18.7	21.4	8.0

자료 : 한국무역협회

〈그림 3〉 경남지역 실업률



로 전년동기 대비 7.6% 증가를 보이며, 전분기에 비하여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그러나 자본재는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5. 고용

고용사정은 2011년 3/4분기를 기준으로 제조업이 부진한 가운데 전기·운수·금융과 사업·개인·공공 등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개선 추세를 지속하였다. 업종별로는 전기·운수·금융과 사업·개인·공공 등 서비스업에서 증가추세를 이어갔으나, 제조업은 여전히 고용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2011년 3/4분기 실업률은 전국평균(3.1%)

〈표 5〉 경남지역 고용 관련 지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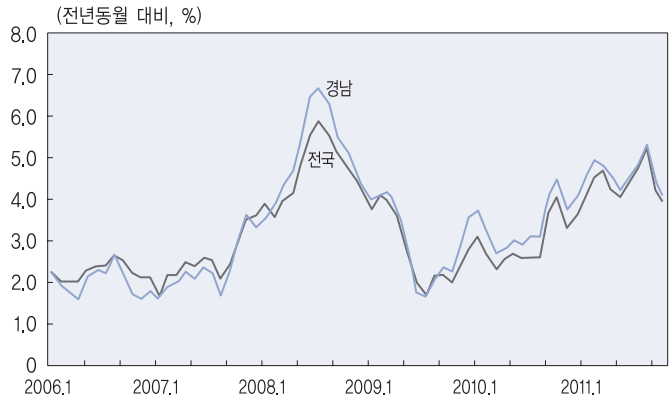
단위 : %

		2009		2010				2011			
		3/4	4/4	1/4	2/4	3/4	4/4	1/4	2/4	3/4	10월
경남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감[1]	1.4	0.4	1.1	0.6	1.2	2.4	4.3	4.4	2.0	4.5
	- 제조업	2.6	1.7	8.5	7.0	5.6	0.2	0.0	1.0	-1.7	3.1
	- 건설업	-14.6	-13.0	-4.7	0.4	6.1	14.2	5.3	5.3	-0.8	-2.2
	- 서비스업	2.7	1.3	-1.5	-2.2	-1.1	2.3	6.3	5.9	4.2	5.8
	고용률	60.0	58.7	57.1	60.1	59.6	59.4	60.3	61.6	59.8	61.1
	실업률	3.0	3.2	3.3	2.6	2.9	2.3	2.7	2.1	2.1	1.8
전국	고용률	59.1	58.7	57.0	59.6	59.3	58.9	57.4	59.9	59.5	59.9
	실업률	3.6	3.3	4.7	3.5	3.5	3.3	4.2	3.4	3.1	2.9

자료 : 통계청

주 : 1) 전년동기 대비

〈그림 4〉 경남지역 소비자 물가 동향



을 1.0%포인트 하회하는 2.1%를 나타냈다. 7월과 8월 중 실업률이 각각 2.3%, 2.3%를 기록하였으나, 9월에 들어서면서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여 1.8%를 나타냈다.

6. 물가 및 부동산가격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 대비 4.5% 상승하여 오름폭이 다소 확대되었다. 7월과 8월 중 폭우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으며,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공업제품도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그러나 9월에 들어서면서도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공업제품이 높은 상승세를 보여 높은 오름세는 지속되었으나, 농축수산물과 공공서비스가 크게 둔화되면서 상승폭은 축소되었다. 10월 중에도 농수산물 가격의 안정 등으로 오름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

〈표 6〉 경남지역 소비자물가 동향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09		2010				2011			
	3/4	4/4	1/4	2/4	3/4	4/4	1/4	2/4	3/4	10월
경남	2.0	2.9	3.6	3.0	3.3	3.6	3.9	4.1	4.5	3.9
상품	1.8	3.9	5.6	4.6	4.9	5.5	5.4	5.3	5.9	4.8
- 농축수산물	5.5	5.6	6.9	7.2	13.8	18.5	13.9	8.6	9.0	0.2
- 공업제품	0.8	3.4	4.9	3.7	2.6	2.3	3.8	4.8	5.4	5.9
서비스	2.2	2.2	2.1	1.9	2.0	2.1	2.5	3.1	3.1	3.0
전국	2.0	2.4	3.0	2.6	2.9	3.2	3.8	4.0	4.3	3.6

자료 : 통계청
주 : 기준 연도가 2005=100에서 2010=100으로 변경

〈표 7〉 경남지역 부동산가격 동향

단위 : 전년말월비, %

		2009		2010				2011			
		3/4	4/4	1/4	2/4	3/4	4/4	1/4	2/4	3/4	10월
경남	주택매매가격	0.5	0.9	1.5	2.9	2.5	4.5	7.8	5.5	2.5	0.8
	주택전세가격	0.8	1.1	1.7	3.0	1.9	4.9	6.7	3.7	0.7	1.0
전국	주택매매가격	1.3	0.8	0.6	0.3	0.0	1.0	2.2	2.0	1.5	0.4
	주택전세가격	2.2	1.6	1.5	1.5	1.2	2.7	4.2	2.6	3.3	0.9

자료 : 국민은행

주택가격 등 부동산가격은 상승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2011년 2/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주택매매가격은 2.5%, 주택전세가격은 0.7% 오르며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어 주택매매가격은 전국과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으며, 주택전세가격의 경우에는 오히려 전국보다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7월 중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월 대비 1.1% 상승하여 전국과의 격차가 꾸준히 줄어들었으나, 8월에 들어서면서 거제와 양산이 2%대의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전체 매매가 상승을 견인하여 전월에 비하여 다소 상승한 1.2%를 나타내었다. 또한 가을 이사철의 영향으로 창원지역의 상승세가 다소 확대되면서 전월에 이어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10월에 들어서면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상승세가 둔화되었고,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8% 상승하여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1% 미만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전세가격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상승세가 둔화되었다.

7. 금융

1) 여·수신 : 수신 증가폭 크게 감소, 여신 증가폭 유지

금융기관 수신은 전분기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감소되었다. 7월 중 지자체 자금유입 등에 따라 정기예금을 중심으로 저축성예금의 증가폭이 확대되어 예금은행 수신이 증가하였으나, 8월과 9월을 중심으로 요구불예금의 감소세 지속과 저축성예금의 감소세 전환으로 수신 증가폭이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의 수신은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었다.

금융기관 여신은 전분기와 비슷한 증가폭이 유지되었다. 8월 중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금융자금대출이 급감하면서 여신이 감소로 전환되었으나, 비은행금융기관의 상호금융의 꾸준한 증가와 9월 중 일반자금이 증가하면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증가폭을 유지하였다.

〈표 8〉 경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단위 : 억원

	2009		2010				2011			
	3/4	4/4	1/4	2/4	3/4	4/4	1/4	2/4	3/4	10월
총수신	6,640	2,502	10,400	14,670	-1,251	17,763	11,873	17,646	8,431	2,430
예금은행 1)	8,549	-4,058	2,972	8,872	661	9,959	5,814	12,030	3,173	4,070
비은행기관 2)	-1,909	6,560	7,428	5,798	-1,912	7,804	6,023	5,616	5,258	-1,640
총여신	5,152	9,680	-2,328	8,722	10,070	9,348	11,745	17,045	17,622	8,695
예금은행 1)	-388	-484	6,349	4,313	5,740	2,299	11,820	11,744	10,721	5,835
비은행기관 2)	5,540	10,164	-8,677	4,409	4,330	7,049	-75	5,301	6,901	2,860

주 : 1) 시장성수신(CD, RP, 매출어음) 포함
2) 수치는 전분기와의 차

2) 어음부도율 및 기업자금사정 : 개선세

기업자금사정은 지역내 부도업체 수가 18개 업체로 전분기에 비하여 2개 업체가 늘어났다. 그러나 어음부도율은 전분기 0.31%에 비해 0.05%p 하락한 0.26%를 나타냈으며, 어음부도금액이 다소 감소하면서 전분기에 비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어음부도율은 6월에 이어 7월에도 하락세를 보여 0.20%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8월에 들어서면서 전월 대비 0.06%포인트가 상승하고 부도금액 또한 전월보다 증가하였다. 또한 9월에도 다시 0.06%포인트가 상승하면서 0.32%로 높아졌으나 부도금액은 다시 감소하였다.

2011년 10월 중 산업별 어음부도금액은 제조업 21.1억원, 도·소매업 14.2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통영(+0.09%포인트)을 제외한 창원(-0.22%포인트),

〈표 9〉 경남지역 기업자금사정 동향

단위 : %

	2009		2010				2011			
	3/4	4/4	1/4	2/4	3/4	4/4	1/4	2/4	3/4	10월
어음부도율1)	0.37	0.42	0.49	0.29	0.21	0.44	0.38	0.31	0.26	0.17
부도업체(개수)	16	28	26	19	15	34	12	16	18	4
(법인)	9	24	13	11	6	24	9	9	12	3
(개인)	7	4	13	8	9	10	3	7	6	1

주 : 1) 부도금액/어음교환액, 전자결제분 제외

진주(-0.22%포인트)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하락하였다.

Ⅲ. 주요 이슈별 동향

1. "2011 대장경천년 세계문화축전"

지난 9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45일간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주 행사장과 해인사 등지에서 '2011 대장경천년 세계문화축전'이 개최되었다. 고려대장경 발원 1000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던 이 축제는 대장경 진본과 세계 각국의 보물급 대장경 유물들이 전시되었으며, 행사 기간 동안 각종 공연이 함께 어우러졌다.

대장경축전은 3년에 걸쳐 준비가 이루어졌으며, 전시·공연·이벤트 등 행사운영비 142억원과 주제관 건립 등 주 행사장 조성비 146억원 등 총사업비 306억원 규모가 투입된 국제적 행사로 진행이 되었다. 각종 전시와 공연으로 이루어진 행사는 외국인 8만여명을 포함, 15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였으며, 2,000명 이상의 고용 창출과 함께 3,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폐막일까지의 관람객은 200만명에 달하여 애초의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여 성공적인 마무리를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경상남도와 합천군, 해인사 등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2년 뒤인 2013년에도 축전을 여는 등 정례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경남발전연구원 용역결과 최소한의 인원으로 축전 준비팀을 유지하고 2년 후를 준비하면서 주제관 등을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왔으며, 이사회 승인과 도지사 결재 등을 거쳐 한시 기구인 조직위원회 존치를 위한 조례 개정, 세계대회 승인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 영 순
(경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제주지역 경제동향

• 산업생산 : 증가세 지속 • 소비 : 증가세 혼조 • 건설 : 증가세 확대 • 대외거래 : 수출 감소세, 수입 증가세 시현 • 고용 : 회복세 둔화 • 물가 및 부동산가격 : 물가는 오름세 혼조, 주택가격은 상승세 지속 • 관광 : 증가세 확대

Ⅰ. 개관

산업생산, 소비 건설 등 2011년도 제주지역 3/4분기 지역경제동향의 전반적 개관은 〈표 1〉에 요약 되어 있다. 제주지역 경기를 일별할 수 있는 동행지수 및 순환

〈표 1〉 제주지역 동행종합지수 및 순환변동치의 동향

단위 : 2005=100, %, 포인트

월별	동행종합지수	전월비	순환변동치	전월차
2010. 7	119.1	119.1	101.4	0.26
8	119.7	0.47	101.5	0.16
9	119.8	0.10	101.3	-0.22
10	120.0	120.0	101.2	-0.10
11	118.8	-1.20	99.9	-1.30
12	117.5	-1.30	98.5	-1.40
2011. 1	116.6	-0.90	98.4	-0.10
2	116.2	-0.40	97.8	-0.60
3	116.3	0.10	97.7	-0.10
4	116.8	0.36	98.7	0.19
5	117.4	0.52	99.0.	0.34
6[p)]	117.3	-0.07	98.8	-0.24
7	116.2	-0.90	98.4	-1.02
8	115.4	-0.73	97.6	-0.84
9	114.8	-0.53	97.0	-0.64

주 : 1) 각각의 수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2) p는 잠정치임.

변동치를 살펴보면 제주지역 동행종합지수의 경우 2011년도 7월부터 2011년도 9월까지 지속적 하락세를 보이고 순환변동치 또한 동 기간 동안 지속적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Ⅱ. 부문별 동향

1. 산업생산

2011년도 3/4분기 제조업 생산은 전년도 동분기와 대비하여 제조업 출하량을 제외,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으나 동분기 내는 회복세가 약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동분기 내의 경우를 보면 제조업 생산과 출하가 7월의 감소세에서 8,9월의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조업 재고율의 증가세가 완화되고 있다.

2. 소비

2011년도 3/4분기 소비 주요 지표는 전년동기 대비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승용차 등록대수, 신용카드 구매액 등 전반적인 감소세를 시현하고 있다.

동분기 내의 추이를 보면 신용카드 구매액은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소비자 심리지수는 증가세의 둔화를,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및 기타 항목은 증가세의 혼조를 보이고 있다.

3. 건설

2011년도 3/4분기 중 건설활동은 전년동분기와 대비하여 증가세의 둔화를 보이고 있다. 동분기 내 9월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을 중심으로 건축착공면적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건설수주액 및 건축허가

〈표 2〉 제주지역 제조업[1] 생산지수 동향

단위 : 전년동기비, %

	2010				2011			
	3/4	7월	8월	9월	3/4[P]	7월[P]	8월[P]	9월[P]
제조업생산	-23.7	-13.8	-12.5	-39.5	6.8	-3.8	8.7	8.2
제조업출하	0.4	25.0	-5.7	-13.4	-0.6	-27.7	16.1	4.3
제조업재고	-12.6	-20.7	-5.1	-12.6	20.3	40.7	30.1	20.3
제조업재고율[2]	66.2	55.3	76.9	68.4	79.3	109.9	84.9	76.9

자료 : 통계청 제주통계사무소

주 : 1) 제주지역은 전체 제조업 중 식료품(36.4%), 음료(24.5%), 비금속광물제품(18.5%)이 약 80%의 비중을 차지

2) 계절조정 제조업 재고지수/출하지수×100

3) p는 잠정치임.

〈표 3〉 제주지역 소비 관련 지표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

	2010				2011			
	3/4	7월	8월	9월	3/4	7월	8월	9월
신용카드 구매액[1]	15.8 (520)	15.9 (174)	20.0 (174)	11.9 (173)	14.8 (597)	12.2 (195)	15.5 (201)	16.7 (202)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2]	5.2	4.9	3.9	6.8	4.0	6.4	1.3	4.2
시장경기동향지수(M-BSI)[4]	77	72	52	108	65	64	55	77
승용차등록대수(순)[3]	700	872	519	708	425	418	397	460
소비자심리지수(CSI)[4]	121	122	122	118	106	109	105	104

자료 : 한국은행 제주본부,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 시장경영진흥원, 국토해양부

주 : 1) 은행계 신용카드 기준(일부 기관의 통계오류 수정), ( ) 안은 기간 중 총 구매액(십억원 기준)

2) 2005년을 기준년으로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실질화한 지수

3) 전기비, 영업용 제외, 분기 및 연간자료는 월평균

4) 기준=100, 연간 및 분기 자료는 월평균

〈표 4〉 제주지역 건설 및 설비투자 관련 지표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

	2010				2011			
	3/4	7월	8월	9월	3/4	7월	8월	9월
건설수주액[1]	78.9 (1,277)	97.2 (500)	245.4 (644)	-51.5 (133)	63.6 (2,088)	105.5 (1,027)	-23.5 (493)	327.7 (568)
제조업설비투자BSI[2]	99	102	95	100	108	111	103	111

자료 : 한국은행 제주본부, 국토해양부,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

주 : 1)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회원사의 건설공사수주액

2) 기준 = 100(계획 대비 조기 또는 증액 응답업체 구성비(%) - 계획 대비 지연 또는 감액 응답업체 구성비(%) + 100), 분기 및 연간 자료는 월평균

3) ( ) 안은 기간 중 수주금액(억원), 착공 허가 면적(1,000㎡), 출하량(1,000㎥)

면적도 대폭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제조업 설비투자도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4. 대외거래

2011년도 3/4분기의 수출 및 수입액은 전년도 동분기와 대비하여 수출액의 경우는 증가세가 대폭 하락하여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입액의 경우는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9월의 경우를 보면 농림수산물을 중심으로 수출액이 하락하면서 감소세로 전환하였고, 화장품, 화학공업제품 등의 수입액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표 5〉 제주지역 수출입 관련 지표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10				2011			
	3/4	7월	8월	9월	3/4	7월	8월	9월
수출액	13.7 (2,143)	5.4 (642)	12.5 (730)	-3.0 (768)	-6.0 (2,015)	-2.3 (630)	0.3 (732)	-15.1 (652)
[농림수산물]	-2.5	5.9	-0.1	-13.4	-0.1	12.8	1.1	-10.3
[전자전기제품]	86.2	21.0	121.1	28.7	-10.6	-41.4	15.2	17.6
수입액	14.2 (4,863)	-2.63 (1,381)	30.1 (1,658)	1.6 (1,265)	34.8 (6,553)	38.1 (2,679)	245 (2,065)	43.1 (1,809)
[농림수산물]	16.0	33.8	41.4	-12.3	33.6	21.5	29.1	55.0
[화학공업제품]	-3.1	1.3	19.0	-3.3	17.2	-1.7	25.2	44.9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1) 통관기준

2) ( ) 안은 기간 중 수출입액(만 달러)

3) 2010년 중 수출액은 농림수산물(73.4%), 전자전기제품(19.8%)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액의 경우 화학공업제품(33.8%), 농림수산물(32.1%)이 약 66%를 차지

5. 고용

2011년도 3/4분기 고용은 전년도와 대비하여 고용구조, 경제활동참가율 등 전반에 걸쳐 호조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동분기내 9월의 경우 실업률이 전월보다 소폭 상승하고 고용률의 증가세가 하락하는 등 고용 관련 지표들의 회복세는 다소 둔화되고 있다.

6. 물가 및 부동산가격

2011년도 3/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도 동분기 대비 상품가격은 크게 상승하고 서비스 가격은 소폭 하락하여 대체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동분기 내 추이는 혼조세가 유지되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전반적으로 전년도 동분기 대비 주택매매가격 지수를 제외, 소폭 증가세가 시현되었고 동분기 내 추이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동분기 내 9월의 경우 주택전세가격지수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 관광

2011년도 3/4분기 관광 관련 지수 추이를 보면 전년도 동분기 대비 관광객 수 및 수입 측면에서는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그리고 동분기 내는 증가세 지속을 시현하

〈표 6〉 제주지역 고용 관련 지표 동향

단위 : 전년동기비, %

		2010				2011			
		3/4	7월	8월	9월	3/4	7월	8월	9월
고용구조[1] (천명)	비임금	-4.6	-4.0	-2.3	-7.5	2.1	1.6	1.2	3.4
	임금	-3.3	-4.7	-4.4	-0.9	6.9	8.3	9.1	3.2
	[상용]	2.0	3.1	-0.4	3.2	7.1	5.0	9.3	6.9
	[임시·일용]	-5.3	-7.8	-4.0	-4.2	-0.1	3.3	-0.1	-3.6
실업률[2]〈%〉		1.6	1.6	1.5	1.7	1.8	2.2	1.3	1.8
(전국 평균)		3.5	3.7	3.3	3.4	3.1	3.3	3.0	3.0
경제활동참가율[3]〈%〉		65.4	65.6	65.4	65.3	66.9	67.5	66.9	66.2
취업자 수 증감[4]		-8.0	-8.8	-6.7	-8.4	9.0	10.1	10.3	6.6
고용률〈%〉[5]		64.4	64.5	64.5	64.2	65.7	66.0	66.1	65.0

자료 : 통계청 제주통계사무소

주 : 1) 분기 및 연간 자료는 월평균
2) 실업률=실업자 수/경제활동인구
3) 경제활동 참가율=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수
4) 전년동기 대비
5) 고용률=취업자 수/15세 이상 인구수

〈표 7〉 제주지역 소비자물가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

	〈가중치〉	2010				2011			
		3/4	7월	8월	9월	3/4	7월	8월	9월
소비자물가[1]	〈1,000.0〉	3.2 (1.0)	3.0 (0.5)	2.8 (0.2)	3.9 (1.0)	4.3 (1.0)	4.2 (0.4)	4.8 (0.8)	4.0 (0.3)
[전국]		2.9	2.6	2.6	3.6	4.8	4.7	5.3	4.3
상품	〈417.7〉	4.7	4.4	3.7	5.9	7.7	7.3	8.8	7.0
서비스	〈582.3〉	2.2	2.0	2.1	2.4	1.8	1.8	1.9	1.8

자료 : 통계청 제주통계사무소

주 : 1) ( ) 안은 전기비

고 있다.

동분기 내 9월 중 관광 관련 산업은 관광객 수 및 관광수입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호조를 지속하고 있고 관광수입도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표 8〉 제주지역 부동산가격 동향

단위 : 전기 대비 등락률, %

	2010				2011			
	3/4	7월	8월	9월	3/4	7월	8월	9월
주택매매가격 지수	1.8	0.7	0.1	0.0	1.1	0.4	0.6	0.4
주택전세가격 지수	1.3	0.6	0.2	0.0	1.6	0.5	1.0	0.5
토지가격 지수	-0.1	0.1	0.1	-1.1	0.2	0.1	0.1	0.1
[제주시]	-0.1	0.1	0.1	-1.0	0.2	0.1	0.1	0.1
[서귀포시]	-0.2	0.1	0.1	-1.2	0.2	0.1	0.1	0.1

자료 : 국민은행, LH공사

〈표 9〉 제주지역 관광 관련 지수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

	2010				2011			
	3/4	7월	8월	9월	3/4	7월	8월	9월
관광객 수[1]	12.6 (204.5)	11.4 (66.9)	5.0 (78.2)	26.1 (59.4)	18.5 (242.3)	19.2 (79.7)	15.1 (90.0)	22.2 (72.6)
내국인	11.1 (179.5)	8.6 (59.0)	2.9 (68.6)	28.2 (51.8)	13.3 (203.3)	14.4 (67.5)	10.7 (76.0)	15.4 (59.8)
외국인	24.7 (25.0)	8.1 (7.0)	23.8 (9.6)	13.3 (7.5)	55.8 (38.9)	54.7 (12.2)	46.4 (14.0)	68.8 (12.7)
관광수입	15.2 (980)	17.5 (319)	9.9 (380)	20.2 (281)	39.8 (1,369))	37.0 (437)	33.8 (508)	51.1 (424)
내국인	14.3	13.7	7.1	27.2	15.5	16.8	11.6	19.4
외국인	17.7	30.0	19.1	6.0	106.7	94.6	98.8	128.3

주 : 1) ( ) 안은 기간 중 관광객 수(만명) 및 수입금액(십억원)

Ⅲ. 주요 이슈별 동향

영국 왕립 킹스 스쿨 로체스터, 제주 진출 본격화

1,400여년 역사의 영국 왕립 King's School Rochester(킹스 스쿨 로체스터)가 제주 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9월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근교 로체스터에 위치한 킹스 스쿨 로체스터 본교에서 킹스 스쿨 로체스터와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은 JDC 변정일 이사장, 킹스 스쿨

▲ JDC와 양해각서 체결 … 1,407년 전통의 세계 最古 학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근교 로체스터에 위치한 킹스 스쿨 로체스터 본교에서 킹스 스쿨 로체스터와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자료 : 제주도정뉴스 http://news.jeju.go.kr).

로체스터 Ian Walker 교장, John Lord 학교 이사회 이사 등 양측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는 지난 8월 19일 킹스 스쿨 로체스터가 JDC에 제출한 학교설립 의향서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향후 킹스 스쿨 로체스터가 제출하는 학교 설립 및 운영계획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한 후 학교 부지 공급 협의에 착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604년에 설립, 1407년의 역사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 중 하나인 킹스 스쿨 로체스터는 남녀공학으로 3세부터 18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영국 왕립 사립학교로서, 대학 진학률이 99%에 달하고 진학 학생의 약 40%가 영국 상위 20위권 내 대학에 진학하는 영국 상위권의 학교다. 양해각서 체결의 후속조치로 학교 설립 및 운영계획을 제출하게 되며, 학교시설의 설계 작업도 병행 추진하여 내년 초 학교부지 공급계약 체결 후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건축공사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KIET

김 현 철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지역혁신동향

· 경남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 추진 성과 | 이 정 환

경남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 추진 성과

-2단계 기술개발사업 성과를 중심으로-

이 정 환
(경남테크노파크 지역산업평가단장)

Ⅰ. 서론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지역산업 진흥, 지방과학기술 육성 등을 목표로 추진한 지역산업 지원사업은 1994년 기술혁신 센터(TIC) 및 지역협력연구센터(RRC)사업을 필두로 시작되었다. 이후 정부는 지역전략산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하여 1999년 대구 섬유산업진흥사업을 시작으로 2000년에 부산의 신발산업, 광주의 광산업, 경남의 기계산업을 지정하여 지역산업진흥사업의 4개 지역 1단계 사업(2000~2004년)을 추진하였다. 4개 지역 1단계 사업은 외환 위기 이후 지역경제가 급속히 침체하여 지역경제회복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며 이후 2002년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이후에도 정부는 지역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여 왔고,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구조조정 및 통폐합도 추진하여 왔다. 특히, 1995년 기술하부구조 5개년 계획에 의거, 테크노파크 조성 및 운영사업을 추진하여 2010년 제주테크노파크를 마지막으로 전국 18개 테크노파크를 조성하고 전국 테크노파크로 하여금 각 지역별 지역산업지원사업 중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 등을 포함한 주요 사업에 대한 기획, 수행 및 평가·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경남은 지역산업지원사업(당시 지역산업진흥사업) 4개 지역 1단계 사업부터 참여하여 기계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메카노(Mecha-Know: Mechanics와 Knowledge의 합성어) 21사업을 시작으로 경남지역의 전략산업을 꾸준히 육성하여 왔다. 경남의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은 현재 3단계 사업(2009~2012년)이 진행되고 있다.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한 메카노 21사업에는 총 4,284억원(국비 2,143억원, 지방비 844억원, 민자 1,297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산업클러스터의 활성화 및 신규 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추진된 2단계(2004년~2008년) 사업에는 6,639억원(국비 3,252억원, 지방비 1,672억원, 민자 1,715억원)이 투자되었다. 현재 진행 중인 3단계에는 2단계 대비 71.3%가 감소한

1,907억원(국비 903억원, 지방비 745억원, 민간자본 259억원)의 투자가 진행 중에 있다.

경남테크노파크에서는 그동안의 지역산업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지역산업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과거 10년 동안 추진되어 온 지역산업진흥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추진한 바 있다. 이 성과분석을 통해 1999년~2008년 사이 지역산업지원사업이 경남전략산업의 위상변화, 성장 기여도 및 산업별 성장 등에 미친 영향을 점검해 보았다. 이를 통하여 4대 전략산업이 과거 10년간 경남지역 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부가가치 기준)의 증가(1999년 43.5% → 2008년 56.7%), 경남지역의 제조업 성장 기여도(1999년~2008년간 종사자 수 기준 96.1%, 부가가치 기준 65.6% 기여), 고용증가율, 부가가치 증가율 및 사업체 증가율 등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경남 지역산업평가단에서는 지역산업지원사업 중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투자된 지원성과를 분석하여 왔다. 3단계 기간 동안 지역산업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된 1조 2,830억원 중 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경남지역의 전략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투자된 현황을 보면, 1단계에는 정부 출연금 900억원을 포함하여 총 1,600억원의 사업비가 220개 기술개발과제에 투입되었고, 2단계에서는 정부 출연금 2,158억원을 포함한 총 3,248억원의 사업비가 598개 기술개발과제에 지원되었다. 현재 진행 중인 3단계에서는 정부 출연금 715억원을 포함한 총 953억원의 자금이 경남 전략산업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지원되고 있다.

경남 테크노파크 지역산업평가단에서는 2단계 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여 왔고, 그동안 2010년 및 2011년도 두 차례 분석 보고서를 통해 발간한 바가 있다. 특히 2011년에 발간한 2단계 분석 보고서는 2단계 기술개발과제의 모든 과제가 최종 종료된 2010년도 말을 기준으로 그 성과를 분석한 것으로서 2단계 기술개발 과제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하겠다. 본 보고서는 2011년도에 발간된 경남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 2단계 성과분석 보고서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Ⅱ. 경남 2단계 지역산업 기술개발 사업 현황

1. 사업 개요

경남의 2단계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은 경남지역 4대 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지식기반기계 산업, 로봇 산업, 지능형 홈 산업, 바이오 산업분야의 경쟁력 제고 및 특성화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경남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함으로써, 경남지역 전략산업의 균형 있

〈표 1〉 2단계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 유형별 지원내용

	지역산업 공통기술개발사업	지역산업 중점기술개발사업
지원구분	○경남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단기간에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제품 및 기술개발 지원	○경남지역전략산업의 경쟁력제고 및 구조고도화 ○집중개발이 필요한 핵심복합 기술 개발 지원
지원규모	과제당 2억 원 이내/연	과제당 10억 원 이내/연
지원기간	2년 이내	4년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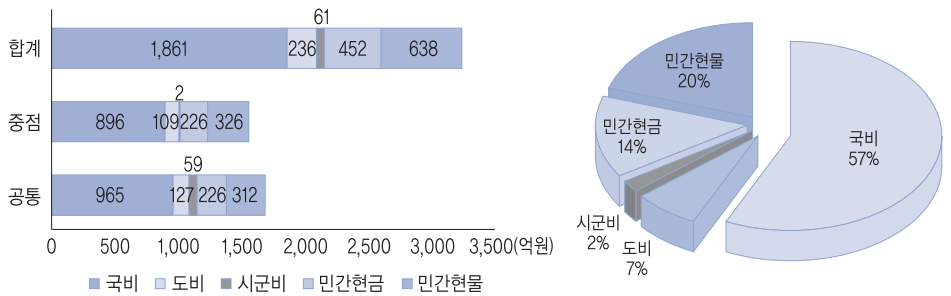
는 발전 도모 및 자생력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2단계 사업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3,248억원(국비 1,861억원, 도비 236억원, 시군비 61억원, 민자 1,090억원)이 투입되었는데, 그 지원 유형을 보면 크게 공통기술개발사업(1,689억원)과 중점기술개발사업(1,559억원)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각 유형별 지원내용은 〈표 1〉에 정리하였다.

2. 지원 현황

2단계 기술개발사업비 총 3,248억원 중 국비와 도비 및 시비로 구성된 정부출연금은 2,158억원으로 전체의 66%에 해당되며, 민간사업비(현금 및 현물)는 1,090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34%를 차지한다. 공통기술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비 1,689억원 중 정부출연금은 1,151억원으로 2004년~2008년까지 5년간 매년 평균 230.2억원의 정부출연금이 투입되었고, 중점기술개발사업은 해당 사업비 1,559억원 중 정부출연금은 1,007억원으로 2004년~2006년까지 3년간 매년 평균 335억 7,000만원의 정부출연금이 투입되었다.

경남의 2단계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지원된 598개 과제를 지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통 기술개발사업으로 2004년~

〈그림 1〉 2단계 기술개발사업 총 사업비 재원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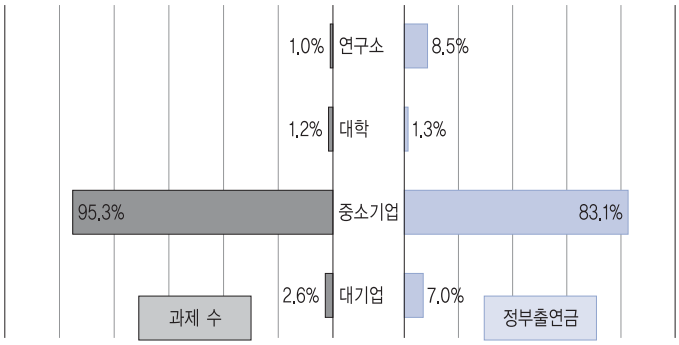


2008년까지 5년간 470건을 지원하였고, 중점 기술개발사업으로 2004년~2006년까지 3년간 총 128건(총괄과제 39건, 세부과제 90건)을 지원하였다. 그런데 사업수행기관 유형별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과제 수 및 정부출연금 기준 모두 이들 지원에 있어서 중소기업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그림 2 참조).

이와 같은 지원 현황을 경남의 4대 전략산업 분야별로 대비하여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6년 12월 말 기준 관련 6,866개 기업 중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에 지원한 기업은 1,162개 기업으로 약 16.9%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 2단계 지역산업 기술개발과제를 지원받은 기업 수는 508개(중점과제는 총괄과제 기준)로 전략산업 관련 기업 수의 7.4%에 해당한다.

전체 598개 선정 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를 협약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4년에는 선정된 152개 중 136개가 성공과제로 평가되었으며, 2005년에는 115개 선정 과제 중 106개, 2006년에는 114개 선정 과제

〈그림 2〉 기관별 과제 수행 현황



〈표 2〉 경남지역 4대 전략산업 기업 현황 및 접수율

단위 : 개, %

	지식기반기계	로봇	지능형홈	바이오	합계
관련기업 수	5,682	204	630	350	6,866
접수기업 수	859	34	181	88	1,162
접수비율(%)	15.1%	16.7%	28.7%	25.1%	16.9%
지원기업 수	375	18	75	40	508
지원비율(%)	6.6%	8.8%	11.9%	11.4%	7.4%

자료 : 2006년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보고서
주 : 작성기준일 : 2006년 12월 말

중 108개, 2007년에는 116개 선정 과제 중 105개, 2008년에는 101개 선정 과제 중 98개가 성공 과제로 평가되어 553개가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Ⅲ. 경남 2단계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 성과분석 결과

1. 성과분석 개요

앞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2단계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지원된 과제 598건 중 성공한 과제는 553건으로 성공률은 92%에 달한다. 이를 각 지원 유형별로 다시 나누어 보면 공통기술개발과제는 470건 중 432건의 과제가 성공하여 성공률 91.9%로 나타나고, 중점기술개발과제는 128건 과제 중 121건 과제 성공으로 94.5%의 성공률을 나타낸다.

그런데 중점기술개발사업에서 총괄과제는 세부과제들에 대한 관리 기능에 한정된 역할이므로 성과 조사·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분석 대상 지원과제는 중점기술개발의 총괄과제 38건과 폐업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20건의 과제를 제외한 495건이다.

495개 대상과제에 대한 조사·분석은 2010년 10월~2010년 12월까지 3개월간 실시되었는데,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이용한 이메일 조사와 전화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수집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과정을 통해 수집된 과제는 총 453개로 응답률은 91.5%에 해당된다. 응답과제의 회신내용에 대해서는 Kis-cretop, NTIS 조사·분석·평가자료, 기업현황 조사표등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표 3〉은 본 조사 분석에 실제로 활용된 과제의 현황을 나타낸다.

수집된 자료를 이용한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은 다섯 가지 단계를 이용하여 접근하였다. 즉,

- 사업목적에 적합한 성과분석 모형의 구축
- 구축된 모형에 따라 사업의 특성을 분석하여, 성과분석 지표를 설정
- 성과지표에 따라 성과분석을 수행
- 성공과 실패 요인 분석과 더불어 성과제고를 위한 개선요소를 도출
- 성과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정책제안사항을 도출

여기서 성과분석을 위한 성과지표 체계화를 위하여 2단계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파급효과의 세 개로 나누어 각 성과 항목별 성과지표를 선정하였는데, 〈표 4〉는 그 지표를 나타낸다.

자료의 통계분석을 위하여 통계 패키지 SPSS 17.0 버전이 사용되었고, 세부적인 분석을 위하여 전 항목에 대해서는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성과분석을 위해서는 ANOVA(분산분석), 교차분석 및

〈표 3〉 사업화 성공 과제 수

단위 : 개

	연 도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공통	71	72	75	87	76	381
중점	22	10	13	12	15	72
전체	93	82	88	99	91	453

〈표 4〉 성과 항목별 성과지표 세부 내역

	성과 항목	성과 지표
기술적 성과	기술적 목표 달성도	기술목표 달성도
	기술(지식)축적 효과	특허(국내, 국제), 실용신안, 논문(국내, 국제), 학술회의발표
	기술경쟁력 강화 효과	기술발전단계변화 중 개발기술의 위치
		제품수명주기 변화 중 개발기술의 위치
		기술수준변화 중 개발기술의 위치
	기술지원 효과	기술개발 능력향상 정도, 기술자립도
		기술개발 목표 확대효과
경제적 성과	사업화 성공도	조사 참여 과제 대비 사업화 과제 수
	직접적 경제성과	과제 관련 매출액(총규모, 단위연구비당), 생산원가 절감액
		시장점유율
		신규고용 창출 수 : 총규모, 연구비당
파급 효과	기술적 파급효과	연구자 전문성 강화효과(유사연구개발실적, 관련지식축적), 기술파급(타 제품, 타 분야), 기술기여도(생산성향상, 품질향상, 작업환경개선, 교육훈련)
	경제적 파급효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 전략산업분야의 공익적 가치의 향상, 지역전략산업의 발전, 창업

다중회귀분석기법 등을 사용하였다.

2. 기술적 성과 분야

□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인 특허의 경우 응답 453개 과제에서 477건의 특허가 출원되었고, 225건이 등록되어 출원건수 대비 47.2%의 등록률을 보였다. 이 중 국내특허 출원이 456건으로 출원된 특허의 대다수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실용신안의 경우 42건이 출원되고 이 중 32건이 등록되어 등록률 76.2%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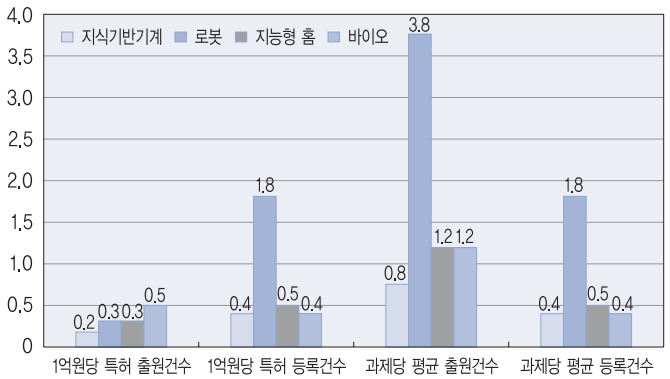
전략산업별 국내외 특허 출원 건수를 살

〈표 5〉 사업화 성공 과제 수

단위 : 개

	특허 출원·등록						실용신안	
	특허(국내)		특허(국외)		소계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건수	456	220	21	5	477	225	42	32
등록비율	48.2%		23.8%		47.2%		76.2%	

〈그림 3〉 전략산업별 지적재산권 확보 현황



펴보면 지식기반기계가 241건으로 전체의 50.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로봇 분야 23.7%, 지능형 홈 분야 17.6%, 마지막으로 바이오 분야 8.2%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정부 출연금에 대한 특허 실적으로 살펴보면, 정부 출연금 1억원당 특허 출원건수는 0.21건으로서, 전략산업 분야별로는 바이오분야가 0.5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지식기반기계가 0.2건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당 평균 특허 출원건수는 로봇분야가 과제당 3.8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지식기반기계가 0.8건으로 가장 낮았으며, 분석대상 전체 과제수 대비로는 과제당 1.1건의 특허가 출원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논문

과제를 통한 논문 발표 건수는 총 664개로 이 중 학술대회 발표 논문이 497개로 7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논문은 158개로 23.8%, SCI 논문의 경우는 9개로 1.4%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및 국외 비율을 보면 국내논문이 527건으로 전체의 79.4%를 차지하고, 국외 논문 발표가 137건으로 20.6%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논문 게재 또는 발표는 총 527건으로 이 중 학술대회 논문이 385건, 일반논문이 141건, 그리고 SCI 논문이 1건으로 나타났다. 국외의 경우 게재 또는 발표된 논문은 총 137개로 이 중 학술대회 논문이 112건, 일반논문이 17건, SCI 논문이 8건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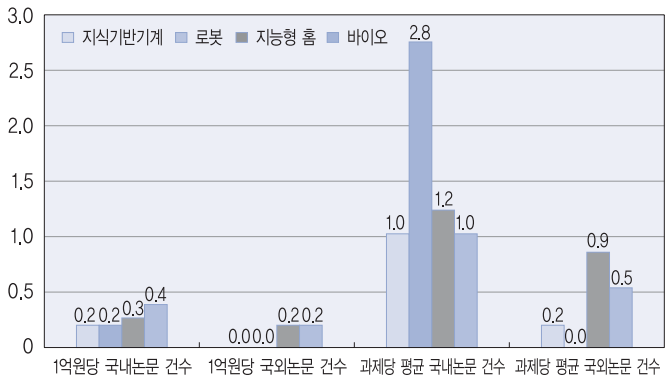
전략산업별로 논문 실적을 비교해 보면 지식기반기계가 324건(61.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능형 홈 분야가 87(16.5%)건, 로봇분야 83(15.7%)건이었으며 바이오 분야가 33(6.3%)건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정부 출연금 1억원당 국내 논문 발표 건수는 지식기반기계 0.2건, 로봇 0.2건, 지능형 홈 0.3건, 바이오 0.4건으로 전략산업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경향은 국외 논문 발표에서도 역시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전략산업별 과제당 논문발표를 보면 국내 논문발표는 로봇분야가 2.8건으로 가장 논문활동이 활발하였으며 바이오 분야와 지식기반기계 분야가 각각 1.0건으로 가장 저조하였다. 이는 로봇분야에 대한 지원이 지역산업중점기술개발사업으로 진행되어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건수에 많은 정부출연금이 지원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바이오 분야는 중점기술개발사업이 지원되지 않았던 것도 이와 같은

〈표 6〉 논문 실적 현황

		일반논문	학술대회	SCI	합계
건수	국내	141	385	1	527
	국외	17	112	8	137
	합계	158	497	9	664

〈그림 4〉 전략산업별 논문 실적 현황



경향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기타 기술적 성과

이와 같은 정량적인 성과와 더불어, 기술경쟁력 강화 측면과 기술지원 측면의 정성적인 측면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얻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기술개발 초기에 설정하였던 기술목표 달성률에 대한 조사에서 평균 97% 수준의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응답하였고, 기술개발 과제 수행을 통한 해당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관련된 성과에서는, 사업 수행 전에는 최고 기술 보유국 대비 평균 52%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기술 수준이 88% 수준까지 향상되었다고 답했다. 또한, 선전국과의 기술 격차는 개발 당시 6.1년에서 개발완료 후 2.3년으로 격차를 좁힌 반면, 선진국 대비 51% 수준이었던 기술자립도가 89% 수준으로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전략산업별로는 바이오 분야의 기술목표 달성률이 가장 양호하게 나타난 반면, 기술자립도 향상 측면과 선진국 대비 기술격차 해소 측면에서는 지식기반기계 분야가 가장 우수한 발전 성과를 보여 주었다.

3. 경제적 성과

□ 매출 발생 등 사업화

조사에 참여한 453개 응답 과제 중 281개 과제가 매출이 발생되었거나 혹은 원가절감을 시현하는 등 사업화에 성공하여 62.0%의 사업화 성공률을 보였다. 금액으로는 매출액과 원가절감액이 각각 7,120억원과 1,44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매출(내수, 수출)이 발생했다고 응답한 과제는 총 257개이고, 매출+원가절감이 발생했다고 응답한 과제는 116개이었으며, 원가절감만 발생했다고 응답한 과제는 24개이었다. 전략산업별 사업화 성공률을 살펴보면 지식기반기계 분야가 66.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지능형 홈 분야가 57.0%, 로봇 분야가 50.0%, 바이오 분야가 43.8%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직 사업화되지 않은 과제들 중에서 사업화 준비 중에 있는 과제도 11.0%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사업화 성공률이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략산업별 매출 발생액을 살펴보면 정부 출연금 1억원당 매출액은 지식기반기계 분야가 4억 3,000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과제당 평균 매출액은 로봇분야가 56억 2,000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바이오 분야에서는 정부출연금 1억원당 매출액이 1억 3,000만원이고 과제당 매출액이 8억 5,000만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과제를 통한 원가절감은 사업화된 281개 과제 중 140건이 응답하여 49.8%로 나타났고, 연도별 원가절감액은 2004년 300만원부터 2010년 432억 9,200만원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략산업별 원가절감액을 살펴보면 지식

〈표 7〉 사업화 성공 과제 수

단위 : 개

	매출 발생			원가절감	전체
	수출	내수	소계		
응답 수	110	229	257	140	281

〈표 8〉 사업 수행을 통한 매출액 성과

단위 : 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수출	4,938 (12)	18,647 (28)	32,811 (57)	54,687 (97)	33,077 (55)	144,160 (249)
내수	51,361 (40)	82,999 (78)	109,913 (125)	174,221 (195)	150,948 (125)	569,442 (563)
합계	54,854 (44)	101,656 (89)	142,724 (145)	228,908 (226)	184,135 (136)	712,301 (257)

주 : 1) ( ) 안은 매출발생 건수
2) 2004~2006년까지 매출발생 건수 및 금액은 편의상 2006년에 합산함.

〈표 9〉 사업 수행을 통한 원가 절감 성과

단위 : 백만원

원가 절감액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합계	3	218	1,822	16,270	29,717	52,582	43,292	143,904
응답 수	1	3	24	39	67	115	67	140

기반기계가 1,296억원으로 90%를 차지하였고, 정부출연금 1억원당 원가절감액은 지식기반기계 분야가 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능형 홈 3,000만원, 로봇 1,000만원, 바이오 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과제당 원가절감액은 지식기반기계가 12억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로봇, 지능형 홈, 바이오 분야 순으로 조사되었다.

□ 사업 수행을 통한 고용창출 성과

2단계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을 통한 신규 고용 인원에 대한 조사에서는 2010년까지 총 2,012명으로 응답과제 453개에 대하여 과제당 평균 4.44명이 신규고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고용실적이 있는 과제 253개에 대비해 보면 과제당 7.95명의 평균 고용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사업 수행을 통한 고용창출 성과

단위 : 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누적 합계
합계	10	49	171	247	422	676	455	2,012
응답 수	5	21	39	79	116	176	120	253
평균	2.00	2.33	4.38	3.13	3.64	3.84	3.79	7.95

주 : 1합계는 2004~2010년 누적합계임.

〈표 11〉 과제수행결과 산업 활동 활용 현황

단위 : %

	신제품 개발에 기여	기존제품 품질향상에 기여	생산원가 절감에 기여	작업환경/ 안전성 개선에 기여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에 기여	새로운 창업에 기여	기타
응답률	94.3	86.2	75.3	58.2	59.2	36.5	26.9

과제를 통한 고용창출효과를 보면 2010년도 단위과제당 평균 고용창출 인력 3.79명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전략산업별로 정부출연금 1억원당 고용창출 성과를 살펴보면, 지식기반기계가 1.1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로봇 분야가 0.5명, 지능형 홈 분야가 0.7명, 바이오 분야가 0.5명의 고용창출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당 평균 고용창출 성과를 살펴보면 로봇 분야가 10.3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지식기반기계가 8.5명, 지능형 홈이 5.7명, 바이오가 3.9명의 고용창출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기타 경제적 성과

이 외에도 본 사업을 통해 기술개발과정에서 습득한 각종의 Know-how를 포함한 결과들이 과제를 수행한 기업들의 전체적인 기업 활동에 어떻게 활용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본 결과, 해당 항목 응답자의 94.3%가 신제품 개발에 기여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이어서 기존제품 품질향상에 기여, 생산원가절감에 기여, 작업환경/안전성개선에 기여,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에 기여, 새로운 창업에 기여의 순으로 나타났다.

4. 과제의 성공 및 실패 요인분석

위에서 분석한 성과 외에도 2단계에서 수행된 기술개발과제들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해 보았다. 기술적 성과에 있어서는 기술 목표 달성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경제적 성과에서는 사업화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기술적 목표 달성도가 90% 이상이라고 응답한 과제들에 있어서 목표달성에 영향을 미친 주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개발목표 수립이라는 응답이 3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현실적인 기술적 목표 설정이 30.2%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사전 타당성 조사 철저(10.6%), 충분한 연구비 활용(6.2%), 우수연구원 확보 및 활용(5.4%), 충분한 연구기간(3.4%), 연구 및 지원설비 우수성(2.8%), 연구환경 적합(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전략산업별 분석에서도 응답 경향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식기반기계는 명확한 개발목표 수립, 바이오는 현실적인 기술적 목표 설정에 대한 응답이 타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목표가 미달된 과제들의 경우 그 원인에 대한 응답 중 연구기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18.7%로 가장 많았고, 우수 연구원 확보의 어려움(14.2%), 기술적으로 달성이 어려운 목표의 설정(13.5%), 연구비 부족(13.5%), 연구 및 지원설비의 부족(13.5%), 연구환경의 변화(12.3%), 사전 타당성 조사의 미흡(9.7%)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술개발에 성공하였으나 후속적인 제품의 사업화를 보류하거나 중단한 과제의 사유로는 기술개발에 대한 사업화 기반 미조성(31.4%), 기술개발에 대한 수요 부족(25.7%), 추가개발 필요(22.9%)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12〉 기술적 목표달성 요인별 현황

단위 : %

기술적 목표달성 이유	
명확한 개발목표 수립	39.3
현실적인 기술적 목표 설정	30.2
사전 타당성 조사 철저	10.6
충분한 연구비 활용	6.2
우수 연구원 확보/활용	5.4
충분한 연구기간	3.4
연구 및 지원설비 우수성	2.8
연구환경 적합	1.0
기타	1.0

Ⅳ. 성과분석 종합 및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단계 지역전략산업의 기술개발사업은 기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의 성과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기술적 측면의 성과를 볼 때, 지적재산권 확보와 논문 등 기초기술 확보 측면의 외형적 실적뿐 아니라, 과제수행기업들이 체감하는 기술경쟁력과 관련한 기술적 목표 달성률(96.49%), 기술수준 향상(52.19% → 88.33%), 기술자립도(50.74% → 89.35%), 기술격차 해소(6.11년 → 2.33년) 등의 측면 역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성과 측면에서도 2단계 기술개발사업 기간 동안에 투입된 기술개발자금 대비 매출액 발생과 원감 절감 시현, 그리고 고용 창출 결과 역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들은 동일성격의 타사업과 간접 비교를 통하

여 보아도 그 실적 측면에서 동등 이상의 성과임을 알 수 있다. 타 사업에서는 각각의 고유 목적이 있어 직접적인 성과 비교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과거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2008년 공통핵심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 발간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성과 조사 결과와 대비하여도 손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사업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개선이나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이 아직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업화 현황이나 고용 창출 측면은 비록 타 사업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선의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 하겠다. 예컨대 수요에 입각한 기술기획, 시장성을 좀 더 중시한 연구과제 선정·평가, 시장전문가에 의한 과제 평가 비중을 강화함으로써, 사업화 실적을 한층 더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술개발의 산업적 활용 현황을 보면 신제품 개발이나 기존제품 품질향상 등 본연의 목표 이행은 양호하나 신규창업에의 기여, 관련 업체 작업환경 개선 등 간접 파급 효과는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났다. 이의 보완을 위해서는 지원사업의 기획·평가 시 간접적 파급 효과 측면도 강조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더불어, 성과 분석 측면에 있어서도 더욱 세밀하고 과학적인 조사 방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기업 스스로의 응답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별도의 심층 분석이나 재무(세무)자료 분석 등을 병행하여 성과분석의 신뢰성과 현실성을 제고함이 요구된다. 또한, 지역 내 주요 산업별, 정책별 전문가 이외에 수도권 등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기술혁신 사업화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여 수시로 주요 프로그램별, 다각적 자문·검토·평가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정부의 주요 지역 프로그램 방향을 앞장서서 발굴, 제안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정책이슈를 개발함과 아울러 현장의 의견 중시 및 기업수요 맞춤식 정책의 추진이 실질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함이 요구된다 하겠다.

아울러 지역의 자율적 기술행정의 구현을 앞당기기 위하여 기업 지원서비스의 전문화를 도모(예: 지식재산관리, 기술마케팅, 기술경영, 국제협력 등)하며, 개방형 혁신의 가속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내외의 기술 및 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가공/분석을 통한 기술개발 실용화의 촉진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KIET

참 고 문 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1. 5), 「지역산업지원사업 안내」.

• 산업연구원(2010. 4), 「경남지역산업진흥사업 성과분석 및 (재)경남테크노파크 발전전략 수립」.

• 경남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2010. 1), 「경남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2단계 중간 성과분석보고서」.

• 경남테크노파크 지역산업평가단(2011. 10), 「경남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2단계 성과분석보고서」.

• 한국산업기술평가원(2008), 「2008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 성과활용조사 결과보고서」.

지역경제통계

주요 동향지표

주요 동향지표

▣ 산업생산지수

(2005=100기준)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0	138.7	96.6	125.3	122.8	110.4	146.9	117.6	116.2	158.7	118.5	154.7	220.7	134.1	120.1	111.7	143.4	118.9
2009 Ⅳ	130.5	101.5	123.6	115.6	104.3	140.3	108.7	114.6	140.6	114.9	146.0	207.5	123.2	127.8	116.7	129.3	159.9
2010 Ⅰ	129.3	95.9	117.3	115.6	101.5	118.5	107.9	108.1	144.7	103.0	138.9	206.0	121.9	114.8	114.1	127.3	127.4
Ⅱ	140.8	95.1	128.5	124.4	114.9	147.7	116.8	119.5	162.1	128.2	160.0	218.0	135.3	121.0	111.9	147.0	107.3
Ⅲ	139.5	92.0	123.4	117.1	106.7	149.4	117.9	113.6	162.9	116.0	158.3	224.1	135.1	121.6	107.9	145.9	100.6
Ⅳ	145.2	103.2	132.0	134.0	118.4	171.8	127.6	123.6	165.0	126.9	161.7	234.6	144.2	123.0	112.9	153.4	140.1
2011 Ⅰ	143.6	95.4	133.5	130.2	116.3	162.2	120.8	112.9	170.7	111.4	149.1	222.9	140.4	122.6	106.6	140.3	120.2
Ⅱ	151.2	84.7	129.6	130.0	123.5	165.5	116.6	126.2	178.7	129.6	169.9	242.9	141.2	123.8	111.2	153.9	111.5
Ⅲ	146.1	85.2	133.1	119.4	111.6	154.0	117.1	121.5	181.6	125.1	157.1	234.6	137.6	124.6	104.1	134.6	107.5
2009 11	130.3	96.2	120.8	113.0	102.3	145.2	107.3	115.8	138.7	114.3	147.6	204.6	123.9	128.0	119.4	130.3	165.9
12	134.2	108.7	128.0	121.7	107.6	139.8	116.0	118.1	147.2	114.3	145.8	211.9	124.5	127.5	113.1	137.3	192.3
2010 1	128.5	102.0	120.8	116.4	101.1	121.3	109.3	106.7	135.8	97.2	137.7	207.4	121.5	119.8	120.6	127.3	163.4
2	118.7	84.5	105.7	104.7	91.0	98.2	97.0	99.9	133.9	92.0	126.4	185.4	107.5	107.0	106.9	113.9	113.2
3	140.7	101.2	125.4	125.8	112.5	136.1	117.5	117.7	164.4	119.7	152.7	225.1	136.6	117.7	114.7	140.8	105.6
4	139.4	98.7	129.4	124.5	115.4	139.1	115.6	119.6	159.6	127.8	159.0	214.6	133.8	118.5	114.0	140.9	104.3
5	139.9	91.5	124.5	126.1	113.7	148.8	113.2	117.4	162.0	126.9	158.8	216.6	134.2	120.5	112.2	146.2	107.2
6	143.1	95.1	131.6	122.6	115.6	155.3	121.5	121.5	164.6	130.0	162.3	222.8	137.9	124.1	109.4	153.8	110.4
7	143.7	91.6	129.7	123.3	110.0	157.7	123.5	115.6	166.8	121.2	167.3	223.0	140.2	124.7	111.7	154.6	102.6
8	137.3	89.4	118.5	112.0	104.4	140.1	115.0	107.5	160.5	114.0	156.0	227.2	130.6	122.1	106.1	142.1	101.8
9	137.6	94.9	122.1	115.9	105.8	150.3	115.3	117.6	161.5	112.8	151.6	222.2	134.6	117.9	106.0	140.9	97.5
10	144.2	101.2	131.6	131	117.5	166.1	127.6	122.3	161.6	128.8	163	242.1	147.2	123.9	114.5	151.9	119.3
11	144.2	101.1	131.4	132.9	117.4	175.5	124.5	122.7	162.5	127.9	164.2	235.3	138	120.1	112.7	150.6	149.3
12	147.3	107.2	132.9	138.1	120.3	173.7	130.8	125.8	170.9	124.1	157.9	226.3	147.4	124.9	111.6	157.7	151.6
2011 1	146.9	104.8	140.7	131.4	117.4	164.6	124.3	121	170	111.2	149.8	227.2	145.4	123.1	111.3	144.1	133.3
2	129.8	81.6	117.3	113.5	103.9	142.5	106.2	95.8	158.2	96.1	128.9	206.8	121.8	113.3	97.9	123	104.7
3	154.0	99.8	142.6	145.7	127.6	179.5	131.9	121.8	183.9	127	168.7	234.8	154	131.3	110.5	153.8	122.7
4	149.7	89.2	129.3	131.2	124	164.6	105.8	126.8	175.4	127	169.8	234.6	140.3	125.5	112.7	153.4	107.3
5	151.5	84.2	127.6	130.8	120	159.5	121.4	124.2	181.9	130.5	169.4	246.7	136.2	123.6	113.8	147.6	114.3
6	152.3	80.8	131.9	127.9	126.5	172.5	122.7	127.6	178.8	131.4	170.6	247.4	147	122.4	107.1	160.8	112.9
7	148.7	76.4	134.4	124.3	112.7	161	119.5	129.5	181.2	124.6	164.3	241.5	140.7	126.8	104.9	145.2	106.1
8	142.9	88.1	130.5	114.4	112.6	148.3	116.9	113.1	174.8	124.4	153.3	223	135.4	124.3	102.6	128.6	113.2
9	146.7	91.1	134.4	119.4	109.5	152.8	114.8	122	188.8	126.3	153.8	239.3	136.7	122.7	104.8	130	103.3

자료 : 통계청, 「광공업 동태조사」

단위 :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9	-0.8	-11.5	-7.7	-9.4	-14.4	3.1	-3.0	1.8	-1.5	-5.2	8.6	18.6	-4.8	-0.1	-6.9	-2.5	9.1
2010	16.7	3.6	8.4	21.9	16.1	24.5	16.3	6.3	24.6	9.3	14.3	21.0	20.6	4.3	3.4	18.0	-6.5
2009 Ⅲ	4.8	-6.6	-0.5	-1.6	-8.7	13.1	12.0	11.7	7.2	-3.3	13.8	31.6	14.0	0.6	-8.0	2.7	33.8
Ⅳ	16.6	0.2	-0.6	12.8	1.0	21.3	6.3	4.8	20.3	1.1	19.5	42.4	22.6	16.4	15.0	8.3	-1.2
2010 Ⅰ	25.8	7.5	9.5	28.2	18.7	32.1	24.0	7.9	33.4	11.0	25.4	45.6	31.6	14.7	25.4	16.5	17.4
Ⅱ	19.5	7.1	12.3	28.5	24.4	21.9	17.9	6.4	28.8	11.1	15.8	22.5	21.0	9.3	0.3	19.4	-1.6
Ⅲ	11.9	-1.5	5.1	16.6	8.8	23.9	7.6	3.1	20.9	5.0	7.9	10.6	15.4	-0.4	-4.2	17.4	-23.4
Ⅳ	11.3	1.7	6.8	15.9	13.5	22.5	17.4	7.9	17.4	10.4	10.8	13.1	17.0	-3.8	-3.3	18.6	-12.4
2011 Ⅰ	10.6	-0.6	10.4	14.2	12.3	36.2	11.2	8.6	17.4	6.9	8.2	7.7	15.1	6.2	-6.9	8.8	-6.5
Ⅱ	7.2	-11.7	-1.7	5.4	5.5	11.3	-1.5	10.4	9.1	0.1	7.2	11.1	4.2	2.1	-1.1	5.6	3.8
Ⅲ	5.1	-9.6	4.1	2.9	2.3	2.5	-1.7	13.4	9.5	6.6	0.2	4.3	1.8	2.6	-3.6	-4.6	5.0
2009 7	0.9	-9.4	-0.1	-2.5	-13.7	13.2	3.2	14.1	2.1	-7.3	9.1	28.5	8.9	-5.4	-7.6	-3.0	30.9
8	1.6	-7.0	-8.4	-9.2	-8.5	-11.5	8.2	0.5	5.9	-9.7	8.1	27.2	13.7	0.2	-11.6	-1.1	18.6
9	11.9	-3.4	6.9	6.8	-4.0	36.7	25.5	20.4	13.8	7.2	24.4	39.2	19.6	6.9	-4.8	12.8	51.8
10	0.6	-9.1	-9.6	-1.2	-10.4	4.0	-5.3	-7.4	0.4	-7.0	8.2	22.6	3.4	8.0	-3.2	-7.8	2.0
11	18.5	-0.5	1.3	11.9	-1.5	25.9	5.4	8.3	20.6	-0.6	22.5	39.6	30.7	19.7	15.9	13.9	-1.0
12	34.7	11.5	7.4	30.7	18.2	38.3	20.2	15.3	46.6	13.1	29.7	72.8	39.1	22.2	41.4	21.4	-3.2
2010 1	37.0	13.6	18.4	48.7	28.3	64.1	35.6	19.1	37.6	24.0	43.7	72.7	44.3	25.2	45.1	30.2	57.9
2	18.9	-0.7	-0.3	16.3	7.7	6.7	15.1	1.1	26.3	4.7	16.6	33.6	20.0	15.4	20.9	4.9	12.3
3	22.7	9.3	10.7	23.1	20.6	31.9	22.4	4.9	36.2	6.8	19.1	36.0	31.2	5.1	12.9	15.9	-12.9
4	20.1	-1.7	14.5	26.5	23.3	25.0	20.7	8.7	27.9	8.0	16.4	25.0	21.0	5.0	3.5	15.5	-4.8
5	21.7	11.6	15.2	33.7	31.1	20.6	22.2	7.3	33.3	12.5	16.3	22.2	22.1	10.9	2.1	23.2	0.0
6	17.1	13.1	7.7	25.6	19.3	20.6	11.6	3.3	25.3	12.9	14.8	20.3	20.0	12.4	-4.8	19.6	0.3
7	15.6	2.6	9.9	20.4	14.9	26.9	13.5	-0.1	24.5	10.2	13.0	13.4	20.1	7.6	-3.0	23.1	-13.6
8	17.0	-1.3	11.2	23.5	12.4	53.8	12.1	7.7	26.1	12.5	15.4	16.3	18.4	1.2	0.0	26.6	-15.4
9	4.0	-5.4	-4.4	7.2	0.1	2.7	-1.7	2.3	12.9	-6.2	-3.3	3.0	8.3	-8.9	-9.4	4.2	-37.1
10	13.5	1.5	7.9	16.9	14.0	22.1	24.2	11.2	19.0	10.8	12.7	17.6	21.6	-3.1	-2.6	26.2	-1.9
11	10.7	5.1	8.8	17.6	14.8	20.9	16.0	6.0	17.2	11.9	11.2	15.0	11.4	-6.2	-5.6	15.6	-10.0
12	9.8	-1.4	3.8	13.5	11.8	24.2	12.8	6.5	16.1	8.6	8.3	6.8	18.4	-2.0	-1.3	14.9	-21.2
2011 1	13.6	1.6	10.9	14.7	13.8	35.5	13.5	16.7	25.0	12.9	9.6	9.5	19.8	2.5	-8.0	11.4	-20.2
2	9.0	-2.7	7.5	10.1	11.5	44.2	9.1	0.6	17.2	3.3	2.8	10.9	13.1	5.3	-8.8	6.0	-7.5
3	9.1	-1.3	12.5	17.1	11.6	31.1	10.9	7.6	11.4	4.9	11.5	3.6	12.6	10.9	-4.1	8.9	16.2
4	6.9	-8.9	-3.3	6.3	6.3	17.6	-10.1	10.9	8.7	-1.6	7.9	8.9	4.7	5.5	-1.6	8.3	2.9
5	8.2	-10.8	-2.2	4.6	3.4	6.4	5.5	10.6	12.0	1.7	7.7	13.7	1.3	2.4	1.1	2.1	6.6
6	6.6	-15.2	0.2	5.3	6.7	10.5	0.2	9.8	6.7	0.2	6.2	10.5	6.4	-1.4	-2.8	6.4	1.9
7	3.9	-17.2	1.6	1.7	0.1	1.5	-4.2	17.3	6.3	1.8	-0.8	8.0	0.3	1.8	-6.2	-2.2	1.4
8	4.7	-5.1	4.0	3.0	6.1	5.3	1.0	11.3	7.4	8.0	-0.8	-2.1	3.5	1.9	-3.4	-4.5	7.6
9	6.8	-6.6	6.8	4.0	0.8	1.0	-1.7	11.6	15.1	10.5	2.5	7.0	1.6	4.4	-1.2	-7.1	6.1

▣ 대형소매점판매액 지수

(2005=100기준)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9	114.0	115.8	111.5	90.6	111.9	119.3	100.2	108.5	113.7	121.5	107.0	131.2	124.7	143.7	128.2	128.3	140.5
2010	121.4	123.8	124.1	95.2	117.6	126.2	109.8	114.1	119.6	142.8	118.8	137.3	129.3	146.9	133.7	133.6	143.7
2009 Ⅳ	123.2	126.8	122.4	98.4	120.7	132.3	108.4	116.8	121.9	126.9	111.3	141.3	131.1	144.8	132.1	136	140.8
2010 Ⅰ	119.9	119.6	122.7	97	117	127.9	108.2	113.5	118.3	141.4	123.7	137.8	134.1	150.8	135.3	133.5	140.7
Ⅱ	117.2	120.7	119.1	92.9	113.9	121.7	105.8	109.1	115.0	134.2	113.1	128.7	122.3	141.8	128.5	129.6	137.0
Ⅲ	118.9	118.1	123.7	92.5	115.7	120.1	106.6	112.3	118.0	152.8	123.5	138.1	131.2	153.2	138.4	132.4	157.0
Ⅳ	129.5	136.8	130.9	98.3	123.6	135.1	118.6	121.5	127.1	143.0	115.0	144.7	129.5	141.6	132.7	138.8	140.1
2011 Ⅰ	128.0	128.6	130.1	102.6	123.3	132.5	116.3	121.5	126.6	149.2	126.8	172.0	134.6	149.2	140.0	143.3	147.5
Ⅱ	125.4	127.9	126.6	98.2	124.2	125.4	113.9	116.2	124.5	141.6	118.9	169.7	131.8	140.7	132.8	135.7	152.9
Ⅲ	123.5	120.8	125.9	106.3	122.2	123.2	111.6	115.1	121.9	152.9	126.7	173.7	138.6	149.6	139.7	137.5	163.3
2009 11	120.2	124.2	118.7	95.5	119.1	130.3	107	115.2	119.4	118.3	102.5	136.6	124.6	139	126.9	132.7	137.6
12	128.9	132.5	130.5	102.2	124.6	134	116.4	121.2	126.7	141.2	122.9	149	142.2	152.6	137.1	140.1	146.3
2010 1	120.8	122.3	123.6	98.2	115.8	126.9	107.5	115.2	119.9	132.4	122.1	136.7	131.5	142.6	133.8	131.3	140
2	121.8	118.3	124.7	100.7	120.6	127.8	109	118.6	119.8	154.3	132.3	142.9	145.4	158.1	145	140.9	153.5
3	117	118.2	119.9	92.2	114.5	128.9	108.1	106.8	115.2	137.4	116.7	133.9	125.4	151.8	127.2	128.3	128.7
4	113.4	118.3	114	89.9	108.1	117.6	101.9	105	110.8	123.1	108.1	122.5	118.9	134.4	122.2	125.6	123.5
5	123.4	125.2	126.2	99	121.4	131.1	112.7	116.7	120.7	144.3	119.9	138	127.9	149	136.9	139.4	145.6
6	114.9	118.5	117	89.8	112.1	116.3	102.7	105.5	113.4	135.2	111.2	125.5	120.1	141.9	126.3	123.7	142
7	117	116.1	121.4	89.1	116	117.1	104.7	113.3	115.7	153.1	123.4	139.2	127.6	153.8	137.5	129.5	158.6
8	110.5	109.0	116.3	84.9	108.1	109.9	98.7	104.2	110.3	148.1	113.5	131.4	121.1	144.8	128.3	121.7	158.8
9	129.2	129.1	133.3	103.4	123.1	133.2	116.3	119.3	128.1	157.2	133.5	143.7	144.8	161.0	149.4	146.1	153.7
10	126.1	134.2	129.0	94.4	120.7	136.4	117.3	117.1	123.0	136.1	109.6	128.2	124.1	133.4	128.5	134.3	141.8
11	126.4	133.5	130.0	97.4	121.6	133.4	116.1	119.1	123.9	136.2	108.2	121.5	126.1	138.4	131.1	137.5	132.2
12	136.0	142.8	133.6	103.2	128.6	135.5	122.3	128.4	134.3	156.7	127.3	184.5	138.4	153.1	138.4	144.6	146.2
2011 1	145.6	146.5	149.5	118.1	137.1	147.5	131.7	139.7	143.6	163.1	143.9	194.6	152.4	169.6	160.5	167.4	163.5
2	114.8	112.5	117.7	92.1	113.8	120.5	104.6	108.9	114.4	143.1	117.2	158.3	122.4	139.4	130.9	129.0	138.0
3	123.5	126.9	123.0	97.6	119.1	129.5	112.5	115.9	121.9	141.3	119.2	163.0	128.9	138.6	128.6	133.5	140.9
4	124.9	129.9	126.0	98.3	120.5	125.4	112.8	116.8	122.7	133.3	113.7	161.7	128.1	139.6	129.5	135.2	142.3
5	130.7	131.9	132.8	101.2	130.8	132.4	117.7	121.8	130.4	148.3	124.6	176.6	139.6	147.5	139.1	142.9	160.9
6	120.7	121.8	121.1	95.1	121.4	118.5	111.3	110.0	120.4	143.2	118.5	170.8	127.7	134.9	129.8	128.9	155.5
7	122.7	119.0	124.0	96.7	123.4	123.6	111.4	115.5	123.0	155.9	129.7	179.3	136.0	152.4	141.3	137.2	168.8
8	115.8	113.0	118.7	103.9	115.2	111.8	103.8	105.4	114.8	149.3	117.4	161.9	129.2	141.3	128.0	124.1	160.8
9	132.1	130.4	134.9	118.4	127.9	134.3	119.6	124.3	128.0	153.4	132.9	179.9	150.6	155.2	149.8	151.1	160.2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 동태조사」

단위 :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9	0.1	1.0	4.8	-2.2	-2.8	2.3	-4.9	-2.4	-0.2	-3.3	-1.8	3.6	0.6	-2.0	-5.9	1.7	0.0
2010	6.5	6.9	11.3	5.1	5.1	5.8	9.6	5.2	5.2	17.5	11.0	4.6	3.7	2.2	4.3	4.1	2.3
2009 Ⅲ	-0.3	3.2	2.7	-4.4	-2.5	3.4	-6.2	-6.0	-0.1	-10.1	-3.9	2.5	-4.5	-7.6	-10.7	-2.9	0.0
Ⅳ	6.2	4.8	15.1	6.3	5.5	9.2	1.7	5.0	7.2	8.6	4.1	6.2	6.5	3.6	-1.5	6.1	6.3
2010 Ⅰ	6.9	5.7	14.7	7.1	5.4	8.0	7.9	4.3	6.6	18.9	14.1	7.9	4.9	5.2	3.2	2.5	4.8
Ⅱ	6.3	7.2	11.1	7.8	6.1	5.7	9.5	4.4	4.4	16.4	11.0	2.9	2.9	-0.4	3.9	4.3	-0.4
Ⅲ	7.7	6.7	13.3	6.3	6.7	7.7	11.4	8.2	5.8	22.3	16.2	5.8	8.4	6.2	9.9	7.9	5.2
Ⅳ	5.1	7.9	6.9	-0.1	2.4	2.1	9.4	4.0	4.3	12.7	3.3	2.4	-1.2	-2.2	0.5	2.1	-0.5
2011 Ⅰ	6.8	7.5	6.0	5.8	5.4	3.6	7.5	7.0	7.0	5.5	2.5	24.8	0.4	-1.1	3.5	7.3	4.8
Ⅱ	7.0	6.0	6.3	5.7	9.0	3.0	7.7	6.5	8.3	5.5	5.1	31.9	7.8	-0.8	3.3	4.7	11.6
Ⅲ	3.9	2.3	1.8	14.9	5.6	2.6	4.7	2.5	3.3	0.1	2.6	25.8	5.6	-2.3	0.9	3.9	4.0
2009 10	7.6	6.0	15.0	10.3	6.3	10.6	-0.5	6.9	8.5	6.3	5.6	8.6	8.8	4.7	2.6	10.0	8.5
11	1.2	-0.5	7.7	0.4	2.0	4.2	-2.4	0.7	3.5	-2.2	-5.0	0.7	3.6	-0.8	-7.6	1.6	3.6
12	10.0	9.0	23.2	8.6	8.3	13.1	7.9	7.6	9.6	22.0	11.6	9.3	7.2	6.6	1.0	6.9	6.8
2010 1	-3.9	-3.4	4.4	-5.8	-3.2	-2.0	-3.3	-6.6	-2.4	-2.8	-3.9	-4.5	-12.6	-14.1	-13.1	-13.2	-10.3
2	23.3	16.6	41.9	28.9	25.4	21.6	21.5	21.9	21.1	47.1	44.4	27.9	30.4	30.7	29.0	24.8	30.7
3	4.5	6.2	4.6	3.1	-2.2	7.0	8.2	1.0	3.5	18.9	9.5	4.4	3.2	6.2	0.2	1.6	-0.4
4	5.0	5.2	9.3	5.8	3.3	4.7	10.4	2.9	4.3	10.9	12.3	1.7	3.5	1.3	0.8	1.2	-5.2
5	5.2	5.7	10.5	8.6	5.1	5.6	8.8	4.2	2.6	18.0	7.7	2.4	-0.3	-1.8	5.0	4.0	1.2
6	8.9	10.9	13.6	8.8	9.7	6.9	9.5	6.0	6.3	20.0	13.4	4.3	5.7	-0.4	5.8	7.8	2.5
7	9.1	10.2	14.1	5.4	9.0	7.2	11.0	9.4	6.4	22.0	19.2	6.7	7.1	6.3	10.5	7.1	4.5
8	4.9	5.1	10.3	3.9	2.8	7.2	6.4	6.7	2.4	11.1	9.0	2.3	3.9	2.1	7.1	6.0	4.1
9	8.8	4.9	15.0	9.2	8.4	8.6	16.2	8.3	8.5	35.8	20.1	8.4	13.6	10.0	12.0	10.3	7.0
10	4.6	8.5	9.2	-3.3	1.9	2.9	15.3	2.7	2.8	12.2	1.1	-7.3	-2.0	-6.5	-2.9	-0.7	2.5
11	5.2	7.5	9.5	2.0	2.1	2.4	8.5	3.4	3.8	15.1	5.6	-11.1	1.2	-0.4	3.3	3.6	-3.9
12	5.5	7.8	2.4	1.0	3.2	1.1	5.1	5.9	6.0	11.0	3.6	23.8	-2.7	0.3	0.9	3.2	-0.1
2011 1	20.5	19.8	21.0	20.3	18.4	16.2	22.5	21.3	19.8	23.2	17.9	42.4	15.9	18.9	20.0	27.5	16.8
2	-5.7	-4.9	-5.6	-8.5	-5.6	-5.7	-4.0	-8.2	-4.5	-7.3	-11.4	10.8	-15.8	-11.8	-9.7	-8.4	-10.1
3	5.6	7.4	2.6	5.9	4.0	0.5	4.1	8.5	5.8	2.8	2.1	21.7	2.8	-8.7	1.1	4.1	9.5
4	10.1	9.8	10.5	9.3	11.5	6.6	10.7	11.2	10.7	8.3	5.2	32.0	7.7	3.9	6.0	7.6	15.2
5	5.9	5.4	5.2	2.2	7.7	1.0	4.4	4.4	8.0	2.8	3.9	28.0	9.1	-1.0	1.6	2.5	10.5
6	5.0	2.8	3.5	5.9	8.3	1.9	8.4	4.3	6.2	5.9	6.6	36.1	6.3	-4.9	2.8	4.2	9.5
7	4.9	2.5	2.1	8.5	6.4	5.6	6.4	1.9	6.3	1.8	5.1	28.8	6.6	-0.9	2.8	5.9	6.4
8	4.8	3.7	2.1	22.4	6.6	1.7	5.2	1.2	4.1	0.8	3.4	23.2	6.7	-2.4	-0.2	2.0	1.3
9	2.2	1.0	1.2	14.5	3.9	0.8	2.8	4.2	-0.1	-2.4	-0.4	25.2	4.0	-3.6	0.3	3.4	4.2

▣ 건축착공면적

단위 : 1,000m²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9		71,251	5,954	3,552	1,640	2,697	1,658	1,734	1,328	23,328	2,559	3,401	5,302	3,678	3,615	4,823	4,882	1,099
2010		82,482	9,678	2,817	1,691	3,767	1,520	1,724	2,023	21,644	3,054	4,356	6,348	4,547	4,644	7,021	6,304	1,344
2009	Ⅳ	23,204	1,648	654	364	963	344	351	546	9,791	582	969	1,882	936	1,032	1,304	1,499	338
2010	Ⅰ	18,357	2,736	461	372	937	344	451	627	4,604	553	858	1,435	939	1,052	1,478	1,295	214
	Ⅱ	24,610	2,390	816	508	879	407	504	505	7,942	965	1,224	1,903	1,144	1,276	1,918	1,870	357
	Ⅲ	19,288	2,402	758	370	878	263	370	357	3,298	616	804	1,024	826	824	1,297	1,020	309
	Ⅳ	20,227	1,825	652	354	930	451	296	442	4,503	784	1,253	1,722	1,415	1,257	2,042	1,885	418
2011	Ⅰ	19,326	2,560	1,074	502	629	342	599	542	4,979	646	769	1,316	946	1,339	1,402	1,444	238
	Ⅱ	27,649	2,547	1,865	1,057	972	616	921	773	6,362	1,058	1,539	2,081	1,681	1,376	1,781	2,583	438
	Ⅲ	22,643	2,211	890	653	624	1,125	846	597	4,828	794	1,038	1,621	1,086	1,351	1,935	2,546	497
2009	10	7,871	503	131	94	183	124	147	170	3,783	253	405	479	332	352	463	400	53
	11	6,963	457	181	117	360	113	118	90	2,574	193	305	928	288	335	442	399	64
	12	8,369	687	342	153	419	108	85	287	3,434	136	260	475	316	345	399	700	221
2010	1	5,467	312	172	140	264	50	104	417	1,517	151	327	324	229	359	563	454	85
	2	5,352	1,136	142	110	179	84	101	93	1,543	123	231	410	209	253	322	375	40
	3	7,538	1,288	147	122	494	210	246	117	1,544	279	299	702	501	441	593	467	89
	4	10,065	1,096	271	180	267	148	154	210	3,587	318	492	542	424	487	847	897	148
	5	6,960	572	152	168	380	105	188	153	1,929	332	437	609	386	432	577	443	96
	6	7,584	723	394	160	232	154	162	142	2,427	316	295	752	333	357	494	529	113
	7	6,725	987	540	195	443	113	140	112	895	199	373	461	434	409	703	531	189
	8	6,758	1,252	153	132	363	123	178	199	1,755	350	322	432	281	297	451	372	97
	9	5,805	488	195	130	215	82	155	138	1,944	202	327	393	334	355	429	352	69
	10	6,811	565	232	115	304	86	120	194	1,486	232	472	465	404	361	779	761	234
	11	7,543	710	216	142	428	246	98	145	1,711	257	482	666	477	495	738	611	120
	12	5,874	550	204	96	198	118	78	102	1,306	295	298	591	534	401	525	513	64
2011	1	4,816	349	348	121	158	55	177	133	1,399	166	147	257	249	395	315	491	57
	2	4,924	429	286	128	202	74	119	121	1,244	204	208	358	270	446	316	440	81
	3	9,587	1,783	440	254	269	213	304	289	2,336	276	414	701	428	497	771	512	101
	4	10,272	1,099	748	449	287	219	204	375	2,400	239	409	725	777	456	639	1,043	202
	5	9,462	666	607	380	252	132	542	259	2,223	428	644	700	528	459	557	977	108
	6	7,916	781	510	228	433	265	175	139	1,739	390	487	656	376	462	585	563	129
	7	6,739	586	321	256	167	252	124	239	1,213	251	335	427	419	428	639	868	212
	8	8,228	1,028	213	204	210	700	203	210	2,075	246	316	456	335	507	640	704	181
	9	7,676	597	356	193	247	172	519	148	1,540	297	386	737	333	416	656	975	104

자료 : 국토해양부, 「건축착공통계」

단위 :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9	-5.2	-41.8	68.1	-17.6	-26.9	12.6	-19.2	-32.7	6.4	-0.1	6.4	0.0	14.3	18.0	-9.7	-21.7	49.3
2010	15.8	62.5	-20.7	3.1	39.7	-8.3	-0.6	52.3	-7.2	19.3	28.1	19.7	23.6	28.5	45.6	29.1	22.3
2009 Ⅳ	21.3	-56.3	46.7	-3.3	87.7	9.6	-24.5	-7.3	76.9	-23.6	32.4	43.5	43.3	46.7	0.8	-0.9	110.4
2010 Ⅰ	44.0	265.8	-68.2	-2.1	125.2	-36.1	1.8	233.5	54.3	10.4	18.7	52.8	46.9	44.7	63.7	52.9	-32.5
Ⅱ	46.1	78.0	47.0	40.7	64.3	18.0	-24.7	66.1	52.7	53.9	48.7	45.3	15.3	33.8	44.9	48.3	45.7
Ⅲ	4.5	8.4	-15.0	-30.6	11.9	-38.6	36.4	23.5	-38.4	-27.5	-9.3	-12.6	-25.6	-8.6	0.4	-20.0	56.1
Ⅳ	-12.8	10.7	-0.3	-2.7	-3.4	31.1	-15.7	-19.0	-54.0	34.7	29.3	-8.5	51.2	21.8	56.6	25.8	23.7
2011 Ⅰ	5.3	-6.4	133.0	34.9	-32.9	-0.6	32.8	-13.6	8.1	16.8	-10.4	-8.3	0.7	27.3	-5.1	11.5	11.2
Ⅱ	12.3	6.6	128.6	108.1	10.6	51.4	82.7	53.1	-19.9	9.6	25.7	9.4	46.9	7.8	-7.1	38.1	22.7
Ⅲ	17.4	-18.9	0.2	42.9	-38.9	253.8	78.9	33.0	5.1	5.7	1.7	26.0	3.5	27.5	22.2	102.9	40.0
2009 9	18.0	-21.6	139.9	110.4	-46.7	108.5	-53.6	-16.1	32.4	74.4	75.4	23.6	17.8	56.8	34.3	-3.4	-11.8
10	38.3	0.3	3.6	-5.3	11.9	-27.6	28.8	-16.9	173.8	-14.6	77.1	-35.5	26.6	36.3	2.7	-37.8	6
11	11.6	-62.3	3.6	-33.2	71.5	3.6	-30.7	-21.7	28.9	-33.1	8.5	196.9	55.8	47.3	4	25	64
12	16.2	-66.5	136.1	50.2	201.1	209.3	-52.6	6.1	59.2	-23.4	16.6	85.4	53.2	58.3	-4.6	27.1	208.6
2010 1	49.9	33.9	156.7	-14.1	63.0	-75.6	-8.8	595.0	35.0	19.8	33.5	29.1	55.8	266.3	133.6	145.4	-62.1
2	75.5	488.6	-40.1	71.9	70.5	100.0	27.8	86.0	124.3	-24.5	7.4	49.6	8.9	7.2	65.1	29.3	66.7
3	24.6	301.2	-87.2	-20.3	233.8	-28.1	-2.0	50.0	31.7	31.6	14.1	70.0	67.0	12.5	27.0	25.5	29.0
4	84.3	141.4	13.4	65.1	107.0	46.5	-52.8	200.0	152.1	53.6	88.5	54.4	0.2	20.0	89.9	96.7	150.8
5	27.9	58.4	5.6	20.9	101.1	-13.2	-29.1	29.7	15.2	85.5	55.0	16.4	52.0	49.5	26.0	39.3	-26.2
6	27.6	36.9	129.1	41.6	7.4	24.2	107.7	22.4	15.3	31.1	5.7	72.5	5.7	37.8	17.6	8.6	101.8
7	22.2	175.7	94.2	63.9	24.1	11.9	53.8	27.3	-49.3	-45.5	54.8	39.3	47.1	31.9	74.9	60.4	166.2
8	4.7	9.2	-48.7	-25.8	67.3	21.8	147.2	188.4	3.6	98.9	28.3	-5.9	-42.7	7.2	3.9	-26.8	18.3
9	-10.7	-31.5	-38.5	-45.4	1.9	-63.9	43.5	4.5	2.7	-34.6	-17.2	3.1	2.1	12.7	-5.9	-19.1	53.3
10	-13.5	12.3	77.1	22.3	66.1	-30.6	-18.4	14.1	-60.7	-8.3	16.5	-2.9	21.7	2.6	68.3	90.3	341.5
11	8.3	55.4	19.3	21.4	18.9	117.7	-16.9	61.1	-33.5	33.2	58.0	-28.2	65.6	47.8	67.0	53.1	87.5
12	-29.8	-19.9	-40.4	-37.3	-52.7	9.3	-8.2	-64.5	-62.0	116.9	14.6	24.4	69.0	16.2	31.6	-26.7	-71.0
2011 1	-11.9	11.9	102.3	-13.6	-40.2	10.0	70.2	-68.1	-7.8	9.9	-55.0	-20.7	8.7	10.0	-44.0	8.1	-32.9
2	-8.0	-62.2	101.4	16.4	12.8	-11.9	17.8	30.1	-19.4	65.9	-10.0	-12.7	29.2	76.3	-1.9	17.3	102.5
3	27.2	38.4	199.3	108.2	-45.5	1.4	23.6	147.0	51.3	-1.1	38.5	-0.1	-14.6	12.7	30.0	9.6	13.5
4	2.1	0.3	176.0	149.4	7.5	48.0	32.5	78.6	-33.1	-24.8	-16.9	33.8	83.3	-6.4	-24.6	16.3	36.5
5	35.9	16.4	299.3	126.2	-33.7	25.7	188.3	69.3	15.2	28.9	47.4	14.9	36.8	6.3	-3.5	120.5	12.5
6	4.4	8.0	29.4	42.5	86.6	72.1	8.0	-2.1	-28.3	23.4	65.1	-12.8	12.9	29.4	18.4	6.4	14.2
7	0.2	-40.6	-40.6	31.3	-62.3	123.0	-11.4	113.4	35.5	26.1	-10.2	-7.4	-3.5	4.6	-9.1	63.5	12.2
8	21.8	-17.9	39.2	54.5	-42.1	469.1	14.0	5.5	18.2	-29.7	-1.9	5.6	19.2	70.7	41.9	89.2	86.6
9	32.2	22.3	82.6	48.5	14.9	109.8	234.8	7.2	-20.8	47.0	18.0	87.5	-0.3	17.2	52.9	177.0	50.7

▣ 실업률

단위 :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9	3.6	4.5	4.3	4.3	4.6	3.8	3.6	4.2	3.9	2	2.1	3	1.9	1.6	2.7	3	1.6
2010	3.7	4.7	3.6	4	5.1	3.5	3.6	3.6	4	2.6	2.2	2.9	2.2	2.1	2.8	2.8	1.8
2009 Ⅳ	3.3	4.1	4.4	3.9	4.5	3.1	3.1	3.4	3.5	1.8	1.8	2.8	1.5	1.4	2.5	3.2	1.2
2010 Ⅰ	4.7	5.7	4.3	5.2	6.1	4.2	4.6	4.4	5.2	4.2	3	3.7	2.8	2.6	3.9	3.3	2.4
Ⅱ	3.5	4.5	3.3	3.6	4.4	3.9	3.5	3.7	3.9	1.8	1.7	2.4	1.9	1.7	2.5	2.6	2.0
Ⅲ	3.5	4.4	3.4	3.7	4.6	3.3	3.3	3.3	3.9	2.0	1.9	2.8	2.0	2.1	2.4	2.9	1.6
Ⅳ	3.3	4.3	3.3	3.7	5.1	2.6	3.1	3.1	3.2	2.3	2.1	2.6	2.1	1.9	2.5	2.3	1.5
2011 Ⅰ	4.2	5.2	4.2	4.7	5.9	3.9	4.7	3.8	4.2	3.6	2.7	3.0	3.3	2.7	3.9	2.7	2.1
Ⅱ	3.4	4.7	3.6	3.8	4.7	3.6	3.2	3.4	3.5	1.9	2.2	1.9	2.1	1.5	2.6	2.1	1.8
Ⅲ	3.1	4.3	3.3	3.4	4.5	2.6	3.0	2.1	3.1	1.7	2.5	2.2	1.9	2.0	2.0	2.1	1.8
2009 9	3.4	4.3	3.6	3.9	4.2	3.5	3.4	3.6	3.6	1.9	1.3	2.6	2	1.1	2.8	2.8	1.7
10	3.2	3.8	4.5	4.3	4.2	3.7	3.3	3.1	3.2	2	1.8	2.7	1.5	1.2	2.5	3.2	1.2
11	3.3	4.2	4.3	3.5	4.8	2.6	2.8	3.5	3.5	1.7	1.8	2.7	1.5	1.2	2.4	3.1	1
12	3.5	4.1	4.4	3.9	4.6	3.2	3.1	3.7	3.8	1.7	1.9	2.9	1.5	1.7	2.6	3.2	1.4
2010 1	5	6	4.8	6.2	6.3	4.7	4.8	4.4	5.3	5	3.7	4.4	2.6	3.8	4.6	3.4	2.7
2	4.9	5.8	4.4	4.9	6.5	4.1	5	4.4	5.6	4.2	3.4	4.3	2.9	2.2	3.9	3.3	2.7
3	4.1	5.2	3.8	4.4	5.5	4	3.9	4.4	4.6	3.5	2	2.5	2.8	1.9	3.1	3.2	1.9
4	3.8	5.1	3.7	3.6	4.8	4.3	4	4.1	4	2.1	2	2.5	2	1.9	2.9	2.7	2.5
5	3.2	4.2	3	3.5	4.1	3.6	3	3.2	3.4	1.9	1.8	2.5	1.8	1.4	2.4	2.4	1.9
6	3.5	4.2	3.2	3.7	4.3	3.9	3.5	3.7	4.4	1.5	1.4	2.1	2.1	1.8	2.1	2.8	1.5
7	3.7	4.5	3.6	4.2	4.7	3.4	4.1	3.6	4.4	2.0	2.0	2.9	2.2	2.0	2.0	3.1	1.6
8	3.3	4.3	3.1	3.2	4.3	3.5	3.4	2.9	3.8	1.8	1.8	2.4	1.7	2.4	2.7	2.6	1.5
9	3.4	4.3	3.6	3.8	4.9	2.8	2.4	3.4	3.7	2.3	2.0	3.2	2.1	1.8	2.4	3.0	1.7
10	3.3	4.6	3.3	3.4	5.2	2.2	3.0	3.1	3.3	2.5	1.9	2.7	2.0	1.9	2.5	2.3	1.4
11	3.0	4.1	3.0	3.7	4.5	2.3	2.8	3.1	2.7	1.7	2.1	2.4	1.7	1.9	2.5	2.0	1.3
12	3.5	4.3	3.4	4.0	5.7	3.3	3.6	3.1	3.5	2.8	2.3	2.6	2.6	2.0	2.5	2.5	1.7
2011 1	3.8	4.8	3.9	4.2	5.5	3.2	3.8	3.1	3.8	2.9	2.7	2.6	3.0	2.5	3.4	2.3	2.4
2	4.5	5.3	4.4	5.6	5.9	4.2	5.5	4.0	4.3	4.5	3.0	3.3	4.2	3.3	4.6	2.7	2.1
3	4.3	5.4	4.3	4.2	6.3	4.1	4.7	4.3	4.5	3.4	2.5	3.0	2.7	2.3	3.7	3.1	1.8
4	3.7	5.0	4.1	3.7	5.3	3.8	4.0	4.2	3.9	2.0	2.3	2.4	2.0	1.3	2.6	2.5	1.6
5	3.2	4.6	3.2	3.9	4.2	3.9	2.9	3.4	3.3	2.0	2.0	1.7	1.9	1.6	2.4	1.6	1.9
6	3.3	4.4	3.6	3.7	4.6	3.3	2.8	2.6	3.4	1.7	2.3	1.7	2.4	1.7	2.8	2.2	2.0
7	3.3	4.2	3.5	3.5	5.0	3.4	3.3	2.0	3.4	1.9	2.6	2.3	2.2	1.8	2.2	2.3	2.2
8	3.0	4.3	3.3	3.5	4.2	2.5	3.2	2.3	2.8	1.9	2.4	2.3	1.8	2.3	1.5	2.2	1.3
9	3.0	4.4	3.0	3.2	4.2	2.0	2.6	2.1	3.1	1.5	2.4	2.2	1.8	1.9	2.1	1.8	1.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포인트)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9	0.4	0.6	0.5	0.7	0.7	0.0	0.0	0.7	0.7	0.3	-0.1	0.6	-0.3	-0.4	0.6	0.8	-0.3
2010	0.1	0.2	-0.7	-0.3	0.5	-0.3	0.0	-0.6	0.1	0.6	0.1	-0.1	0.3	0.5	0.1	-0.2	0.2
2009 Ⅳ	0.2	0.3	0.6	-0.2	0.8	-0.5	-0.4	-1.0	0.5	0.1	-0.6	0.1	-0.8	-0.3	0.6	0.8	-0.3
2010 Ⅰ	0.9	1.0	-0.1	0.4	1.5	-0.1	0.8	-0.3	1.4	2.2	0.2	0.6	0.7	0.4	0.8	0.3	0.6
Ⅱ	-0.3	-0.3	-1.0	-0.7	-0.4	-0.3	-0.4	-1.1	-0.2	-0.4	-0.5	-0.9	0.0	0.2	-0.3	-0.4	0.2
Ⅲ	-0.1	-0.1	-0.6	-0.7	0.2	-0.3	-0.5	-0.6	-0.1	0.0	0.4	0.0	0.0	0.8	-0.1	-0.1	0.1
Ⅳ	0.0	0.2	-1.1	-0.2	0.6	-0.5	0.0	-0.3	-0.3	0.5	0.3	-0.2	0.6	0.5	0.0	-0.9	0.3
2011 Ⅰ	-0.5	-0.5	-0.1	-0.5	-0.2	-0.3	0.1	-0.6	-1.0	-0.6	-0.3	-0.7	0.5	0.1	0.0	-0.6	-0.3
Ⅱ	-0.1	0.2	0.3	0.2	0.3	-0.3	-0.3	-0.3	-0.4	0.1	0.5	-0.5	0.2	-0.2	0.1	-0.5	-0.2
Ⅲ	-0.4	-0.1	-0.1	-0.3	-0.1	-0.7	-0.3	-1.2	-0.8	-0.3	0.6	-0.6	-0.1	-0.1	-0.4	-0.8	0.2
2009 11	0.2	0.4	0.6	-0.5	1.2	-0.8	-0.5	-1.0	0.6	0.2	-0.5	-0.1	-0.7	-0.5	0.6	0.6	-0.7
12	0.2	0.2	0.6	-0.5	0.7	-0.4	-0.7	-0.9	0.6	0.1	-0.7	-0.2	-0.6	-0.1	0.5	0.6	0.1
2010 1	1.4	1.8	0.2	1.7	2.1	1.5	1.0	0.1	1.8	3.0	1.3	1.6	0.5	1.4	1.7	0.3	0.9
2	1.0	0.9	-0.1	-0.2	1.9	-0.7	1.0	-0.7	2.0	2.2	0.4	1.3	0.7	0.0	0.6	-0.1	0.9
3	0.1	0.3	-0.4	-0.4	0.5	-0.9	0.3	-0.4	0.4	1.6	-0.8	-1.0	0.7	-0.2	0.1	0.5	0.2
4	0.0	0.1	-0.7	-0.1	0.5	0.5	0.3	-0.6	-0.3	0.2	-0.3	-0.4	0.3	0.3	0.0	-0.4	0.9
5	-0.6	-0.5	-1.2	-0.8	-1.0	-0.5	-1.0	-1.6	-0.6	-0.5	-0.1	-0.8	-0.2	-0.1	-0.3	-0.8	0.2
6	-0.4	-0.4	-1.3	-1.1	-0.5	-0.8	-0.5	-1.2	0.3	-1.0	-1.1	-1.4	0.0	0.6	-0.6	-0.1	-0.6
7	0.0	-0.3	-1.0	0.1	0.2	0.2	-0.3	-0.9	0.3	-0.1	0.3	-0.3	0.3	0.6	-0.2	0.1	0.0
8	-0.4	-0.2	-0.8	-1.9	0.0	-0.5	-0.2	-0.5	-0.6	-0.2	0.3	-0.2	-0.4	0.9	0.3	-0.5	0.2
9	0.0	0.0	0.0	-0.1	0.7	-0.7	-1.0	-0.2	0.1	0.4	0.7	0.6	0.1	0.7	-0.4	0.2	0.0
10	0.1	0.8	-1.2	-0.9	1.0	-1.5	-0.3	0.0	0.1	0.5	0.1	0.0	0.5	0.7	0.0	-0.9	0.2
11	-0.3	-0.1	-1.3	0.2	-0.3	-0.3	0.0	-0.4	-0.8	0.0	0.3	-0.3	0.2	0.7	0.1	-1.1	0.3
12	0.0	0.2	-1.0	0.1	1.1	0.1	0.5	-0.6	-0.3	1.1	0.4	-0.3	1.1	0.3	-0.1	-0.7	0.3
2011 1	-1.2	-1.2	-0.9	-2.0	-0.8	-1.5	-1.0	-1.3	-1.5	-2.1	-1.0	-1.8	0.4	-1.3	-1.2	-1.1	-0.3
2	-0.4	-0.5	0.0	0.7	-0.6	0.1	0.5	-0.4	-1.3	0.3	-0.4	-1.0	1.3	1.1	0.7	-0.6	-0.6
3	0.2	0.2	0.5	-0.2	0.8	0.1	0.8	-0.1	-0.1	-0.1	0.5	0.5	-0.1	0.4	0.6	-0.1	-0.1
4	-0.1	-0.1	0.4	0.1	0.5	-0.5	0.0	0.1	-0.1	-0.1	0.3	-0.1	0.0	-0.6	-0.3	-0.2	-0.9
5	0.0	0.4	0.2	0.4	0.1	0.3	-0.1	0.2	-0.1	0.1	0.2	-0.8	0.1	0.2	0.0	-0.8	0.0
6	-0.2	0.2	0.4	0.0	0.3	-0.6	-0.7	-1.1	-1.0	0.2	0.9	-0.4	0.3	-0.1	0.7	-0.6	0.5
7	-0.4	-0.3	-0.1	-0.7	0.3	0.0	-0.8	-1.6	-1.0	-0.1	0.6	-0.6	0.0	-0.2	0.2	-0.8	0.6
8	-0.3	0.0	0.2	0.3	-0.1	-1.0	-0.2	-0.6	-1.0	0.1	0.6	-0.1	0.1	-0.1	-1.2	-0.4	-0.2
9	-0.4	0.1	-0.6	-0.6	-0.7	-0.8	0.2	-1.3	-0.6	-0.8	0.4	-1.0	-0.3	0.1	-0.3	-1.2	0.1

▣ 취업자 수

단위 : 천 명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9	23,506	4,835	1,569	1,148	1,293	647	698	521	5,539	680	723	961	826	909	1,347	1,520	289
2010	23,829	4,936	1,574	1,169	1,320	664	702	534	5,673	668	737	974	817	885	1,361	1,533	283
2009 Ⅳ	23,631	4,865	1,569	1,168	1,307	658	694	526	5,598	674	728	965	819	910	1,348	1,507	295
2010 Ⅰ	23,037	4,811	1,568	1,146	1,278	654	682	518	5,494	598	691	906	779	879	1,279	1,474	279
Ⅱ	24,170	4,969	1,594	1,187	1,332	675	706	535	5,725	692	761	1,004	845	903	1,403	1,557	283
Ⅲ	24,120	4,978	1,573	1,172	1,336	668	710	539	5,741	705	760	1,006	832	876	1,393	1,550	282
Ⅳ	23,989	4,984	1,562	1,171	1,334	660	709	542	5,734	674	736	981	812	883	1,370	1,548	289
2011 Ⅰ	23,459	4,947	1,539	1,148	1,302	646	696	535	5,679	610	704	935	776	845	1,280	1,535	283
Ⅱ	24,572	5,064	1,575	1,170	1,372	677	726	547	5,863	709	776	1,040	853	906	1,388	1,617	291
Ⅲ	24,483	5,033	1,584	1,166	1,375	680	719	546	5,874	705	764	1,021	850	902	1,397	1,575	291
2009 11	23,806	4,879	1,571	1,170	1,316	662	696	525	5,648	680	748	972	831	917	1,374	1,520	298
12	23,229	4,877	1,576	1,150	1,292	651	691	525	5,512	634	684	912	789	888	1,292	1,463	295
2010 1	22,865	4,784	1,569	1,138	1,273	645	681	518	5,483	590	665	890	765	868	1,253	1,462	282
2	22,867	4,803	1,560	1,137	1,271	650	679	514	5,432	589	683	896	772	883	1,264	1,460	275
3	23,377	4,846	1,574	1,164	1,291	666	687	522	5,567	615	726	933	801	885	1,319	1,501	280
4	23,924	4,925	1,579	1,180	1,322	667	698	532	5,680	671	756	989	828	900	1,381	1,539	280
5	24,306	4,995	1,610	1,188	1,340	680	710	537	5,758	702	759	1006	853	911	1,411	1,560	286
6	24,280	4,988	1,594	1,192	1,334	677	709	536	5,736	703	767	1015	855	898	1,418	1,573	285
7	24,301	5,013	1,594	1,184	1,357	673	711	542	5,753	718	764	1,007	841	885	1,414	1,564	283
8	24,005	4,962	1,569	1,166	1,326	663	710	538	5,715	704	760	1,006	827	862	1,373	1,543	283
9	24,054	4,960	1,557	1,166	1,324	668	707	536	5,756	695	756	1,006	827	880	1,392	1,543	282
10	24,172	4,972	1,560	1,168	1,332	660	713	541	5,794	704	754	1,005	835	893	1,390	1,563	285
11	24,109	4,981	1,566	1,179	1,345	659	714	542	5,750	692	743	995	819	887	1,389	1,556	292
12	23,684	4,998	1,558	1,166	1,324	660	701	544	5,658	627	711	942	782	869	1,329	1,527	290
2011 1	23,196	4,914	1,534	1,152	1,297	647	692	536	5,649	590	681	899	756	822	1,250	1,499	280
2	23,336	4,947	1,532	1,137	1,294	639	689	539	5,656	596	697	924	765	841	1,266	1,531	285
3	23,846	4,980	1,549	1,155	1,317	650	709	532	5,733	644	733	982	806	873	1,325	1,576	284
4	24,303	5,021	1,557	1,171	1,351	665	716	544	5,820	691	766	1,017	843	889	1,357	1,605	290
5	24,661	5,074	1,575	1,165	1,381	679	731	547	5,885	715	782	1,046	856	908	1,402	1,623	293
6	24,752	5,098	1,592	1,173	1,385	687	730	549	5,883	722	780	1,057	859	921	1,405	1,622	290
7	24,636	5,089	1,603	1,178	1,380	678	729	553	5,875	715	770	1,027	846	910	1,411	1,580	293
8	24,495	5,032	1,589	1,157	1,379	677	717	543	5,888	711	766	1,019	851	903	1,398	1,571	293
9	24,318	4,979	1,560	1,164	1,366	683	712	543	5,859	689	756	1,016	853	895	1,383	1,573	28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9	-0.3	-1.8	-1.8	0.5	2.2	1.4	0.3	-1.0	0.2	0.9	1.8	-1.2	-0.4	0.6	-0.4	-0.7	-0.3
2010	1.4	2.1	0.3	1.8	2.1	2.6	0.6	2.5	2.4	-1.8	1.9	1.4	-1.1	-2.6	1.0	0.9	-2.1
2009 Ⅲ	0.0	-2.4	-1.9	2.5	4.0	3.8	1.6	-1.9	0.4	1.0	2.2	-0.1	0.4	1.0	-0.3	-0.5	0.3
Ⅳ	0.0	-0.4	-0.9	2.5	2.5	2.8	-1.3	-0.4	0.8	-1.2	1.4	-0.2	-1.1	-0.4	-3.0	-1.9	1.0
2010 Ⅰ	0.6	0.2	0.2	3.1	3.0	4.5	-0.7	0.0	1.8	-5.2	2.5	0.7	-2.6	0.1	-2.0	-0.8	-1.8
Ⅱ	1.8	2.3	1.0	3.8	2.1	3.8	0.1	2.9	3.0	-2.7	2.3	1.6	0.4	-2.9	2.8	0.3	-1.0
Ⅲ	1.6	3.3	0.6	0.4	1.4	1.8	0.7	3.5	2.5	-0.1	1.6	1.5	-1.3	-4.7	1.5	1.0	-2.8
Ⅳ	1.5	2.4	-0.4	0.3	2.1	0.3	2.2	3.0	2.4	0.0	1.1	1.7	-0.9	-3.0	1.6	2.7	-2.0
2011 Ⅰ	1.8	2.8	-1.8	0.2	1.9	-1.2	2.1	3.3	3.4	2.0	1.9	3.2	-0.4	-3.9	0.1	4.1	1.4
Ⅱ	1.7	1.9	-1.2	-1.4	3.0	0.3	2.8	2.2	2.4	2.5	2.0	3.6	0.9	0.3	-1.1	3.9	2.8
Ⅲ	1.5	1.1	0.7	-0.5	2.9	1.8	1.3	1.3	2.3	0.0	0.5	1.5	2.2	3.0	0.3	1.6	3.2
2009 7	-0.3	-2.2	-2.2	0.9	4.5	1.9	2.5	-3.2	0.1	0.4	0.9	-1.7	-0.5	0.9	0.5	-1.0	-1.0
8	0.0	-2.9	-1.9	2.7	4.1	4.5	2.5	-0.8	0.4	0.7	2.7	-0.6	-0.5	1.0	-0.4	0.3	1.4
9	0.3	-2.3	-1.8	3.7	3.6	5.4	-0.1	-1.9	0.8	1.7	2.9	2.1	1.7	1.2	-1.0	-0.8	1.0
10	0.0	-1.4	-0.6	4.0	2.0	3.8	-1.7	-0.8	0.1	0.1	2.2	1.3	-0.2	0.2	-1.9	-0.3	0.3
11	0.0	-0.4	-0.9	2.0	2.1	2.6	-1.8	-0.6	1.0	-2.4	2.0	-1.0	-0.6	0.1	-3.3	-1.6	1.0
12	-0.1	0.5	-1.3	1.4	3.2	2.2	-0.4	0.6	1.2	-1.1	-0.3	-1.0	-2.4	-1.6	-3.7	-3.8	0.7
2010 1	0.0	-1.1	-0.2	1.3	3.2	2.2	0.0	-0.8	1.6	-2.8	0.9	1.1	-3.5	-1.1	-2.5	-1.1	-1.1
2	0.5	1.3	0.2	3.2	2.7	4.3	-1.5	-0.6	0.9	-5.5	2.4	0.1	-2.4	1.6	-2.8	-0.3	-3.2
3	1.2	0.6	0.6	4.8	3.1	6.9	-0.4	1.4	2.7	-7.2	4.2	0.8	-1.7	0.0	-0.8	-0.9	-1.1
4	1.7	1.9	0.8	3.9	2.3	4.4	-0.1	2.7	3.2	-4.3	3.6	1.1	-0.8	-1.6	2.4	-0.3	-1.8
5	2.5	2.9	2.1	4.2	3.6	4.8	0.4	3.7	3.7	-2.1	1.6	2.0	1.3	-2.4	3.6	0.3	0.7
6	1.3	2.0	0.3	3.1	0.3	2.3	-0.1	2.5	2.1	-1.5	1.6	1.4	0.7	-4.6	2.6	1.0	-1.7
7	2.0	3.1	1.4	1.6	1.6	2.9	0.1	4.8	2.6	1.6	2.1	2.8	-0.1	-4.1	2.4	1.8	-2.7
8	1.6	3.6	1.0	0.3	1.2	1.4	0.9	2.9	2.8	-0.3	1.6	1.7	-1.3	-5.2	0.9	1.2	-2.1
9	1.0	3.3	-0.4	-0.6	1.1	1.1	0.9	2.5	2.2	-1.6	1.2	0.1	-2.4	-5.0	1.3	0.1	-2.8
10	1.3	2.7	0.0	-1.4	1.5	-0.2	2.7	2.3	2.9	-0.6	0.4	-0.7	-0.5	-3.6	0.9	1.6	-2.1
11	1.3	2.1	-0.3	0.8	2.2	-0.5	2.6	3.2	1.8	1.8	-0.7	2.4	-1.4	-3.3	1.1	2.4	-2.0
12	2.0	2.5	-1.1	1.4	2.5	1.4	1.4	3.6	2.6	-1.1	3.9	3.3	-0.9	-2.1	2.9	4.4	-1.7
2011 1	1.4	2.7	-2.2	1.2	1.9	0.3	1.6	3.5	3.0	0.0	2.4	1.0	-1.2	-5.3	-0.2	2.5	-0.7
2	2.1	3.0	-1.8	0.0	1.8	-1.7	1.5	4.9	4.1	1.2	2.0	3.1	-0.9	-4.8	0.2	4.9	3.6
3	2.0	2.8	-1.6	-0.8	2.0	-2.4	3.2	1.9	3.0	4.7	1.0	5.3	0.6	-1.4	0.5	5.0	1.4
4	1.6	1.9	-1.4	-0.8	2.2	-0.3	2.6	2.3	2.5	3.0	1.3	2.8	1.8	-1.2	-1.7	4.3	3.6
5	1.5	1.6	-2.2	-1.9	3.1	-0.1	3.0	1.9	2.2	1.9	3.0	4.0	0.4	-0.3	-0.6	4.0	2.4
6	1.9	2.2	-0.1	-1.6	3.8	1.5	3.0	2.4	2.6	2.7	1.7	4.1	0.5	2.6	-0.9	3.1	1.8
7	1.4	1.5	0.6	-0.5	1.7	0.7	2.5	2.0	2.1	-0.4	0.8	2.0	0.6	2.8	-0.2	1.0	3.5
8	2.0	1.4	1.3	-0.8	4.0	2.1	1.0	0.9	3.0	1.0	0.8	1.3	2.9	4.8	1.8	1.8	3.5
9	1.1	0.4	0.2	-0.2	3.2	2.2	0.7	1.3	1.8	-0.9	0.0	1.0	3.1	1.7	-0.6	1.9	2.1

▣ 소비자물가

(2005=100기준)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9	112.8	112.3	113.0	112.3	112.9	112.7	112.5	113.7	113.3	112.3	113.1	113.3	113.0	112.7	113.0	113.0	111.4
2010	116.1	115.5	116.5	115.5	116.5	116.0	116.0	117.3	116.5	115.7	116.5	116.7	116.7	116.4	116.6	116.8	115.2
2009 Ⅲ	113.3	112.8	113.6	112.9	113.4	113.4	113.1	114.3	113.8	112.9	113.8	114	113.8	113.3	113.6	113.5	112
Ⅳ	113.5	113	113.8	113	113.6	113.3	113.2	114.3	114	112.9	113.8	114	113.8	113.5	113.7	113.8	112.1
2010 Ⅰ	114.6	114.1	114.9	114	114.8	114.4	114.3	115.5	115.1	114.1	114.9	115.1	115	114.8	115.1	115.1	113.7
Ⅱ	115.6	115.0	115.9	114.9	115.9	115.4	115.4	116.8	116.0	115.2	116.0	116.3	116.3	115.7	116.0	116.2	114.5
Ⅲ	116.6	116.0	116.9	116.1	117.0	116.7	116.6	118.0	117.1	116.3	116.9	117.3	117.3	117.0	117.1	117.4	115.6
Ⅳ	117.6	116.8	118.1	117.0	118.0	117.3	117.6	119.0	117.8	117.2	118.0	118.2	118.2	118.2	118.0	118.4	116.9
2011 Ⅰ	119.7	118.7	120.6	119.3	119.7	119.4	120.1	121.3	120.1	119.4	120.3	120.3	120.7	120.4	120.7	120.6	119.0
Ⅱ	120.5	119.4	121.6	120.2	120.3	120.3	121.1	122.2	120.8	120.4	120.8	121.1	121.2	121.1	121.4	121.3	119.4
Ⅲ	122.2	121.1	123.2	122.2	122.0	122.2	123.0	124.0	122.7	122.0	122.4	122.8	123.2	122.9	123.2	123.1	120.6
2009 10	113.2	112.8	113.5	112.7	113.3	113.1	112.9	114.1	113.7	112.7	113.6	113.8	113.7	113.2	113.4	113.5	111.9
11	113.4	112.9	113.8	112.9	113.5	113.2	113.2	114.4	113.9	112.9	113.8	114	113.7	113.3	113.7	113.7	112.1
12	113.8	113.3	114.1	113.3	113.9	113.5	113.6	114.5	114.3	113.2	114.1	114.3	114.1	113.9	114.1	114.2	112.4
2010 1	114.2	113.7	114.5	113.5	114.4	113.9	114.1	115	114.7	113.7	114.6	114.7	114.5	114.4	114.6	114.6	113.2
2	114.6	114.1	114.8	114	114.8	114.3	114.3	115.4	115.2	113.9	114.8	115.1	115	114.8	115	115	113.6
3	115	114.5	115.4	114.4	115.3	115	114.6	116.2	115.4	114.7	115.4	115.5	115.5	115.2	115.6	115.7	114.3
4	115.6	115	115.9	114.8	116	115.4	115.3	116.7	116	115.2	116	116.2	116.2	115.8	116.1	116.2	114.5
5	115.7	115	116	115.1	116	115.4	115.5	116.9	116.1	115.3	116.1	116.4	116.5	115.8	116.1	116.3	114.6
6	115.5	114.9	115.8	114.9	115.8	115.5	115.3	116.7	116	115.2	115.9	116.2	116.2	115.6	115.8	116.1	114.5
7	115.9	115.3	116.2	115.3	116.2	116.1	115.9	117.2	116.4	115.7	116.3	116.7	116.7	116.1	116.4	116.8	115.1
8	116.3	115.7	116.6	115.8	116.7	116.4	116.3	117.7	116.8	116.1	116.6	117	117	116.8	116.9	117.1	115.3
9	117.6	117.0	117.9	117.1	118.2	117.7	117.5	119.1	118.2	117.1	117.9	118.2	118.2	118.0	118.1	118.3	116.5
10	117.8	117.0	118.4	117.4	118.4	118.1	117.7	119.3	118.1	117.6	117.9	118.4	118.5	118.4	118.4	118.6	117.0
11	117.1	116.5	117.5	116.4	117.4	116.6	117.2	118.5	117.3	116.7	117.6	117.7	117.7	117.6	117.4	117.9	116.5
12	117.8	117.0	118.5	117.2	118.2	117.3	117.9	119.2	118.0	117.3	118.4	118.5	118.5	118.5	118.2	118.7	117.2
2011 1	118.9	118.1	119.8	118.4	119.1	118.5	119.1	120.5	119.2	118.4	119.5	119.5	119.9	119.4	119.8	119.8	118.3
2	119.8	118.8	120.8	119.3	119.9	119.5	120.2	121.3	120.2	119.5	120.7	120.6	120.9	120.7	120.8	120.7	119.5
3	120.4	119.3	121.3	120.2	120.2	120.1	121.1	122.1	120.8	120.4	120.8	120.9	121.2	121.1	121.4	121.3	119.3
4	120.4	119.3	121.6	120.1	120.1	120.2	121.2	122.0	120.7	120.4	120.8	120.9	121.2	121.1	121.4	121.5	119.4
5	120.4	119.4	121.5	120.2	120.2	120.2	121.0	122.2	120.7	120.3	120.9	121.0	121.1	121.0	121.3	121.2	119.5
6	120.6	119.6	121.7	120.2	120.6	120.4	121.0	122.3	121.0	120.6	120.8	121.3	121.3	121.2	121.4	121.3	119.4
7	121.4	120.4	122.5	121.3	121.4	121.3	122.4	123.3	121.9	121.3	121.6	122.0	122.5	122.0	122.3	122.4	119.9
8	122.5	121.3	123.5	122.5	122.3	122.4	123.3	124.2	122.9	122.4	122.7	123.1	123.5	123.3	123.6	123.4	120.8
9	122.6	121.5	123.7	122.7	122.3	122.8	123.4	124.5	123.2	122.3	122.9	123.3	123.6	123.3	123.6	123.6	121.2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단위 :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9	2.8	2.9	3.0	2.4	2.7	2.5	2.3	2.2	2.9	1.9	2.4	2.7	2.9	2.8	2.4	3.0	1.8
2010	2.9	2.8	3.1	2.8	3.2	2.9	3.1	3.2	2.8	3.0	3.0	3.0	3.3	3.3	3.2	3.4	3.4
2009 Ⅲ	2.0	2.5	2.3	1.3	1.8	1.8	1.4	1.4	2.2	0.9	1.5	2.0	2.1	1.9	1.2	2.0	0.7
Ⅳ	2.4	2.4	2.6	2.3	2.5	2.4	2.1	1.9	2.5	1.7	2.3	2.5	3.0	2.8	2.2	2.9	1.9
2010 Ⅰ	2.7	2.5	2.8	2.5	2.8	2.7	2.7	2.5	2.7	2.7	2.8	2.9	3.2	3.1	3.0	3.1	3.1
Ⅱ	2.6	2.5	2.7	2.3	2.7	2.5	2.7	2.8	2.5	2.6	2.6	2.7	2.9	2.8	2.7	2.9	3.0
Ⅲ	2.9	2.8	2.9	2.8	3.2	2.9	3.1	3.2	2.9	3.0	2.7	2.9	3.1	3.3	3.1	3.4	3.2
Ⅳ	3.6	3.4	3.8	3.5	3.9	3.5	3.9	4.1	3.3	3.8	3.7	3.7	3.9	4.1	3.8	4.0	4.3
2011 Ⅰ	4.5	4.0	5.0	4.6	4.3	4.4	5.1	5.0	4.3	4.6	4.7	4.5	5.0	4.9	4.9	4.8	4.7
Ⅱ	4.2	3.8	4.9	4.6	3.8	4.2	4.9	4.6	4.1	4.5	4.1	4.1	4.2	4.7	4.7	4.4	4.3
Ⅲ	4.8	4.4	5.4	5.3	4.3	4.7	5.5	5.1	4.8	4.9	4.7	4.7	5.0	5.0	5.2	4.9	4.3
2009 10	2.0	2.2	2.2	1.6	2.0	1.9	1.6	1.3	2.1	1.1	1.8	2.1	2.4	2.2	1.5	2.3	1.1
11	2.4	2.5	2.7	2.3	2.5	2.5	2.2	2.1	2.5	1.8	2.4	2.6	3.0	2.7	2.3	2.9	2.3
12	2.8	2.6	2.9	2.7	3.0	2.9	2.6	2.2	2.9	2.4	2.8	3.1	3.5	3.4	2.9	3.5	2.6
2010 1	3.1	2.7	3.2	2.9	3.2	3.0	3.4	2.9	3.1	3.0	3.2	3.3	3.6	3.6	3.4	3.7	3.3
2	2.7	2.6	2.7	2.5	2.9	2.5	2.7	2.2	2.8	2.6	2.8	2.9	3.3	3.0	3.0	3.1	2.9
3	2.3	2.3	2.5	2.1	2.4	2.5	2.0	2.5	2.2	2.4	2.3	2.3	2.7	2.7	2.7	2.7	3.0
4	2.6	2.5	2.7	2.2	2.7	2.5	2.5	2.7	2.4	2.6	2.6	2.7	2.7	3.0	2.8	2.8	3.1
5	2.7	2.5	2.7	2.5	2.9	2.5	2.8	2.9	2.6	2.7	2.7	2.8	3.1	2.8	2.8	3.0	3.2
6	2.6	2.4	2.8	2.4	2.8	2.7	2.6	2.8	2.6	2.6	2.5	2.6	2.8	2.7	2.7	2.9	2.8
7	2.6	2.4	2.6	2.4	2.7	2.7	2.7	2.7	2.6	2.8	2.5	2.5	2.7	2.7	2.6	3.1	3.0
8	2.6	2.5	2.6	2.6	2.7	2.6	2.8	2.8	2.5	2.7	2.4	2.6	2.8	3.0	2.9	3.1	2.8
9	3.6	3.5	3.7	3.5	4.1	3.6	3.8	4.1	3.7	3.5	3.4	3.6	3.7	4.1	3.8	4.0	3.9
10	4.1	3.7	4.3	4.2	4.5	4.4	4.3	4.6	3.9	4.3	3.8	4.0	4.2	4.6	4.4	4.5	4.6
11	3.3	3.2	3.3	3.1	3.4	3.0	3.5	3.6	3.0	3.4	3.3	3.2	3.5	3.8	3.3	3.7	3.9
12	3.5	3.3	3.9	3.4	3.8	3.3	3.8	4.1	3.2	3.6	3.8	3.7	3.9	4.0	3.6	3.9	4.3
2011 1	4.1	3.9	4.6	4.3	4.1	4.0	4.4	4.8	3.9	4.1	4.3	4.2	4.7	4.4	4.5	4.5	4.5
2	4.5	4.1	5.2	4.6	4.4	4.5	5.2	5.1	4.3	4.9	5.1	4.8	5.1	5.1	5.0	5.0	5.2
3	4.7	4.2	5.1	5.1	4.2	4.4	5.7	5.1	4.7	5.0	4.7	4.7	4.9	5.1	5.0	4.8	4.4
4	4.2	3.7	4.9	4.6	3.5	4.2	5.1	4.5	4.1	4.5	4.1	4.0	4.3	4.6	4.6	4.6	4.3
5	4.1	3.8	4.7	4.4	3.6	4.2	4.8	4.5	4.0	4.3	4.1	4.0	3.9	4.5	4.5	4.2	4.3
6	4.4	4.1	5.1	4.6	4.1	4.2	4.9	4.8	4.3	4.7	4.2	4.4	4.4	4.8	4.8	4.5	4.3
7	4.7	4.4	5.4	5.2	4.5	4.5	5.6	5.2	4.7	4.8	4.6	4.5	5.0	5.1	5.1	4.8	4.2
8	5.3	4.8	5.9	5.8	4.8	5.2	6.0	5.5	5.2	5.4	5.2	5.2	5.6	5.6	5.7	5.4	4.8
9	4.3	3.8	4.9	4.8	3.5	4.3	5.0	4.5	4.2	4.4	4.2	4.3	4.6	4.5	4.7	4.5	4.0

▣ 수 출

단위 : 백만 달러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9		363,534	33,067	9,497	3,892	15,369	8,883	2,851	60,814	58,007	1,120	8,080	39,428	6,032	23,295	38,510	54,601	87
2010		466,384	45,348	12,374	5,193	21,022	11,581	3,546	71,384	85,707	1,510	10,330	54,054	10,505	30,416	44,937	58,380	98
2009	Ⅲ	94,781	9,024	2,377	1,014	3,948	2,336	756	14,707	16,980	287	2,149	11,043	1,735	6,126	9,917	12,362	19
	Ⅳ	103,971	10,044	2,605	1,113	4,298	2,734	861	16,629	18,591	329	2,154	11,825	1,948	7,037	10,112	13,661	33
2010	Ⅰ	101,208	9,713	2,557	1,099	4,501	2,327	785	16,232	18,975	303	2,178	11,714	2,186	6,968	10,016	11,630	24
	Ⅱ	120,306	11,903	3,357	1,345	5,344	2,869	900	18,198	22,484	372	2,518	13,488	2,789	7,610	10,575	16,536	18
	Ⅲ	116,315	11,375	3,028	1,299	5,241	2,949	876	17,005	21,720	361	2,700	14,634	2,626	7,684	11,215	13,581	21
	Ⅳ	128,747	12,434	3,544	1,453	5,949	3,439	996	19,937	22,547	473	2,940	14,273	2,909	8,088	13,142	16,589	34
2011	Ⅰ	130,989	12,026	3,454	1,403	5,934	3,233	987	21,801	20,983	435	3,081	13,818	2,991	10,025	12,393	18,403	23
	Ⅱ	142,718	14,266	3,730	1,650	7,153	3,349	1,019	28,326	22,880	488	3,244	14,840	3,323	10,423	12,892	15,106	23
	Ⅲ	141,574	14,994	3,757	1,631	6,865	3,519	1,016	25,657	22,016	520	2,953	15,452	3,336	10,403	13,646	15,785	20
2009	11	33,992	3,328	1,002	372	1,402	921	328	5,642	6,179	101	710	3,906	618	2,077	3,391	4,004	11
	12	36,010	3,561	813	391	1,577	861	281	5,861	6,456	127	733	3,910	694	2,777	3,213	4,740	14
2010	1	30,735	3,087	766	353	1,396	800	246	4,743	5,976	83	683	3,661	632	2,226	3,222	2,852	10
	2	33,039	3,001	724	333	1,405	650	268	5,355	5,808	102	684	3,651	832	2,276	3,089	4,856	7
	3	37,309	3,617	958	412	1,698	876	271	6,132	7,192	119	808	4,402	721	2,465	3,705	3,925	8
	4	39,301	3,733	978	450	1,871	926	284	5,861	7,499	117	837	4,358	936	2,782	3,577	5,087	6
	5	38,888	3,905	1,271	446	1,742	932	275	5,817	7,342	122	839	4,483	813	2,499	3,525	4,871	6
	6	42,049	4,195	1,107	447	1,719	1,010	330	6,532	7,623	133	840	4,593	1,036	2,396	3,462	6,620	6
	7	40,424	3,921	1,109	471	1,850	1,086	302	6,201	7,724	120	913	4,898	1,045	2,648	3,650	4,482	6
	8	36,481	3,764	813	396	1,655	899	271	5,138	6,957	113	868	4,935	755	2,382	3,671	3,857	7
	9	39,411	3,691	1,106	432	1,736	965	303	5,666	7,039	129	919	4,801	827	2,654	3,894	5,242	8
	10	43,340	4,161	1,143	465	1,953	1,123	307	6,794	7,428	152	951	4,995	898	2,736	4,502	5,723	9
	11	41,261	4,052	1,087	470	1,960	1,211	331	6,408	7,286	140	974	4,660	939	2,520	4,483	4,728	12
	12	44,145	4,221	1,314	518	2,036	1,104	357	6,735	7,832	181	1,015	4,619	1,072	2,833	4,157	6,138	14
2011	1	44,471	3,815	1,202	458	1,938	1,102	330	6,652	7,014	145	997	4,733	993	2,970	4,283	7,831	9
	2	38,475	3,623	964	400	1,730	931	310	6,614	6,088	125	904	4,217	870	3,180	3,916	4,596	7
	3	48,043	4,588	1,288	545	2,266	1,201	346	8,535	7,881	165	1,180	4,867	1,128	3,875	4,194	5,977	8
	4	48,544	4,796	1,171	547	2,340	1,090	342	10,215	7,501	160	1,162	4,868	1,001	3,673	4,307	5,358	8
	5	47,426	4,661	1,246	552	2,264	1,121	344	9,262	7,622	161	1,059	5,014	1,245	3,230	4,331	5,308	7
	6	46,747	4,809	1,313	552	2,549	1,139	333	8,848	7,757	166	1,024	4,957	1,077	3,520	4,254	4,440	8
	7	48,969	5,073	1,128	542	2,160	1,122	346	9,563	7,658	161	948	5,086	1,192	3,330	4,456	6,197	6
	8	45,778	4,857	1,185	508	2,215	1,070	335	8,031	6,914	179	937	4,925	1,102	3,986	4,519	5,008	7
	9	46,827	5,064	1,444	581	2,490	1,328	334	8,063	7,445	181	1,068	5,441	1,042	3,087	4,671	4,579	7

자료 : 한국무역협회

단위 :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9	-13.9	-0.7	-26.1	-14.2	-25.1	-5.6	-4.6	-22.8	-5.0	-21.3	-12.3	-8.2	-11.8	-19.8	-19.1	-4.0	4.9
2010	28.3	37.1	30.3	33.4	36.8	30.4	24.4	17.4	47.8	34.8	27.8	37.1	74.1	30.6	16.7	6.9	12.1
2009 Ⅲ	-17.6	7.8	-30.9	-13.1	-29.5	-0.2	3.3	-33.2	8.0	-27.9	-15.8	-11.4	-4.2	-29.8	-23.7	-19.7	27.9
Ⅳ	11.7	33.5	-16.4	9.3	-3.1	32.6	19.5	1.8	47.4	-9.0	15.5	36.4	39.1	14.5	-2.1	-12.7	2.8
2010 Ⅰ	36.0	44.6	9.3	34.7	31.4	47.5	42.4	26.3	92.2	26.6	42.4	61.1	112.7	48.6	12.4	-7.6	21.9
Ⅱ	33.1	63.4	54.3	41.7	44.5	28.3	31.8	9.4	79.0	40.6	12.0	45.2	111.0	39.8	10.5	3.4	12.3
Ⅲ	22.7	26.1	27.4	28.1	32.8	26.2	15.9	15.6	27.9	25.8	25.7	32.5	51.4	25.4	13.1	9.9	13.8
Ⅳ	23.8	23.8	36.1	30.6	38.4	25.8	15.6	19.9	21.3	43.8	36.5	20.7	49.3	14.9	30.0	21.4	5.2
2011 Ⅰ	29.4	23.8	35.1	27.7	31.8	38.9	25.6	34.3	10.6	43.6	41.4	18.0	36.8	43.9	23.7	58.2	-4.2
Ⅱ	18.6	19.8	11.1	22.6	33.8	16.7	13.2	55.7	1.8	31.0	28.8	10.0	19.2	37.0	21.9	-8.6	27.3
Ⅲ	21.7	31.8	24.1	25.5	31.0	19.3	15.9	50.9	1.4	44.0	9.4	5.6	27.0	35.4	21.7	16.2	-5.6
2009 10	-8.5	9.0	-33.6	-10.6	-24.2	42.5	-5.6	-22.2	20.1	-25.5	-10.0	3.8	4.7	-28.0	-22.9	-3.2	-6.0
11	17.9	42.0	16.5	14.7	-6.8	19.3	47.4	10.4	51.8	-7.3	16.9	43.7	48.3	40.0	6.0	-16.8	18.5
12	32.8	55.7	-23.7	29.3	32.3	38.5	21.6	26.8	80.4	8.6	56.7	87.2	84.7	70.1	24.9	-17.7	-2.1
2010 1	45.4	57.2	-3.3	54.9	33.3	63.7	56.2	17.8	115.0	10.5	63.1	84.9	121.0	106.3	13.6	-3.9	39.4
2	30.1	35.1	2.7	16.8	24.7	27.1	34.5	23.0	78.1	59.1	37.2	53.1	141.1	38.5	5.1	0.1	14.0
3	33.8	43.0	13.6	36.1	35.6	51.8	39.3	37.3	87.6	18.0	32.0	51.4	81.6	25.4	18.2	-17.6	11.8
4	29.6	44.8	37.0	36.0	39.4	35.0	28.3	6.8	83.7	35.1	19.9	44.6	98.6	39.6	10.7	-5.5	4.9
5	39.8	76.2	120.0	51.6	48.5	24.0	33.0	16.8	86.6	44.2	15.7	48.7	86.6	63.4	15.5	0.6	21.6
6	30.5	68.4	25.2	37.9	45.4	26.4	29.8	6.1	67.7	42.0	1.7	40.9	150.0	24.8	5.3	14.8	9.8
7	26.7	27.6	51.0	32.0	40.1	38.9	22.1	18.1	44.9	20.3	13.7	41.0	87.9	34.7	5.7	0.5	45.5
8	26.0	35.7	27.4	38.7	44.6	43.9	19.2	14.8	31.0	40.2	40.0	38.6	41.7	14.3	19.7	9.6	12.3
9	16.2	16.2	10.0	16.3	17.1	3.7	7.8	13.7	11.1	20.3	26.6	19.7	27.9	27.8	14.6	19.6	-2.5
10	27.6	31.9	44.6	33.1	48.1	18.1	21.4	32.5	24.7	51.3	33.8	24.6	41.0	25.4	28.3	16.4	15.4
11	21.4	21.7	8.6	26.1	39.8	31.5	1.0	13.6	17.9	38.5	37.1	19.3	52.0	21.3	32.2	18.1	9.2
12	22.6	18.5	61.6	32.6	29.1	28.1	27.4	14.9	21.3	42.1	38.6	18.1	54.5	2.0	29.4	29.5	-3.6
2011 1	44.7	23.6	56.9	29.7	38.8	37.8	34.4	40.2	17.4	74.9	45.9	29.3	57.1	33.4	32.9	174.6	-13.1
2	16.5	20.7	33.3	20.3	23.2	43.1	15.7	23.5	4.8	23.1	32.3	15.5	4.6	39.7	26.8	-5.4	1.5
3	28.8	26.8	34.4	32.1	33.4	37.0	27.5	39.2	9.6	39.3	46.0	10.6	56.5	57.2	13.2	52.3	2.6
4	23.5	28.5	19.8	21.4	25.1	17.8	20.2	74.3	0.0	36.6	38.9	11.7	7.0	32.0	20.4	5.3	31.3
5	22.0	19.4	-1.9	23.6	29.9	20.2	25.0	59.2	3.8	32.7	26.3	11.8	53.1	29.3	22.9	9.0	14.5
6	11.2	14.6	18.6	23.4	48.3	12.7	1.0	35.5	1.8	24.7	21.9	7.9	4.0	46.9	22.9	-32.9	39.3
7	21.1	29.4	1.7	15.1	16.8	3.3	14.7	54.2	-0.9	34.6	3.8	3.8	14.1	25.8	22.1	38.3	-1.6
8	25.5	29.0	45.9	28.3	33.8	19.1	23.5	56.3	-0.6	58.8	8.0	-0.2	45.9	67.4	23.1	29.8	0.0
9	18.8	37.2	30.6	34.4	43.4	37.6	10.2	42.3	5.8	39.7	16.2	13.3	26.1	16.3	20.0	-12.6	-15.6

▣ 수 입

단위 : 백만 달러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9	323,084	74,477	10,650	2,169	23,229	4,087	2,330	47,360	61,821	887	4,969	19,129	3,194	27,569	14,567	26,470	178
2010	425,212	104,063	12,469	3,076	29,526	5,553	2,777	62,995	83,787	1,133	6,120	24,893	4,134	34,912	19,296	30,274	206
2009 Ⅳ	92,852	20,763	3,039	639	6,695	1,114	640	13,785	18,014	245	1,371	5,558	919	8,395	4,365	7,260	50
2010 Ⅰ	98,156	23,355	3,113	662	7,191	1,143	614	14,865	19,672	222	1,350	5,746	956	7,966	4,218	7,029	56
Ⅱ	105,631	26,249	3,227	753	7,390	1,379	748	15,586	20,209	299	1,616	6,204	1,033	8,710	4,764	7,417	49
Ⅲ	105,699	26,508	2,849	791	6,897	1,552	676	15,355	21,042	307	1,534	6,360	1,008	8,564	4,905	7,302	49
Ⅳ	115,727	27,952	3,280	871	8,049	1,479	740	17,190	22,865	305	1,621	6,583	1,137	9,672	5,409	8,525	51
2011 Ⅰ	123,728	29,334	3,629	834	9,712	1,286	704	19,997	22,737	328	2,046	7,593	1,213	10,943	5,449	7,862	50
Ⅱ	134,383	31,680	3,890	967	9,361	1,434	857	22,283	24,307	376	2,374	8,589	1,328	12,456	6,248	8,133	63
Ⅲ	134,973	32,433	3,753	988	9,433	1,312	728	21,830	25,341	358	2,305	8,900	1,400	12,079	6,154	7,858	70
2009 11	29,535	6,805	1,049	206	1,995	346	211	3,907	5,868	69	460	1,774	285	2,675	1,355	2,516	15
12	32,921	7,273	1,040	236	2,438	335	229	4,968	6,425	92	483	1,990	346	2,995	1,464	2,588	21
2010 1	31,536	7,259	940	208	2,467	372	207	5,283	5,744	70	401	1,813	293	2,873	1,425	2,164	17
2	31,044	7,292	1,042	209	2,216	325	185	4,855	6,250	67	426	1,891	283	2,420	1,280	2,284	21
3	35,576	8,805	1,131	246	2,508	445	223	4,726	7,678	84	523	2,043	379	2,673	1,513	2,582	19
4	35,522	8,959	1,129	250	2,590	437	272	5,536	6,744	115	551	1,913	333	2,747	1,521	2,413	14
5	34,854	8,547	1,016	248	2,463	406	226	5,426	6,666	106	505	1,928	338	3,345	1,495	2,123	17
6	35,255	8,743	1,083	254	2,337	537	249	4,624	6,799	78	560	2,363	362	2,618	1,748	2,882	18
7	35,422	8,961	984	267	2,379	670	230	4,754	6,976	119	550	2,064	309	2,802	1,746	2,592	19
8	35,275	8,644	909	265	2,281	423	219	5,425	7,204	85	520	2,071	323	2,913	1,603	2,375	17
9	35,002	8,903	957	260	2,237	459	227	5,176	6,862	103	465	2,225	376	2,849	1,556	2,335	13
10	37,001	8,774	1,029	270	2,599	489	230	5,307	7,565	90	496	2,031	358	3,125	1,725	2,902	12
11	38,669	9,506	1,088	297	2,675	476	241	5,829	7,594	108	546	2,147	361	3,222	1,869	2,691	19
12	40,057	9,671	1,164	303	2,775	514	269	6,054	7,706	107	579	2,405	418	3,325	1,816	2,932	20
2011 1	41,886	9,613	1,228	284	3,415	433	216	7,147	8,123	100	621	2,541	390	3,334	1,665	2,757	20
2	36,345	8,718	1,023	238	2,839	373	203	5,963	6,463	94	559	2,217	359	3,233	1,777	2,272	14
3	45,497	11,004	1,378	312	3,459	481	284	6,887	8,152	134	866	2,835	464	4,375	2,007	2,833	17
4	44,188	9,994	1,355	315	3,233	495	282	7,855	7,961	126	753	2,675	430	3,888	2,125	2,681	15
5	45,312	10,982	1,285	324	3,312	454	302	7,093	8,273	136	748	2,783	444	4,474	1,956	2,703	25
6	44,883	10,705	1,250	329	2,816	486	274	7,334	8,073	114	874	3,131	454	4,094	2,167	2,748	23
7	44,294	10,532	1,250	324	2,625	483	247	7,342	8,568	122	636	2,827	441	4,194	2,041	2,628	27
8	45,409	11,386	1,293	321	3,142	424	248	7,100	8,356	126	863	2,868	520	4,126	2,178	2,433	21
9	45,270	10,516	1,210	343	3,666	405	233	7,387	8,418	111	806	3,205	439	3,760	1,935	2,798	22

자료 : 한국무역협회

단위 :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9	-25.8	-14.7	-29.2	-29.1	-21.3	-16.2	-15.4	-32.9	-22.0	-37.0	-40.1	-35.3	-22.2	-39.4	-31.8	-17.4	-11.8
2010	31.6	39.7	17.1	41.8	27.1	35.9	19.2	33.0	35.5	27.7	23.2	30.1	29.4	26.6	32.5	14.4	15.6
2009 Ⅲ	-31.0	-17.2	-34.8	-30.4	-33.7	-2.3	-18.4	-39.9	-23.7	-49.0	-39.5	-41.0	-29.5	-44.2	-33.4	-29.2	-28.6
Ⅳ	1.4	12.1	-5.9	3.6	-5.1	21.4	0.6	2.9	11.0	-28.6	-19.5	-5.4	-4.1	-7.6	-10.0	-9.0	37.9
2010 Ⅰ	37.4	48.2	21.7	45.6	15.7	70.8	35.3	51.1	45.9	14.8	33.8	36.7	44.4	38.9	34.5	0.4	34.4
Ⅱ	42.8	47.4	45.3	49.8	51.9	27.3	13.9	42.9	41.3	29.3	25.3	43.2	24.1	52.4	52.3	22.6	14.4
Ⅲ	24.6	31.6	0.6	38.1	26.5	27.3	16.3	19.7	31.3	41.5	18.1	26.3	29.0	10.9	24.6	18.7	14.1
Ⅳ	24.6	34.6	7.9	36.2	20.2	32.7	15.7	24.7	26.9	24.2	18.2	18.4	23.8	15.2	23.9	17.4	2.2
2011 Ⅰ	26.1	25.6	16.6	26.0	35.1	12.5	14.6	34.5	15.6	48.0	51.5	32.1	26.9	37.4	29.2	11.8	-10.7
Ⅱ	27.2	20.7	20.5	28.5	26.7	4.0	14.6	43.0	20.3	25.7	47.0	38.4	28.5	43.0	31.1	9.6	27.9
Ⅲ	27.7	22.4	31.7	24.9	36.8	-15.4	7.7	42.2	20.4	16.4	50.3	39.9	38.9	41.0	25.5	7.6	43.2
2009 11	2.4	21.8	9.6	5.7	-9.0	28.3	2.1	-10.8	14.2	-20.0	-15.9	-10.9	1.2	-5.1	-15.9	-1.5	65.6
12	23.9	33.0	9.2	28.3	7.6	32.7	29.7	33.9	38.3	2.8	-2.6	14.6	17.0	20.6	14.1	3.8	77.3
2010 1	26.7	43.3	18.8	37.5	2.1	49.5	37.0	41.8	22.7	22.1	22.2	47.7	15.0	38.9	22.8	-15.4	51.4
2	37.4	41.8	15.3	45.2	16.8	65.8	32.5	58.2	52.9	44.8	39.7	25.6	50.1	31.2	37.8	4.4	32.3
3	48.7	58.5	31.1	53.7	31.8	98.7	36.0	55.1	63.0	-5.5	39.2	38.8	73.8	46.8	44.5	14.4	25.0
4	42.8	42.5	53.4	43.8	66.0	19.6	45.4	51.5	39.6	108.2	21.2	39.4	19.7	43.7	52.2	21.1	-2.8
5	48.9	54.8	43.5	60.4	60.1	24.3	-5.6	47.7	47.8	3.1	34.9	49.3	28.6	98.9	40.6	9.3	10.3
6	37.2	45.6	39.4	46.1	32.3	36.9	8.5	29.2	37.2	6.7	21.5	41.6	24.4	23.4	64.1	36.1	36.3
7	28.0	36.1	12.2	40.6	36.6	68.2	15.0	12.4	35.4	72.8	23.2	34.3	30.1	13.6	41.3	12.9	11.5
8	28.7	33.5	-0.6	52.7	34.2	11.3	20.6	25.6	37.6	9.2	36.6	25.2	32.8	13.1	30.5	27.8	30.7
9	17.6	25.8	-8.1	23.8	11.2	4.0	13.7	20.9	21.7	46.5	-1.5	20.7	25.1	6.2	5.6	16.7	0.8
10	21.7	31.3	8.2	37.0	14.9	12.8	15.3	8.1	32.2	6.5	15.8	13.2	24.5	14.7	11.5	34.6	-16.2
11	30.9	39.7	3.7	44.3	34.1	37.5	14.2	49.2	29.4	56.3	18.6	21.1	26.8	20.4	38.0	7.0	30.2
12	21.7	33.0	12.0	28.5	13.8	53.5	17.4	21.9	19.9	16.2	19.9	20.8	20.8	11.0	24.0	13.3	-5.7
2011 1	32.8	32.4	30.6	36.8	38.4	16.4	4.7	35.3	41.4	42.7	54.7	40.2	33.0	16.0	16.8	27.4	16.7
2	17.1	19.6	-1.8	14.2	28.1	14.5	10.0	22.8	3.4	40.2	31.2	17.3	26.5	33.6	38.9	-0.5	-32.2
3	27.9	25.0	21.9	26.9	37.9	7.9	27.7	45.7	6.2	58.6	65.7	38.8	22.5	63.7	32.7	9.7	-11.6
4	24.4	11.6	20.0	25.8	24.8	13.3	3.4	41.9	18.0	9.8	36.7	39.8	29.0	41.5	39.7	11.1	11.6
5	30.0	28.5	26.5	30.6	34.5	11.8	33.3	30.7	24.1	27.9	48.2	44.3	31.2	33.8	30.8	27.3	42.4
6	27.3	22.4	15.5	29.1	20.5	-9.5	9.9	58.6	18.7	46.2	56.0	32.5	25.6	56.4	24.0	-4.6	26.1
7	25.0	17.5	27.0	21.3	10.3	-28.0	7.3	54.5	22.8	1.8	15.8	37.0	42.9	49.7	16.9	1.4	38.1
8	28.7	31.7	42.3	21.3	37.7	0.4	13.3	30.9	16.0	47.4	66.2	38.5	60.8	41.6	35.9	2.4	24.7
9	29.3	18.1	26.4	32.2	63.9	-11.7	2.8	42.7	22.7	7.7	73.4	44.0	16.8	31.9	24.4	19.8	75.4

▣ 어음부도율

단위 :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9	0.14	0.10	0.50	0.44	0.36	0.81	0.24	0.39	0.90	0.17	0.45	0.32	0.46	0.24	0.43	0.65	0.34
2010	0.15	0.12	0.81	0.35	0.36	0.56	0.20	0.13	0.26	1.85	0.43	0.17	0.49	0.14	0.47	0.36	0.28
2009 Ⅳ	0.10	0.07	0.18	0.22	0.15	0.48	0.13	0.22	0.94	0.13	0.44	0.30	0.33	0.24	0.14	0.36	0.34
2010 Ⅰ	0.14	0.12	0.37	0.22	0.78	0.34	0.23	0.21	0.31	0.11	0.39	0.16	0.66	0.17	0.45	0.49	0.26
Ⅱ	0.16	0.14	0.60	0.39	0.20	1.18	0.15	0.08	0.32	0.13	0.63	0.18	0.52	0.12	0.47	0.29	0.25
Ⅲ	0.17	0.16	0.30	0.36	0.28	0.29	0.08	0.25	0.24	3.94	0.26	0.20	0.39	0.12	0.76	0.21	0.27
Ⅳ	0.15	0.13	0.26	0.34	0.26	0.25	0.11	0.05	0.19	6.31	0.30	0.13	0.42	0.10	0.73	0.29	0.26
2011 Ⅰ	0.12	0.10	0.68	0.38	0.31	0.24	0.12	0.02	0.20	2.65	0.43	0.13	0.31	0.09	0.20	0.39	0.34
Ⅱ	0.11	0.07	1.70	0.41	0.28	0.42	0.30	0.02	0.20	2.65	0.43	0.14	0.32	0.13	0.21	0.44	0.32
Ⅲ	0.11	0.07	1.67	0.43	0.30	0.48	0.33	0.06	0.19	0.25	0.58	0.18	0.34	0.13	0.21	0.50	0.27
2009 10	0.11	0.09	0.12	0.24	0.12	0.33	0.09	0.29	0.80	0.07	0.56	0.20	0.36	0.21	0.23	0.26	0.30
11	0.18	0.13	0.81	0.37	0.20	0.46	0.07	0.42	1.44	0.19	0.31	0.45	0.21	0.30	0.23	0.55	0.51
12	0.14	0.12	0.31	0.23	0.15	0.32	0.08	0.26	0.54	0.18	0.20	0.40	0.26	0.35	0.26	0.44	0.23
2010 1	0.15	0.12	0.33	0.14	2.04	0.35	0.11	0.11	0.32	0.07	0.39	0.09	0.92	0.16	0.27	0.59	0.06
2	0.16	0.15	0.38	0.18	0.18	0.26	0.34	0.27	0.28	0.16	0.37	0.29	0.27	0.19	0.32	0.39	0.49
3	0.11	0.09	0.40	0.34	0.12	0.42	0.24	0.24	0.33	0.09	0.41	0.10	0.80	0.17	0.75	0.48	0.23
4	0.15	0.13	0.50	0.32	0.10	2.15	0.14	0.13	0.24	0.11	0.64	0.11	1.09	0.06	0.31	0.27	0.23
5	0.15	0.14	0.91	0.40	0.15	0.65	0.09	0.11	0.22	0.16	0.75	0.19	0.20	0.16	0.55	0.20	0.22
6	0.17	0.16	0.39	0.44	0.36	0.74	0.21	0.01	0.49	0.11	0.50	0.24	0.27	0.15	0.54	0.39	0.30
7	0.17	0.16	0.43	0.35	0.24	0.38	0.04	0.62	0.29	0.22	0.23	0.30	0.33	0.15	0.25	0.12	0.23
8	0.20	0.17	0.29	0.40	0.27	0.30	0.08	0.12	0.20	11.44	0.30	0.22	0.58	0.16	1.81	0.21	0.31
9	0.15	0.15	0.19	0.32	0.33	0.18	0.13	0.02	0.22	0.17	0.24	0.09	0.26	0.06	0.21	0.29	0.26
10	0.09	0.06	0.30	0.31	0.17	0.26	0.13	0.01	0.15	7.32	0.36	0.07	0.43	0.07	0.17	0.38	0.21
11	0.13	0.10	1.54	0.52	0.44	0.28	0.10	0.03	0.24	0.47	0.68	0.22	0.25	0.14	0.22	0.50	0.55
12	0.12	0.06	3.26	0.41	0.22	0.71	0.67	0.03	0.20	0.16	0.24	0.13	0.29	0.19	0.24	0.44	0.21
2011 1	0.07	0.06	0.21	0.36	0.23	0.46	0.21	0.12	0.12	0.13	0.83	0.2	0.48	0.07	0.18	0.55	0.05
2	0.08	0.07	0.23	0.32	0.16	0.27	0.14	0.09	0.09	0.08	0.15	0.17	0.36	0.1	0.17	0.34	0.11
3	0.11	0.09	0.34	0.22	0.13	0.36	0.66	0.1	0.18	0.02	0.99	0.87	0.24	0.03	0.17	0.26	0.18
4	0.29	0.15	0.31	0.32	0.42	6.7	20.93	0.18	0.18	0.12	0.27	0.10	0.21	0.08	0.11	0.2	0.44
5	0.11	0.10	0.26	0.35	0.09	0.67	0.33	0.04	0.24	0.09	0.19	0.12	0.23	0.39	0.07	0.46	0.20
6	0.21	0.21	0.25	0.24	0.1	0.56	0.22	0.03	0.16	0.35	0.22	0.12	0.26	0.13	0.14	0.27	0.14
7	0.08	0.07	0.19	0.15	0.16	0.42	0.32	0.08	0.16	1.27	0.23	0.19	0.22	0.14	0.29	0.20	0.19
8	0.04	0.03	0.15	0.17	0.1	0.97	0.22	0.25	0.27	0.05	0.12	0.18	0.25	0.17	0.21	0.26	0.27
9	0.05	0.04	0.15	0.29	0.08	0.73	0.28	0.08	0.13	0.13	0.15	0.28	0.1	0.07	0.28	0.32	0.18

자료 : 한국은행(부도금액 기준, 전자결제 조정전)

단위 : 전년동기 대비(%포인트)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9	-0.01	-0.01	-0.36	-0.13	0.03	-0.02	-0.12	0.24	0.54	-0.03	-0.09	-0.34	-0.19	-0.08	0.16	-0.42	-0.19
2010	0.01	0.02	0.30	-0.08	0.00	-0.23	-0.05	-0.24	-0.62	1.68	-0.02	-0.14	0.04	-0.10	0.06	-0.27	-0.06
2009 Ⅲ	0.01	0.00	-0.15	-0.46	-0.14	0.01	-0.07	0.04	0.68	-0.09	-0.02	-0.46	-0.16	-0.06	-0.05	-0.21	-0.19
Ⅳ	-0.07	-0.04	-0.73	-0.74	-0.26	-0.57	-0.38	-0.05	0.36	-0.15	-0.52	-0.92	-0.26	-0.10	-0.41	-0.79	-0.56
2010 Ⅰ	-0.05	-0.01	-0.50	-0.56	0.27	-0.56	-0.19	-0.45	-0.57	-0.06	-0.06	-0.28	0.04	-0.14	-0.18	-0.62	-0.12
Ⅱ	0.01	0.05	0.12	-0.05	-0.39	-0.13	-0.13	-0.24	-0.44	-0.11	0.00	-0.01	0.00	-0.03	-0.21	-0.33	-0.04
Ⅲ	0.08	0.10	0.03	0.13	0.10	-0.28	-0.11	0.09	-0.72	3.81	-0.11	-0.07	0.00	-0.09	0.65	-0.16	-0.08
Ⅳ	0.00	0.01	-0.15	0.06	0.10	-0.12	0.03	-0.27	-0.74	6.16	-0.06	-0.22	0.15	-0.19	0.49	-0.12	-0.09
2011 Ⅰ	-0.02	-0.02	0.31	0.16	-0.47	-0.10	-0.11	-0.19	-0.11	2.55	0.04	-0.03	-0.35	-0.08	-0.25	-0.10	0.08
Ⅱ	-0.04	-0.07	1.10	0.03	0.07	-0.76	0.15	-0.06	-0.12	2.52	-0.20	-0.04	-0.20	0.01	-0.26	0.15	0.07
Ⅲ	-0.07	-0.09	1.37	0.07	0.02	0.20	0.24	-0.19	-0.05	-3.69	0.33	-0.02	-0.05	0.01	-0.54	0.29	0.00
2009 11	0.03	0.03	-0.18	-0.45	-0.11	-0.08	-0.20	-0.02	0.87	-0.17	-0.68	-0.95	-0.23	-0.01	-0.33	-0.53	-0.44
12	-0.06	-0.01	-0.73	-0.88	-0.40	-1.79	-0.80	0.05	-0.20	-0.09	-0.28	-0.77	-0.52	-0.18	-0.39	-1.19	-0.47
2010 1	-0.02	-0.01	-0.52	-0.68	1.60	-0.19	-0.25	-0.91	-0.03	-0.11	-0.20	-0.35	0.40	-0.18	-0.19	-0.18	-0.34
2	-0.04	0.00	-0.44	-0.60	-0.45	-0.55	-0.23	-0.30	-0.07	0.01	0.02	-0.27	-0.17	-0.09	-0.05	-1.01	0.23
3	-0.09	-0.01	-0.54	-0.41	-0.34	-0.92	-0.10	-0.15	-1.61	-0.10	0.00	-0.22	-0.10	-0.13	-0.31	-0.68	-0.24
4	-0.01	0.02	-0.09	-0.19	-0.28	-0.09	-0.09	-0.11	-0.29	-0.34	0.13	-0.09	0.49	-0.12	-0.79	-0.57	-0.09
5	-0.02	0.00	0.51	0.06	-0.28	0.09	-0.28	0.00	-0.39	0.04	0.51	0.06	-0.20	0.05	0.02	-0.17	-0.11
6	0.07	0.12	-0.05	-0.01	-0.61	-0.38	-0.03	-0.61	-0.65	-0.03	-0.63	0.00	-0.30	-0.02	0.13	-0.24	0.07
7	0.08	0.11	0.03	0.09	0.03	-0.23	-0.26	0.50	-0.56	0.15	-0.13	0.17	-0.21	0.03	0.13	-0.15	-0.09
8	0.10	0.10	0.05	0.16	0.10	-0.48	-0.13	-0.10	-0.54	11.29	-0.11	-0.09	0.17	0.06	1.69	-0.16	-0.13
9	0.05	0.09	0.01	0.14	0.17	-0.14	0.05	-0.14	-1.07	0.00	-0.10	-0.30	0.05	-0.36	0.14	-0.17	-0.03
10	-0.02	-0.03	0.18	0.07	0.05	-0.07	0.04	-0.28	-0.65	7.25	-0.20	-0.13	0.07	-0.14	-0.06	0.12	-0.09
11	-0.05	-0.03	0.73	0.15	0.24	-0.18	0.03	-0.39	-1.20	0.28	0.37	-0.23	0.04	-0.16	-0.01	-0.05	0.04
12	-0.02	-0.06	2.95	0.18	0.07	0.39	0.59	-0.23	-0.34	-0.02	0.04	-0.27	0.03	-0.16	-0.02	0.00	-0.02
2011 1	-0.08	-0.06	-0.12	0.22	-1.81	0.11	0.10	0.01	-0.20	0.06	0.44	0.11	-0.44	-0.09	-0.09	-0.04	-0.01
2	-0.08	-0.08	-0.15	0.14	-0.02	0.01	-0.20	-0.18	-0.19	-0.08	-0.22	-0.12	0.09	-0.09	-0.15	-0.05	-0.38
3	0.00	0.00	-0.06	-0.12	0.01	-0.06	0.42	-0.14	-0.15	-0.07	0.58	0.77	-0.56	-0.14	-0.58	-0.22	-0.05
4	0.14	0.02	-0.19	0.00	0.32	4.55	20.79	0.05	-0.06	0.01	-0.37	-0.01	-0.88	0.02	-0.20	-0.07	0.21
5	-0.04	-0.04	-0.65	-0.05	-0.06	0.02	0.24	-0.07	0.02	-0.07	-0.56	-0.07	0.03	0.23	-0.48	0.26	-0.02
6	0.04	0.05	-0.14	-0.20	-0.26	-0.18	0.01	0.02	-0.33	0.24	-0.28	-0.12	-0.01	-0.02	-0.40	-0.12	-0.16
7	-0.09	-0.09	-0.24	-0.20	-0.08	0.04	0.28	-0.54	-0.13	1.05	0.00	-0.11	-0.11	-0.01	0.04	0.08	-0.04
8	-0.16	-0.14	-0.14	-0.23	-0.17	0.67	0.14	0.13	0.07	-11.39	-0.18	-0.04	-0.33	0.01	-1.60	0.05	-0.04
9	-0.10	-0.11	-0.04	-0.03	-0.25	0.55	0.15	0.06	-0.09	-0.04	-0.09	0.19	-0.16	0.01	0.07	0.03	-0.08

▣ 예금은행 예금

단위 : 십억 원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9		751,273	403,096	41,827	26,009	24,456	12,519	17,756	10,426	105,996	10,453	10,167	12,711	13,341	12,791	17,519	27,462	4,745
2010		873,891	484,568	48,584	29,739	26,324	13,859	20,509	11,708	118,623	11,417	11,318	14,374	15,105	13,303	19,368	29,708	5,383
2009	Ⅲ	735,366	386,728	42,464	26,322	24,344	12,023	18,556	10,108	104,175	10,605	10,317	12,907	13,561	12,753	17,972	27,868	4,665
	Ⅳ	751,273	403,096	41,827	26,009	24,456	12,519	17,756	10,426	105,996	10,453	10,167	12,711	13,341	12,791	17,519	27,462	4,745
2010	Ⅰ	792,911	435,689	42,197	26,536	25,251	12,683	19,201	10,365	108,074	11,036	10,570	12,999	14,280	12,986	18,254	27,759	5,033
	Ⅱ	821,684	453,314	43,613	27,433	25,711	12,881	20,336	10,577	111,331	11,300	10,834	13,568	14,924	13,556	18,718	28,428	5,161
	Ⅲ	848,029	468,035	46,522	28,527	26,212	13,297	20,663	10,912	116,227	11,455	10,966	13,795	15,067	13,313	19,032	28,640	5,364
	Ⅳ	858,089	474,175	47,147	28,996	26,420	13,420	20,855	11,045	117,638	11,524	11,077	14,034	15,131	13,341	19,110	28,801	5,374
2011	Ⅰ	868,230	481,196	47,563	29,408	26,568	13,530	20,993	11,185	118,901	11,508	11,170	14,205	15,144	13,394	19,102	28,994	5,369
	Ⅱ	875,199	486,499	47,924	29,601	26,577	13,662	20,881	11,369	119,196	11,489	11,251	14,327	15,151	13,353	19,219	29,326	5,374
	Ⅲ	876,405	486,199	48,489	29,879	26,473	13,735	20,796	11,563	119,113	11,470	11,309	14,424	15,175	13,433	19,322	29,615	5,409
2009	11	747,500	402,295	41,556	25,812	24,122	12,047	17,696	9,995	105,316	10,332	10,033	12,739	13,351	12,632	17,537	27,312	4,726
	12	751,273	403,096	41,827	26,009	24,456	12,519	17,756	10,426	105,996	10,453	10,167	12,711	13,341	12,791	17,519	27,462	4,745
2010	1	774,428	424,711	41,900	26,310	23,783	12,625	17,903	10,209	106,625	10,669	10,196	12,616	13,653	13,019	17,694	27,644	4,872
	2	792,552	434,688	42,521	26,658	25,273	12,709	18,680	10,379	108,172	11,005	10,594	13,374	14,195	13,072	18,327	27,908	4,999
	3	792,911	435,689	42,197	26,536	25,251	12,683	19,201	10,365	108,074	11,036	10,570	12,999	14,280	12,986	18,254	27,759	5,033
	4	801,375	438,551	42,962	27,159	25,382	12,661	19,893	10,438	108,890	11,246	10,707	13,456	14,834	13,633	18,308	28,166	5,089
	5	826,075	458,143	43,434	27,256	25,492	12,855	20,215	10,506	111,434	11,320	10,868	13,670	14,837	13,677	18,781	28,473	5,117
	6	837,603	463,247	44,444	27,884	26,260	13,128	20,901	10,787	113,669	11,334	10,926	13,577	15,100	13,357	19,066	28,646	5,277
	7	841,492	466,073	45,457	28,038	26,028	13,135	20,486	10,689	114,765	11,304	10,888	13,552	14,972	13,270	18,959	28,549	5,327
	8	849,612	469,371	46,608	28,383	26,312	13,295	20,660	10,889	116,178	11,586	10,937	13,823	15,147	13,245	19,119	28,659	5399.4
	9	852,983	468,661	47,500	29,161	26,297	13,462	20,844	11,158	117,739	11,474	11,074	14,010	15,082	13,425	19,018	28,712	5,365
	10	871,671	484,493	47,333	29,445	26,652	13,503	21,062	11,088	118,996	11,512	11,221	14,268	15,164	13,354	19,192	29,031	5,357
	11	880,035	490,434	47,856	29,619	26,754	13,625	21,073	11,310	119,969	11,538	11,215	14,338	15,184	13,403	19,095	29,238	5,383
	12	873,891	484,568	48,584	29,739	26,324	13,859	20,509	11,708	118,623	11,417	11,318	14,374	15,105	13,303	19,368	29,708	5,383
2011	1	875,289	483,595	49,027	30,278	26,341	13,721	20,808	11,671	118,748	11,457	11,394	14,561	15,236	13,593	19,502	29,898	5,460
	2	891,530	492,042	50,004	30,638	27,222	14,194	21,431	11,625	120,523	11,961	11,868	14,829	15,648	14,039	19,786	30,134	5,586
	3	890,656	486,369	50,745	30,384	27,491	14,335	22,308	11,505	122,371	12,272	11,954	15,014	15,785	14,124	20,087	30,290	5,625
	4	897,086	488,183	51,812	30,997	27,379	14,401	22,654	11,642	123,342	12,207	12,071	15,141	15,966	14,320	20,276	30,853	5,841
	5	898,463	486,636	52,196	30,941	27,628	14,466	22,937	11,730	123,272	12,455	12,195	15,477	16,115	14,351	20,795	31,182	6,086
	6	908,396	491,283	52,077	31,584	28,018	14,838	23,157	12,056	125,613	12,582	12,447	15,337	16,270	14,254	21,219	31,585	6,076
	7	914,146	497,133	52,678	31,766	27,567	14,892	23,020	12,085	125,225	12,570	12,257	15,344	16,119	14,382	21,171	31,882	6,057
	8	921,067	501,493	52,917	31,652	27,676	14,807	23,311	12,446	125,626	12,847	12,475	15,783	16,267	14,382	21,329	31,903	6,154
	9	927,486	504,756	53,280	32,327	27,739	14,896	23,671	12,406	127,479	12,807	12,417	15,799	16,375	14,304	21,309	31,883	6,039

자료 : 한국은행

단위 :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9	11.3	15.6	10.9	6.1	7.9	11.0	7.9	5.1	10.5	-1.0	1.0	1.8	2.9	2.6	-0.6	1.4	-0.1
2010	16.3	20.2	16.2	14.3	7.6	10.7	15.5	12.3	11.9	9.2	11.3	13.1	13.2	4.0	10.6	8.2	13.4
2009 Ⅲ	13.8	17.0	18.4	13.3	10.5	17.6	15.7	6.7	14.0	-1.3	1.5	3.6	4.0	2.6	3.9	5.8	-0.7
Ⅳ	11.3	15.6	10.9	6.1	7.9	11.0	7.9	5.1	10.5	-1.0	1.0	1.8	2.9	2.6	-0.6	1.4	-0.2
2010 Ⅰ	15.3	21.4	9.2	7.7	11.7	10.3	11.0	6.1	10.4	8.4	5.8	3.7	9.0	8.2	5.3	4.1	8.0
Ⅱ	16.0	21.6	7.6	7.7	10.9	10.1	12.4	5.8	11.2	10.9	8.9	8.6	12.8	15.6	7.8	5.2	14.1
Ⅲ	15.3	21.0	9.6	8.4	7.7	10.6	11.4	8.0	11.6	8.0	6.3	6.9	11.1	4.4	5.9	2.8	15.0
Ⅳ	14.2	17.6	12.7	11.5	8.0	7.2	17.5	5.9	11.0	10.2	9.0	10.4	13.4	4.3	9.1	4.9	13.3
2011 Ⅰ	9.5	10.4	12.7	10.8	5.2	6.7	9.3	7.9	10.0	4.3	5.7	9.3	6.0	3.1	4.6	4.4	6.7
Ⅱ	6.5	7.3	9.9	7.9	3.4	6.1	2.7	7.5	7.1	1.7	3.9	5.6	1.5	-1.5	2.7	3.2	4.1
Ⅲ	3.3	3.9	4.2	4.7	1.0	3.3	0.6	6.0	2.5	0.1	3.1	4.6	0.7	0.9	1.5	3.4	0.8
2009 11	10.6	15.3	10.3	7.1	5.8	13.3	3.5	3.7	10.4	-5.4	-3.1	1.9	0.4	-2.2	-0.5	0.0	-3.6
12	11.3	15.6	10.9	6.1	7.9	11.0	7.9	5.1	10.5	-1.0	1.0	1.8	2.9	2.6	-0.6	1.4	-0.2
2010 1	15.0	22.0	11.5	7.5	7.2	12.3	6.1	5.7	11.1	3.8	2.3	1.3	4.8	6.0	1.5	2.3	2.2
2	14.3	20.5	10.3	7.2	12.4	11.2	7.9	7.3	9.3	5.2	4.2	3.6	6.0	6.7	2.4	1.7	6.8
3	15.3	21.4	9.2	7.7	11.7	10.3	11.0	6.1	10.4	8.4	5.8	3.7	9.0	8.2	5.3	4.1	8.0
4	15.3	20.7	8.2	9.1	10.0	15.4	12.2	8.5	10.1	10.6	9.4	7.3	12.7	10.3	5.9	5.5	11.0
5	18.2	25.1	9.0	8.5	9.7	16.5	15.2	10.5	12.8	9.8	9.6	9.7	12.2	8.6	9.3	5.7	9.8
6	18.2	24.2	9.6	9.4	13.3	12.2	15.5	7.9	13.5	11.2	9.9	8.7	14.1	13.9	9.8	6.0	16.7
7	19.9	25.3	13.7	12.5	11.9	15.1	17.1	9.9	16.3	13.4	11.8	10.8	17.1	13.7	11.4	8.4	19.7
8	18.4	23.5	13.2	12.1	12.0	13.3	14.3	11.5	14.6	14.6	11.0	9.5	16.4	11.3	9.6	6.4	17.4
9	16.0	21.2	11.9	10.8	8.0	12.0	12.3	10.4	13.0	8.2	7.3	8.5	11.2	5.3	5.8	3.0	15.0
10	17.8	22.9	13.9	13.2	9.9	10.8	17.2	11.2	14.1	9.5	10.2	11.8	13.5	5.6	7.6	4.9	14.4
11	17.7	21.9	15.2	14.8	10.9	13.1	19.1	13.2	13.9	11.7	11.8	12.6	13.7	6.1	8.9	7.1	13.9
12	16.3	20.2	16.2	14.3	7.6	10.7	15.5	12.3	11.9	9.2	11.3	13.1	13.2	4.0	10.6	8.2	13.4
2011 1	13.0	13.9	17.0	15.1	10.8	8.7	16.2	14.3	11.4	7.4	11.8	15.4	11.6	4.4	10.2	8.2	12.1
2	12.5	13.2	17.6	14.9	7.7	11.7	14.7	12.0	11.4	8.7	12.0	10.9	10.2	7.4	8.0	8.0	11.8
3	12.3	11.6	20.3	14.5	8.9	13.0	16.2	11.0	13.2	11.2	13.1	15.5	10.5	8.8	10.0	9.1	11.8
4	11.9	11.3	20.6	14.1	7.9	13.7	13.9	11.5	13.3	8.5	12.7	12.5	7.6	5.0	10.7	9.5	14.8
5	8.8	6.2	20.2	13.5	8.4	12.5	13.5	11.6	10.6	10.0	12.2	13.2	8.6	4.9	10.7	9.5	18.9
6	8.5	6.1	17.2	13.3	6.7	13.0	10.8	11.8	10.5	11.0	13.9	13.0	7.7	6.7	11.3	10.3	15.2
7	8.6	6.7	15.9	13.3	5.9	13.4	12.4	13.1	9.1	11.2	12.6	13.2	7.7	8.4	11.7	11.7	13.7
8	8.4	6.8	13.5	11.5	5.2	11.4	12.8	14.3	8.1	10.9	14.1	14.2	7.4	8.6	11.6	11.3	14.0
9	8.7	7.7	12.2	10.9	5.5	10.6	13.6	11.2	8.3	11.6	12.1	12.8	8.6	6.5	12.0	11.0	12.6

계간 **지역경제**
Regional Economic Trends 제7권 제4호(통권 제26호)

2011년 12월 28일 인쇄
2011년 12월 30일 발행

등록일 2005년 9월 6일
등록번호 서울 바 03386

발행인 송병준
편집인 하병기
발행처 **산업연구원**
주 소 130-74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66
전 화 02-3299-3114
인쇄처 평강기획인쇄

ISSN 1738-8198

보급가 : 5,000원
구독문의 : 자료·편집팀(02-3299-3151)

Regional Economic Trends

December 2011 / Vol. 7 No. 4

KIET 산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130-74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66
Tel : 3299-3114 / Fax : 963-8540
www.kiet.re.kr

9 771738 819806 26
ISSN 1738-8198